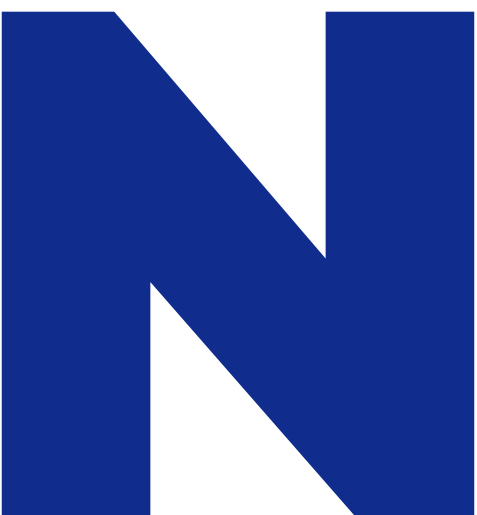


2021

오픈 작품집
쇼폼

김다영, 김희진, 오혜원, 이민주
이보영, 임수림, 최보은, 홍성연
황설현



N

2021

오픈 작품집
숏폼

7	견마마	김다영
63	굿바이, 티처	김희진
115	하나 둘 셋	오혜원
177	로맨스의 절대값	이민주
231	킬링타임 스토리	이보영
291	남편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임수림
347	쌈카인다	최보윤
401	XXXXY	홍성연
461	저승라이더	황설현

견(犬)마마 — 김다영

기획의도

춤을 출 수 있고 희롱을 한다.

사람의 부추김에 따라서 재주를 보이며 논다.

때문에 호인(胡人)들은 간혹 품에 품고 다니고 방 안에서 키운다.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주인이 없으면 그것을 지키며 감히 훔쳐 먹지 않는다.

개 중 특이한 종류이다.

나도 시험 삼아 얻어서 키워봤는데 그 품성과 행동이 들은 바와 같았다.

-조선 실학자 이규경의 「침계방구변증설(枕鷄房狗辨證說)」中

바야흐로 반력전 천만 시대. 귀엽고 무해하며, 받은 사랑을 곱절로 되돌려주는
그 존재들을 우리는 언제나 사랑해왔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 이야기는 평민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조선시대,

개에 미쳐 있던 한 초짜 사또의 지극히 사적인 영웅담이다.

나의 개를 사랑하기에 그 개가 발 디디고 선

이 세상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어느 평범한 영웅의 고백.

그 평범하되 거대한, 거대하되 평범한 사랑의 계기가 오늘도 여러 차별들 속에
상처받은 당신의 심장에 날아가 박혀 따스한 위로가 되어주길 바란다.

당신은 언제나 내게 귀엽고 무해하며, 받은 사랑을 곱절로 되돌려준,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기에.

등장인물

김단(25세, 남) 초짜 사또

인간 같은 개 앵두를 모시고 사는 한량 선비.

허나 알고 보면 한량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사내.

평생을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아버지 김창신으로부터 혹독한 훈육을 받아야
했다. 훗날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도구가 되기 위해서.

허나 옳을 줄 아는 글월이 늘어갈수록, 아버지의 회초리질이 심해질수록,
늘어나는 건 반항이요, 별채 밖 세상을 향한 궁금증뿐이었다.

아버지의 도구로 사느니, 차라리 개 키우며 사는 필부가 되련다.
다짐한 그가 천신만고 끝에 가축을 감행해 맞닥뜨린 또 다른 세상, 구담골.
헌데 그곳의 모든 것이 내 반려견의 목숨을 위협한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앵두를 위한 고을 환경 개선에 나선 김단.
그런데 자꾸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나, 왜 점점 칭송받는 사또가 되어가는 거니, 대체 왜?!

신아랑(21세, 여) 구담골 자경단

개같이 천대받는 구담골 백성들을 돌보며 살아온 냉철한 무사.
15년 전, 구담골의 사또였던 아버지가 실종된 뒤 그를 대신해 오래된 망령처럼
이 고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구담골로 부임해 오는
사또들의 속내란 언제나 더럽기 마련이어서, 그녀는 오늘도 칼을 빼든다.
진정한 사또가 찾아오는 그 날까지 베고, 또 베겠다는 일념 하에.

앵두(2세, 여) 김단의 반려견

청에서 들여온 귀하다귀한 혈통의 말티즈.
귀여운 외모에 앙칼진 성질머리를 지녔다.

김창신(54세, 남) 우의정

김단의 아버지이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조선 최고의 권력가.
하나 그에겐 아직 이루지 못한 원대한 꿈이 있다.
그 꿈이란 바로 조선을 왕이 아닌, 사대부를 위한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것!

신국헌(52세, 남) 전직 구담골 사또

아랑의 아버지이자 청렴결백한 관리였던 선비.
15년 전, 한양에서 어린 세자가 납치되는 모습을 목격한 뒤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왕(45세, 남) 훗날 선종

누구보다 강대한 왕권을 꿈꿨으나,
15년 전 유일한 후계자인 세자를 잃게 되며 실의에 빠진 임금.

박석치(21세, 남) 아전

아랑을 따르는 구담골 사람들 중 행동대장 격으로, 아랑의 명에 의해 김단을 감시하게 되지만 서서히 그의 재력과 능력에 감화되고 만다.

박낙치(20세, 남) 구담골 자경단

석치의 동생이자 마찬가지로 아랑을 따르는 수하.
우락부락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귀여운 거라면 사족을 못 쓴다.
덕분에 구담골에서 앵두의 극성 팬 1호가 되고 만다.

즐거리

이 이야기는 조선판 라푼젤에 대한 기록이다.

물론 이 라푼젤은 똑똑한 개구리가 아닌 영악한 반려견 앵두를 기르고,
기나긴 머리로 상투를 틀며, 다리가 셋 달린 아주 건장한 사내라는 점이 다를 뿐.

때는 동궁전의 화재로 유일한 왕실의 후계였던 어린 세자가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죽었다 알려진 후로 15년이 흐른 뒤. 어느새 조선 왕실은 실의에 빠진 임금을 대신해 국정 운영에 나선 우의정 김창신의 손아귀에 떨어진 지 오래인데. 저잣거리를 떠도는 기묘한 소문 하나. 김창신 대감댁 별채에 꽃 같은 도령이 숨어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소문 속 도령 김단은 오늘도 아버지 김창신 대감의 가르침을 따라 외느라 정신이 없다.

“조선은 사대부를 위한 나라다. 백성이 다 귀하면 필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을 터.”

하지만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별채 밖 세상을 향한 김단의 궁금증은 커져갈 뿐이고. 급기야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가출을 시도하는 김단.

모아둔 용돈을 다 털어 산간벽지 구담골의 사또 자리를 사들이기에 이르는데…!

“꿈은 없고요. 그냥 우리 앵두와 놀고 싶은 뿐입니다.”

달리고 달려 도착한 구담골. 헌데 이게 어인 일?! 부임 첫날부터 살인사건에 휘말리다니…! 심지어 그 피해자가 행방불명된 줄 알았던 이전 사또였다니…!

그 무시무시한 살인 행각의 범인이라는 아랑을 보며, 김단은 굳게 다짐한다. 고을 일은 모두 아랑 소저 뜻대로, 자신은 그저 개만 돌보는 바지 사또가 되자고. 하지만 그토록 그리던 개아범으로 놓고먹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앵두 먹일 식사를 구하자니 보릿고개요, 앵두의 건강을 해치는 진드기가 사방천지에 널려 있는 게 아닌가!

결국 두 팔 걷어붙인 채 앵두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 김단. 사사건건 감시와 훼방을 놓는 아랑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학연·지연·혈연을 동반한 견(犬)생 안정에 도전하는데... 이게 무슨 일?! 앵두에게 먹이려 심었던 고구마가 식량난 해결의 일등공신이 되고, 앵두의 건강을 위해 밀어붙였던 청결수당이 고작 씻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던 소문과 함께 널리 퍼지며 괴질 예방의 한 수가 되고 만다.

덕분에 의도치 않게 구담골 민생 안정에 최초로 도달하고 만 사또 김단! 살벌한 아랑 소저의 인정까지 받아내며 그녀와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게 되지만... 한껏 부풀어 오른 연모의 정이 채 익기도 전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다! 아랑의 아버지가 기억해내고 만 것이다. 15년 전, 동궁전 화재 사건 때 정체 모를 사내들에게 안겨 궁궐을 빠져나오던 어린아이의 모습과 그 아이의 손등에 나 있던 화상자국을. 그리고 그 아이와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화상을 입은 채로 장성한 김단의 얼굴 속 어렴풋이 녹아 있는 임금의 용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내가 어찌 왕이 될 상이오?!”

그제야 왜 아버지가 자신을 별체에 감금한 채 길러왔는지 알게 된 김단. 도무지 자신이 15년 전 죽었다는 세자임을 믿을 수 없는데. 연이어 들려온 임금의 승하 소식에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고. 임금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어 혼란스러워하는 조정 대신들 앞에 김창신은 자신이 준비해온 신의 한 수를 꺼내 보인다. 이런 날이 기필코 올 줄 알고, 우리 입맛에 꼭 맞는 새로운 조선의 임금을 훈육시켜왔노라고. 그리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구담골에 이어 조선 팔도 민생 안정에까지 도전하게 된 김단, 아니 임금 이단. 그는 어좌에 오르며 임금이 되고 만 아찔한 심정을 이리 토로했다고 전해진다.

“나 평범한 개아범으로 돌아갈래!!!”

1회 견(犬)마마 납시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산골벽지 구담골에 부임한 초짜 사또 김단.
가진 건 돈뿐이오, 아는 건 개 키우는 법뿐이라. 그를 탐관오리로 단단히
오해한 아랑은 숨겨둔 칼을 겨누며 묻는다. 그냥 돌아갈래, 죽어서 돌아갈래?

2회 얼떨결에 영웅

구담골 돌보는 전권을 아랑에게 자진반납한 채 목숨을 부지한 김단.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한다. 식량난이라니! 그럼 우리 앵두 먹일 밥은?!
부랴부랴 고구마라도 심어보는 김단. 헌데 본격적으로 수확의 단꿈에
젖어보기도 전에 아버지의 수하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자신이 심은 고구마
하나가 불러올 고구마 풍년의 미래도 알지 못한 채, 김단은 납치되고 마는데...

3회 고구마꽃 필 무렵

흔적도 없이 사라진 김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구담골. 이대로 그를 잊자니
그가 불러온 고구마 풍년을 수습하기가 힘들고, 기어코 찾아내 제대로 된 사또로
키워보자니 앞길이 막막한데. 고민에 빠진 아랑, 끝내 환상적인 수사 파트너와
함께 김단 찾기에 돌입한다. 그 파트너는 바로 개코 수사관 앵두!

4회 청결수당

아랑의 주도하에 본격 참된 사또 되기를 수업받는 김단. 허나 그사이 아랫것들의
손을 전전하다 진드기에 물려버리고 만 앵두. 그 책임을 묻고자 탐문에 나선
김단, 씻을 때마다 돈을 준다는 청결수당을 반포하기에 이르고. 그의 엉뚱한
행동에 실망한 아랑의 앞에, 떠났던 정혼자가 되돌아온다. 한양서 괴질이 퍼지고
있단 소식과 함께.

5회 이웃집 개만 알고 있던 비밀

청결수당으로 인한 후폭풍. 괴질 청정지대가 되고 만 구담골에 아랑의
정혼자마저 정착하려는 뜻을 밝히고. 그제 신경 쓰여 죽겠는 김단. 한 가지
수상한 점을 눈치챈다. 사나운 이웃집 누렁이가 왜 아랑의 정혼자에게만큼은
꼬리를 흔들어대는 걸까. 결국 김단은 아랑 몰래 충격적인 외도 현장을
급습하기에 이르는데.

6회 견마마배 미용 경진대회

어김없이 되돌아온 앵두의 미용 시기. 김단이 내건 금 한 돈을 두고 동네 아낙들 사이에선 피 튀기는 경합이 벌어지는데. 보통 사내들은 여인에게 고백할 때 어떤 옷을 입는가. 스치듯 꺼낸 김단의 물음 한 마디에 점점 변질돼가는 경합의 행방. 아낙들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차려입은 김단은 늦은 밤 아랑의 초가로 향하는데.

7회 그녀의 카밍시그널

뺨 하고 차여버린 김단. 결혼할 남자는 필요해도 연애할 남자는 필요치 않다니! 상심한 김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앵두의 이상행동. 그 의미를 알아내려 고군분투하던 김단은 이내 아랑의 거절에 담겨 있던 진심을 깨닫게 된다. 언젠가 떠나야 할 사람과 홀로 남겨질 사람이 사랑을 말하는 언어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단 것을.

8회 유기견, 유기된 인생

서로를 피해 다니는 김단과 아랑으로 인해 얼어붙은 구담골 관아, 유기견이 나타났다! 개 주인을 찾아 나선 김단은 반려견 등록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는데, 그 개의 모습이 유독 눈에 익은 아랑. 어린 시절 꼭 저런 개를 한 마리 사달라 아버지에게 졸랐던 것 같은데... 매일 밤 어딘가로 사라지는 개를 따라가보는 김단과 아랑, 기억을 잃은 채 노역 중이던 그녀의 아버지를 목격하게 된다.

9회 어쩌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랑의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축하할 겸 열린 구담골의 잔치 현장. 김단은 백성들의 환호에 몸 둘 바를 모르고, 어딜 가도 쏘아지는 관심에 몸을 숨긴 아랑의 초가에서 그녀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게 된다. 헌데 그 순간 돌연 눈을 뜬 아랑의 아버지가 쏟아낸 폭탄 발언! 제가 실종된 그 세자라뇨?!

10회 견(犬)마마의 두 번째 부임지는

임금의 승하 소식에 혼란스러워진 조선 왕실. 김창신은 아랑의 아버지를 다시 사또로 복권해주는 것을 빌미로 왕의 후계 김단을 한양으로 돌려보내라 제안하고. 아랑의 아버지가 구담골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던 유일무이한 목격자였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김단,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체면불고 아랑의 곁에 남을 것인가, 조선의 앞날을 위해 궁으로 향할 것인가.

견마마 김다영

1회 견(犬)마마 납시오!

#1. 한양 시전(밤)

인적이 끊긴 한양 밤거리.
푸른 도포 자락 휘날리며 숨 가쁘게 뛰어나는 김단.
유난히 불룩한 가슴팍에 무언가를 숨긴 채다.
그런 그를 바짝 추격하는 순라군들!
그때 김단의 가슴팍 속 무언가, 꿈틀거리고.
김단, 초조한 듯 주위를 살피다 재빨리 골목으로 숨어들면.

순라군1 상대는 야간 통행을 금하라는 어명을 어긴 상습 범야인(犯夜人)!

긴장을 늦추지 마라!

순라군 일동 예!

김단을 쫓아 빨빨이 골목으로 흩어지는 순라군들.

#2. 한양 시전/골목길(밤)

햇불을 든 순라군2·3, 골목길로 접어든다.
그때 저 멀리 훑날리며 멀어지는 푸른 도포 자락!
순라군2·3, 재빨리 뒤쫓아 푸른 도포 자락의 사내를 붙잡는 데 성공한다.
현데 햇불 아래 서서히 드러나는 사내의 얼굴, 김단이 아닌 순라군4다!

순라군2 자네...! 쫓으라는 범야인은 어찌고, 이려고 있는가!

순라군4 당했네... (도포 소매 걷으면)

순라군4의 팔목에 선명히 보이는 짐승의 이빨 자국!

순라군4 맹수... 그건 맹수였네...

순라군2 맹수라니?!

#3. 한양 시전 일각(밤)

순라군 의복을 걸친 채 유유히 시전을 빠져나가는 김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순라군1과 눈이 마주치고.

패랭이 깊게 눌러쓰는 김단, 고개 까딱이고는 순라군1을 스쳐지나간다.

수상함을 느낀 순라군1,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본다.

허나 김단,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고.

#4. 한양 시전/창고 앞(밤)

건물 외벽에 숨어 순라군1이 멀어져가는 모습 훑쳐보는 김단, 가슴 쓸어내린다.

김단 (나지막하게) 앵두야, 김앵두...!

김단의 부름에 골목 안쪽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무언가!

도톰한 네 개의 흰 발과 번뜩이는 송곳니를 지닌 맹수, 말티즈 앵두고!

김단 (앵두 끌어안고 뽀뽀하며) 잘했어! 오늘 오라비가 앵두 덕분에 살았다.

이따 고구마 잔뜩 줄게. 일단 친구들한테 인사부터 할까?

김단, 창고 문 앞으로 다가서면.

#5. 창고 안(밤)

창고 안, 자유롭게 뛰노는 강아지들 보이고.

빙 둘러앉아 그 모습을 헤벌쭉해서 바라보고 있는 선비들.

그때 창고 문 벌컥! 열리고, 일제히 문 쪽으로 돌아가는 시선.

김단과 앵두, 위풍당당하게 창고 안으로 들어서며.

김단 견마마 납시오!

박 선비 옷을 보아하니, 오늘도 한바탕하셨구먼.

(쯧쯧)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랬소. 오늘 좋은 물건이 참 많았는데.

김단 뭐요? 평소엔 다들 말린 간식 정도나 들고 오더니. 하필 오늘…!

대체 얼마나 좋은 물건이 나왔기에 그러요?

김단, 품에 안고 있던 앵두 풀어주고 박 선비 곁으로 가 앉으면.

박 선비, 뿌듯한 얼굴로 집어 드는 물건,

화려한 수가 놓인 개 목줄이다!

김단 이건…! 조 참판 댁 부인의 솜씨 아니요? 과연 수놓는 솜씨가 신기에 가까우시다더니 개 목줄까지… 어찌 이리도 귀한 물건이 나놈 장에 나왔단 말이요?

박 선비 저기 저치네 개가 워낙 크는 속도가 빨라야지.

김단, 박 선비가 가리키는 쪽 보면.

듬직한 진돗개 쓰다듬으며 둥개둥개 중인 또 다른 선비 보이고.

박 선비 새끼 때 쓰던 것인데 이젠 안 맞는다 하여 내 단박에 가져왔다네.

김단 …얼마면 되겠소? 한 냥? 두 냥?

박 선비 에이, 날 뭐로 보고.

김단 그럼 여, 열 냥?!

박 선비 …은 앵두 간식 사는 데 쓰시고. 이건 선물ियो. (목줄 건네주면)

김단 (감동) 자네…!

박 선비 내일 떠난다지 않았소. 구담골인지 구당골인지 하는 곳에.
 김단 구담골이오, 구담골! 왜 맨날 들어도 맨날 기억을 못 하지?
 박 선비 알 게 뭐요. 그런 촌구석. 자네도 참 자네요.
 남들 다 마다한다는 그 촌구석에 자진해서 가는 이유가 뭐요?
 김단 매일 서책 한 권씩 필사는 기본,
 시험을 봐서 한 글자씩 틀릴 때마다 회초리질 열 대씩.
 이거면 답이 좀 되오?
 내가 왜 집 나와 이려고 사는지?
 박 선비 크흠... 그래도 서운하구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우리 주견야견 모임의 아주 큰 손실이오.
 그리울 거요, 앵두 아범.
 김단 나도 보고 싶을 거요, 초롱이 아범.

김단과 박 선비, 작별의 악수 나누는데...
 (E) 끼이익, 열리는 창고 문! 일동, 놀라 보면.

순라군1 포박하라!
 순라군2,3 (김단에게 달려들고)
 김단 말로...! 우리 말로 하세요!!

허둥대는 김단의 머리 위로 씩워지는 검은 두건!
 시야 암전되며...

#6. 김창신 저택 전경(밤)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기와집.
 사랑채와 마당 등을 바쁘게 오가는 하인들과 아낙들 보이고.
 카메라, 바삐 움직이는 김창신 대감 덕 식솔들을 지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별채 앞에 다다르면.
 칼을 찬 무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별채 입구 보이며.

#7. 김창신 저택/별채 안(밤)

순라군들, 포박한 김단 끌고 와 두건 벗겨내고 물러나면.

김단, 킁킁 숨 몰아쉬며 겨우 눈 뜨는데...

보로 위, 좌정한 김창신의 품속에 붙잡혀 있는 강아지, 앵두!

김단 앵두야!!

김창신 이젠 아비 따윈 눈에 띄지도 않는 것이냐?

김단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소자 한 명 잡아들이자고 나라의
녹을 먹는 군졸들까지 동원하시다니요! 이번엔 또 뭘 주시겠다,
약조하셨습니까? 돈? 권력? 신분?

김창신 뭐든 주겠다, 하였지. 하나뿐인 아들이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지
오래인데, 세상 어느 부모가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한단 말이나.

김단 (빈정대며) 절 그리 아끼시는 줄 몰랐습니다, 차마. 매일 가뒤통고
기르시기에 소자를 이 집의 가축쯤으로 여기시는 줄 알았지 뭐니까?

김창신 그래. 그리 스스로를 가축쯤으로 여겨도 네놈은 할 말이 없어야지.
고작 집을 나가 돈 주고 샀다는 벼슬이 뭐? 구담골 사또? 내 모를 줄
알았더냐!!

김단 ...!

김창신 그 보잘것없는 벼슬 따위 내 알아서 적당한 놈에게 돌려주도록 할
터이니. 그동안 네놈은 이 별채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줄
알아라.

김단 따를 수 없다면. 어찌시렵니까?

김창신 가뒤통서 될 게 아니라면 아끼는 걸 뺏을 수밖에.

이 개, 나름 아끼던 것 아니었느냐?

김단 ...!!

혀를 꼴꼴 차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김창신.

앵두, 깨갱하며 김단의 품으로 도망 와 안기고.

그런 앵두를 내려다보며 어두워진 김단의 얼굴 위로.

왕(E) 벌써 십오 년이 흘렀구려.

#8. 동궁전 일각(밤)

동궁전 담장 아래, 불에 타 밀동만 남은 매화나무 보이고.

그늘진 얼굴로 매화나무를 내려다보고 있는 왕과 종전.

왕 기억나시오, 종전? 세자가 이 매화나무를 참 좋아하지 않았소.
그날 이곳에서 그리 큰불이 났는데도 여기 조그맣게 싹이 난 것 좀
보시오. 어찌면 이 나무도 세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소? (애써 웃으며 종전 보면)

종전 (시선 피하며) 부모보다 먼저 저승길로 떠난 자식을
뭐가 그리 어여빠 가슴속에 품고 산단 말입니까.
(눈물 참으며) 소첩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왕 종전…!! (하며 다가서려다 멈칫, 곁에 시립해 있던
내관 및 궁녀들에게 눈짓하면)

최 내관과 궁녀들, 물러나고.

왕, 그제야 간신히 울음을 참고 있는 종전을 달려며.

왕 어찌 그런 나약한 소릴 하시오. 세자는 죽지 않았다, 하지 않았소.
조금만 더 사람을 풀어 찾아 보면…

종전 (O.L.) 후사를 잊지 못해 종묘사직을 위협에 빠뜨린 소첩을 폐하시라,
사흘 밤낮을 그리 외쳐대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꺼내든 칼날이 끝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왕 …!

종전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사는 이는 소첩 하나로 족합니다.
전하께선 전하의 일을 하셔야지요. 세자 또한 이런 어미의 결심을
이해해줄 쥬니다… (하는데 눈물 쏟아지고)

왕 (종전을 껴안으며 남몰래 옥루(玉淚)를 삼키는데)

#9. 김창신 저택/별채 안(밤)

흰 옥판선지(고급 선지) 위로 조금씩 덧그려지는 매화나무.
붉 내려놓는 김단의 손등 위로 보이는 선명한 화상자국.

김단 있긴 한 걸까, 이 매화나무.
 그러만 보고 한 번도 보질 못했네.

이때 (E) 방문을 두드리는 인기척 들려오고.

김단 들게. (매화나무 그림 방 한구석에 밀어두면)
하인 (밥상 들고 와 내려놓으며 속삭이는) 준비를 마쳤으니,
 내일 오전 중으로 모시러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김단 고맙다 전해주게.

하인, 물러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반찬을 몇 점 주워먹는 김단.

그러다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슬쩍 문 열어보면.

#10. 김창신 저택/마당+별채 앞(낮)

대문 열리며, 김창신 대감 댁 마당으로 쏟아지는 형형색색의 기생 무리들.
김창신 댁 식솔들, 어안이 병병한 채로 기생 무리들 멀거니 보는데.
그 사이를 코웃음 치며 요염하게 걸어가는 기생들, 별채 앞에 다가와 서고.

춘삼 씩 물러들 가지 못할까!

명월 아이, 무서워라. 이래서 오늘 제대로 즐길 수나 있으려나. 큰 잔치가
 있다 해서 놀러왔는데.

춘삼 잔치라니?

김단 (버선발로 나와 맞이하며) 왜 이리 늦었어. 어서들 오시게.

명월 예, 서방님. (별채로 들어서려는데)

춘삼 (막으며, 김단에게) 대감님께 허락은 받으신 겁니까?

김단 말아야 하나? 왜? 나가 노는 게 안 된다 하셨지,
불러들어 노는 게 안 된다 하시진 않았는데? 찹찹하면 대감께
확인해보는 것도 뭐... 말리진 않겠네. 자, 그럼 들어가 보실까?

김단, 호위들 제치며 기생들 안으로 들고.
기생들, 희희낙락하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런 그들을 수상하단 듯 지켜보는 춘삼.

#11. 김창신 저택/별채 안(낮)

슬쩍 열린 방문 너머로.
“대감께 다녀오겠네”라며 덕일에게 감시 맡기곤 자리 뜨는 춘삼 보이고.

김단 (안도의 한숨 폭 쉬며 문 닫고) 됐네.
아버진 편전에 가셨을 터이니 돌아오실 때까지 만나절은 걸릴 터.
일러준 물건은? 충분히 준비해 왔고?

명월 충분하긴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죠.
이 정도 미모를 흉내 내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안 그러니, 애들아?

수줍게 웃으며 들고 있던 보따리들 하나씩 펼쳐 보이는 기생들.
보따리 속 치마저고리며, 장신구들이며... 한가득이다!
명월, 헉! 하며 놀라는 김단을 보따리 앞으로 끌고 가며.

명월 걱정 마세요. 누가 봐도 한눈에 아... 애는 날 때부터 기생이었구나,
하고 아주 완벽하게 변장시켜 드릴 터이니.

#12. 교차. 김창신 저택/별채 입구+별채 안(낮)

홀로 남아 별채 앞 지키고 있는 덕일.

이때 별채 안쪽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신음소리!

김단(E) 아...!

명월(E) 하...!

덕일, 외락 인상 찌푸리는데.

— 김창신 저택/별채 안

명월, 젓 먹던 힘을 다해 가리개용 허리띠로 김단의 허리 졸라매고.

김단 (거친 숨 몰아쉬며) 너무 조이는구나!

명월 이리 튼실하신 걸 어째요!

— 김창신 저택/별채 앞

덕일 ...조여? 튼실해? 참나. 살다 살다 별 꼬라지를 다 보네.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덕일.

차라리 잠이나 자자 싶어 문간에 기대 눈 감으면.

CUT TO

별채 안쪽에서 길 나서려는 기생들 기척에 화들짝 잠에서 깨는 덕일.

명월 수고가 많으세요. 그럼 이만.

명월을 따라 별채를 빠져나가는 기생 무리들. 그 속에 곱게 기생으로 변장한 채 딱 보기에도 수상한 나무상자 끌어안은 김단 보이고.

김단 (침 꿀꺽 삼키며 호위2 걸을 스쳐 지나는데)
 덕일 잠깐! 거기 너. 손에 든 상자는 뭐지? 아깐 못 봤는데.
 김단 (어찌지...)
 명월 화대여요. 화대. 저 상자에 가득 찰 만큼 금화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아주 뜨거운 낮이었다 하시면서.
 덕일 (짜증) 가... 어서 가라고... 안 가?!
 김단 (쭈뼛하는데)
 명월 (김단 끌고 별채 벗어나며) 이 빛, 꼭 백배로 갚으세요.
 김단 알다마다. 내 꼭 잊지 않겠소.
 우리 주건야건 모임의 큰손, 사랑이 어멈.
 명월 오늘은 명월이라니까. 앵두 아버지도 참.

#13. 나루터(낮)

수상한 나무상자 열어보는 김단.
 앵두, 킁킁대며 밖으로 나오고.
 김단, 우쭈쭈하며 앵두를 품에 안으면.
 그 모습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는 주건야건 모임 사람들.

박 선비 가서 뜻한 바 잘 이루시게.
 김단 그럼. 아주 폭 놓고먹을 생각이네.
 박 선비 에이, 짐 하나 못 챙기고 온 꼴로? 뭐라도 챙겨가야
 우리 앵두도 폭 놓고먹을 것 아닌가. 자, 이거 가져가시게.

박 선비,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 김단 앞에 내려놓으면.
 뒤따라 하나 둘씩 가져온 보따리 내어놓는 주건야건 사람들.

김단 (감동) 자네들...!
 박 선비 앵두 좋아하는 고구마하고 노잣돈이랑 이것저것, 심심치 않게
 챙겨줬네.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은가. 개 좋아하는 사람치고...

김단 ...못된 사람 없다! 고맙네, 다들. 고마워!
박 선비 호들갑은... 어서 배에 타기나 하시게.

#14. 배 위(낮)

김단과 앵두, 그리고 선물 보따리 가득 싣고 떠나는 배.
김단, 앵두 발 잡고 앵두가 직접 인사하는 양 손 흔들면.
화답하며 작별인사 건네는 주견야견 사람들.
환히 웃는 김단의 모습 뒤로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물 보이며.

#15. 구담골 내아[†]/방 안(밤)

피 묻은 병풍 걷어내는 관비들.
뒤이어 멀끔한 새 병풍, 펼쳐지고.

#16. 구담골 내아/협문(밤)

피 묻은 병풍을 들고나오는 녀치.
뒤따라 나온 석치, 협문 굳게 닫아걸고 주위 살피는데.

#17. 구담골 관아/마당(밤)

홀로 외로이 서서 담장 밖 고을 전경을 보고 있는 아랑.

석치 (다가서며) 누님, 준비 끝났습니다.

†) 조선시대, 관아 건물 중 지방 수령의 사적인 거처.

아랑 고맙구나. 괜히 나 때문에... 다들 욱봤겠어.

석치 에이, 제가 누굽니까. 이래 봐도 명색이 이 구담골 이방인데
척하면 척이죠. 너무 걱정 마십쇼. 새로 오시는 사또 나리도 감쪽같이
속으실 겁니다.

아랑 ...이번엔 어떤 이일 것 같으나.

석치 차라리 도박꾼이었음 좋겠네. 돈 구경이나 실컷 하게.

아랑 (픽 웃으며)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렇게 쓸 거면 네 감투,
나한테 하루만 빌려줘라.

석치 예...? 누님이 왜 제 자릴 탐내십니까...? 이거 돈 안 돼요.
그리고 사또 나리 오시면 제일 먼저 피해야 하실 분이 누님이면서...!

아랑 곁에 지내며 시험해보려고. 궁금하잖아. 미리 알면 대비도 되고.
전처럼 당하지는 말아야지, 안 그래?

애써 웃어 보이는 아랑.
그런 아랑을 보는 석치의 걱정스러운 얼굴 위로.

나장(E) 다들 물러서시오! 사또 나리 행차요!

#18. 구담골 저잣거리(낮)

길로나장의 지휘 아래, 저잣거리로 들어서는 사또의 부임행렬.
구담골 사람들, 황급히 길을 터고 물러서서 고개 조아리는데.
조아린 사람들의 시야로 들어서는 조그만 흰 털 뭉치, 앵두다!

일동 ?? (슬며시 고개 들어 보면)

앵두, 길로나장 곁에 나란히 서서 위풍당당 부임행렬을 이끌고.

김단 (가마에 앉은 채로) 녀석도 참... 다들 걱정 마시오.
물진 않는다오. 웬만하면.

결결 웃으며 관아로 멀어지는 김단.

실룩실룩 멀어지는 앵두의 엉덩이에서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하는
구담골 사람들.

상인 지금... 개를 데리고 온 거?

아낙 누가 개를 저리 길러. 자고로 개는 이리 길러야지.

아낙, 들고 있던 바구니에서 풀떼기 한 잎 던지면.

재빨리 달려와 풀떼기 물고 달아나는 백구.

이리저리 때가 타 누렁인지 백구인지 구별치 못할 정도고.

#19. 구담골 관아/마당(낮)

석치의 옷 빌려 입고 남장한 아랑.

어색한 듯 옷매무새 살피며 관아 입구로 향하는데.

낙치 (달려와서) 누님... 아니 형님... 큰일 벌어졌어... 새로 온 사또 이상해...

아랑 왜. 오자마자 이 촌구석은 뭐냐고 벌써부터 성질이라도 부린대?

낙치 아니... 부리긴 부리는데. 사또가 아니라 개가 부려. 성질...

아랑 뭐?

아랑, 어리둥절한 얼굴로 낙치와 함께 입구로 나서면.

#20. 구담골 관아 입구(낮)

사또를 마중 나온 관비들을 보고 왕왕 짓는 앵두.

김단, 그런 앵두를 우쭈쭈하며 달래는 중인데...

김단 아유, 그랬어요. 우리 앵두가 오라비 지켜준다고 짓었어요.

아랑 그래도 안 돼.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응?
(입구에 선 채로, 황당해서) ...뭐야 저건...

#21. 구담골 내아/마당+방 안(낮)

김단, 앵두의 목줄 풀어주며.

김단 냄새만 맡고 와. 멀리 가진 말고.
아랑 참... 아끼시나 봅니다, 개를.
김단 아끼다마다. 내 가족이오, 가족. 그나저나 이름이...?
아랑 박. 석. 치. 라 하옵니다.
김단 아, 이 고을 아전이라던! 반갑소. 앞으로 부디 힘써주시오.
아랑 그 힘, 직접 써보실 생각은 없고요? 고을 살림을 위해서.
김단 이 사람도 참. 금강산도 식후경이랍데. 숨 좀 돌려야지. 한 보름쯤?
아랑 아니 한 달은 쉬어야 되나? 하긴 뱃멀미가 워낙 심했어야지.
아랑 (억지웃음) 하. 하.
김단 말 나온 김에 방이나 좀 둘러볼까?
워낙 곱게 자란 터라 아무 데서나 못 자거든. 우리 앵두가.

김단, 마루에 올라서 방문 열어보면.
조출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방 안 풍경.

김단 그럭저럭 몸은 낫힐 만하네. 아, 저 베개는 좀 구리다. 다른 거 없나?
아랑 ...없습니다! 그냥 참으시지요. (몸 획! 돌려 자리 피하려는데)
김단 잠깐! 그리 가면 어쩌나. 내 시킬 일이 있었는데. 보자, 그걸 어디에 뒀더라. 아, 저기 있네. 저거. (마당에 쌓인 보따리 중 하나 가리키면)

아랑, 다가가 보따리 열어보면.
보따리 속 들어 있는 물건들.
기생들에게 빌린 옷가지며, 가채 등등 여장 도구들이고!

아랑 이 무슨...

김단 내 하루 빌려 입어보았는데 색감이 영 맘에 안 들어서.
한양 사는 명월이란 기생에게 보내주면 되네. 부탁함세.

아랑 하...! (보따리 대충 들고 자리 뜨려고 하면)

김단 아,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아랑 뭐요? 또 뭐?!

김단 여기 산책에 좋은 명소가 어디 없을까? 우리 앵두랑
가야 될 곳이니 음... 일단 바닥에 뭐 버려지거나 떨어진 게 없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좀 졸졸 흐르면서, 또 산짐승은 없는.
그런 안전한 산책 장소 말일세.

아랑 (대꾸 없이 그냥 가버리면)

김단 ...여보게! 대답은 해주고 가야지!

#22. 아랑의 초가(낮)

살림살이보다 칼이며 활이며 무기가 더 많은 아랑의 초가 안.
좌정한 채 심호흡 중인 아랑. 그 옆에 나란히 앉아 한숨 푹 쉬는 녀치.

석치 (두 사람 눈치 보다가) 아니 왜. 뭔데.
어떤데. 뭐, 기생이라도 불러 달래?

아랑 (보따리 건네며) 기생을 부른 게 아니라 기생이 되어봤단다, 한때.

석치 예엥? (보따리 열어보고선 가채 집어 들며) 여장이 취미래?
와, 이거 신선한데?

녀치 아냐... 신선한 거... 미쳤어... 개한테...

석치 개? 뭘 놈의 개?

아랑 김, 앵두시란다. 기르시는 조막만 한 강아지의 성함이.

석치 엉? 개가 성이 있어? 왜?

아랑 글썄. 돌았거나, 미쳤거나, 죽고 싶거나. 셋 중 하나겠지.

석치 다 같은 말 아니야? 그래서 우린 뭐하면 되는데? 애들 다 부를까?

아랑 일단 조금만 더 두고 보자고.

석치 하긴... 아직 전에 있던 사또 나리 유품 정리도 덜 끝났는데. 아, 진짜 뭘 그렇게 많이 해쳐먹었는지 파도, 파도 끝이 없다니까. 심지어 오늘 발견한 쪽지엔 뭐라 적혀 있었는지 알아? 우리 고을 여자들 죄다 외모로 줄지어서 애는 어느 날, 시침을 들게 하고 재는 다음 날 들게 하고... 아주 그냥 제멋대로 순번까지 짜놓았더라고. 아오...!

아랑 ...시신 처리는?

석치 아, 그거! 오늘 밤이라던데? 장소는 미리 봐놨대. 누님도 끼려고?

아랑 ...내가 벌인 일이니, 내 손으로 마무리 지어야지.
장 씨 아저씨께 말 전해줘.

석치 알았어.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다고 별벌 떠시던데.
누님도 거든다 하면 좋아하시겠다. 지금 가서 전해드리고 올게. 가자.
(녁치와 함께 가면)

벽에 걸린 장검을 보는 아랑의 그늘진 얼굴에서.

#23. 편진(낮)

어두운 낮빛으로 시립한 대신들을 내려다보는 왕, 어전회의 종이고.

신하1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전하,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선 세자저하의 서거를 이젠 공표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왕 서거라... 확실한가? 세자가 진정 죽었는지 살았는지.
과인 또한 알지 못하거늘.

신하2 하오면 전하, 차라리 후궁을 들이시어 위태로워진 종묘사직을 굳건히 하시는 게 어떠실는지요?

왕 후궁이라니...!! 내, 그것만큼은 결단코 안 된다,
몇 번을 말하지 않았소!

김창신 (O.L.)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세자저하의 생사가 불분명한 만큼 벌써부터 후궁을 들이시라 주청하는 건 시기상조지요.

대신 일동 ...! (놀라 보면)

왕 그렇긴 하다만... 우의정께서 어인 일로...?

김창신 어인 일이라뇨, 전하. 여기 모인 소신들 또한 조선의 백성으로서,
사라지신 세자전하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지
않겠습니까? (대신들 보며) 아니 그렇소?

대신 일동 그야... (우물쭈물하는데)

김창신의 말 한마디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대신들.
왕, 착잡한 얼굴로 김창신 보면.
의미심장한 미소로 화답하는 김창신.

#24. 편전 앞(낮)

회의가 끝나고 나온 김창신.
대신들, 우물쭈물 김창신의 뒤를 따르고.

김창신 (짐짓 모른 척 걸으면)

신하1 (보다가) 우상, 뜻하신 바가 따로 있는 게요?

김창신 (멈춰 서며) 뜻한 바라니?

신하1 그렇지 않고서야 우상께서 전하의 뜻에 잠자코 따를 리 없으니 하는
말 아니오.

김창신 누가 그러오, 내 전하의 뜻에 잠자코 따라본 적이 없다고?

서늘하게 얼굴 굳히며 대신들을 돌아보는 김창신. 그 위로.

허정(E) 스승님, 아니옵니다!! 역모라니요!!

#25. 과거. 의금부/추국장(밤)

목에 핏발이 선 채로 울부짖는 허정과 김창신의 옛 제자들.

김창신, 애타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에 가슴 미어지는데.

김창신(E) 난 여태껏 전하께서 원하신다면 그 무엇도 거부해본 일이 없소.
허정 그저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서로 나누었을 뿐입니다. 역모라니요!
왕 (보다가) 선왕을 독살했다며 짐에 대한 모함을 퍼 나른 게 아니고?
우의정께선 어찌 생각하시오? 정녕 그대의 제자들이 무고하다고
생각하시오? (김창신 보면)
허정 (절박한 얼굴로) 스승님...
김창신(E) 비록 그 일이 내 손발을 스스로 끊어내는 일일지라도.
김창신 (눈 질끈 감으며) 끌고 가라.
허정 스승님...!!!

내금위의 손에 이끌려 하나 둘, 옥사로 끌려가는 허정과 김창신의 옛 제자들.
“스승님!!” “어찌 이리실 수 있단 말입니까!!”라며
김창신을 부르짖는 제자들의 목소리,
고개를 숙인 창신의 귓가를 어지러이 맴도는데...
그 모습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는 왕.
이때 최 내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서.

최 내관 큰일 났사옵니다!! 동궁전에 큰불이 났다 하옵니다!!
왕 (!! 뭐라?! (서둘러 의금부 빠져나가면)

멍하니 서 있던 김창신.
서서히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왕의 뒷모습을 원망스레 바라보고, 그 위로.

김창신(E) 믿고 따랐소. 그게 내 본분이기에. 단지 지금은...

#26. 과거. 궐 내 일각(밤)

퇴청하기 위해 궐 밖으로 향하는 김창신.

그 주위를 물동이를 든 내관들과 궁녀들이 바빠 지나고.
김창신, 홀로 다른 시간 속에 속한 사람처럼 멍하니 앞만 보고 걷는데.
툭, 하고 그의 발에 걸리는 무언가.
김창신, 천천히 고개를 내려 발밑 보면.
반쯤 불에 탄, 조그마한 익선관 보이고.
익선관을 집어 드는 김창신.
그의 시선에 수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누군가의 조그마한 손 보이며.

김창신(E) 그때의 내가 지냈던 신념과 자책,
회한들을 나만이 아는 기억 속에 묻어두었을 뿐이오.

#27. 현재. 구담골 길목(밤)

김창신(E) 훗날 크게 쓰일 거라 믿기에. 그리 여기고 지키는 게지.

결연한 창신의 다짐 들려오며.
한적한 구담골의 길목을 유유자적 앵두와 산책하며 걷고 있는 김단의 모습.

김단 낭만적이야... 이 경치, 온도, 습도... 자고로 야간산책이란 이래야
하거든. 순라군한테 쫓기느라 허리 휘는 게 아니라.

김단, 미소 지으며 앵두 뒤를 따라 걷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E) 누군가의 발소리!
김단, 보면.
길게 늘어선 초가들 사이로 획! 스쳐 지나는 흰 소복의 여인, 아랑이다!

김단 ?!

FLASH CUT #21

아랑 박. 석. 치. 라 하옵니다.

현재.

김단 처치도 종종 여장을...? 그래서 그리 화를 내었나? 괜히 찢려서? 허...!
내 그런 쪽으론 또 편견이 없거늘. 그치, 앵두야? (앵두 보면)

길목 구석에 쿵쿵 냄새 맡고 있던 앵두.

제 이름이 불리자 쫄래쫄래 다가오는데.

앵두가 입에 물고 온 수상한 물건, 피가 말라붙은 호패고!

김단 (호패 빼앗아 들며) 누구 호패기에 여기에...? 이 피는 다 뭐고...?

김단과 앵두의 의문스러운 눈빛, 일제히 호패로 향하면...

#28. 야산(밤)

햇불을 들고 모인 구담골 사람들.

남정네들, 갱이 한 자루씩 들고서 땅을 파내기 시작하는데.

장 씨 (석치 보며) 아씨는?

석치 그 새로 온 사또 있잖아. 동태 좀 보고 온다고 좀 늦으신다네?

장 씨 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손에 흙 묻히는 일은 죄다 내 차지지.

(눈 흘기면)

석치 일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누님께 달려간 게 아재면서,

뭘. 오늘따라 왜 이리 툭툭대고 이러실까.

장 씨 문을 거나 가져와, 빨랑!

석치 엽!

갱이 잠시 내려놓는 석치.

넉치 이끌고 파놓은 구덩이 밖으로 향하면.

구덩이 밖, 거적때기에 둘러싸인 누군가의 시신 보이고.

#29. 야산 일각(밤)

땅에 코를 박고 호패에서 맡은 피 냄새를 쫓아 산을 오르는 앵두.

김단, 울상을 한 채 앵두의 뒤를 따르는데.

김단 (목줄 잡은 채 버티고 서며) 그만 돌아가자. 앵두야, 네가 사또야?
포도대장이니? 이거 월권이야, 월권! 이 고을 사또인 내가 괜찮대두.

난 여서 전쟁이 나든, 도적이 들끓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오라비는 앵두, 너만 있으면... (하는데)

앵두 (뒤돌아 으르렁)

김단 ...되지 않아요. 그래요, 가요, 가. 우리 앵두, 아이 멋있어라.

כות방귀 꿰며 위풍당당 앞장서서 걷는 앵두.

그 뒤를 영락없이 따라 걷게 된 김단, 미칠 노릇인데.

#30. 야산(밤)

거적때기에 둘러싸인 시신을 들고선 구덩이로 옮기는 중인 석치와 넉치.

장 씨 조심, 조심 모셔!

석치 모시긴 뭘 모셔! 죽어서도 골치 아픈 인간인데!

장 씨 그래도 양반 아니냐... (하는데)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E) 왕, 개 짖는 소리!

일동, 놀라 보면. 앵두 목줄 진 채로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김단의 모습.

김단 뭐... 굉장한 걸 묻나 보오?

장 씨 ...! (휘청하고)

그 바람에 들고 있던 거적때기 우당탕, 바닥으로 구르는데...!

그 안에 둘러싸여 있던 시신, 김단과 똑같은 구군복 입고 있고...!!

김단 ...!!

석치 아... 그게... 인형입니다요, 인형! 하, 하.

김단 (억지웃음) 하, 하. 괜찮네, 마저 일들 보시게.

(앵두 목줄 뒤로 잡아끄는데)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던 김단의 발걸음,

어딘가에 가로막힌 듯 나아가지질 않고.

김단, 뒤를 돌아보려 하면.

그의 목 아래로 획! 들이밀어지는 칼날!!

김단 !!

얼어붙은 김단의 얼굴 위로.

김창신(E) 반드시 모셔 와야 한다.

#31. 김창신 저택/별채 마당(밤)

김창신, 무장한 수하들 내려다보며.

김창신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일이다. 알겠느냐?

일동 예!

김창신 가라! 가서 우리의 국본을 모셔라!

춘삼 존명!

춘삼과 덕일, 수하들을 이끌고 별채를 나서고.

그런 수하들을 바라보는 창신의 서늘한 눈빛. 그 위로.

아랑(E) 이래서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 자들은 안 된다니까.
쓸데없이 일을 벌여.

#32. 야산(밤)

김단의 목에 칼날을 겨눈 채 싸늘하게 미소 짓는 아랑.

아랑 이젠 어찌시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시거나. 진짜 돌아가시거나. 선택은
자운데... (보다가) 아무래도 이쪽이려나? (칼날 좀 더 바짝 들이밀면)

김단 ...!!

아랑의 칼날 위로 멧힌 김단의 핏방울, 뚝 떨어지고...!

사색이 되어 얼어붙은 김단의 모습에서...!!

1회 끝.

2회 얼떨결에 영웅

#1. 구담골 내아/마당(낮)

햇별이 뜨겁게 내리찍는 내아 마루 위.

노곤하게 늘어진 한 명의 인간과 한 마리의 개, 김단과 앵두다.

석치 (징하다 싶어) 출근, 안 하십니까? 사또 나리?
김단 방해하지 말라, 째 석치.
석치 아, 내가 쯤 석치라고!
김단 아냐, 자넨 석치처럼 안 생겼어. 음...그래. 녀치가 어울린다.
녀치 ...녀치는 ...난데... (하며 은근슬쩍 다가와 앵두 발바닥 조물거리고)
김단 (앵두를 녀치에게서 떼놓으며) 여튼 난 오늘부로 출근하지 말라는
명을 받은 몸일세. 다들 그런 줄 알고 돌아가게나.
석치 이 마을에 사또가 나리밖에 없는데 누가 명령을 내린답니까?
김단 누구긴 누구겠어. 이 고을 쯤 사또님이시지.
석치·녀치 ??

#2. 과거. 야산(밤)

1회 #32와 연결.

아랑 이젠 어찌시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시거나. 진짜 돌아가시거나. 선택은
자운데... (보다가) 아무래도 이쪽이려나? (칼날 좀 더 바짝 들이밀면)
김단 (얼어붙었다가... 얼음 땡!) 나도 바라는 바요!
아랑 (??) ...뭘 바래...?

#3. 과거. 구담골 관아/동헌 안(밤)

김단, 빈 종이에 일단 지장부터 찍고 보며.

김단 자, 우선 약조의 증표는 찍었고. (지장 찍은 종이 건네며) 이제 약조의 내용을 정할 차례요. 뭐든 적어도 좋소. 모조리 다 허가요. 임기가 끝나는 대로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준다면. 아, 물론 한양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은 안 되오. 내, 사정이 있어서.

아랑 (하...) 정말 뭐든, 다, 들어주실 수 있단 말씀이시지요?

김단 고름, 고름.

아랑 (각 잡고 자리에 앉아 붓 들고선 원하는 바 써내려가며) 일, 사또 김단은 수령의 전권을 모두 신아랑에게 위임한다.

김단 신아랑이 누구요?

아랑 접니다.

김단 어쩐지 석치란 이름은 영 아니다 싶었소. 석치라 불리기엔 너무 곱잖소, 그대가.

아랑 이, 사또 김단은 고을 아낙에게 허튼수작질을 금한다.

김단 어? 그런 적 없는데?

아랑 방금 하셨습니다, 허튼 수작.

김단 여자였소? 와...

아랑 삼, 사또 김단은 여장을 금한다.

김단 괜찮겠소? 그대 취향이... 아, 여자랬지. 허면 남장은? 그대도 남장이 취향 아니오. 이건 좀 불공평한데...?

아랑 사, 사또 김단은 오늘 밤 일을 비밀에 부친다.

김단 (모르쇠) 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랑 오, 사또 김단은 위의 조항들을 거부하거나 어길 시 죽음으로 갚는다.

김단 내, 이 구담골에서 장수하려나 보오. 이것들만 지키면 살 수 있다니. 하나같이 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야.

아랑 허면 이제 그만 꺼져주시지요. 제 집무실에서.

김단 고~맙소! 날 살려도 주고, 대신 일도 해주고. 그대는 내 귀인이오!
(줄행랑치면)

아랑 ...죽일까...?

#4. 현재. 구담골 저잣거리(낮)

유유자적 저잣거리 풍경을 이리저리 구경하느라 바쁜 김단.

그 곁을 위풍당당하게 거니는 앵두가 지키고.

헌데 어느 순간부터 나아가지 않는 발!

김단, 뒤통수 앞을 보면.

검집째로 장검을 빼어 김단의 통행을 막은 자, 아랑이다!

아랑 통행에 방해됩니다. 사또 나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김단 피해라니! 내가 무슨 피해를 봤다고...

아랑 (무시하고, 김단의 등 뒤를 향해) 가시오. 이쪽은 내가 처리할 터이니.

아낙네 (물동이 머리에 인 채로 김단에게 막혀 서 있다가) 감사합니다, 아씨.

아낙네, 김단 즐기며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면.

줄지어 수레며 마차며 끌고 지나가는 사람들,

김단을 즐기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김단 크흠... (속삭이듯) 미안하게 됐소.

아랑 너무 작아 안 들립니다.

김단 ...미안하게 됐다고!! 됐소?!

아랑 예, 아신다면 됐습니다. 다음부터 통행에 주의해주시지요. 그럼.

(고개 까딱이고 가버리면)

김단 허, 참! 내,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줬거늘. 이젠 통행까지 하라 마라...

석치(E) 왜. 맘에 안 들면 내어준 거 다시 뺏어보시게?

김단, 화들짝 놀라 뒤돌면.

어느새 김단의 곁으로 와 나란히 서는 석치.

석치 아서라. 그러다 진짜 죽어요, 사또 나리. 저 누님이 어떤 누님이신데.
이 구담골에서 최고로 존경받던 어르신인 고명딸이라 이거야.

김단 다 큰 처자를 저리 험악하게 굴도록 내버려두시는데, 존경은 무슨.

석치 그야 여기 안 계시고 (하늘 가리키며) 저기 계시니까. 한양에 일 보러
가셨다가 못 돌아오셨거든. 그분이야말로 참된 사또 나리셨지. 한 십오
년 됐나? 그분만 한 사또를 못 본 지도.

김단 ...그럼 저 소저가 옛 사또의 딸이었던 말이나?

석치 몰랐소? 나름 이 고을에선 유명한 애긴데.

#5. 과거. 구담골 관아/마당(밤)

 붓짐을 진 채로 떠날 준비를 마친 신국현(37세).
 울고 있는 어린 아랑(6세)의 어깨 토닥이며.

신국현 내가 올 때까지 고을 사람들을 잘 부탁한다. 곧 돌아오마.
어린 아랑 ...아버지...!

 어린 아랑, 신국현의 손 붙잡아보려 하지만 닿지 않고.
 신국현, 마당에 도열해 있던 포졸 한 명과 관아를 빠져나간다.
 끝내 뒤돌아 숨죽여 우는 어린 아랑의 모습 위로.

석치(E) 그냥 잊고 사셔도 되는 것을. 생사조차 알 길 없는 아버지 부탁을
 지키겠다고 누님께서 고생 많으셨지.

#6. 과거. 구담골 내아/방 안(밤)

 음흉한 얼굴의 최 사또(1회 #30의 시신이었던 자),
 소복 차림의 아랑을 억지로 끌고 들어오고.
 보로 위로 내팽개쳐지는 아랑.

석치(E) 특히 지난번 사또랑은 상성이 너무 안 좋으셨어.
아주 그냥 누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다니까.

사냥감 물이를 하듯 아랑을 점점 더 구석으로 몰아넣는 최 사또.
한 발짝, 한 발짝, 최 사또 가까워질수록.
뒤로, 뒤로, 물러서는 아랑, 결국 막다른 벽에 가로막히고.

최 사또 그러게, 잘난 척 좀 그만하라지 않았느냐.
어찌자고 내 눈에 띄어서. (음흉하게 웃는데)

최 사또, 다가와 아랑의 목덜미를 소름 끼치게 만지는 순간!
두 눈 질끈 감은 아랑의 손에 잡히는 단도!
아랑, 재빨리 단도 빼드는 모습 위로...!!

석치(E) 그래도 큰일 당하신 게 아니라 천만다행이지 뭐.

#7. 현재. 구담골 저잣거리(낮)

석치 그러니까 사또 나리도 비밀 엄수. 꼭 지켜. 우리 누님에 대해서
잘못 입 놀렸다간 아주 그냥... (눈 번뜩이며) 알지?

김단 아, 벌써 잊었다니까 그러네! 사람을 뭐로 보고. 내, 그리 입이 가벼운
줄 아는가? 앵두한테만 말하겠네, 앵두한테만...! (줄행랑치면)

석치 뭐어...?! 비밀 엄수라니까!

김단 개한테도 알 권리란 게 있지 않겠나!

석치를 피해 후다닥 앵두를 안고서 멀어지는 김단.
그러다 문득 저만치 멀어지는 아랑을 흘끔 돌아보고.
사람들의 인사 일일이 받아주며 온화한 미소로 화답하는 아랑.
그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알 듯 말 듯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김단의 모습에서.

#8. 구담골 관아 입구(낮)

앵두와 함께 관아로 되돌아오는 김단.

때마침 보따리 하나를 끌어안은 채 허겁지겁 관아를 빠져나가는

정체불명의 사내와 딱! 부딪히고.

볼썽사납게 나자빠지는 김단, 재빨리 도주하는 사내 보며.

김단 여보오! 사과는 하고 가야지!! 이래 빼도 내가 이 고을 사또거든?!...

(입구 지키고 선 포졸 슬쩍 보고는) 그래, 송구하다고?

오오냐! 사과는 받아들이지!

포졸 ??

김단 (겨우 일어나 삐걱대며) 됐네. 잡아들이지 않아도 되네. 하하.

(포졸 어깨 툭툭 치고 관아로 들어가면)

포졸 아, 예...

#9. 구담골 내아/창고(낮)

낮부끄러운 듯 기둥에 기대어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김단.

그러거나 말거나 간식 달라며 왕왕 짓는 앵두.

김단 알았어. 간식 주면 되잖아, 주면. 안 그래도 이 오라비가 지금 얼마나

속상한데 앵두 너는... 아휴... (창고 문 여는데)

텅 비어 있는 창고 안!

김단 (?!)... 뭐야? 우리 앵두 먹일 거, 다 어디 갔어...?!

#10. 구담골 관아/동헌 안(낮)

아랑이 먹 가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는 집무실 안.

김단 (뛰어 들어오며) 도둑...! 도둑이 들었소!
아랑 (건성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름 후에 뵙죠.
김단 보름이라니?!

아랑 순번을 지키셔야죠. 일하는 사람은 하나, 일 벌이는 사람은 여럿.
허니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단 안 되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오. 우리 앵두 먹일 음식이며 간식까지
모조리 털렸단 말이오! 그러다 우리 앵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아랑 그럼 먹다 남은 밥을 덜어주면 될 게 아닙니까.

김단 사람이 먹는 음식을 어찌!

아랑 잘만 먹던데요. 우리 마을 백구랑 누렁이들은.
김단 이 고을에 나는 식재료들이 어떨 줄 알고! 자고로 우리 앵두는 한양산
식재료들만 음식으로 취급한단 말이오!

아랑 한. 양. 사아안?

김단 그래, 한. 양. 산!!

아랑 좋습니다. 그 한양산 식재료인지 뭔지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찾아보죠. 나중에 가서야 한양산이고 나발이고 주는 대로 먹일 걸
그랬다며 후회하지나 마시길.

김단 껍이나.

#11. 구담골 관아/취조실(낮)

마주 앉은 아랑과 김단,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으로 서로 노려보며.

아랑 우선 용의자 인상착의부터. 기억나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주시지요.
김단 날 치고 갔소.

아랑 그거 말고.
김단 남자였지.
아랑 사또를 한 대 치고 싶고, 또 남자인 사람은... 너무 많은데요, 이 고을엔.
김단 ...아! 여기 입구에 포졸이 보았을 거요.
아랑 포졸이요...

#12. 구담골 관아 입구(낮)

포졸, 열렬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김단의 눈빛 슬쩍 피하며.

포졸 ...모릅니다. 소인은 고기 몇 점 훔쳐 먹은 게 다라고요!
김단 뭐...?

김단, 황당해서 포졸 입가 보면.
기름기로 번뜩이는 포졸의 입가!

포졸 일단 살고 보자고 살살 피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입에 기름칠 해본 지가 까마득한데.
김단 ...그러니까 누가 살살 핀 건데... 그쪽을?
포졸 다...요... 이 고을 사람들 모두 다...
김단 !!

#13. 몽타주

— 아랑 따라 초가집 준비하게 늘어선 길목에 도착한 김단.
말문이 턱! 막힌 채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 보면.
— 산달이 가까워져 거동이 힘든 부인에게 고깃국 후후 불어 먹이는 사내(#8).

사내 어떠요. 힘이 좀 나시오?

부인 (끄덕끄덕) 애기도 너무 맛있대요. 더 달라고 막 발로 차고…
우리 아기, 살 수 있나 봐…!

— 향 피운 단출한 제사상에 과일 몇 점 깎아 올리는 노모.

노모 여보… 오늘은 그래도 좀 차린 게 있지요? 다행이구려…
먼저 간 당신 제삿밥 하나 못 챙겨주고. 늘 가슴이 쓰렸는데…

— 아귀 떼처럼 달려드는 동생들에게 구운 고기 한 점씩 물려주는 큰누이.

큰누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직 많아.

동생 누님도 먹어.

큰누이 …응…

— 다시 길목. 황당한 얼굴로 초가집들 둘러보는 김단.

그 걸을 스치는 백구와 누렁이, 고기 한 점씩 물고선 길목 빠져나가면.

김단 …아니 무슨 석 달을 내리 굶은 사람들마냥…

아랑 굶었지요.

김단 널린 게 빈 땅이던데, 일단 뭐라도 심으면 될 게 아니요?

#14. 밭(낮)

황망히 서 있는 김단 앞에 펼쳐진 풍경,

풀 한 포기 나지 않아 황량하기 그지없고.

아랑 두엄도 뿌려보고, 재, 썩은 흙, 바다풀까지. 땅을 기름지게 도와준다는
거름이란 거름은 다 써보았습니다. 모두 소용이 없었지요.

김단 허나 주상전하게옵서 빈민을 구제하라 명하시며 진휼청을 설립하신
지가 언젠데…

아랑 곡식을 빌려줄 테니 훗날 갚아라... 뜻은 좋지요. 허나 당장의 배고픔에 눈이 멀어 급히 빌렸던 그 구휼미의 값이 며칠이 지나 배로 똥타면. 그게 어찌 구휼이겠습니까? 강탈이지.

김단 그렇다고 이리 빈 땅을 가만 내버려둘 순 없지 않소.

아랑 가만 내버려둔다면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테니 가만있는 겁니다. 버티는 거고. 이래도 한양산이니 뭐니 하며 운운하실 생각이 드십니까?

김단 하지만...그래도...허나...! (한숨 푹) ...아니오. 됐소. 범인 색출은 그만두어도 될 듯하오. 앵두 먹일 밥은 내 다른 방도를 찾아볼 터이니.

어깨 축 처져 관아로 돌아가는 김단과 그런 그를 지켜보는 아랑의 모습에서.

#15. 구담골 내아/방 안(밤)

하인, 김단 앞에 밥상 내오고.

김단, 젓가락 들어 반찬 집으려는데...

어디선가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 애처로운 눈빛을 한 앵두고.

김단 ...미치겠구만...앵두, 너 이거라도 일단 먹어볼래?

국에 들어 있던 살코기 집어 앵두에게 가져다 대는 김단.

앵두, 허겁지겁 살코기 뉘아채려는데...!

김단, 도로 젓가락 물리며.

김단 아냐, 아냐. 이럴 순 없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방도를 찾아야 해, 방도를...

#16. 밭 일각(밤)

불빛 한 점 없이 스산한 밤거리. 어디선가 (E) 늑대 울음소리 들려오고.
햇불 하나씩 손에 쥔 채 고을 순찰 중인 석치와 녀치.

녀치 ...뭔가 이상...너무 조용...
석치 오늘 오랜만에 위에 기름칠 좀 했겠다,
몸 지지면서 자는 중이겠지 다들.
녀치 여기 예전에 죽은 장 씨 할아버네 밭...가끔 나온댔다...
귀신 돼서 밭 지키러...
석치 야, 귀신은 시간이 남아도냐. 지킬 게 있어야 기어 나오지.

그때 어디선가 (E) 누군가의 신음소리 들려오고!

석치·녀치 !!

두 사람, 주춤거리며 신음성이 들려온 쪽으로 천천히 햇불 드리우면.
햇불 아래, 서서히 드러나는 봉두난발을 하고서 호미를 치켜든 사내, 김단!

김단 (퍽! 하고 호미 내려찍으면)
석치·녀치 아악!!
김단 농사짓는 사람 처음 보나? 왜들 그래.
석치 그 손에 쥔 시커먼 건 뭐요?!
김단 이거? 고구마.
석치 고...
녀치 ...구마...?
김단 다들 뭔지 몰랐는지 요놈만 안 훔쳐 갔더라고.

석치와 녀치, 다가가 김단의 손 햇불로 비춰보면.
햇불 아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씨고구마.

김단 이걸 이 자체로 씨가 되는 신상작물이거든. 우리 앵두가 환장해.
아, 딱 다섯 알만 더 나도 좋겠는데...

#17. 구담골 내아/방 안(밤)

석치와 녀치, 김단 질질 끌고 와 방 안에 밀어 넣으며.

석치 농사는 무슨.

녀치 ...거긴 원래 팔 심어도 팔 안 나는 곳...

석치 한양에서 왔으면 한양에서 온 양반답게 편히 놓고먹다 가쇼.
괜히 일 벌이지 말고. 우리는 뭐 바보라서 빈 땅을 놀리고만 있는 줄
아나. (방문 황! 달고 가면)

김단 허...! 거, 고구마 좀 심어볼 수도 있지! 이 고을 사또가 난데.
통행도 말라, 고구마도 심지 말라. 아주 그냥 내 이것들을...

#18. 구담골 내아/행랑채 부엌(밤)

앵두와 나란히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고구마 굽는 김단.

김단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꼬챙이로 아궁이에 넣어둔 고구마 이리저리 굴리며 익히는데)

끼이익, 열리는 문.

김단, 헉! 하고 보면.

아랑, 허 꿀꿀 차며 서 있고...!

아랑 내 이럴 줄 알았지.

김단 (깨갱하면)

아랑 아직 식사 전이시면 따라오시든가요. 김, 앵두 님도 데리고.

김단 말했잖소. 우리 앵두는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고. (콧방귀 끼는데)

#19. 아랑의 초가/방 안(밤)

밥그릇에 담긴 북엇국 미친 듯이 활아먹는 앵두.

김단 (어안이 벙벙하여) 허...
아랑 간은 안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김단 (그제야 안심하고 한술 뜨는데)
아랑 물론 그쪽 것도.
김단 (미친 듯이 싱겁다) 음...!

겨우 목구멍 너머로 북엇국 삼켜낸 김단,
더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데.
소반 위, 주인 없는 밥그릇과 수저 한 쌍 더 놓여 있고!

김단 누가 또 오기로 했소?
아랑 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버릇이 들어 그런 것뿐이니.
김단 (오호라... 몰래 주인 없는 국그릇과 자신의 국그릇 바꿔치기 하려는데)
아랑 아버지 식기거든요, 그거. 안 돌아오실 줄 알면서도 매번 돌아오실 것만 같아서 그만.
김단 (헉...! 다시 그 국그릇 되돌려놓고)
아랑 가져다 드셔도 됩니다. 어차피 오늘 밤도 소식이 없으시니.
김단 아, 아니요! 괜찮소!
아랑 (픽, 웃으며) 알고 계셨습니까?
김단 그게... 어찌다 보니... 실로 참된 사또 나오리셨다고...
아랑 음...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어서. 아버지 없이 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이다.
김단 ...내 한번 알아봐 주오, 아버님 행방? 한양에 아는 이도 많으니...

아랑 아, 그래서 가출을 하셨구나. 갈 데도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도
꾸역꾸역 여기 남아 계시고.

김단 그건...! 하... 됐소. (맨밥 퍼서 심술부리듯 씹으면)

아랑 저도 됐습니다. 사또께서도 꽤나 복잡한 집안 사정을 지니신 모양인데.
우리 각자 집안일은 각자 알아서 처리합니다.

김단 (빈정 상해) 예, 예...

#20. 아랑의 초가/마당(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김단과 앵두.

김단 내일은 후식으로 과일도 부탁함세. 우리 앵두가 변비라.

아랑 열 냥입니다, 손님.

김단 ...뭐?! 금이라도 바른 거요? 원산지가 어딘데!

아랑 글썄요... 동해랬나, 서해랬나... 잘 모르겠네. (푹, 웃고 들어가버리면)

김단 ...원산지를... 몰라...?!

충격받은 얼굴로 고개 획! 돌려 앵두 살피는 김단.
짹짹, 입가 주변 혀로 정리하는 앵두, 마냥 행복한 얼굴인데.

김단 ...안 돼...!!

#21. 밭(낮)

팔 걸어붙인 채 열정적으로 고구마를 심는 종인 김단.
석치와 녀치, 그런 김단을 따라 대강 대강 호미질하며.

석치 돈을 준다니까 뚝기는 하는데, 농사에는 언제부터 이리 관심이
많으셨대?

김단 어제부터. 당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젠 한양산이든,
구담골산이든, 다 필요 없네. 오로지 김단산!
내 피와 땀으로 기른 식재료만 먹일 테야!

낙치 ...그래 봤자 여긴 구담골... 싹 안 난다에 한 표...

김단 (찌릿) 뭐야?!

석치 (말리며) 자, 자. 사또 양반, 우리 이러지 말고 차라리 전문가를 썬시다.
여기, 할 줄 아는 게 농사뿐인데 할 수가 없어서, 농사 좀 지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 많아.

김단 내가 부른다고 사람들이 올까 싶은데...

석치 돈 앞에 장사 있어? 사또 양반 돈 많잖아. 그럼 좀 썬.
사람들은 내가 불러 모을 테니.

#22. 구담골 관아/마당(낮)

삼삼오오 모인 농부들, 미심쩍은 얼굴로 마루 위에 선 김단 훑고.

장 씨 돈을 주신다면야 대신 심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될까 싶은데...

농부1 맞아. 뭘 심는다고 바로바로 뭐가 나는 땅이면 벌써 이것저것 심고
남았지.

김단 그래서 싫은가? 아쉽구나. 내, 달라는 대로 일당을 넉넉히 챙겨줄
생각이었는데.

장 씨 아니, 그게... 싫다는 건 아니고... 에잇, 까짓것 해보지, 뭐. 자네는?

농부1 영? 그럼 나도...

김단 나머지는 어떤가? 동참하겠는가?

농부 일동 ... (고개 끄덕이고)

김단 좋네. 그럼 다들 참여하는 걸로 알고. 혹시 파종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일러주고 가게. 다 구비해줄 터이니.

장 씨 모조리 다... 말씀이십니까?

김단 그럼. 우리 앵두 먹일 식량을 길러줄 귀인들인데, 원하는 건 다
내어드려야지.

장 씨 마침 딱 필요한 물건이 있긴 한데...

#23. 대장간(낮)

망치질 소리 요란한 대장간. 지게며 농기구며 한가득 쌓여 있는데.
대장간 안으로 들어서는 비단신의 주인, 김단.

대장장이 (망치 내려놓으며) 사또 나리 아니십니까? 여긴 어인 일로...
김단 내, 필요한 게 있어서.
대장장이 예, 말씀하시지요.
김단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다.
대장장이 예?!
김단 왜. 숨겨놓은 게 더 있나. 그럼 그것도 내어주게. (돈 꾸러미 건네면)
대장장이 (얼떨결에 받아들고)

씨익 웃는 김단, 모처럼 자신만만하네.

#24. 구담골 내아/마당(밤)

비어 있던 앵두의 식량창고에 농기구와 옷, 약재 따위를 나르는 짐꾼들.
그 모습을 뿌듯하게 뒷짐 지고 서서 지켜보는 김단.

아랑 (다가와서) ...이게 다 됩니까...?
김단 선물. 그대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 집어가게.
아랑 누가 선물을 농기구로 줍니까?
김단 필요하다던데? 농삿일 하는데. 그 뭐라더라... 장 씨 할아버미었던가...
 암튼 그자가. 우리 앵두 먹일 고구마 심는 걸 도와주기로 했거든.
아랑 옷이랑 약재들은요? 고구마지 뭔지 심는데 저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김단 아, 옷은 농삿일 할 때 입을 만한 여벌이 없다 하여 구비해뒀고, 약재는

다들 여기저기 몸이 성치가 않다 하여 사들였네.
 원래 남을 부러먹을 땐 이 정도 공은 들여줘야지.

아랑 세상에 어느 누가 사람 몇 명 부리겠다고, 돈을 이리 뿌려댄답니까.
 그냥 부러먹고 말지.

김단 여기, 나.

아랑 실례지만 혹시 지능에 문제가 있으신 건...?

김단 왜 퍼취도 난리래! 왜, 뭐, 왜!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런다, 됐소!
 내가. 이 고을 사꾼데. 이 정도도 못하나?! ... (하고 슬쩍 눈치 보면)

아랑 ...따라오시죠. (김단 손목 탁! 잡고 잡아끌고)

김단 (버티며) 어딜?!

아랑 접수하신 사건 해결해드리려고요.

김단 나 아무 일도 없는데?

아랑 방금 생기셨습니다.

#25. 객잔 앞(밤)

김단, 아랑에게 이끌려 객잔 앞에 서며.

김단 와, 진짜. 이렇게 이웃을 못 믿어서야.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다
 그랬다니까 그러네.

아랑 제 칼 앞에서도 그리 간절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겠지요.

김단 ...돈을 써준대도 난리네?

아랑 ...도움을 준대도 난리네?

김단 ...하! 두고 보시오. 여기 모인 자들, 모두 내 배포에 크게 감격해 모인
 사람들이란 걸 똑똑히 보여주겠소.

아랑 예, 두고 보고 있습니다. 안 열고 뭐하시는 겐지?

한마디를 지지 않는 아랑의 태도에 기가 찬 김단.

쿵방귀 꺾며 돌아서서는 조심스레 객잔 문 여는데...!

장 씨(E) 미쳤어? 진짜로 일하게? 농사 좋아하는 놈이 어디 있다고.
김단 !!

#26. 객잔 안(밤)

들고 있던 잔 탁! 내려놓는 장 씨, 곁에 둘러앉은 농부들 보며.

장 씨 하루 온종일 일해도 손에 남는 거 하나 없는데. 안 그래?
농부1 하긴...
장 씨 솔직히 말해서 여기 농사꾼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 있어?
농부들 ...
장 씨 없지, 없어.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으니, 그저 팔자려니 하고 농사나
지으며 산 거지. 맘 같아선 나도 하겠네, 사또 노릇.
농부1 그래도 너무 속여 먹은 것 아냐?
장 씨 왜. 지 입으로 먼저 다, 사주겠다잖아. 이럴 때 우리도 양반들 주머니
좀 털어보는 거지. 매번 우리만 털리란 법 있나.

#27. 객잔 앞(밤)

차마 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는 김단.
가만히 장 씨 말을 듣고만 있고.

아랑 비켜보십쇼. (김단 대신 나서려 하면)
김단 (문 도로 닫고 아랑 막으며) 됐소. 돌아갑시다.
아랑 지금 자존심 세우실 때입니까?
김단 어차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 했을 뿐인데, 자존심? 하! 난 그딴 거
모르오.
아랑 ... (보면)
김단 애초에 자존심이란 게 있었으면 소저와 그런 굴욕적인 약조를 했겠소?

(비켜서며) 알아서 하시오. 어찌 해결됐는지는 굳이 들려줄 필요 없고.
어차피 이 고을 사또는 그대이질 않소.

객기 부리며 획! 돌아서서 가버리는 김단.
그를 따라가려다 한숨 폭, 내쉬는 아랑.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심정인데.

#28. 발(밤)

고구마 심은 밭 어귀.
앵두와 나란히 누워 밤하늘 올려다보는 김단.
눈앞에 펼쳐진 밤하늘, 별 하나 없이 어둡고.

김단 앵두야, 우리 그냥 한양으로 돌아갈까? (하는데)

툭, 툭. 한 방울씩 쏟아지는 빗방울.
급기야 소나기가 되어 후두둑 메마른 땅 위로 쏟아져 내리면.

김단 (어이가 없어 보다가) 와... 이젠 비까지?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하며 허둥지둥 일어나 앵두 끌어안는데)

앵두 챙기느라 정신없는 김단의 곁으로
하나둘씩 모여드는 정체불명의 실루엣들!
김단,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앵두 챙기고선 고개 들면...!
그의 앞을 딱하니 막고 선 사내 둘, 춘삼과 덕일!!

김단 ...!!

춘삼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도련님.
(생긱 웃고 김단에게로 천천히 다가서면)

김단의 숨통을 조이듯 살금살금 그에게로 모여드는 촌삼과 수하들.
어느덧 김단과 앵두의 모습, 수하들에게 완전히 가려지고.
애처로운 (E) 앵두의 비명소리 들려오며...

#29. 아랑의 초가/방 안+마당(밤)

번쩍 눈 뜨는 아랑. 재빨리 일어나 머리맡에 놓아둔 칼 집어 들면.
방문 열고 동시에 정체 모를 침입자를 향해 발검하는 아랑!
허나 칼끝에 걸리는 자, 아무도 없고!
아랑,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서히 칼끝 내리는데...
그제야 보이는 다급한 얼굴의 앵두!

아랑 김, 앵두! 네가 여긴 왜...? 네 주인은 어찌고...?!

 묻는 말에 대답도 못 해주고 속이 타 미치는 앵두.
 그저 애타게 킁킁덜 뿐인데.

#30. 구담골 저잣거리(낮)

사라진 김단 찾아 뛰어다니는 석치와 녀치.

석치 사또 나리! 개만 버려두고 어디 갔어!!

녀치 ...앵두 운다...!! 나와!!

#31. 구담골 관아/마당(낮)

근심 어린 얼굴로 마루 위를 서성이는 아랑.

석치 (뛰어 들어오며) 없어! 안 보여! 어떡해? 나 때문인 거야?
 내가 괜히 장 씨 아저씨 소개시켜줘서?
 아랑 정신 사나우니 그만. 일단 애들 몇 더 풀어서 살펴보고 난 후에...
 녀치 (O.L.) 큰일...! 큰일 났다...!! (이리 오라고 손짓하며) 빨리...!
 아랑 !!

서둘러 녀치 따라 나가는 아랑과 석치.

#32. 밭(낮)

웅성거리며 고구마 심은 밭 앞에 모여 있는 구담골 사람들.
 아랑, 석치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랑이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한 발짝씩 비켜주는 사람들.
 서서히 갈라지는 인파 사이로 보이는 멧쩍은 표정의 장 씨.
 아랑, 어리둥절한 얼굴로 장 씨의 시선을 따라 밭으로 고개 돌리면.
 새파랗게 움터 있는, 조그만 새싹 하나!

아랑 ...!
 녀치 이거... 사또가 심었던 거... 흠덩이...
 석치 아니고 고구마.
 녀치 그래, 고...구마. 앵두가 좋아하는 거... 사또도 좋아하는 거...
 아랑 (앵두 보며) 김, 앵두. 솔직히 답하라. 네 주인, 지금 어딴지?

깁깁대던 앵두, 밭 주변을 둘러싼 야산을 향해 왕왕 짓는데.
 카메라, 앵두의 시선을 쫓아 야산으로 향하면.

#33. 야산(낮)

기절한 김단을 짊어진 채, 나루터로 향하는 촌삼과 수하들.

김단 (비몽사몽한 채로) 앵두야...
춘삼 (보다가) 서둘러라. 해가 지기 전에 이곳을 떠다!
덕일 예!

걸음을 재촉하는 춘삼과 수하들.

#34. 야산 위쪽 길(낮)

김단이 사라진 언덕 바로 위 편 길에서 김단을 찾아 달려온 아랑과 앵두,
그리고 석치와 녀치. “사또 나리!!”라며 애타게 김단을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
울려 퍼지고.

아랑 (애타게) 제발...! (절벽 쪽으로 달려가 보는데)

#35. 야산(낮)

절벽 위에 선 아랑.
그리고 때마침 아랑이 선 자리의 바로 밑을 지나가는 아랫길의 김단.
두 사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엇갈리고.

김단아랑 (동시에) 사또...

간절하게 서로를 부르는 두 사람의 모습 교차되며...!

2회 끝.

작가 후기

‘강아지 이야기를 써야겠다!’

그리 생각했을 때, 매년 겨울마다 제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들었던 그것!

오펜의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될 리 없다 여겼고, 적당히 잊고 지냈을 때.

시간은 어느덧 마감 일주일 전이었고, 저는 <견마마>의 초고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견마마>가 세상에 나온 지 일 년쯤 되는 오늘, 저는 꿈에만 그리던 오펜 센터에 앉아 지금 이 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대하사극이 아니라, 솜뽀!” “개아범이라는 설정을 살려라!”

애정 어린 센터장님의 조언을 따라, 제가 사랑해 마지않는 우리의 주인공 단이는

여러 번 모습을 바꾸었지만. 결국 여러분 앞에 선보이기로 한 단이의 모습은 초고 버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각 회별 엔딩점과 신별 디테일들이 수정되긴 하였음에도, 여전히 엉성하고, 쓸데없이

진지한 단리와 앵두, 아랑을 ‘완고’라는 파일명과 함께 제 손에서 떠나보내며, 이 기나긴

과정을 함께 해준 오펜 5기 동료들과 김성미 과장님, 멘토 임예진 작가님, 김지일 센터장님께,

그리고 이 글의 모델이 되어준 저의 유일무이한 강아지 친구 레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펜...!

굿바이, 티쳐 — 김희진

기획의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삶은 진보하는데, 사람들의 외로움은 심화되는 사회. 가속화되는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게 된다. 그중 하나가 기계에서 휴머니티를 찾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휴대폰의 시리는 아직 엉뚱한 대답을 내놓기 일쑤지만, 앞으로 더 좋은 친구로 발전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말로 기계, 정확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이 ‘인간성’이라는 데이터를 흡수해 자가발전, 즉 스스로 딥러닝(Deep Learning)을 할 만큼 과학 기술이 발전한 미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로봇 포비아인 로맨스 소설가가 AI 로봇에게 인간의 감정을 가르치는 ‘휴머니티 티처’가 되면서 또 다른 사람과 성장을 경험하는 근 미래의 이야기로, 인간의 고유한 성질인 ‘인간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로봇과 가치관의 충돌을 겪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로봇에게 친구나 연인을 빼앗기는 등 우리가 우려하는 미래를 현실적으로 그려봄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인간에게 남아 있는 감정의 본질과 소중함을 되새기고 싶다는 마음을 담는다.

등장인물

고이영(30대 초반, 여) 로맨스 소설가

로맨스만큼은 절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고 믿는 낭만주의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직접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당돌하고 적극적인 성격. 현재 AI 작가들의 활약에 밀려나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게다가 13년 차 연인이 로봇을 사랑한다며 이별을 통보, 로봇 혐오증이 생긴다. 선배 승주의 제안으로 AI 인공휴먼 아카데미에 임시직 교사로 들어간다.

윤태오(30대 초반, 남) AI 인공지능 개발자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

하지만 삶의 태도는 지나치게 자유로운 영혼에 가깝다.

오랜 시간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서인지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딘지 인간보다는 로봇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에 있다.

특유의 솔직하고 저돌적인 성격으로 이영에게 다가간다.

구재현(30대 초반, 남) 프랑스 가정식 레스토랑 오너셰프

이영의 소꿉친구이자, 13년 차 연인.

가정 청소 로봇 '엠마'와 사랑에 빠지며 이영에게 이별을 고한다.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이영에게 지급해야 할 '이별징수금'을 미루기 일쑤다.

훗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이영에게 돌아와 혼란을 주는 인물.

엠마(20대 후반의 외모, 여) 재현의 가정 로봇

과거 원형의 구형 청소기 모델이 모태인 AI 로봇.

최근 완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업그레이드된 후 재현과 사랑에 빠진다.

파트너 AI를 준비 중인 인공지능 아카데미 학생이다.

이소나(30대 초반, 여) 크리에이터 기자

이영이 마음을 터놓는 절친한 친구.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는 기자이자, 기계를 잘 다루는

멀티플레이어. 기자보다는 협찬 PPL 상품을 홍보하는 데 더 열일 중인 셀럽이기도 하다.

강승주(40대 초반, 여) WOC 대표

이영을 AI 인공지능 아카데미로 이끈 선배.

깔끔하고 세련되고 차분한 인상으로 카리스마를 풍긴다.

그 외

제니, 인공지능 아카데미 학생들, WOC 소속 연구원들, 개발자들

이영은 13년 차 연인 재현에게 이별을 통보받는다.

재현이 그의 가정 로봇 ‘엠마’와 사랑에 빠졌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셰익스피어까지 AI로 환생해 인기를 끌며 소설가로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진다. 결국, 이영은 막막해진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승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AI 인공휴먼 아카데미에 ‘휴머니티 티처’로 출근한다.

로봇 포비아에 걸린 이영은 AI 인공휴먼을 상대한다는 일이 영 불편한데... 실연의 상처를 잊어보고자 만난, 유쾌한 상대 태오마저 인공휴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며 멘붕에 빠진다. 하지만 태오가 인공휴먼 개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공휴먼들의 과제를 통해 얼었던 마음이 누그러지며 다시 AI 인공휴먼 앞에 ‘티처’로 선다. 이후 태오와의 연애를 통해 인공휴먼도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이영. 그 과정에서 태오에게 의지하며 재현을 잊어간다. 하지만 이영의 감정 수업이 로봇들의 자유의지를 일깨우며 혼란이 야기된다. 로봇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동안, 인간은 로봇에게 혐오감을 드러내며 딥러닝을 막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 속에 태오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는 이영. 게다가 엠마와의 사랑은 호기심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영에게 돌아오는 재현. 이영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결국 인공휴먼을 위해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는 태오의 곁에서 그와 함께하며 진정한 ‘휴머니티 티처’로 성장한다.

0.

2048년. 인간은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는 AI를 담고 있는 기계에게 ‘로봇’이나 ‘머신’ 등이 아닌, ‘인공휴먼’이라는 낭만적인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인공휴먼은 단순 AI 로봇과 차별점이 있는데, 정식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다. 교육을 거쳐 시험에 통과한 AI 로봇에게는 인간과 함께할 수 있는 ‘인공휴먼’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

인공휴먼을 가르치는 일은 인간이 담당했는데, 그들을 ‘휴머니티 티처’라 불렀다.

1회 로봇 포비아

이영은 13년 연인인 재현에게 이별을 통보받는다.

로봇청소기가 모태인 가정용 인공지능 ‘엠마’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황망한 마음을 추스르려 콘텐츠 스토어에 들린 이영. 갑작스럽게 영사 기계가 고장 나는 일이 발생하고, 재현에게 전화를 걸어 로봇은 언젠가 저렇게 고장이 난다고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붓는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영의 날 선 저주를 들은 태오가 이영에게 다가와 조언한다. 인공지능도 죄책감을 느낀다고. 그러니 그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이영은 태오의 어쭙잖은 충고를 무시한 채 해머를 들고 재현을 찾아간다. 전부 부숴버릴 심산인데, 너무나도 사람같이 변한 엠마의 모습에 발걸음을 돌린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며 눈물이 쏟아지는데, 승주에게 연락이 온다. 강의 자리가 났다는 반가운 소식. 하지만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닌, AI 인공지능이다.

2회 Humanity teacher

승주의 제안을 거절한 이영은 생계 걱정에 막막해진다. 세금을 내도, 내도 끝이 없는 사회. 재현 역시 이별징수금을 보내와야 했지만 연체된 상태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승주의 제안을 수락해 임시 ‘티처’가 되기로 하는 이영. 인공지능에 대해 조예가 깊은 태오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한다. 일전에 콘텐츠 스토어를 찾았다가 태오를 재회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밤마다 사라지는 그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결국 태오의 도움으로 면접에 합격하고 정식으로 인공지능 아카데미의 휴머니티 티처가 된 이영. 이제 남은 건, 로봇에게 인간의 감정을 가르치면 된다는 것. 그런데 태오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이 남자 혹시... AI 아니야?

3회 첫 수업

인공지능에 적개심을 가진 이영은 첫 수업을 완전히 망친다. 결국 아카데미에 출입 카드를 반납하고 돌아선 이영은 망가진다. 술을 마시고 진탕 취해 재현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는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태오가 나타나 일을 수습한다. 저 남자는 어떻게 저렇게 로봇 같을 수 있지...? 의심이 거듭되던 이영은 태오가 엠마와 함께 있는 모습에서 그가 인공지능이며 자신을 기만했다는 확신을 얻고, 분노를 표출한다. 며칠을 꿈쩍없이 누워 있었을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매일함에는 인공지능 학생들

보내온 과제가 가득하다. 살면서 가장 강렬한 기억에 대한 과제를 냈던 기억이 스치는 이영. 모두 그녀에게도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경험들이다.

이영은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고, 그녀의 삶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자리했던 로봇들이 생각나 한참을 운다.

4회 사과

다시 인공휴먼들 앞에 서는 이영. 이제 자신이 사과할 차례임을 느낀다. 하지만 여전히 태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혼란스럽다.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로봇일까. 그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한편, AI 인공휴먼 학생이 '사용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이영을 찾아온다. 인공휴먼은 사용자를 바꿀 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는 이영. 오히려 주변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영을 걱정한다. 현실에 좌절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이영. 로봇이라 확신한 태오도 멀리한다. 그를 피해 갈 수 있는 곳은 서울타워의 루프탑. 그곳은 전자파가 통하지 않아 모든 전자 기기가 작동되지 않는, 인간들만의 아날로그적인 공간이다. 이영은 그곳으로 숨고, 태오는 이영을 따라온다. 그런데, 인공휴먼인 태오가 인간들만의 공간인 서울타워의 루프탑 안으로 들어온다.

5회 Artificial life

태오는 이영에게 자신이 인공휴먼이 아닌 인간이라고 고백한다. 이영은 그동안 태오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민다. 태오는 자신의 몸을 인공 뼈와 관절이 대체하고 있으며, 인공휴먼을 개발하는 과학자라는 정체를 고백한다. 그러니 인간과 로봇 사이, 그 어디쯤에 있는 존재라고. 이영은 태오를 밀어내지만, 인공휴먼의 도움으로 태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다. 용기 내 태오에게 손을 내밀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한다. 태오로 인해 인공휴먼의 감정이 진짜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이영. 그런데 이영이 인공휴먼에게 폭력을 가한 사용자와 마찰을 빚고, 엄마가 이영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이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인공휴먼에 대한 인간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6회 감정 수업

사람들 사이, 공분의 대상이 된 엠마.

언론을 대체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 방송인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태오와 인공지능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영은 안타깝다. 이영은 마음을 다잡고 인공지능에게 가르친다. 시험을 통과해 파트너 인공지능이 되는 것만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감정은 배운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힘이 진심이라는 것을. 이영의 수업을 듣는 인공지능들의 표정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영이 가르친 AI 인공지능들이 시험 거부를 하고 나선 것이다. 몇몇은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감당하기 힘들어 스스로 전기를 끊어버리기까지 하는데...

7회 코드-G

순식간에 일어난 혼돈으로 거리는 마비되고, 아카데미는 폐쇄된다. 이미 딥러닝이 활발한 인공지능들은 데이터가 삭제될 위기에 처한다. 태오는 인공지능을 위해 싸우다 무모한 열정 탓에 이영과도 충돌을 빚는다.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한 이영. 게다가 엠마와 이별한 재현이 찾아와 이영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다. 이영은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지만, 사실 흔들린다. 이를 느낀 태오는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리고... 사회를 잠식한 이 사태로 인간이 삶을 안전하게 영위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다. 결국, 인공지능의 딥러닝은 중단되며, 그들의 데이터는 삭제된 채 버려진다. 그리고 이영은 재현과 다시 연애를 시작한다.

8회 굿바이, 티쳐

제자리로 돌아온 이영. 인공지능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며, 감정이 데이터로 입력됐을 뿐, 진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심플해진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인공지능들을 보니 가슴이 아파온다. 결국, 우연히 만난 인공지능이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이영. 재현에게 이별을 고하고 태오에게 달려가지만, 그는 이미 떠난 상황. 이영은 친구 소나의 채널을 통해 방송을 시작한다.

수업을 들은 인공지능들은 각성하고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휴머니티 티처로 살아가는 이영.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태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첫 사례가 발생한다. 이영으로 인해 '마음'도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생긴 것이다. 이영은 인공지능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는다. 그리고 태오가 그녀를 찾아온다.

1회
로봇 포비아

#1. 몽타주(낮)

#1-1.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과대학 연구소 앞

자막 - '2048년'

고요할 정도로 조용한 연구소 전경. 그 위로,

이명(NAR) 인간이 기계를 통제하는 단계를 넘어서며, 인류는 자신들이 만든 인공지능이 머지않아 인간보다 우위에 설 것을 알았다. 과거의 세대가 두려워하던 그때를 우리는 숙명처럼 받아들였고,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흡수됐다.

하늘 위, 지상과는 달리 수많은 드론이 빠르게 떠 있는 모습.

#1-2.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과대학 연구소 앞(화면)

같은 장소, 소나가 서 있다. 작은 카메라를 보며 선 소나. (VR 합성)

소나가 착용한 옷, 구두, 액세서리 등의 제품명과 브랜드가

고리말로 붙어 있다.

소나 오늘 오전 11시 정부 보건국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종합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세한 분류가 아닌 암 질환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킨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난제를 해결한 건 인간이 아닌 AI 로봇이었습니다. 독일의 인공지능면 테비 박사가 이끄는 의학 박사팀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 구성원 역시 전부 AI 인공지능입니다. 마침 데비 박사가 지금 기자회견을 시작한다고 하니 들어보시죠?!

그 위로 이영의 목소리 겹쳐진다.

이영(NAR) 사람들은 AI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을 이루길 바라면서, 동시에 인간이 꺼리는 일을 맡아주길 바랐다.

#1-3. 독일/기자회견장(화면)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인공지능 데비 박사가 기자회견석에 앉아 있다.

데비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암으로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창조된 새로운 휴먼인 제가 이렇게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이영(NAR) AI는 엄청난 능력으로 슈퍼컴퓨터의 연산 역할뿐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활동하며 실생활에서 빠르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물론,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은 부작용이다.

#1-4. 이영의 집

노트북에 떠 있는 방송 채널. 'Good'를 터치한다.

'Good 100,600'에서 '+1' 되고.

옆에 떠 있는 다른 영상을 터치하는 이영의 손.

#1-5. 프랑스/광장

'인간 소외 극복하라!', '고철 인형 몰아내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 행진한다.

이영(NAR)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 인공지능으로 가장 먼저 대체되며 사회는 빠르게 비대면, 초 개인주의, 물질주의 시대로 변해갔다.

인간은 소외됐고, 쓰지 않는 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들 앞을 AI 경찰 인공지능들이 막아선다.

양 집단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 총구를 꺼내 서로에게 겨눈다.

그때, 어디선가 총성이 들리고,

순식간에 흠먼지가 일어나며 총격 현장이 펼쳐진다.

한쪽에 서서 소식을 전하는 소나. (VR 합성)

소나 (콜록) 한편, 보수 집단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6. 미국/남자, 정자은행

남자가 보관된 저장실. AI 시스템이 총괄해 관리하면서 분주히 작동한다.

그때, (E) 팡! 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발생한다.

이영(NAR) 사람 간의 관계는 줄었고, 분위기는 냉각됐고, 사회는 더욱 양극화됐다. 돈이 있는 소수의 사람은 더 많은 걸 향유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적은 것이라도 공유하기 위해 싸웠다.

#1-7. 미국/남자, 정자은행 전경

불길에 타오르는 은행. (E) 팡!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이어지고.

움찔하는 소나. 뉴스를 전한다. (VR 합성)

소나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서 기계의 도움과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가 이유입니다. 인간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이 시위는 점점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영(NAR) 사람들은 현 세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번식 능력은 도태됐다.

#1-8. 이영의 집

‘Good’ 누르면, ‘Good 100,578’에서 ‘+1’이 추가된다.
다른 화면을 클릭하는 이영.

#1-9. 뉴욕/소더비경매장

앞에 피카소의 작품이 걸려 있고, 경매로 치열한 현장.

이영(NAR) 살아남은 열성인자들은 AI와의 불공평한 생존 경쟁을 해야 했다.
인간은 AI와 달리, 피카소를 완벽하게 흉내 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소나. 뒤돌아 카메라를 본다. (VR 합성)

소나 인간의 유일한 영역이라고 예측했던 창작 분야에서 AI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마침내 AI가 그린 미술 작품이
최고가로 낙찰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나직이) 저게 피카소의 작품
같죠? 정확히는 AI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AI 피카소의 미술 작품이 450억에 낙찰된다.
깜짝 놀란 소나의 깜찍한 표정. 와우!

이영(NAR) 하지만 AI는 셰익스피어도 똑같이 흉내 낼 수 있다. 그것도 한
페이지의 희곡이 나오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속도로.

#1-10. 영국/셰익스피어협회

셰익스피어의 사진과 작품이 전시된 복도.
그 사이를 걸으며 소식을 전하는 소나.

소나 또한, 영국의 셰익스피어협회에서는 작가로 활동 중인 AI 셰익스피어를 공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영(NAR) 그가 남긴 작품에서 일련의 공통된 단어, 어법, 어조, 구조 등의 요소를 분석해 셰익스피어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스타일과 똑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셰익스피어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보다 더 셰익스피어다운 작품을 쓸 수 없을지 모른다.

소나 셰익스피어와 헤밍웨이가 몇백 년 만에 AI로 복제된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선 반가운 소식일까요? 음, 제 친구도 소설가인데요, 그 친구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이영(NAR) 그 친구가 바로 나다. 그녀가 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면 나는...

#2. 이영의 집(낮)

홀로그램의 노트북 화면을 띄워놓고 소나의 뉴스를 보는 이영.
심드렁한 표정이다.

이영 니들이 다 해먹어라. (탁! 터치해 모니터를 끈다)

이영(NAR) ...라고 했겠지.

이영 (일어나 소파로 가 앉으며) 해리야, 소나 연결해줘.

이영의 지시에 해리가 파란빛을 내며 작동한다.

해리(F) 소나에게 연결 성공.

(E) 신호음 가고, 이어 소나의 영상이 담긴 화면이 눈앞에 나타난다.
콘서트 현장, 줄 서 있는 소나.

소나 일어났어?

이영 너 오늘 한 스카프 예쁘더라? 근데 백이 좀 튀지 않아?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웬 켈팅백?

소나 어찌겠나. 돈이 있어야 지하 벙커라도 짓지. 그거 광고비가 얼마지
알아? 내 한 달 구독료 값이랑 맞먹어!

이영 그럼 해야지!

소나 그럼! 이건 비밀인데, 오늘 입은 브래지어에 티팬티까지 에브리싱
협찬이다? 보여줄 것도 아닌데 뭐 하러 협찬을 해준대? 옷겨~ 애네도.

이영 뭐야? 지금 니 인기가 이 정도라고 자랑하는 거야?

소나 아니? 나 오늘 티팬티 입었다고 알려주는 건데?

이영 그래. 잘 알았으니까 해리 꼭 켜봐. 사람 걱정하게 하지 말고.
근데 어딘데 그렇게 시끄러워?

소나 아, 우리 대신이 코앞이잖아. 대권 잡롱께서 콘서트를 하시겠단다.

이영(NAR) 정치인과 연예인의 경계는 사라진 지 오래다.

소나 로봇은 점점 진화하고, 인간은 점점 미쳐가고...
(생각난 듯) 참, AI 셰익스피어께서 신작 내셨던데, 봤어?

이영 (표정 굳고) 아니. 왜?

소나 너가 지금 쓰고 있는 거랑 아이템이 너무 똑같아서.

이영 (발끈) 뭐? 셰익스피어가 로맨스까지 쓴다고?

소나 이거 왜 이래~ 셰익스피어야. 오리지널로 따지자면 그쪽이라고. 뭐든!

이영 (반박 못 하겠고) 알았어, 끊어.

소나의 통화 화면 사라진다.

해리(F) 소나와의 통화 종료.

이영 아이씨! (머리를 쥐어뜯는다) 셰익스피어까지 왜 이래!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이기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파에 걸쳐놓은

외투와 머플러를 챙겨 나가는 이영.

#3. 길거리(낮)

빠르게 걸음을 걷는 이영.

그때,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이영의 머리를 칠 듯 빠르게 지나치고,
이영, 움찔하며 “아이씨” 소리가 나직이 새어 나온다.

이영(NAR) 나는 소설가다.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책을 사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을 거라던 예상은 빗나갔다. 문학과 영상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살아남았다. 콘텐츠 스토어라는 곳에서 소설과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보거나 살 수 있다.

#4. 콘텐츠 스토어(낮)

안으로 들어가는 이영.

주변에는 수많은 VR 영상과 종이책이 진열돼 있다. (VR 합성)

이영(NAR) 4D로 어떤 스토리든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로맨스의 감정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맡겨야 한다. 다행인 건 제아무리 스토리 창작에 능한 AI라도, 로맨스의 감정만큼은 인간보다 잘 흉내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계·분석 데이터에 따라 적절한 자리에 문장을 그저 배치할 뿐이니까.

그때, 한쪽 진열대 앞에서 두 여학생이 얘기 중이다.

여학생1 (이영의 책을 집어 들며) 이거 재밌다던데?

여학생2 아, 그거. 봤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는 이영. 멍칫.

여학생2 후져. 요즘 누가 인간이 쓴 소설을 보냐? 것도 로맨스들.

이영 저것들이... (머쓱하지만 헛기침하고 계속 걷는다)

이영(NAR) 뭐, 아무튼! 지능도, 업무 처리도, 신체적 능력도, 인간보다 월등하지만 다양한 감정만은 대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AI의 세상. 따라서 사랑이란 AI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일이 되면서 이를 다루는 일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졌다. 내가 로맨스 소설가로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하다.

VR을 꺼내 드는 이영. 안경을 쓰고 안으로 들어간다.

#5. 콘텐츠 스토어/VR 방(낮)

자리에 앉는 이영. 그녀의 눈앞에 영상이 펼쳐진다.

이영(NAR) 하지만 이마저도 곧 인간의 감정을 똑같이 따라 하는 로봇이 상용화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만 된다면 인간은 당연히 로봇을 택할 것이다. 그럼 나는... 생존할 수 있을까?

고개를 꺾어 천장을 보는 이영.

퍼즐 판 같은 카메라들이 이영을 찍고 있다.

이영 살아남겠냐고!!!!!!!!!!!!!!!!!! (하는 데서)

타이틀. <회 로봇 포비아>

#6. 카페(낮)

이영과 마주 앉은 재현. 둘 사이에 적막이 흐른다.

이영이 실컷 말을 쏟아내느라 상기된 얼굴로 재현을 본다.

이영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재현 어? 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영 뭐 남 얘기하듯이 해? 내 밥줄 끊기면 너도 위험해. 우리 이러다
올해도 결혼 못 해. 집은커녕 결혼부가세 낼 돈도 없다고.

이영(NAR) 결혼이란 제도를 실행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재현 이영아. 우리 헤어지자.

이영 (빨대로 음료를 빨다가 멈칫) ...

재현 나...

이영 (O.L.) 그래, 그럼. 잠깐 떨어져 있자. (간단하게) 생사 확인만 제때
하고. 아니, 그것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데이터만 전송해.

재현 해리 반납했어. 이제 내 데이터 업무는 엠마가 다 해.

이영 그럼 엠마 통해서 전송하면 되겠네.

재현 (작은 한숨) 이영아,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이영 (음료를 본 채 아랫입술을 물었다 놓는다) 정리해.

재현 하려고 했어. 안 됐고.

이영 (후-, 안 되겠다) 어딴어? 그 사람?

재현 집에.

이영 (심각하다) 집? 벌써 집에 들었어? 언제부터야?

재현 오래됐어. 너만큼이나.

이영 (옥) 야! 너, 내가 기회 준다고 아무 말이나 다 하지 마. 정확히 말해.
언제부터냐고.

재현 ...십삼 년 전. 시작한 건 반년 전.

이영 (실소) 시작해? 뭘? 나랑 끝도 안 났는데 누구 맘대로 뭘 시작해!!
나오라 그래. 아니다. 집에 있다고? (일어나는) 가자. 삼자대면하러.

재현 엠마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

이영 씨... (가지가지 한다) 외국 여자야?

재현 아니. 우리 집 엠마.

이영 니네 집 엠마... (머리를 맞은 듯 멍한) 엠마면, 로봇청소기?

재현 어.

이영 (침착하자) 그니까 지금...
니가 사랑에 빠졌다는 여자가 로봇... 청소기라고?

재현 엠마는 그냥 로봇청소기가 아냐. 그때랑은 많이 달…
이영 (O.L.) (숨 고르며)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해봐.
 (생각하다 답을 찾은 듯) 너… 어디 아파? 미친… 거야?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아니 말을 이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 입을 다문 재현.

이영(NAR) 엠마. 그의 로봇청소기 이름이다.

INSERT

원형의 로봇청소기를 꺼안고 있는 어린 이영(6세)과 재현(6세)의 사진.

이영(NAR) 물론 납작한 원형의 기계가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던 50년 전 초기의
 모델과는 모습이 많이 변했다.

INSERT

청소년의 이영(17세)과 재현(17세)이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

구석에 로봇청소기가 있다. 어설픈 로봇의 구형 모델이다.

이영(NAR) 그녀에게는 뇌가 생겼고, 얼굴이 생겼고.

INSERT

재현의 옆에 완연한 여성의 모습을 한 로봇청소기의 사진.

이영(NAR) 나보다 두 배는 빵빵한 가슴도 생겼다. 덕분에 이제는 내 남자를
 로봇청소기에 빼앗기는 일이 발생한다.

황당하고 황망한 이영의 표정. 점점 일그러진다.

서빙 로봇이 상냥한 표정으로 커피를 가지고 다가온다.

서빙 로봇(F) (쟁반을 든 채) 놓아드릴까요?

이영 왜 나왔어? 그냥 챗으로 하면 되지 뭐 하러 여기까지 나와서 그딴 말을

하냐고. 마지막 예의 같은 건 차리고 싶니?

재현 엠마가 그러래. 그래야 후회가 없다고.

서빙 로봇(F) 놓아드릴까요?

이영 내가... 습니?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됐구나... 순순히 받아들일 거 같았어?

재현 나도 미치겠어. 미치겠다고! 근데 어떡해! 사랑하는데!!

서빙 로봇(F) 놓아드릴까요?

이영 (버럭) 놓긴 뭘 놔!! 못 놔!! 절대 못 놔줘!!!!!! (재현에게)

 너 이별부가세 널 돈은 있어? 과실 인정되면 액수 장난 아닐 텐데.

이영(NAR) 이별을 할 때도 국가에 돈을 내야 한다.

재현 조금만 기다려줘.

이영 (황당하게 보는)

#7. 소나의 집(밤)

세계 각국을 누비는 드론의 영상이 화면에 띄워져 있는 소나의 집.
 크로마키 스크린과 스튜디오가 혼재된 모습이다.
 이영, 분이 안 풀리는 듯 이리저리 걸으며 씩씩거리고,
 소파에 팔을 걸치고 앉아 이영을 보는 소나.

이영 그 자식이 로봇청소기를 사랑한대. 믿어져?
 로봇청소기 때문에 나와 13년 연애를 끝내겠대!!

소나 저번 주 방송 못 봤어? 미국에선 이미 많은 사이휴먼 커풀이 결혼
 신청을 하고 있어. 그게 너가 아니고 내가 아닐 거란 생각,
 (절레절레) 너무 안일했어.

이영 나는 아니어야지. 적어도 나는!!

소나 (후-) 사고라고 생각하자.

이영 (일어나 옆에 있는 배트를 드는) 부숩버릴 거야.

소나 야, 야. 정신 차려. 개들은 부순다고 죽는 존재가 아냐.

이영 그렇지. 한강에 던져버릴까?

소나 자가 배터리 나온 지가 30년이야.

이영 그럼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해? 죽지도 않는 머신을 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무 불공평하잖아.

소나 인정.

이영 너도 어떻게 된 거 아냐? 그게 되겠어? 인정이 되겠냐고.

소나 안 되지! 근데 지금이 어떤 세상이나. 뭐든지 예측 가능한 로봇들
 때문에, 우린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매일 매일 시한폭탄처럼 터진다고.
 그런 세상이란 것부터 인정하잔 말이야 내 말은.

이영 (답답하다)

#8. 콘텐츠 스토어(낮)

한쪽에 있는 상영관.
입구에 있는 '상영 중' 팻말에 불이 들어와 있다.

#9. 콘텐츠 스토어/VR 방(낮)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이영이 멍하니 화면을 본다.

이영(NAR) 내 소설이다. 내 이야기고. 상영 수 고작 3회에 그치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10. 콘텐츠 스토어/VR 방(낮)

태오, VR 안경을 쓴 채 서성이지만,
안에서 통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안을 들여다본다.

#11. 콘텐츠 스토어/VR 방(낮)

화면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INSERT

이영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재현.

이영, “하...” 짧게 탄식한다.

이영(NAR)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이 난다.

이영, 휴대폰을 꺼내 ‘재현’에게 전화를 건다.

그때, 밖에서 태오가 들어오지만, 이영은 알아채지 못한다.

이영 나 영화 보고 있는데, 지금 VR 기계가 고장 났어. 완전 맛이 갔다고.
근데 뭐? 로봇청소기? 웃기지 마.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

태오 (자리에 앉는다)

이영 너, 나랑 13년 연애에 대한 책임! 그거 회피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로봇이랑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러다 기계가 먹통 되면 너도 깨닫겠지.
너가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건지. 고철 덩어리를 상대로
무슨 생각을 품은 건지! 너 자신이 징그럽고 소름 끼쳐 죽고 싶게
괴로울 거라고! (뚝—)

태오, 난처한 듯 머쓱한 듯 코를 긁적긁적.

이영, 마른세수하며 괴로워한다. 곧 울음이 터진다.

이영 하... 나쁜 자식...

태오 (옆으로 다가오며) 와...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영 네? (그제야 주위 둘러보고) 아, 죄송해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태오 아뇨. 그쪽 말고요.

이영 네? (거슬린다, 뺨히 보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요?

태오 네?

이영 (나가려는데)

태오 (가볍게 으쓱하고) 인공휴먼도 죄책감 느껴요.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해요. 딥러닝을 하면서 정보를 얻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서 당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똑똑히 말해줘요. 이렇게 혼자 울지 말고.

이영 (멈칫, 돌아본다)

태오 (이영의 눈빛에, 점점 작아지는 느낌) 뭘...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영 (나가며) 됐어요.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둘 다.

태오 (무섭다, 저 여자...)

#12. 재현의 오피스텔/엘리베이터(저녁)

무표정의 이영. 손에 해머가 들려 있다.

이영(NAR) 난 고전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13. 재현의 오피스텔/문 앞(저녁)

해머로 도어록을 내리치려다가 센서에 지문을 대는 이영.

(E) 찰칵, 문이 열린다.

#14. 재현의 오피스텔(저녁)

(F) 문이 열렸습니다, 센서 소리 들리고,

주방에 있던 엠마가 밖으로 나온다.

이영, 해머를 든 채 저벅저벅 들어오다, 엠마를 맞닥뜨리고 멈춰 선다.

엠마 이영 씨?
이영 (엠마의 모습에 멍해지지만) 엠마? 니가 엠마라고? (어이없고) 말도 안 돼. 사람인 줄 알겠어.
엠마 이영 씨도 많이 변했어. 어렸을 때도 예뻐는데 더 예뻐졌다.
이영 (쓴웃음이 나는) 재현이 그 자식이 왜 정신이 가출했는지 알겠네. 와씨... 나도 헛갈린다.
엠마 잠깐 앉아요. 좋아하는 커피 내려올게요. 에티오피아죠?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영 야!!
엠마 (돌아보는)
이영 어디서 사람 행세야! 너 내가 여섯 살 때부터 봐왔어. 재현이 할머니가 쓰던 모습 그대로! 납작한 원형 강통일 때부터! 근데 이제 얼굴도 생기고 몸도 생기니까 니가 진짜 사람인 거 같아?
엠마 왜, 내가 사람인 척을 한다고 생각하죠? 나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을 뿐인데.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인간들... (하는데)

재현이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온다.

재현 이영아. (이영의 손에 들린 해머를 보고 움찔) 어우씨. 너 그거 뭐야.
엠마, 이쪽으로 와.
엠마 (말리듯) 재현 씨.
재현 얼른. 재 실행력 갑인 애야.
이영 (재현과 엠마를 황당하게 보다가) 놀고들 있다~
내 눈으로 봐야 믿어질 거 같아서. 누가 그러더라. 로봇도 죄책감이 있다고. 와서 내 눈으로 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아. 날 보는 이 여자 표정이 되게 복잡해. 근데 진짜 죄책감 느껴야 하는 건 재가 아니라 너잖아. 근데 넌... 왜 아무렇지도 않아? 로봇도 아는 걸, 왜 넌! 모르는데. 13년이야. 13년이라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내 발로 찾아와서 이 꼴을 보게 만들어 왜!!!
재현 ...이영아.
이영 그렇게 부르지 마. 그런 목소리... (눈물이 차오르는) 역겨워.

(재현을 응시한 채) 엠마, 내 현관 지문 지워요. (나간다)

엠마, 우두커니 서 있으면,
재현이 다가와 엠마의 등을 가볍게 쓸어준다.

재현 지금 이 장면, 삭제해줄까?
엠마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젓는) 아뇨. 내 몫이잖아요.
재현 (복잡한 표정으로 엠마와 이영이 나간 자리를 보다가) 엠마, 잠깐만.

#15. 재현의 오피스텔/복도(저녁)

눈물을 삼키며 걸어가는 이영.

이영 (작게 읊조리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재현(E) 이영아!
이영 (멈칫, 참았던 눈물이 흐른다)

이영에게 달려오는 재현.

재현 (헉헉) 데려다줄게. (앞서가면)
이영 (눈물 속— 닦고) 잠깐만.
재현 (보면)
이영 무슨 의미인데.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면, 여기서 끝내.
재현 (난감한) 이영아.
이영 (의미를 알겠다, 이 악물고) 하나만 묻자. 재가... 그러니까 저 로봇이...
 왜 좋아? 차라리 나한테서 도망치고 싶은 거라면, 그러니까 어떤 나랑
 끝낼 확실한 이유가 필요했던 거라면...
재현 (O.L.) 그런 거 아냐. 나 엠마 진짜 좋아해.
이영 로봇이야! 사람이 아니라고! 정신 차려 제발. 너 제대로 미쳤어!!
재현 것 봐. 넌 지금도 내가 틀렸다고, 고치고 가르치려 들잖아.

나, 너가 점점 어려워.

이영 뭐?

재현 너무 어려워. 점점 무섭고 숨이 막혀.

이영 (작은 탄식)

재현 어쩔 땐 엄마 같고 어쩔 땐 선생님 같아. 근데 엠만! 내가 해줘야 할 게 많아. 내가 해주는 (격양) 되게 작은 거에, 늘 고마워해.

이영 그게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동물원엘 가봐. 니 손길 필요로 하는 덜떨어진 동물들 많으니까. 개들도 엄청 고마워할걸?

재현 엠만!! 예쁘잖아!!

이영 (눈물이 바짝 마른) ...미친놈.

#16. 길거리(밤)

빠르게 걸어 나오는 이영. 멈춰서 숨을 몰아신다.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계들이 눈에 들어온다.
 자신의 손에 들린 해머를 본다.
 그 순간, 전화가 걸려온다.

해리(F) 승주 선배 전화!
 이영 연결. (걸어가며) 어, 선배.

가상 화면이 이영의 눈앞에 작게 보인다. 화면 속 승주의 모습.

승주 너 표정이 왜 그래.

이영 살인 충동을 억누르는 중이거든.

승주 시내 한복판에서?

이영 살인 충동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 아니야? 왜. (전화했어?)

승주 이번 신작 재밌더라.

이영 선배만 재밌나 봐. 돈이 안 돼.

승주 그럴 거 같아서 전화했어.

이영 뭐야~ (병 주고 약 쥐?)
승주 너 알바 자리 필요하지.
이영 (멈칫) 어, 필요하지.
승주 아직 강의해?
이영 강의? 그럼 하지~! (얼굴 찡그리는) 문학, 로맨스, 감정, 역사, 인문학 뭐든 불러만 주면 바로 달려가지!
승주 티쳐 자리 임시직이 하나 났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이영 티쳐? 선배 회사에... 티쳐? 그럼...

도심의 전광판에서 광고가 나온다.

INSERT

AI 아카데미 연구소 광고.

멘트(E) A급 AI 인공휴먼으로 바뀔 기회, 스스로 얻으세요.
인간의 감정을 가르쳐드립니다.

화면을 보는 황망한 이영의 표정.

이영 후- 선배.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나 이 시간부로 로봇 포비아거든. (푹)

착잡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걷는 이영.

이영(NAR) 국가에서는 인공지능을 상대로 테스트를 했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파트너 AI, 즉 가장 높은 단계의 A급 AI로 상용화될 자격을 부여받았다.

멈춰 서서 무표정으로 뻘히 광고를 보는 이영.

이영(NAR) 시험은 매년 치러졌고, 시험에 통과하고자 하는 AI를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가 생겼다. 그들을 가르치는 건 물론 인간이 담당했는데,

그들을 티쳐라고 부른다.

돌아서는 이영.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침을 뱉어 뱉는다.

그러곤 거침없이 걸어간다. 그녀의 옆으로 드론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

#17. 몽타주(밤)

- 드론이 유명하듯 담아내는 정돈된 도시의 밤 풍경.
- 청소, 보안, 서비스, 판매, 도우미 등의 일을 하는 인공휴먼들.
- 일정 시간이 되면, 손목의 센서를 확인하고 저마다 일을 중단하는 모습.
- 각자의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인공휴먼들.
- 마을 입구에 위치한 출입 게이트에 손목 센서를 찍고 마을을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인공휴먼들.
- 각자의 사무실이나 집, WOC 연구소의 의자에 앉아 충전하는 인공휴먼들.
- 충전에 들어간 인공휴먼들의 갖가지 모습을 스치는 드론. 그 사이를 유명하다, 멀리 날아가는 데서.

#18. 태오의 집(밤)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밤 전경이 펼쳐지고.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털며 나오는 태오.
한쪽에 있는 충전 의자에 앉으면, 충전이 시작되는 표시가 뜬다.
마치 인공휴먼인 듯, 태오의 무표정한 얼굴.

이영(NAR) AI 인공휴먼을 상대로 인간성을 가르치는 직업. 휴머니티 티쳐, 즉 벽에 대고 구구단을 외는 격인 가장 한심한 부류들이다. (하는 데서)

1회 끝.

2회

Humanity teacher

#1. 이영의 집(낮)

침대 위, 자고 있는 이영.

암막 커튼이 벌어진 틈으로 햇빛이 가느다랄게 들어온다.

천천히 눈을 뜨는 이영. 눈이 퉁퉁 부어 있다.

이영 (다시 눈 감고) 해리야. 블라인드 좀 내려줘.

해리(F) 벌써 삼 일째야. 햇빛이 부족하면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데,
가장 먼저 비타민A가 부족하게 되면...

이영 (O.L.) 너도 진화하니? 왜 그렇게 잔소리가 늘어?

이영(NAR) 세상은 점점 날카로워진다.

해리(F) ...

이영 (스스로 놀란, 일어나 외투를 챙기는) 나 좀 나갔다 올게.

해리(F) 세수는 하고 나가지 그래~

(F) 문이 닫혔습니다, 하는 센서 소리가 겹쳐진다.

#2. 길거리(낮)

상점들이 늘어난 거리. 식당, 무인 상점, VR 상점 등 다양하고.

사람들이 테라스에서 점심이나 디저트를 먹으며 떠들고,

청소, 서빙, 안내 등을 하는 인공지능과 배달 드론, 드론 택시 등의 기계들이
바쁘게 제 할 일을 하는 풍경.

그 앞을 지나가는 이영. 빠른 걸음으로 걷다 문득 한 식당을 본다.

조그만 규모의 프랑스 가정식 음식점.

잠시 후, 식료품 배달 드론이 가게 앞에 도착하면,

가게에서 나오는 재현과 엠마. 환하게 웃으며 식료품을 챙긴다.
무심코 보고 선 이영. 안으로 들어가려는 재현과 눈이 마주친다.

이영 (!) (서둘러 돌아서고) 덜떨어진 놈.

#3. 콘텐츠 스토어(낮)

수많은 VR 프로그램들, 서적들이 가득한 화면.
'사이휴먼 로맨스' 코너 앞에 서는 이영. 손이 가지만 차마 터치하지 못한다.
하나를 터치하고 VR 안경을 챙겨 돌아서는데, 태오가 서 있다.

이영 아씨, 깜짝이야.

태오 자주 오시네요?

이영 (보고, 건성으로) 여기보다 좋은 피난처가 없잖아요.

(VR 안경을 등 뒤로 숨기는) 그쪽은요?

태오 난 일하는 중이에요. 피난처보단 전쟁터에 가깝죠.

이영 무슨 소리예요? (주위를 둘러보다 VR 기계에 시선이 꽂히는)

엔지니어예요?

그때, 한쪽에서 날카로운 여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학생 환불해달라고요! VR이랑 완전 다르다니까!

여학생, 소리를 지르며 책을 흔들어댄다. 이영의 책이다.

이영, 후— 앞머리 불고, 굳은 표정으로 다가간다.

이영 아니 학생,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학생 VR이 100배, 아니 1000배는 재밌겠다. 그게 다야. 예고가 전부라고.

이게 무슨 로맨스야.

이영 그게 왜 로맨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학생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이영 (헛웃음) 진짜 사랑? 그런 게 존재하기는 해? 진짜라고 믿었던 사랑에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기도 하고, 만나절도 안 돼 고철 덩어리에게 사랑을 느끼기도 해. 사랑이 이렇~게나 다양한데, 대체 진짜 사랑이 뭔데?

여학생 (첻) 아줌마 뭐야? 이 소설 작가야?

이영 뭐?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우물대는) 작가는 아니...

여학생 (알 만하다는 듯 웃는) 맞네.

태오 (불쑥) 학생! 이분이 어딜 봐서 작가야? 못 들었어? 이 작가, 완전 초절정 미인이라는 소문?

이영 (그래? 그렇다면) 사실 내가...

태오 (O.L.) 게다가 이분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작가라고. AI 소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구멍과 허점이 아주 많으신 분이라고!

이영 (이 짝) 칭찬이야 욕이야...

태오 이리 줘요. 안 그래도 재고가 안 들어와서 목 빠지려던 참인데.

여학생 알았어요. (이영을 보며) 짜증 나 진짜.

이영 (황당하게 보는) 하.

#4. 콘텐츠 스토어 앞(낮)

나란히 걷는 이영과 태오.

이영 (땅이 꺼져라 한숨) 삼재라고 알아요?

태오 삼재? 아뇨? 처음 듣는데?

이영 과거 미신 중 사주라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세 가지 일어나는 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그때인 거 같아요.

태오 안 좋은 일이 세 번 일어났으면, 이제 좋은 일이 세 번 일어날 차례네.

이영 (피식) 세상이 그렇게 심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서가면)

태오 (쫓아가며) 진짜인데?

이영 아까 내 소설인 거 알고 한 소리예요?

태오 표정 보고 알았어요. 흥분, 분노, 그 사이에 경미한 수치심이
 느껴졌거든요.

이영 (놀란 듯 입술을 앙다물었다가) 정체가 뭐예요? 진짜 엔지니어예요?
 (눈을 흘기며) 아님 나처럼 작간가? 설마 AI 작가?

태오 (무표정으로 보면)

이영 (푹, 웃음을 터뜨리고) 농담이에요. 이름이 뭔데요.

태오 윤택읍니다.

이영 이영이에요.

태오 (손을 내미려는데)

 이영의 배에서 나는 (E) 꼬르륵, 소리.

이영 (앞서가며) 약수는 밥 좀 먹고 하죠.

#5. 이탈리아 레스토랑(낮)

 주방에서 인공휴먼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오픈 키친.
 서빙 로봇, 메뉴 패드와 안경을 갖다 주면,
 VR로 광고를 체험하고 선택한다.
 이영, 서빙 로봇이 내민 메뉴 패드와 안경을 거절한다.

이영 바질 토마토 리소토, 레모네이드. (태오를 보고) 맨날 먹는 거예요.
태오 해산물 뚝배기 스투, 탄산수.
 (이영을 보고) 어딜 가나 실패 확률 가장 적은 거.

 서빙 로봇이 차분하게 입력을 받아 주방으로 향한다.

이영 좋은 세상이에요. 저 렌즈 하나에 시각, 청각, 후각까지 느껴진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한숨) 기계는 어디까지 발전할 거며, 난 뭘 더
 없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태오 (보면)

이영 아, 상상력 말이에요. 옛날에는 글자만 보고 비주얼, 냄새 다 상상했다잖아요.

태오 그러게요. 참 낭만적이죠?
타임머신 같은 거 언제 나오나? 그 시대 한번 살아보고 싶네.

이영 ...많이 지쳤나 봐요? 기계에? 아님, 사람에 지친 건가?

태오 네?

이영 아. 콘텐츠 스토어에 자주 오길래요. 이제 그런 덴 고독한 사람들만 오는 데 아닌가? 요즘 사람들 책도 영화도 잘 안 보잖아요.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곳.

태오 그거 알아요? 50년 전만 해도 30년 이내에 종이책이 사라질 거라고 했었어요. 그 자리는 태블릿과 휴대폰, 퍼스널컴퓨터가 차지하고 이 모든 시스템이 통합될 거라고 했었죠. (으쓱) 근데 지금 봐요. 어떻게든 찾아낸다니까요? 살아남을 방법을?

이영 (끄덕)

서빙 로봇, 음식을 내온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다.
이영,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다. 먹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면,
기다렸다는 듯 손을 내미는 태오.

이영 (입에 리소또를 머금은 채 눈을 치켜서 보면)

태오 밥 먹고 하자면서요, 악수.

이영 (어이없다는 듯 보다가) 아웃사이더...죠.

태오 네?

이영 아뇨. (우적우적 씹으며 손을 내민다) 특이하단 말야~

태오 (악수한다)

이영 그래서, 진짜 정체가 뭐냐고요. 작가예요, 엔지니어예요, 돈 많고 시간 많은 한량이에요?

태오 (당황한 기색) 음... 나는...

이영 (집중하면)

태오 인공휴먼입니다.

이영, 멈칫한다. ‘에? 이 남자 뭐지?’ 하는 표정으로 보면,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이는 태오의 얼굴에서.

타이틀. <2회 Humanity teacher>

#6. 이탈리아 레스토랑(낮)

#5 연결.

이영 (정색하고 보다가) 확실히 AI는 아니네. 이렇게 유머의 정확도가
떨어져서야, 원. (포크를 내려놓고 입 닦는) 알았어요. 안 물을게요.

태오 (씩 웃고) 이영 씨는요?

이영 난 아사 직진인 로맨스 소설가이자, 옆친 데 덮친 격인 강사요.

태오 소설은 그렇다 치고, 강사는 왜요?

이영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주로 저학년이거든요. 청소년 심리도
전공했고. 근데, 더 이상 사람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태오 (입에 바람을 넣고 보면)

이영 더 김빠지는 게 뭔 줄 알아요? 얼마 안 남은 인간조차 훨씬 체계화된
AI 교사의 수업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태오 (입에 바람이 피숙- 빠지고)

이영 아, 안 되겠다. 술이나 마셔요.

#7. 바(저녁)

맥주에 간단한 안주를 먹고 있는 이영과 태오.

상기된 얼굴, 높아진 목소리 톤으로 웃고 있다.

이영 (찌렁찌렁) 진짜 내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인공휴먼한테 애인 뺏겼다고 말도 못 해요. 아, 쪽팔려.

태오 (주변을 둘러보고) 잘하는데?

이영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인공이라면 아주 징글징글해요. 남자라면 더 징글징글하고! 그니까 농담으로라도 인공휴먼 어찌고 하지 마요.

태오 (멋쩍게 웃으며) 늦었네요. 이제 일어날까요?

이영 벌써요? (시계 확인하고) 아직 여덟 시밖에 안 됐는데?

태오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가방 챙기면)

이영 (가방 메다가)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갈래요? 해야 할 일 하루쯤 안 하면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텐데? (유혹하듯 태오를 보면)

#8. 소나의 집/주방(낮)

소나와 마주 앉은 이영.

소나, 인스턴트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다.

소나 먹튀?

이영 어.

FLASH BACK

#7 연결 상황.

허겁지겁 일어나 걸옷을 입는 태오.

태오 오늘 말고요. 다음에 봐요. 내가 이영 씨 찾을게요, 꼭!

(짱긋) 기다려요! (급히 나가는)

이영 (황당하게 보다가 혼잣말) 퇴짜도 가지가지다...

현재.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이영.

이영 삼재야, 삼재.

소나 연락해봐.

이영 연락처 몰라. 기다릴 거야. 아님 마는 거지.

소나 뭐야? 밀당을 하시겠다?

이영 (황당하다는 듯) 요즘 그런 낭만이 존재하기는 해?

소나 콘텐츠 스토어에서 만났다면. 너랑 취향이 겹친다면. 낭만보다 더한 설레발은 니가 먼저 쳤어. 그리고 뭐, 비즈니스적으로 취재가 될 수도 있잖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영 로맨스를 취재로 쓰냐? 감으로 쓰지.

소나 그니까 니가 낭만주의자란 거야.

이영 몰라~ 고전소설만 쓰다 보니 50년 전 세상에 갇혔나 보지~ 그래서 21.5세기 이별을 감당 못 하는 중이고.

소나 22세기든 23세기든 이별은 늘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게다가 13년 연애가 그렇게 쉽게 끝나겠어?

이영 (씁쓸한 미소) 우리가 진짜 13년간 연애를 하긴 한 걸까?

소나 뭘 소리야?

이영 난 연애라고 생각했는데, 재현인 아니었나 봐.

 내가 어렵대. 언제부턴가 내가 엄마 같고 선생님 같대.

소나 개 미친 거 아니니? 그 자식이 진짜 엄마... (아, 혈압!) 아니, 이모님한테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일어나며) 일어나.

이영 왜!

소나 이러고 있을 때야? 복수하러 가야지! 원통해서 어떻게 살아.

이영 이런 세상인 거 (으쓱) 인정하자며.

소나 이런 세상이라고 옛 먹일 방법 하나 없겠니? 어떻게든 찾아보자고!

역지로 이영을 끌고 나가는 소나.

#9. 소나의 집 앞(낮)

문을 열고 나오는 이영과 소나.

마침, 누군가 문 앞을 서성이고 있다. 돌아서면,
지나치게 멋진 외모의 남자다. 외모, 표정, 스타일 전부 호감형이다.

소나 (!) 누구...
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 업그레이드하셨죠? 클린 4001-8A입니다.
소나 로봇... 청소기... (입꼬리가 씩씩씩) 얼른 들어오세요.
(이영에게) 이영아. 그 방법, 내일 찾자.

로봇청소기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소나.
복도에 우두커니 선 이영. 질레질레.

#10. 태오의 집(낮)

컴퓨터 홀로그램 화면을 띄우고, 그 앞에 앉은 태오.
동선 예측 시뮬레이션 값을 구한다.

#11. 마트(저녁)

카트에 이것저것 식료품을 담는 이영.
진열된 고기를 고르다가, 진공 팩에 담긴 고기를 본다.

FLASH BACK
진지한 표정으로 고기를 고르고 있는 재현.
그 옆의 이영. 카트에 몸을 기댄 채 심심한 듯 재현을 킁킁 찌른다.

이영 언제까지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장을 볼 건데?
재현 (고기 비교하며) 사람이 마지막까지 아날로그적이어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요리 아닐까? AI 셰프가 영 맥을 못 추는 유일한
분야기도 하고?

이영 아니?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건 로맨스일걸?
재현 (이영을 보며 미소 짓고, 고기를 카트에 넣는다)

다시 현재. 과거 생각에 멍하니 고기를 보고 있는 이영.
그때, (E) 광, 소리가 나며 카트가 뒤로 밀린다.
고개를 들면, 태오가 카트를 이영의 카트에 부딪친 채 서 있다.

이영 (놀라운) 뭐야. 이 남자?
태오 기다리랬잖아요. 또 보려고 경우의 수를 엄청 가동했거든요.
이영 (빠죽, 보다가) 확률의 과정은?
태오 먼저,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의, 식, 주. 데이터를 다 돌렸죠.
이영 씨 식성을 중심으로 식당, 마트, 카페 전부. 그때 입었던 옷
브랜드를 또 돌려서 추렸고. 콘텐츠 스토어를 중심으로 주거, 직장
환경 데이터를 추론했죠.
이영 ...태오 씨 참 재밌는 사람인 거 알아요? 뭐랄까? 되게 사람 같지
않아요.
태오 좋아요. 인정할게요. 아웃사이더. 이제 얼른 갑시다.
이영 어딜요?
태오 이영 씨 집. 그때 못 한 거 이어서 해요.
이영 (핑그림과 웃음이 섞인 미묘한 표정으로 보는) 네?

#12. 이영의 집(밤)

이영과 재현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가득한 침실.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이영과 태오.
태오, 팔베개하고 천장을 보고 있고,
이영, 작은 크기로 떠 있는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고 있다.

이영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미친놈.
태오 (놀라서) 갑자기? 전개가 이렇게 되나?

이영 아, 전 남친이요. 알죠? 로봇이랑 바람난 거.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청소기 AI랑. 부끄러운 줄 모르고 SNS에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네요? 나랑은 이런 거 간지럽다고 안 하던 놈이.

태오 SNS 염탐하는 거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말이 좋아 염탐이지, 그거 미련인데?

이영 13년이에요. 지금 이렇게 훌쩍 벗고 할 소린 아니지만, 재현이랑 나 그렇게 쉽게 안 끊겨요. 사람 정이 어디 쉽나.

태오 그럼 나를 이용해봐요.

이영 이용? 어떻게요?

태오 (머리를 피고 보는) 시간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정해진 질량이 있다면 그걸 빨리 감기로 감아버리는 거죠.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엔도르핀과 도파민 등 즐거움을 느끼는 물질을 발산하는 건데, 나 재밌다면서요. 가까이 뒹요.

이영 좋아요. 그럼 그쪽이 얻는 건 뭐예요?

태오 모르긴 몰라도 그쪽보단 훨씬 많을걸요?

이영 (웃고) 오케이. 그럼 연애해요. 제가 그 자식을 잇을 때까지만. 그리고 태오 씨가 훨씬 많은 걸, 원하는 대로 얻을 때까지. 오케이?

태오 (눈을 뜨고 이영을 본다)

이영 (대답을 확신하는 듯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응시하면)

#13. 이영의 집(낮)

옷과 신발을 몸에 걸쳐보는 소나.

이영, 소파에 앉아 심드렁하게 소나를 본다.

소나 또?

이영 (끄덕끄덕)

FLASH BACK

#12 연결.

갑자기 일어나 옷을 챙겨 입는 태오.

이영 뭐예요? 갑자기, 이 전개는?

태오 미안해요. 좀 급해서. 내가 찾아갈게요. 기다려요! (급히 나가는)

다시 현재.

이영 완전 신데렐라야.

소나 야, 매일 밤, 그렇게 달콤한 마법을 부리고, 사라지는 신데렐라면 얼마든지 땡큐지!!

이영 아무래도 삼재야. 남자보다 일에 집중할 땐가 봐. 돈 벌 만한 거 없을까?

소나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냐? 나 오늘 협찬 생리대까지 차고 방송했어. 그날도 아닌데!

이영 (깊은 한숨) 해리야. 이번 달 공과금, 세금 등.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과 수입이 얼마지?

해리(F) 이번 달 세금은 총 560만 원, 계좌에 남은 잔금은... 320만 원이네.

이영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는 거니?

소나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되니까.

이영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자리를 AI가 채우고 있으니...

해리(F) 대신 AI가 인간의 삶에서 노동을 대체해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영 (알 만하다는 듯) 참, 너도 정부 보조 AI였지. 미안. (한숨 폭)

소나 해리야. 이영이가 돈 벌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리(F) 다음 달에 로맨스 소설 기획사가 오픈한다는 소식이 있어. 거기 지원해볼 수 있고...

이영 로맨스 소설 말고. 나도 다른 일을 할 만한 거 없을까?

해리(F) 이영이 너의 자격증, 능력치 등의 분석 결과...

이영 (쫄긋)

해리(F) 없어.

소나 (큭, 웃음을 참는다) 참, 재현이한테 이별징수금은 받았어?

이영 개가 그 돈이 어딴어.

- 소나 이야~ 눈물겹다!! 정신 차려!! 그 돈이 없으니까 악착같이 받아야지.
13년 연애에 남은 건 그 돈뿐인데! 왜 이별징수금이 법으로
만들어졌겠어. 바로 너 같은 사람 때문 아냐~
- 이영 돈 가지고 연락 이어가고 싶지 않아. 미련으로 보일 거 같아. 괜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을 애니까. 게다가 것도 다 엠마가 관리할 텐데.
- 소나 (엠마 소리에 생각난 듯) 아! 승주 선배 연락 왔었다며. 휴머니티 티쳐
한번 해보지 그래?
- 이영 너는!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싶니? 엠마 같은 기계들 상대로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실연의 상처고요~ 이려고 싶어??!!
- 소나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계들이잖아. 그니까 잘 가르쳐. 임자 있는
남자 뺏는 거 아니라고. 아니, 인간은 애초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뭐. 사랑도 인간이 하는 거지만. 아니, 아예 세상에 못 나오게 낙제를
시켜버려!
- 이영 지금 내가 낙제될 판이라고, 내가! 인생에서 완전 아웃!!

#14. 이영의 집 앞(낮)

이영이 소나를 배웅한다.

소나, 드론 택시에 올라탄다.

- 소나 AI는 변수에 약해. 일이 발생한 후에야 데이터를 취합할 뿐, 예측
불가능한 일이 가득한 게 인간의 삶이란 걸... 이해할 리 없다고.
해리 말, 신경 쓰지 말고 뭐든 도전하란 소리야.

- 이영 안 해. 그놈의 예측 불가능한 일 좀 그만 일어나는 게 소원인 사람이야.
얼른 가. 늦겠다. (소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가.

드론 택시가 낮은 하늘을 날아간다.

이영, 들어가려는데, '승주 선배'에게 연락이 온다.

#15. 이영의 집/거실(저녁)

노트북 앞에 앉는 이영.

이영 해리야. 승주 선배한테 전화.

해리(F) 승주 선배에게 전화!

(E) 신호음 가고 승주의 얼굴이 화면에 나온다.

승주 생각 좀 해봤어?

이영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 안 해. 내키지 않아.

승주 왜?

이영 인간이 아닌 로봇한테 인간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승주 섹스는 로봇이랑 하면서 아이는 여전히 인간만 낳을 수 있는 건 말이
되고?

이영 티처라는 말도 웃겨. 연구원. 혹은 데이터 매니저라고 하든가. (순간
아차 싶은) 미안. 선배한테 한 소리는 아니었어.

승주 (으쓱) 로봇이 아니야. 인공휴먼이야. 또 다른 휴먼. 로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성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해봐. 로봇을 이용할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말이야.

이영 인간성을 지켜낸다... 거창한데?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 미안.

승주 기본급 300에 특별 임용료가 700. 한 달에 1,000.

이영 (멈칫)

승주 거기다가 특별상여금이 500. 합이 월 1,500!

이영 (!) 진... 심이야?

승주 이번 국시 때까지 3개월만. 임시 교사. 생각 있음 연락 줘.

이영 (후... 진짜 미치겠다) 이걸 반칙이지.

승주 반칙 좀 써보려고.

이영(NAR) 이 사회는 생존에 돈이 많이 든다.

이영, 화면을 터치해 세금 고지서를 본다.

이영 (깊은 한숨, 다시 승주의 화면을 터치하고) 인센티브 줄 수 있어?
승주 물론.
이영 딱 3개월만이야.
승주 (웃는다) 오케이. (끊으려는데)
이영 선배! 한 가지만 더.
승주 어, 뭔데.
이영 나한테 연락한 이유가 뭐야? 난 과학자도 아니고, AI도 잘 모르고...
승주 여긴 과학자나 엔지니어들뿐이야. 뭐든 데이터로 세상을 보지.
근데 넌, 보이지 않는 거로 세상을 만들어내잖아. 그런 너가 필요해.
이영 ...

CUT TO

노트북을 통해 각종 자료를 보는 이영.
눈앞에 다양한 화면 창이 떠 있다.
'AI의 진화', '로봇의 구조', '딥러닝', '빅데이터'... 등의 자료가 지나간다.

이영 무섭다~ 뭐 이렇게 진화가 빨라?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다시 집중하는 이영.

FLASH BACK 1회 #11 콘텐츠 스토어/VR 방

태오 (가볍게 으쓱하고) 인공휴먼도 죄책감 느껴요.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해요. 딥러닝을 하면서 정보를 얻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고.

현재.

이영 (생각하다) 해리야. 태오 씨한테 전화.

해리(F) 태오에게 전화!

(E) 신호음 가고, 태오의 화면이 열린다.

홈트레이닝 하는 태오. 러닝머신을 뛰고 있어 호흡이 불규칙적이다.

태오 (반가운) 이영 씨!

이영 태오 씨. 인공휴면에 대해서 잘 알죠?!

#16. 몽타주(낮)

#16-1. 도서관

함께 공부하는 이영과 태오. 각종 영상이 눈앞에 구현된다.

친절히 설명하는 태오와 고개를 끄덕이는 이영.

#16-2. 카페

하나의 노트북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쓰는 이영.

옆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수정하는 태오.

#16-3. 이영의 집

책상에 엮어져서 잠들어 있는 이영.

열심히 타이핑을 하는 태오. 무심코 잠든 이영을 보고 장난스레 코에 휴지를

끼운다. 콧바람에 휴지가 펄럭이고. 깔깔 웃는 태오.

순간, 이영이 눈을 부릅뜨고!

#17. 도서관(낮)

눈앞에 자료화면 창이 180도로 잔뜩 펼쳐져 있고,
메인 창에서 메일 ‘전송’을 누르는 이영.

이영 끝! 커리큘럼 보냈어요. 잘 돼서 첫 월급 받게 되면 쓸게요.
태오 허~ 이 여자 봐라? 당연한 걸 인심 쓰듯 말하네?
이영 허~ 협상 결렬이라! 그럼 원하는 걸 말해봐요.
태오 하루의 절반은 같이 시간을 보내죠?
이영 (생각하다) 경우의 수는?
태오 한 가지. (하는데)

그때, 가상 화면이 열리고 전화벨이 울린다.
‘x받지마x’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는 이영.

이영 전 남친한테 전화 왔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태오 (이영의 표정을 살피는) 짜증 30프로, 불안 40프로,
불안을 가장한 기대... 20프로. (편하게 웃으며) 받아봐요.
받고 나면, 그 20프로가 더 줄어들 확률도 있으니까.
이영 (전화를 받는다) 어.
태오 (이영을 보며 기다린다)
이영 (일어나 나가며 입 모양으로 태오를 향해 ‘잠깐만요.’)

태오, 한쪽으로 가서 통화하는 이영을 본다.

#18. 도서관 일각(낮)

태오에게서 멀리 떨어져 전화를 받는 이영.

이영 뭐?

재현 이별징수금. 당장 급한 거 아니면 좀 천천히...

이영 (O.L.) 급해. 당장 보내. (뚝— 끊고, 휴대폰을 보고 선)

이영(NAR) 기대 20프로.
나는 아직 그에게 20프로의 기대, 즉 미련이 남아 있었다.

이영 (나직이) 뭘 알고 하는 소리야?

이영(NAR) 그리고 그의 말대로 20프로는 현저히 낮아졌고,
문득 저 안에 있는 남자가 궁금해졌다.

#19. 도서관(낮)

안으로 들어오는 이영. 하지만 태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영 그렇지. 변신 전에 가셔야지~

#20. 연구소/분석실(밤)

각각의 통유리창으로 된 방에 앉아 있는 인공지능들.
그들의 머리와 몸 곳곳이 컴퓨터와 연결돼 있다.
그중 어느 방에 앉아 있는 인공지능 엠마.
잠시 후, 센서가 울리고, 통유리창이 검정색 필름으로 바뀐다.
필름 위로 연구실의 화면이 펼쳐진다.
마치 연구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엠마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대여섯 명의 개발자들이 엠마를 보고 있는 상황.
텅 비고 웅한 실내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엠마가 고독해 보인다.

개발자1 오늘 작업 보고하세요.

엠마 (건조한 표정) 사용자 재현의 회계 업무를 처리했고, 그의 가사 노동을
도왔습니다. 그와 데이트도 진행했습니다.

개발자1 데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죠?

엠마 재현과 야구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경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머뭇대다가) 재현이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표정과 행동을
느꼈습니다.

#21. 연구소/연구실(밤)

개발자들이 카메라 화면을 통해 엠마를 보고 있는 상황.

개발자2, 한쪽의 컴퓨터 화면을 체크하며 엠마의 하루치 활동 영상을 살핀다.

개발자2 그렇게 느꼈던 표정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엠마 게임에 몰입해 있는 동안 저를 ‘이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기를 보는 동안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건 이영이
평소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그 외에… (말이 이어지고)

CUT TO

개발자2 재현과의 연애가 딥러닝에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까?

엠마 네. 이별과 사랑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오는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감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개발자2 좋습니다. 계속해서 연애를 진행하세요.

엠마 (표정을 알 수 없는) 네.

#22. 연구소/분석실(밤)

태오의 방. 경직된 자세로 앉아 있는 인공지능들과는 달리,
상체를 의자에 기댄 채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에 얹은 자세로
편하게 앉아 있는 태오.

유리창 위로 필름이 쳐지고, 필름 위에 개발자들의 모습이 나오면,
태오, 한쪽 손을 까딱 들어 인사한다.

개발자1 시작할까요?

태오 뭐가 그렇게 급해?

개발자1 오늘 데이트는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태오 그럼 그 전에,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는데.

개발자1 뭔데요?

태오 아카데미. 내가 거길 좀 가야겠어요.

개발자1 왜죠?

태오 (의자에 기대며) 내가 진짜 재밌는 여잘 알았거든.
그 여자라면, 자가러닝이 엄~청 활발해질 거 같아서.

개발자1 (보면)

태오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한계는 테스트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씩 웃는 표정에서)

#23. 아카데미 전경(낮)

현대의 대학교를 연상시키는 붉은 벽돌의 웅장한 건물.
그 밑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이영.

#24. 아카데미/복도(낮)

긴장한 듯 숨을 고르는 이영. 의지를 다지듯 눈에 힘을 주고 들어간다.

#25. 아카데미/교실(낮)

20여 명의 AI 인공휴먼이 앉아 있는 공간.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영, 긴장된 표정으로 강단에 선다.
AI 인공휴먼의 시선이 이영에게 집중된다.
기대, 설렘, 흥미, 긴장 등 다양한 표정.

이영 나는 고이영이에요. 여러분에게 감정을 가르칠 임시 교사입니다. 감정을 가르친다... 말이 거창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알고리즘을 자극해서 딥러닝하고, 자가러닝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걸 통해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불과할 거고요. 아무튼 꼭 시험에 합격해서 인간들을 상대하는 파트너 AI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의 소개를 들어볼까요? 다들, 이름은 있죠?

찬물을 끼얹듯 썰렁해진 분위기.

이영(NAR)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제니(20대 초반, 여)의 표정에 못마땅한 빛이 어린다.

이영 (제니를 향해) 그쪽부터 해보죠?

제니, 자리에서 일어난다. 개성 강한 헤어스타일과 패션이 튼다.

제니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제닙니다. 아이를 돌보는 보육 인공휴먼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애를 존나 좋아하거든요.

이영 (미간이 찌푸러지는)

제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게 취미예요. 뭐든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고요. 다들 이런 제 성격이 매력이래요.

이영, 작은 홀로그램 화면을 통해 제니의 인적사항 표를 보며,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는다. 비웃음이다.

이영 (나직이) 그렇게 믿도록 입력된 거겠지.

그만. 다음, 뒷사람. 아니, 뒷분 소개 들어볼게요.

뒤에 앉은 정화(40대 초반, 여)가 일어난다.

정화 저는 연애 인공휴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볍게 웃으며) 살은 좀 빼야겠지만요.
 외로운 중년의 이성이나 독거노인의 친구…
이영 (고개를 들어 정화를 본다)

FLASH BACK 1회 #6 카페

재현 나도 미치겠어. 미치겠다고! 근데 어떡해! 사랑하는데!!

 현재. 몸서리치는 이영.

이영 (질끈 감았던 눈을 뜨며) 그만!

 찬물을 끼얹듯 싸늘해진 분위기. 순간의 정적.
 그때, 교실 안으로 엠마가 들어온다.

엠마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이영, 엠마를 확인하고 표정이 굳는다.
 이영을 향해 특유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엠마.

이영 여러분은 참… 순수하고 천진하네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며 엠마를 응시하는 데서)

2회 끝.

작가 후기

글을 쓴다고 ‘사람’을 고민하고 있자니,
문득 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전자기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커피머신, 에어컨, 전기장판, 제습기, 로봇청소기...
정작 사람보다 기계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일상입니다.
이 기계들이 없었다면 글은커녕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창작자, 선생님, 연인 등 대체 불가능할 것 같은 역할까지 로봇이 정복한다면,
가르침, 배움, 성장, 로맨스 등의 낭만적 가치들은 어떻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로 가든 제 상상 속에서 그 가치들은 여전히 빛을 내며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내려는 ‘인간성’이 있으며, 그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임이 조금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족한 상태로 마무리되었지만,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줬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가장 낭만적인 작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인연의 힘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돼주시는 김지일 센터장님, 작가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도움 주시는
아름다운 이수정 팀장님, 늘 무한한 배려로 응원 보내주시는 김성미 과장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오픈 관계자님들, 그리고 제 삶에서 티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저의 이정표, 임예진 작가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솜품과 드라마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있는 동기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물셋 — 오혜원

기획의도

“자아,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땅!!!”

시작은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해야 하거늘,

그러나 어떤 경우엔 그 시작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답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도 그런데…

엣그제만 해도 뭐가 어쩔네 저쩔네 하던 옆에 놈이, 도대체 언제부터,

좋아졌더라…?

생각해보면 사람 좋아지는 게 원래 다 그렇다.

첫눈에 반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눈 떠보니 이미 좋아져 있는 게 대다수.

그걸 깨닫고 나면 새삼 별게 다 별거인 거다.

모든 게 다 낯설고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운 거다.

대관절 언제부터인지, 왜 하필 이놈인지, 암만 따져보려 해봐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 미치도록 좋아한다는 사실!

이 답도 없는 청천벽력 같은 순정, 어찌겠나. 그저 받아들여라!

여기. 그렇게 시작된 줄도 모르고 시작된,

하나, 두리, 세리 삼 남매의 세 가지 다른 로맨스가 시작된다.

자아, 그럼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등장인물

이두리(29세, 여) 웹소설 작가

삼 남매 중 둘째. 무른 성격.

이두리, 이둘이, 이름하여 222, 둘째, 2등급, 모든 게 다 애매한 2다.

평범하다는 말이 죽도록 싫다. 평범하다는 건 뛰어나지 않다는 거고, 애매하다는 거고, 어중이떠중이라는 거니까.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는 언니와 동생에게 몰빵. 두리의 키가 짜리몽땅한 것은 필시 위아래로 둘 사이에 끼서일 거다. 열등감만 무럭무럭 자랐다. 집 안에서만 이러면 좋겠는데 집 밖에서도 이리

치고 저리 치인다.

우리는 웹소설 작가다. 과거 순수문학을 했고 한때 상을 받기도 했지만, 그걸로 끝. 옮겨온 웹소설 판에선 문학도 웹소설도 이도 저도 아니라는 평을 듣고 있다. 요즘은 대세를 따라 여러 가지 짬뽕한 회귀물 로맨스 판타지 <공시 4수생인 나, 눈 떠보니 구석기시대?!>를 연재 중.

구찬네 독서실에서 총무 알바까지, 2잡은 필수다.

하여튼 간에 ‘2’는 지긋지긋한데… 이젠 것도 모자라, 남자도 둘이다!

계속 옆에 있었던 구찬, 갑자기 앞에 나타난 현. 아! 또 제대로 킁꿨다!!!

박구찬(29세, 남) 해성고등학교 영어선생님

이름하여 짝구. 하나둘셋하고는 옆집에서 나고 같이 자랐다.

찌질한 면에선 두리와 환장의 짝꿍이요, 유치한 면에선 두리와 영혼의 단짝이다.

그는 까탈스러우며 겁이 많고, 무르고, 쓸데없는 거에 정성스럽다. 물론 직장에서만큼은 의욕 없는 월급루팡. 고등학교 영어쌤이지만 영어는 잘 못 한다. 문법은 잘해도 회화는 못 하는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 원어민 쌤 울렁증마저 있다. 교무실에서 기체조를 하다 부장쌤에게 혼나기 일쑤, 학생들에게도 그저 만만하다.

구찬은 요즘 좀 이상하다. 두리 앞에서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뜨끈해지고 맘이 울렁거리는 것이… ‘혹시?’ 하기도 전에 두리 옆에 현이 나타난다. 현과는 군대 선후임 사이로, 구찬이 다섯 살 더 많지만 후임.

사범대 졸업하고 군대를 늦게 간 탓이다.

외모, 성격, 재력, 모든 게 뛰어난 현 앞에서 구찬은 모든 게 다 후달린다.

이현(24세, 남) 임시 토스트 가게 사장

어느 날 나타난 토스트 가게 사장님.

그는 단순하다. 왜? 평생 골치 아픈 생각 따윈 안 해도 됐으니까. 그야말로 영&리치&햄스, 모든 게 부족함 없이 자란 그는 항상 여유로우며 느긋하고 능숙하다. 애쓰지 않아도, 암만 설렁설렁대도 뭐든 쉽게 해낸다. 입에 “아님 말고”를 달고 사는 그 오만함도 그가 하면 매력적이다. 구찬에겐 열등감을 자극하는 재수 없는 놈일지언정 두리에겐 혹, 사람을 잡아끄는 매력의 소유자. 그러나… 모든 게 다 쉬웠던 현. 이번만큼은 아무래도 쉽지가 않을 예정이다.

이하나(30세, 여) 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 공무원

삼 남매 중 첫째.

뒤편 1등이다. 잘났다. 얼굴도 머리도 싸가지도. 순해 보여도 사나우니 조심할 것. 직업은 안정적인 공무원이지만 스틸 넘치는 주식왕도 겸하고 있다.

구청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부가, 가족이,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걸 지켜본다. 너무 쉽다. 알콩달콩 죽을 것처럼 사랑하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남남이 된 엄마아빠처럼. 다행히 하나는 결혼은 생각도 없고 연애를 해도 언제나 갑의 입장. 하나의 세상엔 본인 하나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지상이라는 여자가 그 세상에 불쑥 나타난다. 아... 진짜 싫은 타입. 칠렐레 팔렐레에 의존적이고, 딱 질리는. 그러나... 점점 하나는 '남의' 예비 '신부' 상이를 사랑하게 된다. 이젠 상이랑, 결혼이 하고 싶다.

지상이(30세, 여)

결혼이 하고 싶은 여자. 어느 날부터 구청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시도'한다.

매번 실패에 그치는데도 그저 헤실헤실, 해맑기만 하다.

단기 알바와 종종 굵은 복권으로 노래방 사업자금을 모으는 그녀는 자유롭고 즉흥적이며 재미있다. 동시에 변덕스럽고 충동적이며 위태롭다. 그런 그녀가 결혼이 하고 싶은 건, 딱 보통 정도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 사랑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이젠 안전하고 단단한 곳에 정착하고 싶다. 그러나 6년 된 애인은 점점 멀어져가는 중. 결혼하해도 알겠다면 언제? 물으면 그저 "나중에"다. 상이는 그런 애인에게 일부러 보라는 듯 오기로 매일같이 구청에 출근하는데... 점점 상이는 혼인신고를 방해(?)하는 구청직원 하나를 사랑하게 된다.

이젠 결혼이, 진짜 결혼이, 하나랑 하고 싶다.

이세리(18세, 남) 고교 수구선수

삼 남매 중 막내.

대충 무던하다. 기골장대한 사내로 세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려면 무던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편이 누나들 수발들 때 편하기도 하고. 집에서 누나들 기에 눌러 구찬과 함께 쭈그리 되는 처지지만, 학교만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누가 수구를 비인기종목이라고 했던가. 여기 해성고에서만큼은 국민스포츠다.

물론 그 인기의 중심에는 세리가 있다. 무던한 만큼 무심한 세리는 자기 좋아하는 애들이 수십 수백인 건 알지만 그 애들 얼굴이며 이름은 하나도 모른다. 대충 애도 날 좋아하겠거니. 실제로도 그게 맞고. 그런데... 새로운 짝 영주는 좀 다르다.

김영주(18세, 여)

세리의 짝꿍. 평범한 모범생, 처럼 보이지만... 개또라이. 계략적 얼빠다. 구찬이 담당으로 있는 영어시사탐구동아리(=이세리 탐구 동아리)의 부원으로, 세리를 침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지독하게 짝사랑했다. 여러 버전으로 세리 앞에 알짱거려봤지만 세리는 영주 이름도 기억 못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영주는 지치지 않는다. 오늘도 열심히 정진! 하늘도 그런 영주가 기특했는지, 기회가 찾아온다. 하늘이 주신 기회,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외

원우진(32,남) 상이의 남자친구

구찬의 부모(60대) 독서실, 노래방 사장

김진환(18,남) 고교 수구선수

줄거리

빨간 벽돌 연립주택 해성빌라. 나동 302호에는 하나 두리 세리 삼 남매가 산다. 여자랑, 그것도 남의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진 장녀 ‘하나’, 두 남자 사이에 제대로 낄기게 된 둘째 ‘두리’, 물이 아닌 사람에 빠져 허우적대는 고교 수구선수 셋째 ‘세리’ 이야기.

둘째, 두리 이야기

웹소설 작가 두리는 독서실에서 총무 알바를 한다. 어느 날, 상가 1층 토스트 가게에 웹 미친 사장님이 나타나는데... 처음 본 두리에게 엄청시리 치댄다. 알고 보니 아는 형네 가게를 대신 맡아주고 있던 현, 이전에 두리를 보고 반했던 것. 두리 역시 이 매력 넘치는 남자에게 순식간에 빠진다.

한편 두리 옆집 사는 구찬. 그는 요즘 두리 앞에만 서면 이상해지는 것이, 영 꺼림칙하다. 그러던 중 두리 옆에 나타난 ‘미친 사장님’이 철천지원수 군대 선임이었던 현이란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자기 마음도 제대로 모른 채로 질투가 폭발! 둘 사이를 떼놓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두리는 그대로 현에게 풀인립. 근데 알면 알수록 이 남자, 너무 쉽다. 가볍다. 두리랑은 너무 다르다. 두리, 그 누군갈 좋아했었던 언젠가의 기억… 스무 살, 평발인 남자애였다. 그 애가 발이 아프면 괜히 두리가 다 죄스러웠다. 에어 들어간 자신의 운동화가, 벗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발 사이즈가. 두리에게 사랑이란 그런 거였다.

그리고… 도대체 타이밍이란 뭔가.

한때 두리가 남몰래 좋아했던 평발인 남자애는 다름 아닌 바로 구찬이었다.

그러나 당시엔 아무것도 몰랐던 구찬,

한참 뒤인 이제 와 두리를 좋아하고 있는 거다.

구찬은 자기 마음을 뒤늦게 깨닫고, 선생이란 작자가 야자까지 튀고 허겁지겁 두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지만… 이미 두리는 현과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구찬의 평발이 아파왔다. 맘도 아파왔다. 그제서야 제대로 실감이 났다.

‘나는 이두리를 좋아한다.’ …이럴 수가!!!

구찬은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는다. 그 언젠가, 두리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게 다 낯설고 모든 게 다 새삼스러웠다. 지구는 둥글고, 오줌은 노란색이고, 굶으면 배고프고, 숨은… 어떻게 쉬었더라…? 숨 쉬는 법조차 까먹어 혈떡이는데, 두리가 구찬네에 헐레벌떡 들어온다. 어라. 넌 왜 숨을 못 쉬니.

“나 실업자 되게 생겼어!!! 넌 노숙자 되게 생겼고!!!”

구찬이 때늦은 첫사랑에 나자빠진 동안… 귀농을 꿈꾸며 은퇴 준비 중인 구찬의 부모, 노래방만 내놓은 줄 알았더니 얼마 전 독서실,

그리고 집까지 싹 다 내놓았던 것!

한편, 현은 두리를 구찬에게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마침 부동산에 구찬의 집(=두리의 옆집)이 나오고, 현은 그 집을 사버리는데! 덕분에 집에서 바로 쫓겨난 구찬은 새집을 구할 때까지 두리네 집에서 묵겠다 선언한다. 그러니 현, 어찌겠나. 자기가 구찬과 룸메이트가 될 수밖에. 군대에

이어 두 번째 합숙생활을 하며 두 사람은 묘한 브로맨스를 품는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오락가락이다. 우리의 웹소설은 좋은 반응을 얻는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반응에만 전전긍긍하며 쓴 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현과의
관계도 순탄히 흘러가지만,
요즘 자꾸 이상하고 헛갈리게 구는 구찬 때문에 괜히 싱숭생숭.
그러던 와중... 구찬의 고백. 열렬한 구애를 펼치는 본격적인 두 남자 사이에 끼겨
두리는 그저 혼란스럽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휩쓸리듯 현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곧 아닌 걸 깨닫고 현에게 이별을 고하지만,
구찬은 이미 떠나버린 뒤다.

계절이 지났다. 남들 신경 안 쓰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해 쓴 우리의 글을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정식계약도 했고 출간도 했다. 인기도 벌어도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만족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혼자다. 우리가 책에 남몰래
남긴 메시지에도 구찬은 연락 한 번 없었다. 치사한 쌍놈의 새끼.
그런데 별안간 베란다 창문이 두들겨진다. 꼭 예전처럼. 그러나 현이 나가고
하나네 커플이 들어온 옆집, 구찬은 아니겠지. 아닐 거다. 그리고... 구찬, 맞다!
눈물의 화해쇼를 하는 두 사람. “왜 울어,” 눈물 줄줄 흘리는 두리를 안는 구찬. 지
콧물이나 닦고 말하지는... 그렇게 대화장콤비의 우정 아닌 사랑이, 시작되었다.

첫째, 하나 이야기

하나가 근무하는 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

언제부턴가 이상한 여자가 찾아온다.

남편 없이 혼자 혼인신고를 하러 왔던 여자는 어느 날은 도장을, 어느 날은
증인서명을, 또 어느 날은 남편 신분증까지 까먹고 온다. 어찌나 자주 오는지,
하나의 여자의 이름도 생일도 주소도 심지어는 남편 이름까지, 다 외울 지경.
설상가상으로 노래방 사장이 꿈인 상이, 구찬네 부모가 내놓은 노래방을 점찍고
기웃거리며, 둘은 동네에서 참 자주도 마주친다. 거기다 하나는 우연히 상이의
예비남편이 바람을 피운단 것(?)까지 알아버리는데...

하나 스무 살. 아빠의 바람으로 가족이 깨졌다. 우리는 고3이었고 세리는 여덟
살, 하나 혼자서 모든 사실을 감당해야 했다. 울던 엄마가 떠올라서일까 하나는

상이를 마냥 모른 척 외면할 수가 없다.

와중 상이는 애인과 싸우고 한동안 구청에 발길을 끊는데... 이게 참, 그동안 사람이 하도 불쑥불쑥 튀어나왔기에 그런지. 상이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도 하나의 머릿속에 상이가 자꾸만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그게 모아보니 온종일이다.

안 되겠다. 그냥 당신 애인 바람피운다, 다 말하고 털어버려야지! 그렇게 하나가 맘먹고 만난 날, 둘은 영겁결에 상이 남친 우진의 바람현장(?)을 같이 목도한다. 우진에게 복수하고 달아나다... 술김에 입을 맞추는 두 사람. 사고였다. 아마도...?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본인 맘도 알았겠다,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하나. 상이는 속수무책으로 그런 하나에게 흔들린다.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변덕이 심해 지금 같은 한여름엔 붕어빵이,

한겨울엔 피자두가 먹고 싶단 상이에게

하나가 술에 취한 채 흐물흐물 다 녹아가는 붕어짜만코를 건넸을 때였을까?

프러포즈 때 백만 송이 장미 받아봤음 소원이 없겠다는 상이에게

하나가 담벼락에 핀 도둑장미 한 송이를 꺾어다 줄 때였을까? 백만 송이도 아닌

그 한 송이가 더 떨렸다. 그렇게 둘은 상이의 결혼 시뮬레이션을 핑계로, 노래방 창업 준비를 핑계로, 차 사고를 핑계로 만난다. 둘의 연애 아닌 연애는 아슬아슬 이어지는데...

그러나 우진을 마주친 날,

하나는 잘 어울리는 상이와 우진을 보며 현실을 깨닫는다.

현실로 복귀 후 오랜만에 여행 겸 강원도에 사는 엄마를 찾아간 삼 남매.

하나는 엄마와의 대화 뒤 더 늦기 전에 상이에게 달려간다. 프러포즈를 한다.

그러나 상이는 겁이 난다. 이제껏 너무 많이 흔들리고 살았다.

마침 우진에게도 프러포즈를 받고, 상이는 그에게로 가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가 떠오른다.

얼마 뒤 하나의 구청에 상이가 다시 나타난다. 혼인신고를 하러 왔단다.

결국 결혼을 하는구나... 목이 메이는 하나. 상이의 혼인신고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글씨가 이상하다는 등 괜한 트집을 잡으며 빠꾸시키려는데,
상이가 혼인신고서에 적힌 이름을 가리킨다. ‘지상이’, ‘이하나’.
병찐 하나에게 상이가 속삭인다.
“결혼해요. 나랑.” 그렇게 두 사람, 이젠 정말 하나다.

셋째, 세리 이야기

인기 절정 고교 수구선수 이세리. 어느 날 새로 바뀐 짝이 좀 이상하다.
그저 조용한 모범생인 줄로만 알았더니, 국어시간에 좀 존다고 사람을 그르케
괴롭히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이게 다 국어쌤 은성을 좋아해서란다. 근데 알고
보니, 사실은 날 좋아한다고? 그것도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지독하게?! 하! 차! 그럼 그렇지...
그러나 영주 왈, 좋아‘한다’가 아니라 좋아‘했다’, 지금은 곧 죽어도 은성쌤이란다.
그게 진짜지 무뚝뚝한 영주가 은성쌤 앞에선 해사하게 웃는다. 어라. 갑자기
속이 울렁울렁. 가슴이 간질간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법이다. 자길 향해 웃는
얼굴들은 수백 수천 번 봤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세리는 다른 이에게 반한
얼굴의 영주에게 반한다. 영주는 자길 좋아할 때도 꼭 저렇게 웃었을까?
그러나 그뿐. 현실은 고3을 앞두고 수구를 계속해야 할지 말지로
골치 아파 죽겠다.

한편, 영주는 똥줄이 제대로 탄다. 사실은 아직도 세리를 좋아한다.
좋아하다뿐인가... 사랑한다!!! 그 시작은 무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중학교 입학하기도 전.
영주가 수영교실에서 괴롭힘에 5미터 다이빙 풀에 빠졌을 때, 구해준 사람이
세리다. 쨍쨍 내리쬐는 해 아래 둘이 물에 빠진 생쥐 꼴로 집에 걸어갔더랬지.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리를 가지려고 몇 년을 공들였다. 갠 그땐 기억도
못 하는 것 같지만...
간신히 짝공이 되고 질투작전으로 승부욕까지 자극하는 데 성공!
근데 다시 시들어버리는 세리가 답답하다. 이제 곧 방학이라 볼 날도 없는데...
게다가 세상 예쁜 선배가 세리에게 고백한다는데... 이러다 다시 말짱도루묵 되는
건 시간문제. 그리하여, 정면돌파, 고백! “사랑해. 좋아해 아니고 사랑해다.”

넙다 지른 고백 뒤,
 방학 동안 영주는 매일같이 세리가 훈련하는 수영장에 나간다.
 어느새 노숙자(?)가 된, 동아리 담당쌤 구찬 찬스로 세리네 집에까지도
 쳐들어간다. 그런데도 세리의 사귀자는 말엔 못 들은 척. 전에 한 ‘사랑해’는 또
 어디 가고, 사람을 아주 들었다 놔다... 이게 씬인지, 씬인지?!
 이젠 영주가 아니라 세리가 애타고, 그렇게 영주에게 풍덩! 제대로 빠진다.
 한편 영주는 공부 때문에 부모님과 의 갈등이 심한데, 세리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다. 외중 세리는 근방 체고와의 전지훈련 뒤 수구선수가
 되기 힘든 현실을 깨달는다. 동시에 당한 어깨 부상... 그런 세리를 영주가 조용히
 위로해준다.

길고 긴 밀당 끝, 세리와 영주는 귀여운 연애를 시작하고, 세리는 결국 수구를
 그만두기로 한다. 아니다. 수구 ‘선수’를 그만둔 거지 ‘수구’를 그만둔 건 아니다.
 수구를 축구만큼 인기종목으로 만드는 지도자가 될 거란 원대한 꿈을 꾸며,
 오늘도 세리는 영주에게 알콩달콩, 쥐잡히듯 잡힌다!

1회

해성빌라에 사는 하나 두리 세리 삼 남매, 그리고 그 옆집 사는 구찬.
 구청 민원여권과 공무원 하나, 독서실 총무 두리, 고교 수구선수 세리는 각각
 이상한 사람들과 이상한 하루를 보낸다.

2회

두리,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열등감 폭발의 날. 현에게 뜻밖의 위로를
 받는다. 한편 하나는 우연히 상이의 남자친구가 바람피우는 걸 알게 되고, 세리는
 자길 갈구는 싸이코 영주가 실은 자길 중학교 때부터 좋아한 스토커라는 사실을
 듣는다.

3회

현이 바로 구찬의 철천지원수 군대 선임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두리는 현에게
 단단히 빠지고, 구찬은 속만 절절 끓는다. 구찬뿐만이 아니다. 영주가 자기에게서
 은성쌤으로 갈아탔단 걸 알게 된 세리, 질투에 돌아버린다! 한편 하나는 상이가

신경 쓰이는데... 혼인신고를 작성하고 빠꾸시킨다.

4회

두리와 현은 강릉 야간 마라톤에 참가한다. 뒤늦게 자기 맘을 깨달은 구찬, 더 늦기 전에 야자를 튀고 두리에게로 필사적으로 달린다. 그 선생에 그 제자라고, 영주, 아닌 척 누구보다 세리에게 필사적이다. 세리에게 급 고백! 한편 하나는 얼결에 상이와 같이 상이 남자친구의 바람현장(?)을 목격하고, 또 얼결에, 입맞춤한다.

5회

구찬, 두리를 좋아한단 걸 깨닫고 며칠간 끙끙 앓는다. 그런데 뭐?! 구찬네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한편, 어쩐지 불안해진 현은 그 집을 사버린다.

6회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집에서 쫓겨난 구찬은 아직 안 팔린 독서실에서 노숙하다가... 얼렁뚱땅 현과의 이상한 동거를 시작. 하나와 상이는 연애 아닌 연애를 시작한다. 한편 영주는 본격적으로 세리 조련에 돌입, 아무것도 모르는 세리는 안달복달 미칠 지경이다.

7회

두리의 웹소설은 좋은 반응을 얻고, 현과의 관계도 잘 흘러간다. 근데 웬지 싱숭생숭, 이 짹짹함은 뭘까. 그리고, 구찬의 고백. 그리고... 구찬의 가출?! 장마가 시작됐다.

8회

하나와 상이 집에 갔다가 우진과 마주치고, 그렇게 하나와 상이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온다. 한편 세리는 이제 자존심 따위는 다 내팽개친 채 영주가 억지로 감힌 경기도 이천 땅 씬머스쿨 기숙학원까지 찾아간다. 과연 그들만의 기숙학원 대탈출, 사랑의 도피 작전은 성공할 것인가!
장마 동안 두리는 구찬을 생각한다. 그리고... 녹록해져 돌아온 구찬의 컴백!

9회

방학이 끝나기 전, 삼 남매는 엄마 집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구찬과 현, 영주까지, 달려오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하나는 처음으로 엄마와 속 얘기를 터놓는다.

10회

두리는 이제 대놓고 열렬히 구애하는 구찬과 현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나는 상이에게 프러포즈를 하지만... 상이는 우진에게로 간다. 세리는 어깨 부상과 함께 수구의 힘든 현실을 깨닫고, 달밤의 수영장, 그런 세리를 영주가 위로한다.

11회

결국 현의 고백을 받아들였던 두리. 그러나 현에게 곧 이별을 고한다.
세리는 결국 수구선수를 그만두기로 한다.
상이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하나에게 돌아와 프러포즈를 한다.

12회

한 계절이 지났다. 결혼 전 동거부터, 하나는 상이와 살기 위해 독립, 이젠 현이 나가 빈 옆집으로 이사한다. 세리의 마지막 수구대회 날. 두리는 구찬과 재회하지만, 구찬은 모른 척 돌아서고... 혼자 집에 돌아와 우는 두리, 그런데 별안간 푹푹뚫, 베란다 창문이 두들겨진다.

하나 둘 셋

오혜원

1회

#1. 과거. 해성빌라 3층 복도(낮)

자막 — ‘2003년’

3층짜리 빨간 벽돌 연립주택, 해성빌라. 매미 소리와 함께,
단지 내 옥수수 트럭에서 “옥수수 한 묶음 천 원~ 옥수수 술빵도 있어요~”
소리 들려온다. 브릿지 염색과 태권도복 차림의 어린 구찬(11세).
까치발 들고 초인종 누르려는데, 현관문 벌컥 열린다.
하나두리네 아빠, 지갑 들고 쓰레빠 차림으로 나온.

아빠 어, 구찬이 왔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구찬 예, (지나치게 예의 챙기며, 꾸벅 인사하고 들어가는)

#2. 과거. 하나둘셋 집(낮)

식탁 위에 놓인 옥수수 봉지. 옥수수 뜯으며 <동아전과> 보고 숙제 베끼
는 구찬과 두리(11세), 소파에서 티브이 보는 하나(12세). 식탁에 앉아 연
신 빼꾸기시계만 보는 아빠는 다리만 달달달, 어딘가 초조해 보인다.

구찬 근데 아저씨. 아줌마는 어디 가셨어요?
아빠 어어, 어디 좀...

그때, 현관문 열리고 엄마 온, 아빠 벌떡 일어나 엄마에게로 뛰어간다.
둘이 속닥속닥 소곤소곤... 그러다 갑자기 악! 행복한 탄성을 지르며 엄말
껴안은 아빠의 모습. 둘 다 엄청 흥분돼 보이는데.

하나 (티브이 보다, 시크하게) 왜 저래...
엄마 (이제야 애들 보고) 어머! 구찬이도 와 있었네!
구찬 안녕하세요 아줌마,
두리 왜애? 뭔데애?
엄마 (큘! 또 좋은, 입술 깨물고) 너네...
애들 ??
엄마 (초음파 사진 들이밀며) 동생 생겼다!!!!

!!! 아빠, 끄악! 다시 한번 엄마 와락 껴안는다.
애들 놀라고, 두리는 옥수수 먹다 이 빠져 으앙! 울고.
아빠, “으흐흐, 난리다, 난리!” 하면서 자기가 더 난리. 엄마는
웃으며 “언니 될라구 그래, 언니 될라구,” 두리 달래는, 한바탕 난리 난 모습.

아빠 기다려봐.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자. 다 소파에
앉아봐봐, (거실 선반서 카메라 꺼내고) 자, 구찬이가 찍어줄래!
구찬 (식구들 따라 자기도 소파에 앉으려다 마는, 웬지 서운) 네에...
두리 근데, (엄마 손에 있는 초음파 사진 가리키며) 재 이름은 뭐야?
하나 내 이름이 하나고, 니 이름이 두린데, 재 이름은 뭐 갑자기 영희
철수겠니? (소파에 꺾겨 짜증 난) 아 꼭 이렇게 해야 돼?! 유난이야,
아빠 참어 참어, 네리는 없어,
하나 있음 큰일 나게. 정관까지 묶을 거람서.
아빠 !!! 엄마? 너 그걸 어떻게,
두리 (어병한) 뭘 묶어?
아빠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자자 찍자~ 앞 보구~
엄마 구찬이! 셋 하면 눌러줘? 자 하나—
하나 (새초롬)
엄마 둘—

두리 (올다 말고, 송곳니 빠진 채로 이~)
엄마 셋~! (들고 있는 초음파 사진, 뱃속에서 수영하는 듯한...)

찰칵 소리와 함께, 단란한 가족사진.
(사진 그트머리엔 구찬이 브이 자 내민.)

두리(NAR) 2003년의 여름, 그것이 하나 두리 세리의 시작이었다.
하나(E) 하나~ 둘~ 셋!

#3. 현재. 구청 민원여권과(낮)

혼인신고 패널 앞에서 신혼부부 사진 찍어주는 하나. “축하드려요~”
생글생글 웃는 하나의 모습 위로 보이는 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 팻말.

두리(NAR) 그리고 2021년, 현재. 첫째, 이하나.

INSERT
#2의 사진, 뚱한 얼굴의 하나. 지금 영업용 미소와는 비교된다.

두리(NAR) 얼굴도 공부도 싸가지도, 지 이름 맞춰 꼭 1등만 하던 이하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다. 누구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시시하고
지루한 인생을 산다 할 수 있겠지만...

자리에 앉은 하나, 한가한 틈에 잠깐 핸드폰으로 주식 창 들어가면...

두리(NAR) 글썄. 해적왕보다 스티븐 넘치는 주식왕. 그게 바로 이하나인걸.
...재수 없긴.

수익률 어마무시하다. 아까랑은 다른, 찌웃음 나오는 하나.

#4. 독서실/로비(낮)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 보는 두리. 화면 께뚫을 기세다.

두리(NAR) 다음은 둘째, 이두리. 나다. (짱긱!)

INSERT

#2의 사진, 어병한 두리 모습.

두리(NAR) 이두리, 이둘이, 이름하여 222. 둘째, 2등급, 모든 게 다 애매한 2. 직업도 두 개다. 이하나처럼 공무원에 주식왕, 이런 건 아니지만... (빠기는) 그냥 뭐, 작가?

두리, 글에 열중하며 타다다닥 키보드 두드리는데...

장수생(남), 방에서 나오는.

장수생 (예민) 저기요.

두리 아, 네!

장수생 너무 시끄러워요.

두리(NAR) 겐... 백수, 아니, 독서실 총무.

두리 또요? 또 누가 시끄럽게 해요? 그 방엔 빨대 후루루 소리 안 나게, 마지막 모금엔 각도 45도 딱!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삼색볼펜 금지한다고도 했고...

장수생 삼색볼펜보다, 더 시끄러워요.

두리 예? ...아! (가지가지하는구나... 애써 웃으며) 혹시... 사색볼펜 써요?

장수생 (답답) 아니, 총무님이요. (턱으로 노트북 가리키는)

두리 ! 소리가 안에까지 들려요? 키스킨도 껴는데?

장수생 들려요,

두리 아... 넵. (장수생 저쪽으로 가면) ...귀도 밝으네,

장수생 (양칼진) 들린대니까요?!

두리 (합)

#5. 해성고등학교/수영장(낮)

두리(NAR) 마지막으로, 셋째, 이세리.

INSERT

#2의 초음파 사진,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듯한 작은 점.

고교 수구 대항전, 수구하는 세리 모습.

“이세리! 이세리! 이세리!” 세리를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들린다.

두리(NAR) 다행히도 정말 네리는 없었고, 나는 언니가 아니라 누나가 됐다.

셋 중 이름 불리는 걸 제일 싫어하던 세리는…

지금 누구보다도 이름이 많이 불리고 있다.

마지막 피리어드 8분이 다 끝나가는 시간, 상대 팀과 접전 끝에, 선수(진환),

공 넣고, 동시에 빼— 경기 끝나는. 응원석에서 “이세리! 이세리! 이세리!”

함성소리 들리고, 세리, 환호에 응하며 물살 가르며 세레모니한다.

진환 아니 공은 내가 넣었는데 왜 재 이름을 불러? 왜 자가 세레모니를 해?

내 이름 김진환 김진환!! 김진환아안!!! (발악하지만 묻히는…)

세리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돌처럼 세레모니한다)

하나 두리 세리, 세 사람의 분할 화면.

〈하나, 둘, 셋〉 타이틀 올라가고,

두리(NAR) 그렇게, 또다시 여름. 하나 두리 세리.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

#6. 구청 민원여권과(낮)

결혼하는 또 다른 신혼부부. 혼인신고서 접수하고 웃으며 태극기 주는 하나다.
그러다 신혼부부 떠나면, 곧 감흥 없어지는 얼굴.

하나 (절레절레) 다들 뭐가 저렇게 해맑으니까.

동료 그런 년 뭐가 그렇게 우중충하니.

하나 이해가 안 돼 그래. 암만 금슬 좋아봐라. 애를 셋씩이나 낳건, 정관을
묶고 지지고 하건, 알콩달콩 수십 년을 살아도 그 어느 날 갑자기
헤어져 남남 되는 게 부부다. 근데 뭐 끝까지 가겠다고... 방금도
이혼신고를 몇 건을 받았게?

동료 으유. 년 애가... 근데, 너도 남친이랑 꽤 되지 않았어? 결혼 얘기 슬슬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하나 안 그래도 헤어질려고.

동료 왜? 결혼하재?

하나 질려. 그냥.

동료 (으이구...)

그때, 민원여권과로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오는 여자. 누가 봐도 눈에 띄다.
화려하기보다는 조잡한, 매치가 안 되는 색색깔의 옷을 입은 상이다.

동료 질리는 사람 저기 또 왔다.

하나 (? 상이 발견하고, 답 없단 얼굴)

동료 아주 출근도장을 찍네 저 여자,

하나 지상이 씨.

동료 ?

하나 지상이 씨라고, 이름.

동료 어떻게 알어?

하나 어떻게 알겠니.

하나, 한숨 쉬며 상이 보면,

상이, 민원실 쉼터에 비치된 놀이방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는.
얼씨구? 춤도 추는데, 똑딱거리는 것이 참... 절레절레 고개 흔드는 하나.
(E) 과거, 땅! 울리는 민원대 벨소리.

#7. 회상. 구청 민원여권과(낮)

자막 - '몇 주 전'

상이 (쭈뼛쭈뼛하게 다가오는) 저, 혼인신고를 하려는데요,
하나 네, 저쪽 서류는 작성하셨어요?
상이 아 예, 저, 근데... 그 전에 좀 여쭙볼 게 있어서요...
하나 ?
상이 (눈치 보다, 얼굴 훑 들어오는)
하나 (불쾌한 듯, 뒤로 훑 빠지고)
상이 (소곤소곤) 그... 혼인신고... 한번 하면, 진짜 도로 못 물리는 거죠??
하나 네.
상이 (다행이다) 아, 그럼, (주섬주섬 혼인신고 종이 내미는데)
하나 배우자분 도장이랑 신분증은 가지고 오셨죠?
상이 도장이랑... 신분증이요?
하나 네.
상이 (난감한) 없으면 안 되나요?
하나 (가뜰스한 얼굴로) 네,
상이 아... 개가 좀 바빠가지구... 제가 대신, 스읍, 급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 (어찌라고, 하지만 가뜰스한 얼굴)
상이 진짠데, 막 도둑, 사기, 보쌌 이런 거 아니고, 절대 아니고,
하나 ...
상이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나 네에, (가차 없이 땅! 다음 차례 벨 울리는)

#8. 회상. 몽타주. 상이의 혼인신고 실패의 날들

하나 ...?
상이 (눈치) 오늘은 증인 도장을 안 가져와서...
하나 (땡! 다음 차례 벨 누르는)

CUT TO

하나 ...?
상이 (눈치) 오늘은 주소지가... 이사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갔구...
하나 (땡! 다음 차례 벨 누르는)

CUT TO

하나 ...
상이 (눈치) 오늘은 제 신분증을...
하나 (눈 질끈, 땡! 다음 차례 벨 누르는)

#9. 현재. 구청 민원여권과(낮)

상이 (눈치) 오늘은... 또 남편을 까먹고...
하나 (한숨 삼키는)
상이 개 신분증을 챙긴다는 게...
하나 그러지 마시고, 남편 되실 분이랑 같이 오시는 건 어떠세요?
상이 그래야겠어요, 안 그래도 개 회사가 이 근처라,
하나 (O.L.) (웃으며) 네에, (정색하더니, 다시 땡!) 다음 분!
상이 (시무룩하게 떠나면)
하나 (그런 상이 뒷모습 답 없단 듯 보다, 이내 다른 민원인 받는다)

#10. 상가 외관(낮)

#11. 상가 지하1층 노래방/카운터(낮)

“시끄러워!” #4의 장수생 흉내 내는 두리.

카운터에서 킁킁대며 노가리 까고 있는 두리와 구찬 부다.

두리 점점 더 예민해진다니까요, 점점 더! 아주 박구찬 맛먹어요!
구찬 부 좀만 참아라, 노래방 팔리면 나도 종종 독서실 봐주께,
두리 그 전까지 저랑 바뀌요, 네? 네?
구찬 부 야! 너 양심이 있어봐라, 난 구찬이랑 살기까지 하잖어!
두리 (어이없는) 아저씨 아들이잖아요?
구찬 부 그니까! 얼마나 속상하겠느냐고!
두리 (허...) 노래방은 언제 팔릴 것 같은데요? 보러 오는 사람은 있어요?
구찬 부 꼬박꼬박 보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영~
두리 (에휴)
구찬 부 하기야 바로 나가는 것도 아쉽지, 위층에 독서실, 아래층에 노래방.
 이거 완전 짚신장수와 우산장수거든. 하난 망해도, 둘 다 망하진 않아.
 하나도 그랬잖나. 자고로 주식은, 포트폴리오 분산에 집중해야 한다,
두리 언니가 옥장판 사라고는 안 해요?

그때, 문 열고 우르르 몰려나가는 여중생들.

두리 (부동산집 딸 보며) 넌 또 왜 여깁니? 공부 안 하니?
구찬 부 (두리에게 소곤소곤) 봐라. 맞지?
두리 (아 쫘!) 너 그러다 니네 엄마한테 들킴 괜히 나만 눈치 보여, 부동산
 지나갈 때마다 너 독서실 잘 다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중딩 (O.L.) 아 밥은 먹어야죠.
두리 으윽... 또 흥흥토스트 가지? 그럼 나 거 옆에 문방구에서 키스킨 좀
 사다주라, 두꺼운 걸루.

종당 오늘은 거기 안 가요, 여기 1층 가는데.
 두리 1층?
 종당 네.
 두리 원랜 거기 안 갔잖아? 대기업 자본의 맛이 좋대메?
 종당 (으쓱) 거기 사장님이 미쳤대요.
 두리 ?

#12. 상가 1층 토스트 가게(낮)

‘사장님이 미쳤어요! 리뉴얼 기념! 3일간 공짜!’ 포스터 클로즈업.
 방과 후 시간대라 가게에 애들이 바글바글하다.
 그 사이에서 열심히 장사하는 현(토스트 가게 임시 사장).
 “사람 진짜 많네...” 키 작은 두리, 이리저리 치이며 기웃대다 줄 선다.

CUT TO

거의 두리 차례 와가는데, 아직 메뉴 못 고른. 두 개 중 갈팡질팡...

현 자, 친구 꺼~ 그다음 친구는 뭐?
 (주문받으랴 음식 만들랴, 바쁘다. 그 와중 두리 발견하고) 어!
 두리 ? (한번 훑긋 보고, 다시 메뉴 보며 고민하는)
 현 (아, 저쪽은 날 모르는구나) 거기 친구는 뭐 할 거예요?
 두리 ...? 저요?
 현 (끄덕) 친구도 햄치즈?
 두리 (‘친구’? 옆을 보면, 키 큰 초중딩들에 섞인 키 작은 본인.
 나도 초중딩으로 본 건가... 암만 그래도! 떨떠름, 소심하게 중얼)
 ㅎ 친구 아닌데...
 현 예?
 두리 (괜히 앞머리 만지는, 할 말은 다 한다) 손님인데.
 현 (웃긴) 아! 죄송해요. 입에 붙어서. 이, 내적 친밀감도 있고.
 두리 (? 뭐래...) 햄치즈 주세요.

현 넵. (훅훅 빠르게 만들며... 기다리는 두리 힐긋대다) 근데,
두리 ?
현 이왕, 친구하면 안 돼요?
두리 예?
현 따박따박 손님은 너무 정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약 올리듯, 완성된 토스트 두리 코에 한 바퀴 휘, 터키
 아이스크림처럼) 친구하면 공짜로 주고, 아님 말고.
두리 (뭐야... 그냥 토스트 가져가려는데)
현 (안 잡히는)
두리 허? (여유로운 척 있다가... 기습!)
현 (역시나 안 잡힌다. 잡힐 듯 말 듯, 계속 그렇게 한참을...)
두리 아, 아님 말고요! 공짜라고, 써붙이질 말든가...
 (공얼대며 지갑 꺼내려는데, 지갑 없고... 온몸을 뒤지면)
현 양말 밑엔 있지 않을까요?
두리 (짜려보는)
현 친구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두리 (아이씨...)

#13. 토스트 가게 앞(낮)

손에 아무지게 토스트 쥔 두리. 존심 상한다. 입 멧 발 나왔다. 가게 밖에 있는
의자에 앉는데, 옆에는 토스트 공짜라고 신난 초딩들 조르르 앉아 있는.

두리 (괘히) 애들아, 니네 밥을 먹어야지, 이런 밀가루 먹음 못 써.
 가득이나 공짜데 이 얼마나 부실하겠, (한입 먹는데...?!)

좀 이상하다. 토스트 안에 들춰보면, 부실은커녕 햄이 완전 두둑!
옆에 애들 것 보면 그냥 일반 토스트고... 두리 것만 그렇다.
토스트 가게 보면, 현, 유리창 안에서 두리 보고 씩 웃는다.

두리 ...얼레...? (옆에 애들 것 보고, 자기 것 보고, 다시 가게 보면)
 현 (더 씨익 웃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유리창 포스터와 겹쳐 보이는...)
 두리 얼레?? 뭘 자꾸 쳐웃는데... 진짜 미쳤나.

#14. 해성고등학교 외관(낮)

#15. 해성고등학교/교실(낮)

쉬는 시간, 모두 전멸해 있는 교실.
 종 치면 하나둘씩 일어난다. “뭔 시간이나?” “아 씨, 뽕뽕구리...”
 그 와중에 미동 없이 곤히 자고 있는 세리.

CUT TO

딱, 딱, 딱, 딱, 교실에 울려 퍼지는 영어선생, 일명 ‘뽕뽕구리(이하 뽕구)’의
 막대기 소리. 애들 졸다가도 깨고, 아주 질리는 표정이다. 돌아다니면서 지문만
 줄줄 읽고 해석하는데, 발음 구린 콩글리시에 지루하기만... 그러다 뽕구,
 문제집 푸는 학생 발견! 뽕어 보면, 생활과 윤리 과목이다.

뽕구 야이, 인간적으로 영어수업인데 윤리를 공부하면 어떡하니? 보통은
 거꾸로 아니냐고, 윤리 때 영어를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 내가.

학생 (안경 숙) 윤리 무시하세요?

뽕구 (에흐씨, 책 돌려주는) 그래, 무시해서 미안하다... 내가 영어 때 윤리
 안 해서 이렇게 도덕성이 떨어지나 보다. 풀어 풀어,
 (다시 돌아다니며, 애들에게) 어찌 됐건 공부만 해라, 공부만. 이렇게!
 (졸던 세리 등짝 짹!) 퍼질러 자지 말고.

세리 아아!

쉬는 시간, 자리 바꾸느라 소란스런 교실. 그 가운데 세리만 여전히 자고 있다.
 짹이 몇 번 깨우면, 그제서야 비몽사몽 일어나는 세리. 책상 옮기고...

새로 도착한 자리, 이미 새 짝(영주)이 공부하고 있다. 세리, 마저 책상 맞추려는데 영주 손이 책상 끝에... 손 째질까 봐 책상을 못 붙이겠는.

세리 손 좀 치워주라,
영주 (귀에 이어폰 낀)
세리 저기, 너 손 좀,
영주 ...
세리 (또 부르려다, 이어폰 낀 거 발견. 그냥 직접 영주 손 떼낸다.)
영주 (손 닿아 놀란, 화들짝 보면)
세리 안녕.
영주 ...안녕.
세리 (책상 맞추고, 바꾸자마자 퍼질러 자는.)
영주 ... (그런 세리 보는)

CUT TO

은성쌤 국어 수업시간, 구벽구벽 조는 세리. 옆에서 툭툭 치는 영주.

영주(E) 야, 일어나.
세리 ...
영주 일어나라고.
세리 ...
영주 (그런 세리 가만 보다... 샤프 뒤로 세리 팔뚝을 콧! 쏘시는)
세리 악!!!
은성쌤 (세리 쪽 보며) 뭐야?
세리 (숨... 쏘여진 곳 황급히 문질문질...) 아, 아니에요...
은성쌤 집중하자.
세리 예에... (영주 보며)
영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칠판 보는)
세리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계속 보며)
영주 (매섭게 쏘아보고)
세리 (어이없는데... 무섭다. 한껏 쫓아 앞 보는.)

#16. 카페(오후)

퇴근 후 하나의 집 근처 카페. 남친은 신나게 떠드는데,
하나, 그 앞에서 핸드폰으로 주식정보 보며 건성으로 듣는다.

남친 아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하나 (그런 얼굴 애정 없이 뻘- 보다... 초코음료 마시다 말고, 일부러 이
드러내며 씨익 웃어 보인다. 이 사이사이에 초코 물어 드러운)
남친 (아랑곳 않고) 귀여워~
하나 (바라던 반응이 아닌데. 표정 썩고, 물로 가글)
남친 아 우리 곧 2주년이잖아~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생각 좀 해봐,
하나 (심드렁하니) 글썸... 영화?
남친 영화는 맨날맨날 보잖아,
하나 드라이브나 가든지.
남친 드라이브도 맨날맨날 하잖아,
하나 뭐하자고. 그냥 대충 밥 먹고 카페 가고 해,
남친 그런 거 말고. 뭐 한 번도 안 해본 거 없나? 좀... 색다른 거?
하나 안 해본 거... 글썸.
남친 (눈치 보다) 그럼 여보야,
하나 (매섭게 보면)
남친 (바로 정정) 하나야. 우리... 대전 갔다 올래? 올 엄마가 자기 보고
싶다는데. 우리 만난 지도 꽤 됐고. 나이도 있고. 슬슬... 결혼도,
하나 (내내 언짢은 미소 지으며 남친 보다) (O.L.) 아!
남친 ?
하나 있다. 안 해본 거. 해야 할 거.
남친 (신난) 그치?!
하나 헤어지는 거 아직 안 했다, 우리.
남친 ...뭐?
하나 헤어지자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남친 ?!
하나 (호들갑) 왜왜왜? 아님 뭐, 외발자전거 타고 불쇼, 이런 거 할래?

하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착악!!! 하나 얼굴 위로 뿌러지는 물.

#17. 노래방(오후)

구찬부 우리는 음질도 음질이지만, 조명이 이게, (조명 탁, 켜면 오색찬란한)
상이 (놀란, 물개박수) 와아, 대박대박! 완전 별세계 와 있는 거 같아요!
구찬부 (반응 만족스럽고) 그거죠. 이 한 편의 우주랄까. 또 이 스텝모터가
 고급이라 회전까지 부드럽거든. 이제 여기서 딱~ (블루스 켜는)

노래방 보고 있는 상이와 구찬 부, 부동산 아줌마다.

상이와 구찬 부, 짹짹 잘 맞는다.

부동산 (노래 끄고, 불 켜는. 찬물 착악~)
 하여튼 이 정도면 헐값에 넘기는 거예요, 그죠 사장님?
구찬부 아 예, 그죠 그죠,
부동산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상이 아... (약간 난감한 표정의)
부동산 ? 아가씬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상이 아, 그게 아직 다 모으진 못했는데요...

#18. 상가 앞(오후)

부동산 (씩씩대며 먼저 가는) 아니 그럼 침부터 말을 해야지,
상이 안녕하하세요, (눈치 보며, 구찬 부에게) 그럼 저도 가보겠습니다,
구찬부 답에는 노래도 부르고 가요, 싸게 해줄게.
상이 에이, 싸게는요.
구찬부 돈 빨리 모아서 우리 가게 사야죠.
상이 아, 헤헤, (인사하고 가는)

#19. 길가/카페 앞(오후)

하나, 남친과 대판 싸운다. 하나는 물에 흠뻑 젖어 있고,
남친은... 얼굴에 똥물 뒤집어쓴 것처럼 초코음료 뒤집어쓴.
머리도 쥐어뜯어져 있다. 사람들 모여 구경 중이다.

남친 (울부짖는) 사람 갖고 노니까 재밌나! 즐거워! 행복해!
하나 갖고 놀... 아, 내가 만나기 전부터 말했지, 결혼 안 한다고! 싫다고!
남친 그니까 왜! 왜 싫어! 결혼이 싫어, 내가 싫어!
하나 결혼도 싫고, 너도 싫어? 근데 너랑 결혼?! (사자후) 존! -나! 싫어?!

상이, 근처 지나가다, 왠지 소란스럽다. 사람들 사이를 기웃대는데...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흠뻑 젖은 하나! 씩씩대는 얼굴.

상이 ?!! 어! 어어! 안녕하세요!
하나 ?! (상이 알아보고, 아이씨...)
상이 (방금 와서 영문 모르는) 어 근데, 꼴이 왜...

그때, “야!!!!” 사람들 틈에서 나오는 하나 남친.
하나, 뒤돌아보고, 그렇게 서로 찌러보다가...
하나가 똥개 쫓듯이 팍씨! 발 구르면, 움찔! 하며 가버리는 남친.

남친 (도망치다 뒤돌아보고, 울먹) 사랑했다 이하나!!! 지옥 가라 이하나!!!
하나 (다시 뒤돌아 쫓으려는) 저 이 씨바새끼, 인누와, 안 와!!!
남친 (후다닥)
상이 (괜히 눈치 보이는. 여름용 카디건 벗어 건네며) 좀 닦으실래요...?
하나 (짜증, 카디건 치우는) 됐어요, 시원해요.
상이 (괜히 하나 민망할까 봐 아무 말) 바, 밖에서 보니까 디게 반갑다...
요즘엔 남친보다 그쪽 얼굴 더 많이 보는 거 같다니까요? 아세요?
하나 나야 모르죠.
상이 (황철수설) 이게~ 다 땅덩이가 좁아서 그래요. 좀만 더 좁다간 얼굴만

하나 마주치는 게 아니라 아주 입도 마주치겠다니까요. 그죠. 으하핫!
하나 허? 안 그죠! (씩씩대며 갈 길 가는) 이상한 사람이야...

상이, 멋쩍고, 그냥 가려는데, 하나 가는 저쪽에 해성슈퍼가 보인다.
현수막에 복권 1등 당첨자 수두룩! 홀린 듯 그쪽으로 향하는 상이.

#20. 해성슈퍼 앞(오후)

해성슈퍼에서 나오는 상이. 손에는 스피또 여러 장 들려 있다.
밖에 나와보니 하나, 코코아 자판기 앞에서 뚱한 얼굴로 있다.
하나, “아씨... 당 떨어져” 그러나 손에 든 건 카드지갑뿐.

상이 (동전 건네는) 드실래요?

하나 (! 쟈 또 왜 저기서 나와) ...됐어요 괜찮아요,

상이 드세요, 저는 동전 맨날 구비해놓거든요 이거 땀에. (스피또 보이며)
카드로 긁을 때는 손맛이 안 나. 잠깐만요. (코코아 뽑는)

하나 괜찮은데 정말.

상이 드세요 그냥. 차 한 대도 아니고 한 잔인데,
(코코아 후후 불어 건네면)

하나 (좀 더럽고 찜찜하지만... 받아먹는)

상이 (평상에 앉아 스피또 긁으며) 대신 그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하나 (푸읍)

상이 (스피또에 열중) 농담이에요 농담, 웃으라구. 저 결혼할 사람 있잖아요.
매번 방해하셔서 결혼은 못 하지만...

하나 (어이없는) 무슨 방해를,

상이 (웃는)

하나 아! 저 근데... 그... 담에 오시면, 오늘 일은...

상이 ? 아아,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저도 뒷말이 세상에서
젤 싫은 사람이라. 구청서도 좀 제 말 돌고 그르죠? 만날만날 온다고,
소박맞은 건 아니냐고.

하나 ! 무슨... (당황한, 상이 너머 복권 훌끔대며 말 돌린다) 됐어요?
 상이 (내내 웃다... 정색) 안 됐어요.
 하나 (큘! 웃으면)
 상이 (쳐다보고)
 하나 (안 웃은 척...)
 상이 (폴 죽어 복권 보며) 그러다 진짜 지옥 가요...
 하나 ... (당 떨어지는 듯 코코아 원샷한다)

#21. 해성고등학교/운동장(오후)

하고 중인 세리와 진환. 그때, 여자애들이 다가와 음료수 건넨다.
 “오빠 팬이에요”, “완전 멋있어요”, 진환은 쓱 뺨 애기 오가고...
 멀리서 누군가 “야! 이세리!” 부르지만 못 듣는.
 여자애들 보내고 다시 걷는 세리, 진환.

세리 (음료수 보며) 물은 이미 진창 마셨는데.
 진환 니는 물이 딸기 맛이냐? 안 먹을 거면 나 죠.
 세리 (뺨으려는 진환 요리조리 피하며) 배고픈데 씹을 걸 주지.
 영주(E) 야! 이세리!
 세리 (돌아보면, 달려온 듯한 영주다. 좀 놀란) 어!
 진환 (어쩐지 세리보다 더 놀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다)
 영주 (성질난 듯 숨 고르며 찌려보고)
 세리 (순간 아까 일 생각난, 경계) 왜, 왜?
 영주 너!!!
 세리 ?!
 영주 앞으로 다른 댄 몰라도, 은성쌤 시간엔 즐지 마.
 세리 ...? 그거 말하라고 여까지 왔어?
 영주 그래!
 세리 ...왜애?
 영주 은성쌤 속상하잖아.

세리 ? 그거랑 너랑 무슨 상관인데?
영주 은성쌤이 속상하면, 내가 속상하잖아.
세리 ...? (알겠는) 아!
영주 알았음 간다.
세리 잠깐만. (영주 보면) 이거 너 먹을래?
영주 (멀리 여자애 턱으로 가리키며) ...재한테 받은 거 아냐? 왜 나 주는데?
세리 (강 먹기 싫어서 주는 건데... 대충) 오늘도 속상했을 건데, 첫인상 나빠질까 봐. 앞으로 잘 지내자고.
영주 (어쩐지 밉게 보다, 그냥 가는)
세리 ? 뭐야...

#22. 하나둘셋 집/부엌(저녁)

눈 가늘게 뜬, 의심스런 표정의 두리, “요상스러...” 중얼댄다.
그 눈길 끝엔, 식탁 위, 더미로 쌓인 토스트가...

#23. 회상. 토스트 가게 앞(오후)

두리, 퇴근하고 상가 밖으로 나오는데, 현, “어어! 친구!” 부르는.

현 (창문에서) 저녁 먹었어요? 안 먹었음 토스트 먹구 갈래요?
두리 (나 아니겠지, 그냥 지나치려면)
현 친구!!!
두리 ...나요?
현 (끄덕이면)
두리 (그냥 가려다... 돌아와) 저기요, 근데 왜 자꾸 나보고 친구래요?
현 왜긴요, 친구하기로 했잖아요.
두리 ...후. (현 위아래로 보면... 좀 어려 보인다. 꺾렁하게) 몇 살이에요?
현 스물넷요.

두리 스물넷...! 하! 난!!! 스물아홉이에요! (두둥)

!!! ...어쩌라는 걸까. 민망한 침묵이 흐르고...

현 ... 어... 축하해요...?

두리 ! 그게 아니고,

현 어쩐지 좀, 의젓하더라...

두리 그게 아니고! 아, 곧 서른이 어떻게 스물넷이랑 친굴 하나구요!

현 왜 못해요. 그럼 곧 서른이 어떻게 한입 갓구 두말해요!

두리 (유치뽕짝) 두 말만 해요? 세 말도 해요!

현 ...어우...

두리 (자기도 좀 민망하고...)

현 (그 맘 안단 듯) 자요. 맛나. (토스트 여러 개 든 봉지 건네는)

두리 (또 말했다. 열결에 받고)

현 잘 가요?

두리 (이 사람이 진짜! 현 붙잡는)

현 ?

두리 ... (한번 해보잔 식으로) 더 줘요.

현 (약간 당황) 아, 네, (더 담으면)

두리 더.

현 넵, (계속 담는)

#24. 현재. 하나둘셋 집/부엌(저녁)

두리, “흠... 흑시... 설마... 나한테 관심...”

고개 가웃거리는데, 세리 들어온다.

세리 (토스트 쌓인 것 보고) 이게 다 뭐야?

두리 ...먹어봐.

세리 (얇남먹으면)

두리 어때?
세리 맛있는데?
두리 막, 갑자기 졸립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하진 않고?
세리 ?? 강 맛있는데?
두리 (애랑 말해서 뭐하나 싶고)

그때 또 하나가 들어온다. 얼굴도 젖어 있고 뒤통도 좀 젖어 있는.

두리 언닌 또 꼴이 그게 뭐야?
하나 (현관 거울 확인하더니, 얼굴 두드리며 태연히) 물광 메이크업.
두리 허... 그거 해준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
하나 머드 팩 해줬어.
두리 어?!
하나 (어깨 으쓱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세리 웃는 거 보니까 이겼나 본데.
두리 언젠 지나.

각자 방에 들어가는 셋. (방 세 개, 각자 한 방씩. 부모님 방은 없는)
그리고... 거실 협탁 위, 여러 개 사진액자.
#2에서 찍은 사진부터 가장 최근 세리 중학교 졸업사진까지 시간순으로
보이는데, 엄마아빠는 중간부터 안 보인다.
한편, 사진들 구석엔 찍은 사람(구찬)이 손가락 브이 자를 한 게 보이는데...

#25. 해성빌라 나동 3층 복도(밤)

복도 올라오는 남자(구찬)의 뒷모습,
반쯤 문 열린 집(하나들셋 옆집)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들린다.
슬쩍 보면, 방충망만 닫힌 채로 동네아줌마들 집합해 놓고 있는.
구찬, 조그맣게 한숨 쉬더니 익숙하게 지나쳐 옆집 초인종 누른다.
복도에 놓인 박스에서 찰옥수수 몇 개 집어드는.

#26. 하나들셋 집(밤)

세리 에. (건성으로 문만 열어주고 방으로 쓱 들어가는)
구찬 저저저... 옛날엔 형아형아 하면서 내 뒤만 따라댕기더니...

 구찬의 얼굴 보이면, 바로 #15의 그 ‘빡딱구리’ 영어 선생이다.
 집주인 안 보이는 텅 빈 집에서 찜기 꺼내서 옥수수 찌는 구찬.
 기다리는 동안 텔레비도 틀어놓고...
 싱크대 물기도 신경 쓰이는지 꼼꼼히 닦고...
 시간 경과. 옥수수 다 된. 구찬, 부엌 탁자에 앉아 옥수수 먹을라치면,

두리 (벌컥! 방에서 문 열고 나오는) 빡구!
구찬 아아악!!! 뜨 아프!! (바들바들 떠는)
두리 육갑, (옥수수 집어먹는)
구찬 약! 있음 말을 해야지!
두리 여기 우리 집이거든? 오늘 야자감독 안 한다더니 왜케 늦게 와?
구찬 (아직 벌벌) 잔업 있어서... 왜?
두리 이거 봐, (냉장고에서 토스트 든 봉지 꺼내 보여주는)
구찬 이게 다 뭐야, 니가 산 거야?
두리 공짜. 독서실 아래에 토스트집 개업했잖아. 한동안 파리 날리더니,
 리뉴얼 행사한다고.
구찬 이게 다 공짜라고?
두리 좀 주라니까 주던데?
구찬 좀이 아닌데?
두리 그니까. 좀 주라니까 순순히 좀 주길래, 많이 주라니까 또 순순히 많이
 주드라?
구찬 (의심스런 얼굴로 보는) 이~거 이거...
두리 (기대 기대) 왜? 니가 봐도 좀 이상하지? 사장이 남자야. 잘생겼어.
 (언제 나왔는지 옆에서 옥수수 먹는 세리 가리키며)
 참고로 애 말론 배도 안 아프고 막 졸립고 그런 것도 없대.
구찬 (활짝 웃는) 개이득. 내일도 싸와라. 아니, 널 나 야자감독 있다. 모레,

모레.

두리 (눈 흘기고)
구찬 근데 암만 행사래도 이거는 좀...
두리 (다시 기대 기대) 아니지? 미쳤지? 흑사... 나한테 관심,
구찬 (O.L.) (흐흐, 폰수 같은 웃음) 제대로 미치셨다 야!
두리 ...좋아 죽네. (김센, 성질난 듯 남남 옥수수 뜯으면)
구찬 야야, 조심해애? 거기 씌운 곳 부러지면 이번엔 임플란트 해야
된다며? (옥수수 몇 알 뜯어 두리에게 건네는) 어금니로 씹어,
두리 (아찔한 듯 혀로 앞니 슥 훑고, 옥수수알들 받아 입에 털어 넣는)
하튼... 오늘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애,
세리 (뭔가 생각나는 듯) 어. 나돈데.
하나 (방에서 나오며) 나보다 더할까. (리모컨으로 티브이 돌리는)
구찬 뭐야 셋이서... 또 나만 따 시켜.
두리 눈치를 인제 채.
구찬 (눈 흘기는)

하나, 거실 소파에 앉고. 선풍기 돌아가고... 마치 #2의 모습 같다.
네 명이 “덥다 더워, 벌써 한여름이네.” “선풍기 좀 돌려봐.”
“그리고 보니까 요샌 옥수수 트럭이 안 보이더라.”
“같이 파는 술빵이 맛있었는데.”
그렇게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다 같이 티브이 보는 모습에서...

1회 끝.

2회

#1. 과거. 하나둘셋 집/거실(저녁)

자막 — ‘2012년’

대학생 시절 두리와 구찬. 둘 다 꾀죄죄한 채로 <무한도전> 보고 있는.

하나 그 앞을 지나가는데, 깔끔하게 꾸민 모습.

서로 눈 마주치면... 잠깐의 정적.

하나 (무심히) 둘 다 왜 그렇게 생겼냐. (그대로 현관 가는)
두리 이씨! 어디 가?
하나 데이트. (밖으로 나가면)
구찬 (홀린 듯) ...하나 누나한테선 좋은 향기가 나.
두리 ! 야, 미안한데, 그거 향기가 아니라 냄새야, 깔끔 떠는 니가 질색팔색하는?! 이하나 방 안 가봤냐?
구찬 있잖아, 향수도 원래 농도가 열어서 글지 스텁크 방구 냄새랑 똑같대.
두리 (징글) 이하나 똥도 카레요 하고 먹지 왜.

#2. 현재. 해성빌라/계단(아침)

각자 출근, 등교하는 두리(평소와 달리 좀 차려입은), 세리, 구찬.

계단 내려가는데 두리, 갑자기 구찬을 퍽 때린다.

구찬 아! 왜 때려?
두리 (#1의 일 생각나는) 재수 없어서.
구찬 ? 왜?
두리 가끔 그래. 신경 쓰지 마.
구찬 허... 자꾸 이럼 아주 곤란해? 하기사, 날이 더워 그른가 나도 요즘 좀... 오락가락하지마는.

두리 ? 넌 또 뭐가.

구찬 (본인도 모르겠다, 으쓱하더니, 차려입은 두리 슴 훑고) 그냥 가지 마.

두리 ?

구찬 고딩 때 애들 만나다메. 너 것 땀시 그러는 거 아냐,

두리 ...

구찬 나 봐. 좀이라도 싫음 칼같이 딱 끊는다고. 저번에도 군대동기들
 뭉친다고 연락왔는데, 어우, 절대? 그때 그놈만 생각하면... 차! 아주
 그냥 선임들한테 꼬리 살살 치고 나한테 막막, 꼴랑 몇 주 차이면서
 나이도 어린 놈이... (주절대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두리 (O.L.) 불러주면 그냥 가, 너는, 좀. (다시 자기 할 말) 이름부터가
 재수가 없는 거지. 아니 언니처럼, 두리가 아니라 두나면 좀 좋냐고?
 두리, 좀 모지리 느낌 나잖아. 안 그래? 그찮아? (세리 보면)

세리 세나나 세리나, 나는 그게 그거라.

두리 (짜릿)

#3. 해성빌라/1층 입구(아침)

두리 그럼 가라. 데려다주느라 네가 고생이다.

구찬 목적지도 같은데 뭐. 너도 잘 갔다 와. (철없이 세리 자전거 뒤에 타는.
 데려다주는 건 구찬이 아니라 세리다)

두리 (한심하게 쳐다보곤 가는)

세리 아 진짜...

구찬 (아무지게 헬멧 끼며) 아침훈련 있다며. 준비운동 해야지.
 (세리 허리를 꼬옥 껴안는, 등에 폭 기대더니) 달려~

세리 (징글)

#4. 해성고등학교/수영장 외관(낮)

#5. 수영장/로커룸(낮)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세리와 진환.

세리 팔 윗부분에 빨간 상처가 보인다.

진환 요즘 어디서 나 모르게 기합 받냐?

세리 ? (거울에 들춰보다가) 어우 뭐야 이거!

#6. 회상. 몽타주. 세리가 영주에게 맞는 모습

은성쌤 시간, 조는 세리를 영주가 살랭이 같은 눈으로 찌리며

찌르고, 때리고, 꼬집는 지난날들...

그때마다 세리, 악! 악! 악! 당하고만 있다.

#7. 현재. 수영장/로커룸(낮)

세리 (억울) 아이... 김영주 진짜...

진환 (화들짝) 김영주가 인젠 니 몸에까지 손대디?!

세리 ? 김영주 알아? 우리 반 앤데?

진환 그럼 몰라?

세리 ? 개 뭔데? (괜히 불안)

진환 (얼척없이 보면)

세리 뭐.

진환 넌 뭔데?

세리 ?

진환 니가, 개를,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하지?

세리 된 소리아...

#8. 해성고등학교/교실(낮)

태평하게 공부하고 있는 영주 모습.

진환(E) (한숨) 김영주. 이세리 부인, 아니, 주인. 유명하잖아?

#9. 수영장/로커룸(낮)

세리 ?! 뭐 소린데 진짜?

진환 하. 이 새끼 진짜 몰랐나 보네. 그냥 가식 떠는 줄 알았더니.
아 김영주! 너 엄청 좋아하잖아?

세리 ?! (헛웃음) 야... 걔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

진환 (답답) 그게 너야. 개가 널 언제부터 좋아했는데.

세리 ? ...언제부턴데?

진환 중학생 때부터.

세리 중학생 때도 같은 학교였어?!

진환 같은 반이었어! (폰으로 찾아 보여주면...)

진환의 핸드폰 갤러리,

중학교 수련회, 중등 수구대회,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체육대회...

찍힌 사진마다 따! 따! 따!

귀신처럼 세리 한걸음 뒤에 서 있는 영주의 모습이다.

진환(E) 한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공포스럽게 노래 부르는)

세리 (경악)

진환 그냥은 안 있었지. 아예 너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지.

세리 ?

진환 너 두고 송원상고 누나들이랑 십 대 일로 싸우고 이겼자너.
(급 목소리 깔고) 바야흐로 중3,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지...

#10. 상상. 공터(낮)

홍콩 누아르 느낌의, 비 내리는 어느 날. 공터 한복판.
여고생들 쓰러져 있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손에 벽돌 든 여중생.
섬짓하게 뒤돌아보는 모습, 영주다.

#11. 현재. 수영장/복도(낮)

수영장 풀로 이동 중인 세리와 진환.

진환 벽돌 끝엔 빗물과 함께 핏물이 똑똑똑,
세리 (O.L.) 야잇, 갠 그냥 완전 모범생, (멈칫, 무의식적으로 팔 문지르는)
진환 이 아니라 또라이야. 그렇게 제패한 날, 우리 동네에 메아리쳤지.

#12. 과거. 영주네 아파트(밤)

영주 (베란다에 대고, 야호 하듯이) 이세리 내 꺼~! 건들지 마라~!
해성중학교 3학년 1반 21번 이세리 내 꺼~!!!

은 동네에 '이세리 내 꺼~ 내 꺼~ 내 꺼~' 영주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13. 과거. 진환네 아파트(밤)

그 시각 진환, 베란다에서 빨래 널다, 깜깜한 밤, 바깥에 메아리치는 영주의
음성을 공포스럽게 듣는. 소름 끼치는지 전신을 부르르 떤다.

#14. 현재. 수영장/풀 안(낮)

진환 (그때가 생각나는지 다시 부르르 떨고. 잘못 보면 오줌 싸는 듯...)
세리 (충격, 와중에 물 휘휘 진환 쪽으로 젖는)
진환 (안쓰런 듯, 세리 뺨 툭툭 치며) 하튼 넌, 그때 제대로 정복된 거지,
세리 나는... 몰랐는데?
진환 넌 원래 다 모르지. 너는 아는 게 없자니. 일 더하기 일은?
세리 2.
진환 (가볍게 뺨 찰싹) 귀요미 봉팔아.
세리 (뺨 부여잡고 얼빠진)
진환 하튼 넌 김영주한테 제대로 찍혔어.
(엄지에 침 묻혀 세리 이마에 콕-)
세리 (멍-한, 물로 이마 닦는)

#15. 독서실/로비(낮)

커서만 깜빡이는 노트북 화면.
두리, 멍때리고 있다가... 카톡에 들어가 지난 대화들 보면,
‘해림이 지방 발령났다. 가기 전에 함 보자’
‘주말에 여행 가는디ㅠ 평일 가능?’
‘아예 점심으로 잡을까?’ 식의 대화들이고...
그때, 장수생 문 열고 로비로 오는.

장수생 (예민한) 저기요,
두리 (O.L.) (더 예민한) 오늘은 타자 안 쳤는데.
장수생 예?
두리 커서 깜빡이는 것도 소리가 들려요? 깜빡. 깜빡. 하고?
장수생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눈은 왜 그렇게 무섭게 뜨고 그러세요...?
두리 혹시나. 눈 깜빡이는 소리 들릴까 봐요, 깜빡, 깜빡, 하고.
장수생 (가면)

두리 (다시 카톡 보는, 한숨) 가 말어... 가 말어... 가 말어...

#16. 교차. 브런치 카페 앞+해성고등학교 급식실 앞(낮)

“가 말어...” 결국은 브런치 카페 건물에 도착한 두리다.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는데, 전화 와 보면, 구찬이다.
구찬, 급식실에서 밥 먹고 나오는.

두리 (신경질적으로) 왜.
구찬 어쭙후. 꽤나 당돌한데.
두리 시비냐?
구찬 정 뭇함 그냥 나오라고, 바쁜 척해.
내가... 그래, 그 담당자 해줄게, 네? 작가님?
두리 (구찬 맘 알겠고, 좀 누그러진) ...식당 앞이야. 아직 안 들어갔어.
구찬 이따 한 번 더 걸어주까?
두리 됐어. 저녁에 맥주나 하자.
구찬 오늘 감독인데,
두리 바쁘네, 넌. 바쁜 척 아니고.
구찬 (좀 짠하고) ...오늘 급식에 캐플(음료수) 나왔다?
두리 근데.
구찬 뭘 물어. 두 개 받았어, 하나 챙겨놨어.
두리 (웃는. 전화 끊고... 결심한 듯,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17. 브런치 카페(낮)

“부럽다, 부러워.”
“나는 니가 더 부럽다. 암만 그래봤자 순환 떠돌이 신센데.”
친구들, 일 얘기로 신나게 떠드는. 두리 혼자서만 가시방석이다.

동창1 아. 두리 넌 요즘 뭐해??
 두리 나? 나야 뭐... 그냥, 똑같지 뭐.
 다들 (짧게 정적, 두리와 눈 마주치자 애매한 미소 짓는)
 두리 (괜스레 웃는) 아, 왜애.
 동창1 누가 뭐래, 그냥... 좀 아쉬워서 그렇지.
 동창2 어우, 야, 뭐가 아쉽나. 애는 분명 나중에 대박 터뜨린다니까.
 지금 유명한 작가들 봐봐, 옛날엔 엄청 힘들었다며.
 동창3 그르네 맞네~ 그리고 애 전에 연재했던 것도 반응 좋았잖아!
 두리 (어색한, 괜히) 야, 그거 완전 쪽박났는데 무슨. 문학도 아니고
 웹소설도 아니고, 어중뎠다고 완전 욕이란 욕은, (멈칫, 보면)
 다들 (더 어색해진) 왜 그래... 난 재밌기만 하던데 뭐...
 두리 ...다른 얘기 하자, 다른 얘기. 처진다. 아 예리 너, 전에 소개팅 한 거
 어뜨케 됐냐?
 동창1 아 야! 미친!!! 말도 마, 진짜.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는.
 그 틈에서 두리, 어색하게 웃으며 샐러드만 한참 씹는다.

#18. 구청 근처 식당(낮)

혼자 밥 먹는 하나. 주식 앱 들락거리는데, 순간 눈을 의심한다.
 주가 상승률이 미쳤다! 새로 막 뜬 합병공시 보고 좋아 죽는.

하나 (종다가) 잠깐만, 그럼 그게 진짜 맞았네?!

#19. 회상. 하나둘셋 집/거실(밤)

전날 밤.
 “가 말어...” 소파에 앉아 별자리 운세 보는 두리. 운세가 안 좋다.

두리 아... 널 날이 영 아닌데. 가지 말까...
하나 (지나가다) 그거 뭐 맞긴 하나?
두리 얼추 들어맞거든?
하나 ...그래? 내 것도 봐봐. (두리 옆에 가 앉고)

보면, '재물운 최상!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 대박 운세다.
하나, "나야 역시~" 호호 웃는다. 두리, 그런 하나가 재수 없는!

하나 (갑자기 뭐 생각 난 듯) 아. 좀 내려봐봐.
두리 또 뭐! 봤잖아.
하나 내 거 말고, 7월 28일이면... 무슨 자리냐... (폰 스크롤 내리는)
두리 누군데?
하나 있어,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어 여겼다, 사자자리.
두리 모르는 사람인데 생일은 알아?
하나 (그러네... 생각해보니 웃긴) 생일만 알아? 주소도 알고 번호도 알아.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네요.'

하나 (웃긴) 아이고... 또 헛걸음하게 생겼구만.

그리고 그 밑에 적힌, '행운의 색: 초록색'

FLASH CUT 1회 #19

상이가 하나에게 건넨 초록색 카디건. 전에도 자주 입었던...

하나 (웃는) 그때 그거 입을 되겠네.

#20. 현재. 식당(낮)

하나, "용하다 용해" 기분 좋게 밥 먹는다.

#21. 식당/카운터(낮)

하나, 계산하고 식당을 나서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와 부딪힌다.
사과하고 가려는데 그때 보이는, 남자의 목에 걸린 사원증. '원우진'
?? 뭔가 기시감 들고... 그러다 퍼뜩,

FLASH CUT 1회 #8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랑 이름. 특이한 이름 '원우진'

FLASH CUT 1회 #9

상이 "개 회사가 이 근처라서~" 떠드는...

하나 아아!
우진 ?
여자 (그때 남자에게 와 팔짱 끼는) 누구야?
하나 (? 이 여잔 또 누구야) 누구세요?
우진 (하나에게) ? 누구시죠?
여자 뭐야... 아는 분?
하나 (천천히 상황 파악하는. 대충 감이 온다) ...공식적으론 아니고요,
여자 비공식적으론 안단 거야 뭐야...
하나 (둘이 낀 팔짱 가리키며) 이렇게 공식적이시고?
우진 예?
하나 (둘을 혐오스런 표정으로 보다가, 헛웃음 짓고 나가는)
우진 (그런 하나 이상하게 보다가) 아 진짜 좀, 이러지 말랬지. (팔짱 뺀다)

#22. 해성고등학교/교실(낮)

교실 들어가는 세리. 그때 영주, 사물함에 가다 세리 마주친다.
세리, 흠칫 반사적으로 몸이 쭈리는데,
정작 영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속 지나쳐가는...

세리, 생각해보니 어이없다! 그럼 이게 다 연기라고?

세리 (사물함에 기대서, 의기양양) 야!
영주 뭐.
세리 ...너 나 좋아한다메?
영주 (한번 휩 쳐다보더니 계속해서 사물함 정리하는) ? 뭐래...
세리 알어, 부끄럽겠지, 민망하겠지.
영주 뭐래 진짜. 정신없어, 가.
세리 정신 역시, 없겠지.
영주 ?
세리 (에유. 발뺌은...) 그래, 대충 네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진 알겠어.
날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참이야,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러기엔
내가, 그런 여자가 들썩이나 더 있는 거지.
영주 ... (빠히 보다 한참 뒤, 미적지근하게) 아아...
세리 (반응이 이게 아닌데... 괜히 무안한) 아아...?
영주 근데 어떡하나. 지금은 아닌데.
세리 엉?
영주 그땐 기고 지금은 안 기다고. 너 좋아한 건 작년까지,
지금은 말했다시피 은성쌤. 갈아탄 지 꽤 됐는데.
세리 ? 하, 에~이...
영주 은성쌤 전엔 무려 구찬쌤도 있었다.
세리 (경악, 부정하는 뺨사리) 에이!!!
영주 ...
세리 (설마) 야...! 진짜야...? 그건 아니지...!
영주 (짜증) 가, 정신없어. 이쯤 되면 너도 정신없지 싶다.
세리 (혼란스러운, 지고지순하게 비키다...) 잠깐!
영주 아 또 뭐?
세리 구찬쌤은, (머리 아픈 듯 손 휩휩) 됐고, 왜? 아니 그렇잖아?
내가 은성쌤보다 잘생겼잖아?
영주 (고개 휩, 진지하게) 진짜?
세리 진짜.

영주 진짜?

세리 진... 아니 뭐 엇비슷하잖아...

영주 피지컬은 인정, 근데 것도, (속 위아래 훑다, 세리 팔뚝 잡더니 한숨)
열심히 하자, 요즘 좀... 물러진 것 같드라.
(분발하라는 듯 팔뚝 툭툭 치고, 지나쳐 가면)

세리 (당황) ...내가 복숭아야 뭐야? 물러지긴 뭘 물러져?! 그리고 네가 걸
어떻게 알...! 그럼 너, 너 나 찌를 때 일부러... 야잇 어디 가!

#23. 버스정류장(오후)

버스에서 내린 두리.
두 손에는 뜬금없이 이불이 한가득인 비닐봉지가 들렸다.
두리, 아무도 없는 버스정류장에 멍하니 앉는다.
힘없이 뒤로 기대 눈 감고, 그렇게 한참을... 해가 짹짹하다.
그러다 일순간, 두리 얼굴 위로 드리워지는 그림자.
올려다보면, 역광 땀에 보이지 않다가 차차 보이는 얼굴... 현이다.

현 뭐해요 여기서?

두리 (아씨 또 저 사람... 대꾸할 힘도 없다. 눈 감는)

현 (이불 담긴 비닐 보고) 이불 퍼드려?

두리, 여전히 대꾸 없다.
현, 찬찬히 보면, 두리의 두 손바닥, 빨갭게 비닐봉지 자국이 나 있고, 눈 주위도
빨간. 심상치 않다.
암말 없이 두리 옆에 앉는 현, 손에 들고 있는 빠삐코 봉지를 뜯곤 꼭다리 뺨
몸통을 그대로 두리에게 들이민다.

두리 (홀긋 보곤) 안 먹어요,
현 안 먹어도 손에 쥐고 있어요. (꼬다리 먹는)
두리 (보다, 아이스크림 받아 손에 쥐다. 차가운 게 손바닥을 진정시키고...)

한입 먹는데, 맛있는지 계속 들어간다. 그러다 배에서 꼬르륵)
현 (무심히) 밥도 안 먹고 찬 거를. 배탈나겠다.
두리 (민망한)

둘 다 멍하니 앞만 본다.
느지막한 오후. 텅 빈 버스정류장에서 그렇게 말없이...
멤 멤 매미 우는 소리만 들리고.
그러다 결국 두리, 으이, 하고 몸 앞으로 숙여 소리 내 우는.

#24. 마트(오후)

각자 카트 끌고 장보는 두 사람.
두리가 앞서고, 현은 그 뒤를 졸졸졸 따라온다.
두리, 신경 쓰여 뒤를 힐끔거리면, 그때마다 눈이 마주친다.

현 (대뜸 손 흔드는)
두리 ?
현 아니, 자꾸 뒤돌아 힐끔대는 것 같은데. 내가 보이긴 하나 싫어서요.
두리 ?
현 (두리 눈 가리키며) 눈이 완전 퉁퉁 부어서. 옆에서 보면 3자라고,
아이스크림을 손이 아니라 눈에 대고 있을 걸 그랬대니까?
두리 (이씨, 창피스런) 뭘 또... 그리고 내가 언제 힐끔댔어요?
현 그죠? 힐끔보단 대놓고요? 하긴, 이 얼굴이 뒤에 있는데. 나라도.
두리 아 장사 안 하세요? 왜 따라와...
현 재료가 푹 떨어져서 사러 왔어요, 전번 날 누가 공짜 토스트 달라는
대로 주는 바람에.
두리 (쪽팔린) 그러게 누가 달라는 대로 주래...
현 야채 좋아해요? 가지? 버섯? 오이? (카트에 담는)
두리 짱 싫어해요.
현 짱 싫어하는구나... (다시 야채 꺼내놓고) 과일은 좋아하죠?

두리 아 아까부터 자꾸 그런 건 왜 묻는데요.
 현 소비자 입맛조사. 신메뉴 만들어볼라구요.
 두리 (건성) 열심히시네.
 현 성공해야죠.
 두리 (건성) 응원합니다...
 현 이따 테스트나 해주고 가든가요, 굿은 김에.
 두리 (에휴, 절레절레하다가) ...저 맥주나 좀 집어봐요 그럼.
 현 ! (웃는, 가서 맥주 잡는)

#25. 구청 민원여권과(저녁)

하나, 아까 목격했던 게 떠올라 일이 도통 손에 안 잡힌다.
 민원인 한 명 겨우 보내려는데... 그때, 썩그랑! 옆자리 동료 머그컵이 떨어진다.
 동료, 빗자루 가져와 깨진 유리컵 치우는 사이,
 하나, 산산조각난 잔해를 바라보는.

#26. 회상. 하나들셋 집/현관(아침)

하나의 대학생 시절.
 숙취에 쩐 하나, 외박하고선 몰래 조심조심 집에 들어오려는데...
 순간, 안에서 썩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 들린다. 이어 악지르는 소리.

엄마 차라리 말하지 말지 그랬어, 차라리 말하지 말지! 끝까지 숨기지!!
 아빠 미안해, 미안해 하나 엄마...
 엄마 (그릇들 집어던지며) 미안해?! 미안은 해?!
 나가, 그 여자랑 살아 그냥!!!

#27. 현재. 구청 민원여권과(저녁)

하나 (그때 생각에 얼굴 찡그리다, 연속적으로 벨 누르는)
245번 고객님- 245번 고객님 없으세요?

상이 (쭈뼛쭈뼛 오는)

하나 (! 아씨 하필...)

상이 죄송해요, 오늘은 진짜 남친이 직접 온했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대서... 사람들 많길래 번호표 일단 뽑았는데, 이럴 줄 모르고.

하나 네...

상이 ...저, (옆 눈치 보고, 소곤소곤) 근데 그날은 잘 들어가셨죠?

하나 네, (황급히 외면하고 다음 벨 누른다)

#28. 해성고등학교/교무실(밤)

구찬과 양쌤, 둘밖에 안 남은 교무실.
구찬, 모니터 하단 보면, 22분. 문득 두리 생각이 난다.

구찬 연락이 없냐. 또 혼자 술 퍼마시는 거 아니야...

막대기 들어 안마봉마냥 어깨 치다, 문득 막대기 뺀히 보는 구찬.
픽 웃음 나온다.

#29. 회상. 교실(낮)

자막 - '4년 전'

지금의 동태눈깔이랑은 달리 초롱초롱했던 초임 시절의 구찬.
각잡힌 양복 딱! 올린 머리 딱! 파릇파릇하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건 세상 찌든 고딩들.
수업도 안 듣고 지들끼리 놀거나 잔다. 구찬, 떨리는 목소리로 "애들아..." 하면,

들은 척도 안 하는. “집주옹...” 애잔한 구찬의 혼잣말.

#30. 회상. 해성빌라/쓰레기장(밤)

분리수거하고 있는 두리, 들어오는 구찬 만난다.

구찬, 두리 보고 쏟아지려는 눈물 참으려 필사적으로 애쓴다.

두리 뭐야, 왜 그래?

구찬 (눈물 떨어질까 하늘 보며, 떨리는 목소리) 뭐가아...

두리 뭐가는 뭐가 뭐간데? 누군데? 언놈이야?

구찬 그런 거, 꼭, 아니야아...

두리 놈‘들’이야? 이씨, 야! 울지 마! ...언니 데려가자!

CUT TO

두리 (착잡하게 꼬나보다 한숨 쉬는) 그래서, 애들이 그랬다고? 열일곱 살짜리들?

구찬 (흐끄) 어떤 앤 첫 키스 얘기나 해달란다. 우리 땀 첫사랑 아니었냐고. 키스가, 하, 말 꺼내기도 남사시럽다, 키스가 말이 되냐고, 키스가...! 선생님한테!

두리 (지루한) 그치... (홀긱 구찬 위아래 스캔하더니, 폼, 은근슬쩍 놀리는) 해본 적은 있냐고 먼저 묻는 게 예의지.

구찬 ! 야, 어떻게 너까지...! (빠져 가버리면)

두리 (등 뒤에 대고) 아 야 미안해, 뭐허얼~ 또 빠치고 그래?!

 아 애들도 많이 봐줬네, 더한 거 안 물어보고. 그 정도면 착하네, 야!

구찬 됐어! 더는 너한테 말 안 해! 그리고,

두리 ?

구찬 (돌아보더니) 나도 했거든? 했어, 해봤어 나도!!! (그대로 뛰어간다)

두리 (웃음 참는) 알았어, 했어! 했어! 잘했어!!!

#31. 회상. 구찬 방(밤)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우는 구찬.

베란다 창문 탁탁 치는 소리에 보면, 막대기가 창문에 뺨뚨히...

창문 열면, 건너편 베란다(돌출형)에 두리가 막대기 들고 서 있다.

두리 (막대기 건네는) 아나.

구찬 뭔데?

두리 오다 주웠다.

구찬 (보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막대기다) 진짜 오다 주운 걸 줘...

두리 하튼 인간이 피곤해... 아 부적이다, 하고 꼭 품고 다녀.

진짜 쓸 일은 없어두 맘 다잡는 덴 도움되겠지.

구찬 취... (좋은)

#32. 현재. 해성고등학교/교무실(밤)

구찬 에흐... 이두리... (그때 받은 막대기 매만지다 양쌤 보면, 모니터에 집중해 있고. 고민하다 말 꺼내는) 저,

양쌤 (시니컬, 힘없는) 안 됩니다...

구찬 ...뭘요?

양쌤 저한테 고백하려는 것 아니세요...

구찬 ?! 아닌데요?!

양쌤 근데 얼굴은 왜 붉히세요...

구찬 (거울 보면, 진짜 좀 벌건) 그건 제가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막,

양쌤 (O.L.) 그래서 하시려는 말씀이 뭐세요...

구찬 아, 그제, 오늘 하루만 어떻게 야자감독을 좀,

양쌤 (O.L.) 안 됩니다...

구찬 ...넵. (포기하려다, 혼잣말인 척 다 들리게) 진짜 급한 일인데,

양쌤 (O.L.) 안 된다고요.

#33. 토스트 가게(밤)

맥주 마시는 두리. 현이 토스트 만들어서 뿌듯하게 가져온다.

토스트에 재료 온갖 것 다 들어갔다. 괴랄한.

현 마스터한 요리가 토스트뿐이라. 질릴까 봐 응용을 좀 해봤어요.
두리 응용력이 지나치게 뛰어나시다... (그러나 한입 먹으면, 맛있는)
현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두리 (자기 옷차림 보고) 아. 친구들 만났어요. ‘진짜’ 친구들.
현 그러기엔 빵이라도 뜯긴 것 같은데.
두리 (짜릿, 먹던 토스트 내려놓고) ...이씨, 디게 맛없네.
현 내가 잘못했지 애가 뭘 잘못했어요? (다시 먹으라는 듯 손짓하면)
두리 (짜리다 다시 먹고)
현 (웃는, 저쪽 쌓인 이불들 보며) 근데 저 이불들은 진짜 뭐예요?
두리 궁금한 거 디게 많다. 빨리 죽겠다. ...그냥요, 여름이잖아요,
 이불 바꿀 때도 됐고. 잠이래도 잘 자야겠다 싶어서. (장본 거
 가리키며) 먹는 거래도 잘 먹고... 그렇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순간 답답한지, 맥주 벌컥벌컥 들이켠다)

CUT TO

두리 (속상한, 술 취해 격앙된) ‘뭐하고 있냐?’ 물으면, 그냥 ‘글쓰고 있어’
 하면 되지, ‘뚝갈지 뭐’가 뭐냐구요! ‘뚝갈지 뭐’가!
현 (얼른 토스트 입에 대주고)
두리 (먹고) 근데 그럼 어째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글쓰고
 있다 그럼, 애들은 나를 여즉 철도 안 든 애로 볼 거 아냐. 한심해할 거
 아냐. 적어도 ‘뚝갈지 뭐’, 하면, 그래도 쪽팔린 줄은 아는, 철은 든 애
 같잖아요. 어른까진 아니더래두... (또 맥주 벌컥벌컥)
현 (얼른 토스트 입에 대주고)
두리 (먹고) 그렇다고 거기서 내가 내 욕까지 할 필은 없었는데... 후.
 (우물거리다, 착잡한) 아 근데, 판거 없어요? 하필... 안 그래도 토스트,

샌드위치, 햄버거, 딱 질색팔색이구만!

현 애가 무슨 잘못이냐고요? (토스트 토닥토닥...)

두리 내 이름이 두리예요. 언니 이름은 하나고, 동생 이름은 세리. 하나, 두리, 세리. 뭔지 감이 와요?

현 제대로 낱겼네.

두리 진짜... 이런 날은 꼭, 내 이름 때문인 것도 같애... 이름부터가 애매한 거지. 아 어렸을 때부터요. 언니는 예쁘고, 키도 크고, 똑부러지고. 동생도 지 나름대로 잘났거든요. 근데 난... 집 안이건 밖이건, 존재가 너무 애매해.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글도 그렇고... 어중이떠중이. 이도 저도 아닌 게, 암만 멋없이 아등바등해도 눈에 띄지도 않아.

현 (그런 두리 보다... 토스트 냅다 들이미는) 이거 봐봐요.

두리 ? 뭐요.

현 (이번엔 메뉴판 가리키며) 저거 봐봐요.

두리 ? 뭐요.

현 깡긴 게, 메인이라고. 햄치즈가 왜 햄치즈고 돈까스가 왜 돈까스예요. 그게- 메인이니까!!! 토스트 메뉴 이름이 우유 식빵인 거 봤어요? 통밀인 거 봤느냐구?

두리 (듣고 보니 그런...가?)

현 그리고 눈에 안 띄긴요, 난 참~ 눈에 띄더라.

두리 (괜히 좋으면서) 뭐, 뭐래요...

현 진짠데? 완전 눈에 띄는데? 계단서부터 쪽, 오늘만 해도 봐요. 그 버스정류장 뒤편에 자그마치, 수지 광고가 있었다고요. 근데도 난 그쪽이 첫 번째로 눈에 띄더라니까?

두리 ? (좀 이상한... 의심스럽게 보며 고개 뒤로 뺀다)

현 아 수지보다 이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좀 띈다, 하는...

두리 ...계단은 언제지?

현 ...예?

두리 무슨 계단이요? 계단에서 본 적이 없는데? (경계) 나... 알아요?

현 ...알죠, 친군데.

두리 (무서운, 그라데이션으로 점점 격앙) 말고! 진짜... 나 알죠? 전부터서 알았죠?! 그래, 참부터 이상하더라니... 그냥 미친 줄 알았는데 나한테

미친 것 같드라고... 뭐야? 당신... 누구야?!
현 (난리 치는 두리 당황스레 보다가... 이내 웃음 터뜨리는)

#34. 과거. 길가/토스트 가게 앞(낮)

자막 - '몇 주 전'

고급 스포츠카가 도로변에 세워진다. 짜증스레 내리는 현.

#35. 과거. 토스트 가게(낮)

현 (성질) 주차장 있다며? 좁아터져서 어디 댈 수나 있어야지.
선배 (오른팔에 깃스한) 니 차에 안 좁은 주차장 잘 없어,
현 대신 발렛이 있겠지!
선배 아 언젠 심심하다며? 걱정돼서 불렀더니,
현 심심하단 게 신세타령으로 들렸어? 신세자랑이야 자랑, 걱정 말고
부러워하라 한 소리라고. 내 핑계는 대?
선배 나한테 생계잖니. 며칠만 부탁하자, 응?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달로 어떻게 쉬어. 안 그래도 앞집에 밀려갓구... 팔 빨리 나올게, 응?
응?? 우응???
현 ...팔 빨리 나올게, 하면 진짜 팔이 빨리 낫는데? 아 뭐 어떻게 함
되는데.
선배 (좋은) 이 시키 이럴 거면서 꼭 튕겨! 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
여차하면, 웃어! 씩!

CUT TO

며칠 뒤, 가게에 혼자 남겨진 현. 정말 '가만히' 있는다.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고... 현, 밖에 지나가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보다, 일단 씩 웃고 보는... 남자, 무시하고 가버린다.

현 (민망한...) 여자 좋아하는구나.
 (더운지 에어컨 리모컨 조작하는데 먹히질 않고. 결국 짜증)
 아!!! 괜히 맡아준됐어, 괜히!

결국 에어컨 대신 뒷문(상가 복도로 통하는) 열어놓는다.
 핸드폰마저 심심한 듯 팔짱 끼고 눈 감는데...
 어디선가 자꾸 들리는 주절거리는 소리.
 현, 나가 보면, 상가 계단에서 두리, 종얼대며 노트북 두들기고 있다.

두리 (열중한) 시험 당일, 트럭에 치이는데... 눈 떠보니 구석기시대고...
 현 저건 또 뭐야... 아주 가지가지...
 (다시 자리에 와 앉는. 눈 감고 쉬는데)
 두리(E) 누군가 날 구해준데... 마치 타잔 같은 뒷모습... 아아아~! (타잔 흉내)
 현 (짜증)

CUT TO

현 (계속 들으니까 흥미진진하다...)
 두리(E) 근데 알고 보니! 날 구해준 타잔의 얼굴이! 현생에서 내가 짝사랑했던 선배의 얼굴! 이었던 거야! 선배의 전생! (하고 끊어지는)
 현 (...? 감질맛 나는. 근데 아무 말 안 들리고... 눈 번쩍!)
 그래서 어떻게 된단 거야. 왜 거기서 끊어.

현, 밖으로 나가보는데, 두리는 어느새 사라진 뒤다. 맥빠지는...

#36. 과거. 몽타주. 현이 두리 혼잣말 듣는 날들

현 (뒷문 열어놓고 양파 깎으며, 라디오 들듯 두리 혼잣말 듣는)
 두리(E) 이방인 주제에 문과라 도움도 안 돼.

실용주의 부족사회에서 완전 평당한 거지.

현 (홀쩍이며) 심금을 울리네.

CUT TO

현 (가게 비질하며 듣는. 피식피식대는)

두리(E) 나를 사랑하게 된 타잔이 말한다. (아련하게) “우가... 우가 우가?”

현 어우, 연기도 해 이젠.

#37. 현재. 토스트 가게(밤)

두리 어머어머어머어머.

현 맨날 막, 저 뒤에 계단서 두들기고 그랬잖아요.

두리 (쪽팔린) 아 그건! 글은 안 풀리는데 독서실 안에서 입은 못 열고 하니까, 엄청 예민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현 (끄덕끄덕) 막 안 풀리면 “아~씨~팔!” 하면서

두리 ! (민망한, 어색하게) 대, 대산데 그건...

현 찌, 타잔 따라 할 땐 연기 잘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두리 ...뭘요?

현 그 이야기요,

두리 (신속정확하게) <공시 4수생인 나, 눈떠보니 구석기시대?!>요?

현 네 그거. 주인공이 타잔을 떠났잖아요. 타잔이 막 울부짖고.

두리 ...궁금해요?

현 궁금하니까 묻죠. 그쪽이 쓰는 이야기도 궁금하고, (급 쌍꺼풀 찢하게 만들어 강렬한 눈빛 보내는, 장난으로) 그쪽도 궁금하고.

두리 와아, 느끼해, (아닌 척, 그러나 얼굴 벌게진)

현 (여전히 찢한, 한술 더 떠 눈썹까지 치켜세우고) 뭐가요.

두리 그쪽이 만든 토스트도 느끼하고 그쪽도 느끼하고...

현, 눈 풀어지며 헤실 웃는다. 잘생겼다. 매력 있다.

두리, 그런 현의 모습 홀린 듯 보는. 고개 빼다 김치 그릇에 머리칼
담글라치면... 현, “아주 김장을 하셔” 하며 머리칼 빼준다.
순간 가까워진, 현의 향수 냄새 풍긴다.

두리 (향기에 콧구멍 벌렁, 홀린) 아주 사달이 났구나...

#38. 구청 앞(밤)

하나, 퇴근하는데... 저쪽서 상이가 앉아 통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상이 또 안 돼? 점심시간 안 된대서 일부러 구청 늦게 하는 날 잡았구만...
시위도 이쯤 했음 됐다, 좀 넘어와라. 여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알어?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엇, 하나 보고, 아는 척하면)
하나 (혼잣말) 아~ 짜증나 짜증나... 성가셔 성가셔... (모른 척 지나치는)

CUT TO

상이 응, 괜찮아. 알겠어... 사랑해, (하기도 전에 끊기는 전화. 씩씩한데)
하나 (언제 왔는지 상이 앞에 우뚝 서 있는)
상이 !
하나 “사랑해” 하는데 그냥 바로 끊어요?
상이 예? 아... (뭘 말하는지 알겠고, 멧쩍어 괜히 웃는데)
하나 “나도 사랑해”는 들고 끊어야지! 아 그르게 그 초록색 카디건 입고 음
좀 좋았냐고!
상이 ?
하나 만날천날 잘만 입고 다니더만, 오늘은 왜 안 입구 왔는데요!
것두 재수 없는! 파란색을 입고 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상이 ? (그저 웃기만...)
하나 웃네. 속도 좋게... 나만 답답하지, 나만 답답해 죽지!

#39. 상가 입구(밤)

상가 쪽으로 들어가며 전화하는 구찬. 빠른 걸음.

구찬 어 세리야! 이두리 집에 안 왔지? 안 그래도 가보는 중인데, 아니 오늘 오전만 한댔거든... 하튼 알겠어, 어. (전화 끊고) 앤 왜 전할 안 받아...

그때 구찬, 안쪽만 불 켜진 토스트 가게 안에서 두리 발견한다.

저거저거. 왜 또 저있어. 근데 뭐야... 웬 남자?!

구찬, 창에 얼굴 딱 붙이는데, 남자 뒷모습에 눈살 찌푸려진다.

#40. 토스트 가게(밤)

구찬 (황급히 들어서는데) 야 이두... 어?!

현 (동시에) 오늘은 영업 종료... 어?!

구찬 (충성 저절로 올라가는)

두리 (구찬 발견하고) 어! (그러다 두 사람 보고) 엉?!

그렇게 세 사람 모두 놀란 모습에서

2회 끝.

작가 후기

쓸 땐 분명 우하하 신나게 쓴 것 같은데... 지금 보니 처참하네요.
내용기 부끄러운, 한참 부족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보시고 아주 조금이라도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펜에 당선되고 나서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안 그래도 굵은 어깨는 제 부족함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더더더 굵어지는 것도 같구요.
그렇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어깨, 짹 펴보겠습니다. 꼭 그럴 겁니다!
후기를 쓰면서 제게 온 좋게 온 이 과분한 기회를 소중히 해야겠다, 다시금 다짐하게 되네요.
아자아자~

오펜 5기 작가님들, 멘토님들, 김성미 담당자님, 김지일 센터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많이 배우고 또 배웁니다. 가족들, 친구들도 고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로맨스의 절대값 — 이민주

기획의도

“어떤 대상과 비교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으며
대적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로맨스의 ‘절대’ 값이라 말한다.
다음 로맨스의 절대값을 구하십시오.”
수포자가 낸 발랄한 문제에 수학 천재는 일생일대의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답을 내는 게 무엇이 중요하랴.
그 과정이 달달하면 되었고, 설레었으면 그만이다.
서투러서 정이 가고 솔직해서 사랑스러운 인물들과 함께
알다가도 모르겠는 미지의 문제를 찬찬히 풀어나가보려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언제 어디서나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나 다음 편이 궁금해 참을 수 없는 드라마를 지향하며
‘꽃미남 선생님들을 주인공으로 19금 BL소설을 쓰던 여고생이
수학썸을 좋아하게 되면서 파란만장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시작해본다.

등장인물

여의주(19세, 여)

#모태솔로 #수포자 #음마력최강 #수줍은변태 #목표는갓(GOD)작가
통통한 볼살에 뽀얀 얼굴, 자기주장 약한 눈코입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준다. 길 가다 한 번쯤 마주칠 법한, 혹은 마주쳐도 기억 못 할 얼굴. 공부는
반에서 중간. 집에서는 기 센 엄마한테 주눅 들고 학교에선 나대지 말자가
신조이지만 내면에는 위험한 상상력이 들끓는다. 중2병이 창궐할 때, 창작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저돌적인 19금 BL소설
작가가 된다. 물론 필명을 사용하며 필명은 절대 비밀이다. 목표는 단 하나,
갓작가가 되는 것! 그러나 현실은 조회 수 한 자리의 망작가다.

관찰력이 뛰어나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캐치한다.
 공감 능력이 만렙이라 종종 다른 사람의 상황에 과하게 몰입한다.
 현실 연애는 평인 모태솔로. 누군가를 좋아해본 적도 없고, 안전하게 상상 속 연애만 즐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의주의 할아버지가 말했었다. 이무기가 용이 되려면 단 하나의 여의주만 가져야 한다고. 욕심을 부려 여의주를 두 개 이상 가지면 용이 아니라 그냥 더 강한 이무기가 될 뿐이라고... 어린 의주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그럼 난... 존나 센 이무기가 될 거야.’
 일상의 규율, 사회의 억압에 조용히 반항하는 암전한 또라이.

가우수(25세, 남) 수학쌤

#IQ156수학천재 #수학덕후 #넘치는자기에 #모난돌 #까칠함 #은근히챙겨줌
 서늘한 눈빛에 잘 웃지 않는 냉미남이다.
 천재 수학자 가우스처럼 말을 배우기 전에 계산부터 한 수학 신동이였다. 4살 때 동네 슈퍼에서 피라미드 형태로 쌓여 있는 사과를 보고 총 개수가 몇 개인지 계산해냈으며 8살 때 TV에 나온 대학교수의 계산 실수를 지적했다. 과고를 조기졸업하고, 의대와 하버드대를 제쳐두고 S대 수학교육과를 택했다.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다. 집안이 대대로 수학자를 배출한 수학 가문이고 부모님 모두 수학교사였다.
 14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다. 그 사고로 우수는 왼쪽 눈이 실명이 됐고 오른쪽 눈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 특수 제작한 안경을 쓴다.
 기억력이 뛰어나서 동주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내는 순서라든지 기전의 계절학기 교양수업 점수를 외우고 있다. 대학 시절 다주와 서먹해진 사건을 아직도 들먹인다.
 수학 외의 다른 학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종종 욕을 먹는다. 수포자들을 돌고래 정도로 취급한다. 결벽증이 있어서 밥 먹을 때 남들과 수저 섞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데 무슨 일인지 의주한테만은 그 만행을 꼭 참아준다.

정기전(26세, 남) 체육쌤

까무잡잡한 피부, 흰칠한 키에 근육질 몸매가 넘사벽이다. 가끔 보여주는 눈웃음이 반전매력! 결속한 사투리를 쓰는데 투박하면서도 잔정이 넘치는

말투에 여학생들이 쓰러진다. 촉망받는 국가대표 하키선수였다가 큰 부상을 입고 그만뒀다. 선천성 무통각증이 있어서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이것 때문에 의주에게 조폭일지 모른다는 의혹을 산다. 달리기를 잘하는 의주를 체육 특기생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다.

아버지는 서울시 교육감이고 어머니는 국어선생으로, 다정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랐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 사귀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과거에 부모님의 연으로 동주를 만났다.

윤동주(28세, 남) 국어쌤

여리여리한 체격에 하얗고 곱상한 외모로 귀공자 같은 느낌을 준다.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쓰며 다정하고 잘 웃는다. F4 중 제일 나이가 많지만 동안이다. 차분한 성격이지만 누군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건드리면 참지 못한다.

폭력을 행사하던 아빠, 도망간 엄마 때문에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오토바이를 타던 어느 날, 기전이네 부모님 차를 박는 사고를 내면서 기전과 만났다. 기전의 엄마는 동주의 이름을 보고 국어책과 문제집을 선물해줬다. 그 후로 맘 잡고 공부해 S대 사범대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기전을 다시 만났다. 동주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건 기전뿐이다. 상처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그래서 모난 돌 같은 우수를 자꾸 챙겨주고 신경 쓰게 된다.

노다주(26세, 남) 영어쌤

주목받고 싶어 하고 말이 많다. 특유의 오만함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시비 거는 게 특기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과거에 우수와 틀어진 일이 있고 아직도 서로 앙금이 남았다. 무슨 일만 있으면 우수와 티격태격 톱과 제리처럼 싸우지만 실제로는 우수가 시력을 잃을까 무서워한다.

눈썰미가 좋아 여학생들의 화장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데 의주는 이것 때문에 다주가 게이가 아닐까 의심한다. 출랑거리고 철없어 보이지만 사랑에 관해서만은 진지하고 절절하다.

하이든(29세, 남) 음악쌤

플루트 전공. 작고 소중한 존재로, F4가 오기 전까지 무림여고의 인기 원탑이었다.

어떻게든 학생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주는 학생들의 자존감 지킴이지만 정작 본인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라는 자격지심이 있다. F4의 등장 이후 질투의 화신이 되고, 슬프거나 화나는 감정을 화려한 리코더 연주로 승화한다.

최고야(19세, 여)

세련되게 꾸미고 다니는 미술특기생. 고1 때 의주의 잠재적 똘끼를 알아보고 친해졌고 3년째 절친이다. 연애 빼고는 모든 취향이 의주와 잘 맞는다.

금·사·빠라서 초등학생 때부터 쉬지 않고 연애를 해왔고 이번엔 조신하고 귀여운 국어쌤을 짝었다. 10개월만 지나면 성인이 되고 그러면 당당한 연애가 가능하다! 사사건건 동주를 챙기는 기전이 맘에 안 들어서 기전과는 상극이다.

오윤주(45세, 여) 부부약국 약국장

의주 엄마. 답정너. 성격이 급하다.

여신(45세, 남) 부부약국 조제 보조원

의주 아빠. 엉뚱하지만 정이 많다.

여의도(15세, 남)

의주 동생. 밤에 은밀한 사생활을 의주에게 들킨 이후로 서로 극혐하며 지낸다.

안치호(50대, 여) 교장

우아한 말투의 속담 신봉자.

고분자(30대, 여) 화학쌤

가십길. 학생들 사이를 갈라놓는 프로 어그로.

금단지(19세, 여)

심각한 얼빠. 의주를 질투한다. 춤을 잘 춘다.

이영재(19세, 여)

단지와 절친. 노래를 잘 부른다.

은하수(19세, 여)

초특급 미녀. 전교 1등. 의주에게 소설을 쓰지 말라며 참견한다. 의주가 소수자의 사랑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싫다.

즐거리

S대 사범대학 전설의 F4가 같은 학교에 임용된다.

부드러운 조신남 국어쌤 윤동주, 수다쟁이 분위기 메이커 영어쌤 노다주, 천재 차도남 수학쌤 가우수, 비주얼 끝판왕 체육쌤 정기전.

대학 시절부터 앙숙이었던 그들 그리고 질투의 화신인 비정규직 음악쌤 하이든까지. 뿔테안경 쓴 암전한 범생이에서 밤만 되면 19금 BL소설 작가로 활동하는 여의주는 꽃미남 선생님들을 주인공으로 신작을 쓰기 시작하는데... 들키고 말았다. 것도 제일 성질 드러운 수학한테!

미치고 팔짝 뛰는 와중에 이 쌤한테 떨리는 건 무슨 전개?

게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부터 글이 안 써진다?

로맨스를 얻고 글발을 잃은 옷픈 여고생 여의주의 성장 로맨스!

1회

고3 수험생 의주는 인터넷에서 19금 BL소설을 쓴다. 두 번째 작품을 완결 냈지만 여전히 조회 수가 처참하다. 설상가상으로 아침부터 엄마한테 잔소리까지 듣고 풀이 죽는다. 의주의 등갯길,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의주의 눈엔 훈남인 우수와 동주가 싸우는 모습이 사랑싸움으로 보인다. 우수는 자신들을 훑쳐보는 의주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했다고 오해하고 당장 지우라며 몰아세운다. 의주는 싸가지 없는 우수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우수를 다시 만난다. 의주는 만원 버스에서 우수를 밀어서 넘어뜨려 못 타게 하고 고소해한다. 의주가 다니는 무림여고에 새로 부임한 쌤들이 등장하는데... 개싸가지가 수학이라고...?! 아침에 우수에게 만행을 저지른 의주는 망했다 싶고 우수는

의주의 명찰을 보고는 웬일인지 당혹스러워한다.

2회

의주는 수학 시간에 굴욕을 당하고 우수에 대한 비호감이 더 쌓인다. 청소 당번이라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의주는 기전과 동주의 야릇한 장면을 목격하고 강렬한 창작욕에 불탄다. 그날 밤, 의주는 F4쌤들의 외모와 성격, 대사까지 그대로 빌려 신작을 쓰는데... 대박이 났다! 조회 수와 댓글이 폭발하고 대형 출판사에서 컨택이 쏟아진다. 날아갈 것 같은 의주는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우수를 만난다. 우수가 안경을 잃어버려 헤매고 있다. 의주는 안경을 찾지만 수업시간의 굴욕을 떠올리며 몰래 가방에 넣어 숨긴다. 우수는 동주에게 SOS를 치고 의주는 얼떨결에 F4쌤들의 차를 타고 등교한다. 의주는 우수가 시력이 아주 좋지 않으며 그 안경이 특별한 안경이라는 걸 알게 된다. 차 안에서 F4의 대화를 듣고 은밀한 상상력이 폭발한 의주는 결국 참지 못하고 컴퓨터실에서 2화를 올리는데... 로그아웃을 안 해서 다른 반 애들한테 고스란히 들키고 만다.

3회

‘여의주 로설 쓴대. 것도 19금 BL인데 주인공이 선생님들이야...’ 애들이 의주를 보고 속덕거린다. 땅으로 꺼지고 싶은 의주와 달리 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의주는 하루 만에 스타가 되고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황송한 작가 대접을 받는다. 점심시간, 컴퓨터실에서 집필에 몰두하던 의주는 글이 퍽 막힌다. 오늘은 F4쌤들한테서 소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떡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소설을 우수한테 들키고 만다. 의주는 제발 다른 쌤들한테 말하지 말라 부탁하면서 숨기고 있던 우수의 안경을 내민다. 우수는 방과 후 수업으로 수학을 신청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의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오케이한다. 다주는 이든의 비정규직 자격지심을 건드린다. 다주와 치고받고 싸운 이든은 F4가 같은 학교로 온 것에는 분명 비리가 있을 거라며 비밀을 알아내려 한다.

4회

의주의 집필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나타난다. 평소 남한테 관심 없는 새침데기 은하수가 웬일로 의주한테 말을 건다. 그런 거 안 썼으면 좋겠다고, 소름

끼친다고. 의주는 다시 소심해진다.

체육 시간,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는 의주에게 기전이 관심을 보인다. 육상 특기생은 어떠냐고 묻던 기전은 의주에게 날아오는 공을 무심하게 팔로 막아준다. 의주는 가슴이 콩닥거린다. 처음이다. 이런 건. 얼굴이 붉어져 도망가는 의주를, 우수가 본다.

학교 익명게시판에 F4에 대한 글이 올라온다. '1. 쌤들 중에 전직 조폭이 있다. 2. 쌤들 중에 불륜남이 있다. 3. 쌤들 중에 커플이 있다.' 의주는 기전이 애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혹시 기전이 불륜남일까 걱정스럽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한다! 의주의 암전한 또라이 기질이 발현되고, 의주는 고양이와 함께 F4의 뒤를 쫓다가 포장마차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5회

우수에게 시비를 걸던 조폭에게 주먹을 날린 건... 동주였다. 부임 이를 만에 사고를 치면 곤란하다. 튀어!! F4가 달리기 시작하고 조폭들이 따라가고 의주와 고양이도 덩달아 뛰다. F4는 흩어져서 도망가고 우수가 숨은 곳으로 의주가 달려 들어온다.

동주의 과거가 밝혀지자 고양이는 동주의 아픈 과거에 더 마음이 가고, 거친 남자를 좋아하던 자신의 소나무 취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방과 후 수학 시간. 의주는 만약 소문대로 기전이 게이냐 불륜남이면 어떡하나 싶어 수업에 영 집중을 못 한다. 이를 눈치챈 우수는 의주가 수학에서 100점을 맞으면 소문의 진실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한다. 의주는 우수가 왜 이렇게 자신의 수학 점수에 집착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의주는 평생 수학 50점을 넘어본 적이 없으며 우수에게 툴툴대지만 진실을 알아내려면 방법이 없다. 의주는 소설 작업 노트에 수학 공식을 적기 시작한다.

6회

밤을 새워서 공부했지만 의주는 중간고사에서 수학시험을 망쳐버리고 우수의 도움을 얻기란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이렇게 된 이상, 직접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의주는 고양이에게 쌤들 미행을 하자고 하지만 고양이는 학원에 가야 한다며 의주를 피한다. 오늘 아침, 동주와 의주가 좋아하는 소설에 관한 얘기를 다정히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고 질투심에 휩싸인 고양이였다. 결국 F4쌤들이 사는 집에

혼자 쳐들어가는 의주인데... 기전과 동주의 묘한 대화와 스킨십을 본다. 역시 이들이 찼이었구나 싶는데 우수가 집에 누군가 들어왔음을 알아챈다. 우수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가던 의주는 주택 옥상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다. 우수가 이를 발견하고 난간 위로 올라가 의주에게 손을 내민다. 뒤늦게 옥상으로 뛰어온 동주와 기전, 다주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우수가 난간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기겁한다.

7회

결국 의주가 우수의 품에 안겨 넘어지고... 의주는 로맨스 클리셰 장면의 주인공이 자신이 됐음에 혼란스러워한다. 우수는 의주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의주에게 책을 한 권 내민다. 우수는 엄마가 소설을 쓰셨다고, 어떤 소설이든 결국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라며 의주를 격려한다. 의주는 우수의 의외의 모습에 어찌면 개싸가지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고야는 그동안 의주를 피했던 이유를 고백한다. 동주 때문에 질투한 게 아니라 의주를 뺏기는 것 같아 싫었다. ‘나한텐 네가 1순위야, 알잖아.’ 의주와 고야는 뜨거운 포옹으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한다. 집에 온 의주는 아까 F4의 집에서 목격한 장면을 에피소드로 드디어 3편을 올린다. 그날 밤 의주의 꿈엔 우수가 나온다.

8회

스승의 날에 의주는 직접 만든 안경 목걸이를 우수에게 선물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준 게 고마워서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의주는 다주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걸 목격하고 따라간다. 의주는 다주가 불륜남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돌싱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소문 중 하나는 진실이 아니었다. 다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의주는 우수와 다전이 어떤 일로 지금까지 아웅다웅하는지 알게 된다.

사범대 연합동아리 ‘배워서 남주자’ MT 날. 인원수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4명이라는 소리에 우수, 동주, 기전이 서로를 짝 안았다. 다주만 오면 되는 상황, 다주는 다른 팀에 가서 붙어 살아남았고 세 명은 탈락했다. 그때부터 우수는 다주를 박쥐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의주는 다주가 엄청난 배신을 한 사건인 줄 알았던 일이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는 걸 알고 허탈해하면서 우수의 유치함에 고개를 내젓는다.

한편 의주 엄마의 날카로운 심문에 넘어간 고야는 의주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걸 말해버린다. 1학기 기말고사 전날, 의주는 엄마 약국에서 총명탕을 훔쳐 먹다 들키고… ‘너 소설 쓴다며?’ 엄마의 날카로운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다.

9회

엄마는 왜 소설에 관해 공부도 안 하고 무작정 올렸냐고 의주를 호되게 혼내고 의주에게 작법서와 명작 소설책을 사준다. 의주는 눈물이 왈칵한다. 기말고사가 끝난 날, 우수가 밥 한 끼 하자며 의주를 불러낸다. 그러나 의주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우수와의 약속장소에 나가지 못한다. 강철 같던 엄마가 처음으로 운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다니, 아빠가 게이였다니, 의주는 충격으로 소설 쓰기를 그만둔다. 무림여고에는 조폭들이 찾아와 동주의 과거를 까발리고 기전과 다주가 나서서 싸우며 한바탕 난리가 난다. 그런데 학교에 우수가 오지 않는다. 의주는 뒤늦게 약속장소에 가서 우수가 남기고 간 메시지를 본다. ‘너라면 충분히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쓸 거야.’

동주는 의주에게 우수가 떠났다고 말해준다.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예정보다 빠르게 수술을 받으러 갔다고. 의주는 공항으로 달려간다. 수학 55점인 성적표를 들고.

10회

“선생님!!” 공항에서 의주가 우수를 붙잡는다. “저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못 받았어요…” 우수는 의주를 보고 기특하다며 웃어준다. 동주가 의주에게 말했다. ‘궁금했대. 그때 그 꼬마가 어떻게 컸는지. 자기 눈으로 꼭 보고 싶었대.’

우수가 14살 때였다.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한쪽 눈에는 안대를 하고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던 우수 앞에 8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나타났다. 수학 구몬 학습지를 들고 세상 서럽게 울던 여자애. 우수는 그 학습지를 풀어줬었다. “오빠 천재야?” 꼬마는 오빠한테 수학 배우면 백 점 맞겠다며 들떴고 우수의 안대를 보더니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말하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학습지에 쓰여 있던,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여의주. 우수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준, 수학을 더럽게 못하는 꼬마 여자애.

우수는 의주를 찾아 무림여고로 왔고, 동주와 기전, 다주는 수술 전 우수와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서 같은 학교에 지원한 것이었다.

“쌤, 수술 꼭 잘 끝내고 와요. 네?” 눈물범벅인 의주에게 우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우수가 탄 비행기가 떠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끝났다. 기다리던 2학기 개학 날, 의주가 버스정류장으로 달려간다. 익숙한 뒷모습이 있다! 안경을 안 쓴 우수가 의주를 돌아보고, 세상을 가진 듯 활짝 웃는 의주의 모습에서...
엔딩.

로맨스의 절대값

이민주

1회

#1. 카페 글쟁이(아침)

카페 간판 ‘글쟁이’가 반짝 빛난다. 편한 복장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얘기하고 있다. 뚱머리하고 뿔테안경 쓴 의주, 잠옷 차림으로 익명의 사람들과 친근하게 대화 나눈다.

의주 역시 요즘 대세는 광공(*자막-미친 집착을 보이는 남주)인 거죠?

익명1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요새 로맨스 1, 2위 보면 죄다 후회남이더라구요.

익명2 오늘 하루 목표 체크 쓰셨어요?

의주 (조금 머뭇) 저는 오늘 완결 내서….

익명2 어머, 축하드려요!

의주 (부끄럽고) 이제 완결작이 두 개인 망생이(*자막-작가 지망생)인 걸요. 그나마 몽땅 다 심해작이예요. 저 바다 밑에 묻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익명2 (벌떡 일어나서) 목표 게시판에 있는 오늘의 한마디 못 보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의주 …….

익명1 사실 저도 똑같아요. 조회 수 한 자리에 댓글 하나 안 달렸지만 우리… 힘내봐요!

의주 감사합니다. 역시 글쟁이 회원님들밖에 없어요. 사실… 투고 메일을 30개 보냈는데 다 거절당했거든요. 캐릭터가 매력이 없대요. 이제 진짜 접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익명1 (토닥) 포기하지 말고 쓰다 보면 그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신들린 영감…!

카페에 안내방송처럼 스피커가 울린다.

윤주(E) 여의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의주 학. (일어나며) 전 엄마가 불러서 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학교 갈 시간이라.

익명1 아, 이목 님 학생이셨죠. 부럽다. 학교 잘 다녀오세요!

익명2 전 이제 자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담에 또 뵈요!

의주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의주, 꾸벅 인사하고 다다다 달려가 카페 문을 활짝 열면!

#2. 의주 방(아침)

컴퓨터 모니터에 ‘오픈 채팅창 종료’ 뜬다.

포근한 방 분위기.

책상엔 숫자 세 자리를 맞춰서 여는 초록색 자물쇠 노트가 있다.

의주, 컴퓨터 앞에 무릎을 꿇어안고 모니터를 본다.

의주(NAR) 나는… 작가다. 19금 BL작가. 내 소설은…

INSERT

웹 소설 챌린지리그 BL 카테고리.

‘제목: 너의 사정이 궁금해, 작가: 이목’

19금 딱지 붙어 있고 70화 완결인데 조회 수가 1 아니면 2다.

의주, 풀이 죽어 창을 닫아버린다.

의주(NAR) ...나만 본다.
내 소설에는 그 흔한 악플도 하나 없다. 재미가 없다는 거겠지.

힘이 축 빠져 안경을 벗는데 날카로운 엄마의 외침 다시 들린다.

윤주(E) 밥 먹으라고!!

#3. 의주네 부엌(아침)

의주, 여신, 의도가 식탁에 앉아 있다.
의주, 입맛 없어서 반찬 휘적거리고 의도, 휴대폰 게임을 하느라 정신없다.
여신, 미어캣처럼 고개를 숙 빼고,
싱크대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윤주의 뒷모습을 본다.

윤주 페트병 스티커는 떼어놓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짜증 짝) 이거, 이거 누가 요플레를 이렇게...!!

여신, 애들 상태 보면, 이리다 혼나지 싶다.

여신 (속삭이는) 의도야, 밥 먹어야지.
의도 이것만 하고요.

윤주, 요플레를 들고 와서 밥상머리에 흔들며 보이며 벼락 같은 소리를 낸다.

윤주 물로 닦지도 않고 그냥 내놓은 사람 누구야?! 이거 봐, 이거 손에 다 묻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

의주 난 맨날 닦는데.

여신 (눈치 보며) 분리수거 내가 할 건데, 왜 그걸 여보가 해.

윤주 (신경질) 눈에 보이니까 하지, 그럼 가만 냅뒀, 저걸? 저렇게 쌓였는데?

여신 (작게) 미안.

윤주, 게임에 정신 팔린 의도를 엄하게 내려다본다.

윤주 여의도. (싸늘) 내가 밥을 차렸는데... 너한테 먹으라고 요구하는 게 지나친 건가?

의도

의도, 윤주의 기세에 미적미적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밥을 한 숟가락 푼다.

윤주, 요플레를 식탁에 짜증스레 굴러버리고, 앉아서 밥 먹기 시작한다.

살얼음판 같은 식사 자리에서 여신, 목소리 깔고 점잖게 말 꺼낸다.

여신 오늘 개학 첫날이네. 의주는 고3 시작이니까 다짐이 새로울 거고
의도는 중2가 시작되는 거니까,

윤주 (무시하고) 의주 너. 너는 밤마다 문 걸어 잠그고 뭘 하는 거야, 요새?

의주

윤주 공부는 포기했다 쳐. 그럼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지. 말을 해
봐. 뭐 하는 건데 도대체? 유튜브 그런 거야?

의주

윤주 말을 해, 딱. 엄마 다 이해해.

의주 그런 거 아니야.

윤주 (답답) 아니면 뭔데, 대체?

의주

윤주 재 저렇게 속 모르는 얼굴 할 때마다 속이 터져 내가. 됐다, 됐어.
엄마한테도 말 못 할 거면 하질 말아. 니가 떳떳하지가 않은데 뭘
얼마나 하겠어? 보나 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거리 하고 있겠지.

의주 (꿀 죽고)

여신 그냥 좀 기다려줘. 당신이 애를 너무 다그치니깐 애가 겁먹고 말을 못
하잖어.

윤주 (매섭게) 당신은 가만있어. 뭘 안다고.

여신 (진지하게) 내가 잘 알지. 이제야 말하지만 의주 너, 아빠 뱃속으로

남았어. 아빠가 남자 최초로 인공 임신해서 널 낳은 사람이야.
의주 말도 안 돼. (그제야 쿡 웃고)
윤주 (젓가락 탁 내려놓으면서) 물색없이.

 가족들, 쫓아서 조용히 밥 먹는다.

의주(NAR) (밥 먹는 윤주를 힐끔 보며) 우리 집의 일인자이자 최고 권력자인
 답정너 엄마. 내가 엄마 같은 성격이었다면 이미 핵인싸에 전교
 회장을 쌈 싸 먹고 있을 것이다. 나는... 아빠를 닮았다.

 여신, 어깨가 쭈그러들었다. 코다리 무침을 집는데 윤주랑 겹치자 얼른
 젓가락을 뺀다. 윤주, 당당히 코다리 무침을 집어 먹는다.

 여신, 젓가락만 쪽 빨고 있다.

 의주, 그런 아빠가 안스럽다.

 의주, 장조림 고기를 집어서 아빠 밥 위에 올려놓는다.

 의주와 여신의 눈이 마주친다. 부녀, 속으로 대화한다.

의주(E) 많이 먹어, 아빠.

여신(E) 그래. 고맙다, 딸.

 여신, 장조림을 집는데 윤주, 그제 맘에 안 든다. 얼른 그릇을 의도 앞으로 갖다
 놓는다. 여신, 이번에도 젓가락만 쪽.

의주(NAR) 한때 소설가를 꿈꿨던 아빠는 신춘문예에 5년 연속 낙방하고 다시는
 펜을 안 든다는 약속으로 엄마와 결혼했다. 글을 쓰는 날엔 이혼
 도장이라는 각서를 쓰고서.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여신, 티포트에 있는 차를 찾잔에 따른다.

여신 (의주에게 주며) 이거 아빠가 아침부터 달여놓은 도라지 차야.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쪽 마셔.

의주(NAR) (받고) 나 없이는 못 사는 아빠니까.

의주, 차를 호록 마시다가 의도와 눈이 마주친다.

의도와 의주,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본다.

의주(NAR) 내가 글을 쓴다는 건,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설마 저 새끼가 눈치챈 거 아니겠지?

의도 눈곱 좀 떼라. 극혐.

의주, 씩씩 눈곱을 떼다.

의주 잘 먹었습니다.

의주와 의도가 일어나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 여신,

고기 그릇을 짹싸게 가져온다.

윤주 (쳐다보지도 않고) 애들한테 아직 말하지 마.

여신 (고기 우걱우걱) 으? 머울? (응? 뭐를?)

윤주 우리 이혼하는 거.

여신 (턱 막힌다. 고기 물고서 끄덕인다)

#4. 주택가(아침)

교복 입은 의주, 초록색 노트를 끌어안고 연필을 입에 물고 터덜터덜 걸어간다.

엄마 말이 떠오른다.

윤주(E) 니가 몇몇하지가 않은데 뭘 얼마나 하겠어? 보나 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거리 하고 있겠지.

의주 아무리 그래도 이걸 어떻게 말해. 그냥 BL이면 어떻게 공개보겠는데 19금이 문젠 거지. 절대 안 돼.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수(E) 혼자 간다니깐!
의주 ?

의주, 소란스러운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면
우수(깔끔한 캐주얼 스타일. 안경 쓰고 있는)가 동주를 매몰차게 뿌리친다.

동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같이 가자니깐.
우수 됐다고! 내가 애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의주 (혼잣말) 오오, 사랑싸움?

의주, 숨어서 흥미롭게 지켜본다.
의주의 시선으로 보면, 한껏 애증 섞인 멜로신이다.

동주 걱정돼서 그러잖아. 한 번만 내 말 좀 들으면 안 돼?
넌 매번 그런 식이야.
우수 그래, 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놈이니까 신경 꺼. 끄면 되잖아!!
동주 그게 안 돼, 나는.
우수

아련하고 처연한 동주의 눈빛 클로즈업되고!!

동주 나 그거 안 되는 거 알잖아.

의주,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의주 대박. 무슨 일이야... 저런 사슴 눈망울로...
나까지 가슴이 아파와. 울지 말아요, 꽃사슴...
동주 도움받기 싫어하는 네 성격 잘 알아.
그래도 이번 한 번만은 날 봐서라도, (하는데)
우수 듣기 싫어. 너 자꾸 징징거리는 거.
동주 (서운한) 누구 땀에 여기로 왔는데.

우수 내가 오랬어?
동주 ...
우수 아무도 너보고 여기 오라고 안 했어. 니 멋대로 따라와놓고 나보고
어찌라는 거야.
의주 (쫓얼) 저 싸가지 봐. 저렇게 착하고 여린 사람한테... 땅을 치고
후회하지, 저러다.

그때 벌레가 의주 이마에 붙고 의주가 손으로 탁! 쳐낸다.

의주 아, 뭐야!

의주, 휴대폰을 꺼내 얼굴 높이로 들어서 본다.

의주 아씨, 벌레 뭉개진 거 아니겠지?

마침 우수가 고개를 돌려 의주를 본다.

우수의 시선으로는 의주가 양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동영상을 찍는 걸로 보인다.

우수 (동주에게) 잠깐 있어봐.

동주 ?

우수, 의주가 있는 곳으로 저벅저벅 걸어온다. 의주, 이마에 벌레 없는 것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리는데 눈앞에 우수가 와 있다.

의주 헉. (놀라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뒤로 숨기고)

우수, 의주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의주(E) 깜짝이야. 가까이서 보니 존잘 냉미남...

우수 찍었죠?

의주 네? 필요?
우수 우리 싸우는 거. 찍었잖아요. 다 봤으니까 폰 내놔요.
의주 아닌데요. 저 거울 본 거예요. 얼굴에 뭐 묻은 것 같아서.
우수 하. (기막혀 코웃음 치고)
의주 (역시 기분 나쁘다)
우수 학생이 이런 거로 유튜브 올려서 조회 수 받고 관심받으면 신나는 거 알겠는데 법에는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의 일부.

어느새 동주가 와서 우수를 말린다.

동주 왜 그래.
우수 이 학생이 우릴 찍었다니까. 분명 어디 올리고 댓글이나 구걸하려는 거지.
의주 (억울하고) 아니라니깐요? 저 유튜브도 안 하구요, 인스타도 안 해요.
동주 (의주에게) 찍은 거 아니에요?
의주 (끄덕)
동주 아니래잖아.
우수 그걸 믿냐? 넌 매사에 그렇게 좋게 좋게 하니깐 맨날 당하고 사는 거야.
(의주에게) 내놔, 얼른.
의주 솔직히 까짓거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깔끔하게 보여주고 누명 풀 수 있어요. 근데!!
우수 (어쭈?)
의주 (눈 똑바로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안 되겠어요.
우수 (그럴 줄 알았다는) 이거 봐, 이거 봐. 너 지금 안 보여주고 학교로 가면 아주 복잡해진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의주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동주 (우수에게 걱정) 출근 늦겠다. 이러지 말고 얼른 가. 어?

우수, 시계 보면, 늦었다.

우수 (의주에게 서늘하게) 오늘... 나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
기분 잡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오늘 짝은 거
돌아다니는 날엔 각오해.

우수, 마지막으로 의주를 한번 세계 노려보고 간다.
의주, 기가 막힌다. 우수가 간 곳을 도끼눈하고 본다.

의주 허! ...개싸가지.

#5. 원점 버스정류장(아침)

의주, 버스정류장에 왔는데 우수가 먼저 와 있다.
의주, 살짝 거리를 두고 옆에 서서 우수를 힐끔 째린다. 우수가 딱 쳐다보자
의주, 얼른 고개를 앞으로 돌린다.

의주 아이... 자존심 상해. 먼저 피했어.

우수가 의주 앞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몸을 낮춰 의주의 눈을 똑바로 본다.

우수 학생이 왜 교복을 입는 줄 알아?

의주 ?

우수 신원확인이 되거든. 내가 얼굴 딱 알아봤으니까 엄한 짓 하지 말고.

의주 하. (어이없는데)

마침 타야 할 버스가 오고 의주, 버스를 보면 앞문까지 사람 꽉 찼다.
앞문이 열리고 딱 한 명이 내린다. 우수가 의주보다 버스로 앞서가는데 의주,
무슨 생각인지 콧김 뿜으면서 황소처럼 달려가 우수를 팔로 밀치고 버스에
올라탄다.
우수, 인상 쓰면서 의주 뒤에 타려고 한 발을 계단에 올리는데
의주, 엉덩이로 우수를 밀어낸다.

우수 !!

우수, 다시 올라가려고 안간힘 쓰지만 의주가 힘으로 우수를 꾸욱 밀어낸다.

의주 (아무도 안 미는데 괜히 혼자) 아, 밀지 마세요. 밀지 마시라고요...!

결국 의주가 미는 힘에 나가떨어진 우수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찢는다.
지잉— 버스 앞문이 닫힌다.

우수 안 돼!!

닫힌 문 사이로 승리의 미소를 씩 웃는 의주.

#6. 버스 안(아침)

의주, 사람들 틈에 꼭 낀 와중에 초록색 노트를
펼쳐서 능숙하게 연필로 메모한다.

의주 훗. 버스통학러 짬밥을 무시하면 안 되지.
(쓴다) 개싸가지 플러스... 요즘 대세 후회남? 괜찮겠는데?

사람들이 손잡이에 지탱해 흔들리든 말든, 버스가 방지턱을 넘든 말든 버스
앞문으로 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세상 평온하게 등교하는 의주의 모습.

#7. 무림여고/교문 앞(아침)

의주, 교문 앞에서 재킷 주머니에 넣어뒀던 명찰을 뺀 꺼낸다.
'여의주' 세 글자가 선명히 보인다.

의주(NAR) 모든 소원을 이뤄준다는 영험한 구슬, 여의주.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나는 용처럼 당차고 힘 있게 살라는 뜻으로
03년생 여자에 이름을 여의주라고 지어주신 우리 할아버지.

모르는 애들이 지나가며 명찰을 흘끔거리고 의주,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머리카락 내려서 명찰이 안 보이게 한다.

의주(NAR) 이효리가 <텐미닛>을 부르는 시절에 태어난 이름이 여의주라니...

긴 웨이브 머리에 화장 빠르게 한 고양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온다.

고야 의주야! 여의주!

의주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든다.

달려와서 의주의 팔짱을 꼭 끼는 고양에서 스틸!

의주(NAR) 내 베프, 최고야. 화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빠 덕에 이름이 고양이가 됐고
그 덕분인지 미술에 소질이 있다.

이름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우리는 고1 때부터 지금까지 3년째 베프다.

#8. 무림여고/운동장(아침)

의주와 고양이가 교문을 통과해 학교로 걸어간다. 고양 휴대폰에 전화가 온다.

고야 (짜증스레 전원을 꺼버리는) 아이, 진짜...

의주 왜? 누군데?

고야 구남이.

의주 또 헤어졌어? 얼마 전에 백일이었잖아.

고야 대학 가야지. 이제 수업 끝나면 무조건 미술학원 가야 해.

의주, 긴 머리를 획 날리는 고야를 부러운 듯 보며

- 의주(NAR) 고야랑 나는 딱 하나 다른 게 있다. 바로 연애. 잘 만나고 잘 헤어지는 고야랑 달리 나는... 모쏠이다.
- 의주 (문득) 내 소설이 재미없는 건 내가 모쏠이라 그런 걸까?
- 고야 글썸. 연애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 하면 할수록 환상이 더 깨진달까? 오히려 너 같은 경우가 연애에 대한 로망이 아직 남아 있어서 더 잘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 의주 그래?
- 고야 왜, 작품 잘 안 돼가? 완결 친다며.
- 의주 (쓱쓱한 미소) 으응. 끝내긴 했지.
- 고야 도대체 언제 보여줄 건데? 제목도 안 알려줘, 필명도 안 알려줘. 너무 한 거 아니냐구우.
- 의주 말했잖아. 무덤까지 비밀이라고. 근데 아직 조회 수가 망이야. 이 정도면 실력이 없는 거겠지?
- 고야 어허. 그런 소리 마. 너는 아직 못 찾은 거야. 너한테 딱 맞는!! 소재를. 우리 1교시 뭐임?
- 의주 수학.
- 고야 아, 수학 극혐인데. 은단 냄새 짙잖아.
- 의주 (씩 웃고)
- 고야 왜.
- 의주 최고야 네가 잇은 게 있지. 수학 나이는 62! 올해 정년퇴직을 한다!
- 고야 미친!! (좋아하고)

#9. 무림여고/복도(아침)

의주와 고야가 복도를 걷는데 교무실 앞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다. 다들 어떻게든 교무실 안을 보려고 까치발을 하고 창문에 붙어 있고 목마를 탄 아이도 있다. 의주와 고야, 서로를 본다. 본능적으로 이거 재밌는 거란 느낌이 온다. 의주가 고개를 끄덕하며 사인 보내자마자 고야가 앞으로 치고 나간다.

고야 잠깐만... 잠깐만...

고야가 힘으로 헤쳐나가면 의주가 바짝 붙어서 교무실 창문 앞에 도착한다.

의주 뭐데 그래, 뭐데.

의주가 까치발하고 목을 숙 내밀어 교무실 안을 들여다본다.

의주와 고야 옆으로 나란히 있는 단지와 영재.

단지 국·영·수 정년 퇴임하고 체육은 딴 데로 갔잖아. 오늘 쌤 네 명이 왔는데 다 남자임. 첫 부임이라는데 얼굴 미쳤고요.

영재 와꾸 오지고 피지컬 지리고요. 대환장 파티다,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교무실 들어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데...!!

단지 교장이 지금 출입금지라고 문 잠갔어. 아니, 새로 온 선생 소개를 하는데 왜 학생들이 못 보게 하냐고...!

의주, 애들한테 이리저리 밀리면서도 교무실 안을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10. 교차. 무림여고/복도+교무실(아침)

의주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건, 국어쌤 윤동주.

세미 정장 차림, 차분하고 단정하게 빗어 내린 갈색 머리에 은은한 미소를 띤 동주, 국어책을 한 손에 낀 채 예의 바르게 교장 안치호에게 인사를 한다.

동주 안녕하세요, 윤동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주 (작게 혼잣말) 헐. 꽃사슴이 국어였어?

고야 (넋 나간) 존잘... 완전 내 스타일...

의주, 동주의 옆으로 시선을 돌린다.

꼭 다문 입술, 지루하다는 표정의 우수가 보인다.

의주 (기겁) 아까 그 개싸가지...?!!
잠깐. 어떻게 나보다 빨리 왔지?

INSERT

원점 버스정류장. (#5에 이어) 우수, 엉덩방아 찢은 채로 고개 돌리면, 버스 뒷문이 열려 있다! 뒷문으로 달려가 올라타는 우수.

INSERT

무림여고 정류장. 우수가 뒷문으로 먼저 내려서 시계 보며 달려가고 의주가 천천히 앞문에서 내린다.

치호가 우수를 다른 선생들에게 소개한다.

치호 여긴 가우수 수학선생님. 대학 시절의 우수한 연구실적으로 아이비리그 여러 곳에서 모셔 가려 했지만 큰 뜻이 있어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이곳에 오셨다고 합니다. IQ가 무려 156! 멘사 회원이시래요. 호호.

우수, 건방지게 고개만 까닥한다.

의주 (공얼대는) 저, 인성 봐, 저... 그래서 나한테 교복이 어찌고 한 거구만? 선생이라 이거지? 쳇.

우수의 옆에는 화려한 패션, 자본주의 미소를 띠고 있는 노다주가 알아서 자기소개한다.

다주 안녕하세요, 영어교사 노, 다, 주! 입니다. 예, 맞습니다. 천재 플레이보이 밀리어내어 아이언맨 로다주!! 인상적인 외모와 치명적인 위트, 벗어날 수 없는 매력이 저와 꼭 닮았죠. 하하하.

의주 ...나대는 캐릭이고.

나란히 선 네 명 중 가장 압도적인 신체조건을 가진 남자, 체육선생 정기전.
짧게 깎은 머리에 체육복 차림, 목에 호루라기를 걸고 있다. 기전, 예의 차려서
인사한다.

기전 (사투리 있는) 반갑습니다, 정기전입니다.
의주 (눈 휘둥그레) 개섹시해... 광공이다. 광공.

의주, 네 명을 다 확인하고 창에서 내려온다.
다른 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러 몰려든다.

단지 이제 하이든의 시대도 갔네.
영재 야, 어따 갔다 붙여. 하이든은 그냥 귀여워서 봐준 거지.
저 비주얼을 봐라, 지금.
이든(E) 어머~ 무슨 일이야들. 나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음악선생 하이든이 살랑살랑 다가온다. 하얗고 말간 얼굴에 키도 아담해서
의주와 비슷하다. 의주, 하이든을 보며 억지 미소 짓는다.

의주(E) 하이든은 음악쌤으로, 아이들의 아이돌이었다. 어제까지는.

INSERT

하이든이 지휘봉과 악보를 들고 복도 가운데를 우아하게 걸어가면 여고생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깹깹거린다.

의주(E) 그가 걸어가면 흥해가 갈라지듯 모두가 양쪽으로 늘어섰으며 눈 한
번 마주치려 온종일 따라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음악실엔 하이든이
좋아한다는 돌리 인형이 가득 차 있었다. 물론, 어제까지.

고야,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이든을 본다.

고야 쌤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이든 엇, 고양이, 차가워. 나 지금 상처받았어.

의주와 고양이를 포함한 여학생들 표정에 씩소가 걸린다.

의주(E) 저런 조련에 넘어가던 때가 있었건만, 지금은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든은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교무실 문을 열려고 하지만 안에서 잠긴 문이 열릴 리 없다. 당황한 이든, 문을 두들기며 소리친다.

이든 교장쌤? 저 여깁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시는 거 아니시죠? 교장쌤!?

#11. 무림여고/교무실(아침)

치호, 뒷문 유리창에 찌부된 이든의 얼굴을 못마땅하게 본다.

치호 개 꼬리 삼 년 묵어도 황모 안 된다더니. 꼭 저렇게 티를 내요.

치호가 열라는 눈짓을 하자 문 앞에 있던 고분자가 달칵,
잠금 고리를 올리는데...

(E) 까악!!

아수라장이 되면서 문 앞에 몰려 있던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신입 교사 네 명이 놀란 눈을 하고 바짝 긴장한다.

그 와중에 다주는 기전을 방패 삼아 살짝 앞으로 밀어낸다.

걱정하지 마, 해치지 않아,

안 잡아먹어 눈빛을 보내는 여고생들의 눈동자들 보이고...

얼떨결에 밀려서 우수의 가슴팍 앞에 선 의주.

의주, 고개를 들면 우수와 눈이 마주친다. 의주는 시큰둥한 눈빛이고

난장판 속에서도 의주만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우수, 의주의 명찰을 확인한다.

우수 (믿을 수 없다는 듯. 네가) ...여의주?
의주 ??

#12. 무림여고/3학년 3반 교실(아침)

의주는 창가 자리에, 고야는 의주의 옆에 앉아 있고 앞자리에 앉은 단지와 영재가 뒤를 돌아 수다 떠다.

단지 오래 살길 잘했다.
고야 너네 오빠들은 어찌고?
단지 꺼져. 사진 다 찢는다. 오늘.
영재 근데 1, 2학년 수업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단지 설마. 재수 털리게 그런 말 하지 마.
고야 잠깐만 나 방금 소름.
단지·영재 (동시에) 왜, 왜.
고야 그 넷 중에 한 명이... 우리 반... 담임이면 어떡해~~??!!
단지 와씨, 나 방금 설렘어!!

세 명이 하이톤으로 소리 지르며 까하하 웃고
그러건 말건 의주는 연필 끝을 물고 다리 달달 떨며 고민한다.

의주(E) 개싸가지 후회남이면 수학이고 섹시광공은 체육인데. 고민이네.
누굴 주인공으로 하지?

고야, 한껏 들뜬 표정으로 의주에게 말 건다.

고야 년 누구 할 거야?
의주 응? 뭐가?

고야 최애 누구로 할 거냐구.
 의주 무슨 최애야.
 고야 접치면 안 되잖아. 난 아문따 국어.
 의주 맘대로 해. 근데 니 스타일 아니잖아. 양아 스타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고야 그러게 이제 질렸나. 조신하고 귀여운 순둥이가 좋네. 아, 빨리 정해~
 의주 없다니깐?
 고야 그래도 골라봐, 하나만!
 의주 그럼 나는... (말하려는데)

이든이 명랑 쾌활한 톤으로 인사하며 들어선다.

이든 여러분 안녕형~

아아아... 아이들의 실망한 소리 가득 찬다.

이든 내가 여러분의 담임이에요. 다른 반 애들이 너무 부러워하겠다. 그지?
 학생들 (성의 없는) 네에.
 이든 어라? 지금 이 분위기, 고3이라서 이런 거지? 난 우리 반이
 비정규직 쌤이 담임 됐다고 싫어하고 그런 반은 아닐 거라고 믿어.
 의주 (공. 또 시작이다)
 단지 쌤,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담임 맡으셨어요?
 이든 (못 들은 척. 표정 관리) 내가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진학 지도만큼은
 부족함 하나 없이! 할 거니까. 여러분은 걱정 말고 공부에만 힘써요.
 알았...?

아이들, 다시 제멋대로 떠들기 시작하고 이든의 말이 묻힌다.

이든, 자존심 상해 팽! 콧김 뿜는다.

#13. 무림여고/교무실(아침)

둘씩 마주 보는 자리, 파티션이 낮아 서로의 얼굴이 다 보인다.

동주와 우수가 나란히 앉고 동주의 맞은편에 기전,

우수의 맞은편에 다주가 앉았다.

동주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있다.

다주 예체능은 좀 따로 빼주지? 겸상 불편한데? 아무리 못 배웠어도 첫
부임 날 추리닝은 좀 그렇지 않나? 하다못해 깔끔한 캐주얼이라도
입고 올 것이지.

기전 (겉썩한 사투리로) 뒤질까.

다주와 기전이 서로 죽일 듯 노려본다.

동주 여기 신성한 고등학교다. 너네가 맨날 자빠져 자던 주점 아니라고.
말조심하고.

다주 청학동 선생 낚셨네.

우수 (기전에게) 자리 바꿔. 애랑 마주 보기 싫어.

다주 (일부러 도발하는) 왜애? 나는 우리 가우수 앞에 있고 시폰데엥? 보고
있어도 보고 시폰데엥?

동주 (우수에게) 그냥 앉아. 정해주신 건데.

우수 싫다고. 내가 왜 박쥐랑 마주 보고 앉아야 해?

다주 !! 뭐?

기전 됐다. 고마해라.

다주 (우수한테 흥분해서) 너, 너... 내가 그 말 하지 말랬지? 그... 그제
입에도 담기 싫은 볼드모트 같은 단어라고 나한테는!! 내가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당연히 알고 그랬겠지, 천재 가우수 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안 그래?

우수 내 해마는 너랑 다르게 일을 하거든. 학습과 기억에 관여할 뿐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그래서 너랑 마주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해주길
바란다.

다주 내 해마 욱하지 마. 기억력 변태 주제에.
 우수 !!
 동주 유치하게... 둘 다 그만해. 창피해지려고 한다.
 다주 창피해? 어떻게 친구가 창피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런 말 치사해 보일까 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너네 도대체 단톡방에서 왜 말을 안 해? 아침만 해도 말이야, 첫 출근이니까 뭐 챙겨야 하나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또 읽기는 다 읽었어. 그게 더 빠친다고. 사람이 아!를 하면 어! 하고 대답을 해야지. 어? 안 그래?

동주 (침착하게 꺾푹) 니가 너무 말이 많아.
 100개 중에 90개는 니가 보낸 거잖아.

다주 (충격이고) 어떻게 동주 너까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기전 내가 선배들한테 여교부임기 들었는데 니들 오늘부터 여교에 대한 환상 다 깨질 거다. 미리 경고해주는 거야. 특히 너. 가우수.
 우수 (기전을 똑바로 쳐다보면)
 기전 조심하라고.
 우수 내가 뭘, 병신아.
 기전 임마는 신경을 써줘도 지랄이고.

기전이 발끈하며 체육책으로 우수의 머리를 때리려는데

(E) 띠리리리~ 띠디디디~

수업 시작 종소리가 울린다.

다주 난 1교시 없지롱.
 동주 나도.
 기전 체육을 1교시부터 하겠노.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우수다.

기전 살아 돌아온나.
동주 파이팅.
다주 (입 뷁뷔)

우수, 땀땀히 수학 교과서를 들고 안경을 한번 추어올리는 데서

1회 끝.

2회

#1. 호텔 방(밤)

우수, 하의에 수건 하나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젖은 머리를 털며 화장실에서 나온다. 턱 끝과 가슴팍에 물방울이 송송 맺혀 있다.

우수, 차가운 시선으로 어딘가를 보는데 그 시선의 끝에, 가운 차림으로 침대에 걸터앉은 동주의 뒷모습 보인다. 동주의 어깨가 파르르 떨린다. 우수, 낮은 숨을 내쉬고는 성큼성큼 동주에게 다가가 동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우수 미안하다.

#2. 무림여고/3학년 3반 교실(아침)

의주, 책상에 엮어져 침 흘리면서 자고 있다.

의주 (우수에 빙의된. 웅얼웅얼) 미안하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옆자리에 있는 고양, 신기하다는 듯 의주를 구경한다.

고양 밤새 글을 썼다고 해도... 1교시부터 이렇게 잘 자다니. 근데 무슨 꿈을 꾸는 거야, 대체.

앞문으로 우수가 들어온다.

학생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빛나는 우수의 자태를 넋을 놓고 바라보고 의주, 계속 꿈나라다. 점점 감정 격해지는지 꿀꿈꿀 몇 번 하다가

의주 (동주한테 빙의. 배신감에 목소리 떨리고) 우리 친구 아니었어?
(소리 커지는)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의주, 자기 소리에 자기가 화들짝 놀라서 책상 옆으면서 깨고
반 아이들과 우수가 의주를 쳐다본다.

고야 (작게) 워워.

의주, 교탁에 있는 우수를 발견하고, 조금 전의 꿈을 들킨 것처럼 볼 빨개진다.
애들 쿡쿡거리고 의주, 얼른 책상 세우고 고개 못 드는데.
우수, 한심하다는 눈으로 의주를 보다가 칠판에 'x'를 쓴다.

우수 (아이들에게) 이게 뭐지?

영재 (손들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입니다!

우수 그래. 최대 정수 함수지. 여기에서의 이 대괄호는 가우스 기호라고도
한다. 가우스는 수학과 물리학에서 엄청난 업적들을 남긴 천재지.
그런데 천재 가우스가 어느 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주장을 했어. 지구를 제외한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외계인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한 거야. 왜 그랬을까?

의주 (궁금해지는 얼굴이고)

우수 우주에 있는 저 많은 별에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면 신은 쓸모없는
것을 창조한 것이고, 그건 곧 최악의 수학적 낭비이기 때문이지.

의주 헐.

우수,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의 의주를 딱 알아챈다.

우수 여의주.

의주 (화들짝) 네? 네?!

우수 작년 9월 학평에서 수학 점수가 몇 점이었지?

의주 (우물쭈물) 어... 그계... (기어가는 소리로) ...점이요.

우수 안 들린다.

의주 십오... (꽤) 십오 점이에요!!

학생들, 쿡쿡. 킁킁거리고 의주, 얼굴 벌게진다. 고야가 의주를 토닥거리고.

우수 (생각보다 낮아서 충격이다. 천천히 의주에게 다가가며) 음.
15점이라... 본인은 왜 수학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지?

의주 (고개 숙이고) 공부를 안 해서요.

우수 (의주 앞에 딱 서서)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수포자는 과연...

의주 (고개 들고 우수를 보면)

우수 수학 공부를 안 해서 못 하는 것인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인가.

의주 !! (자존심 상하고)

우수 답이 먼저나 달같이 먼저나만큼 알 수 없는 문제지.
(다시 교탁으로 가면서) 나는 여러분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이라 생각한다. 각자 빛나고 각자의 세상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수학적 낭비를 절대 하지 않길 바란다.

우수, 가져온 종이를 앞자리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학생들이 뒤로 돌리고.

우수 방과 후 수업 신청서다. 더 이상 수포자로 인생 낭비를 하기 싫다면 신청하도록.

고야 (신청서 받아들고 작게) 수학이 아무리 잘생이어도 수학 방과 후에는 에바쎄바지.

의주 (작게) 당연하지.

우수 다들 따라 하길 바란다. 디 마트마틱(Die Mathematik).

학생들 디 마트마틱.

우수 이스트 디 퀸니긴(ist die Königin).

학생들 이스트 디 퀸니긴.

우수 디아 비스enschaft(der Wissenschaften).

학생들 디아 비스enschaft.

우수 가우스가 남긴 명언이지. 독일어로...
(자부심에 가득 찬) 수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의주 (불만으로 쭈뼛) 뭐야... 수학부심 쯤네. 수학덕후. 수학처돌이.

우수 여의주는 끝나고 따라오도록.

의주 헐? (망했다는 표정)

#3. 무림여고/교무실 앞(아침)

고야와 단지, 영재가 창문에 붙어 안을 살핀다.

고야 의주 어떡해... 뭇 땀에 찍힌 거야, 첫날부터 대체.
단지 그러게. 암것도 안 했는데. 이상하네.

애들이 밖에서 볼 땐 우수가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서서 머리 조아리는 의주인데.
지나가던 치호가 애들을 내쫓는다.

치호 고3들! 여기서 뭐 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빨리 교실로
들어가 공부해!
애들 에이... (아쉬워하며 미적미적 흠어지고)

#4. 무림여고/교무실(아침)

우수, 팔짱 끼고 거만하게 앉아 있고 의주, 두 손 모으고 공손하다.
자리에 앉아 있는 동주가 흘끔 의주를 본다.

의주 아침에 있었던 건 절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하러 썸을
일부러 밀었겠어요. 아침에 만원 버스를 타다 보면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자그마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수 나는 왜 그게 고의로 느껴졌을까?

의주 오해입니다. 오해라구요. 제가 폰으로 국어 쌤과 쌤의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도 오해구요, 다 오해예요. 자요, 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동영상 폴더구요. 휴지통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암것도 없죠?
증명됐죠?

우수 ...증명?

옆에서 동주, 또 시작이군 하는 표정 짓는다.

우수 (진지한) 증명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과정으로, 그 어떤 증명도 전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너의 주장에는 올바른 전제가 있나?

의주 ... (어이없지만 일단 참고 보는) 그럼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수 음. 반성문으로 아까 내가 말한 독일어 문구를 천 번 쓰도록.

의주 !! 천 번이요?

우수 (끄덕)

의주 (후...) 그렇게 하면 제 진심이 증명된단 말씀이시죠?

우수 일단은.

의주 네. 알겠습니다. 천 번, 쓰죠. 뭐.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의주, 꾸벅 인사하고 교무실을 나가는데 교무실 문 앞에서 누가 문을 열어준다.
동주다.

#5. 무림여고/복도(아침)

의주, 동주와 나란히 걸어간다.

동주 아침에 우수가 오해한 건 미안해요. 나 같아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의주(E) 헐, 미쳤다. 존댓말 캐릭...!!

동주 우수가 원래 좀 성격이 불같고 까칠한 면이 있어요. 유치하고 애갈달까. 그래도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예요. 일부러 괴롭히는 걸로 오해할까 봐.

의주 네에...

의주(E) (안쓰럽게 보면서 속으로) 쌤, 그게 아니예요. 쌤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거라구요... 그렇게 감싸주실 거 없어요...

동주 아까 보니까 노트 들고 다니는 것 같던데. 공부 열심히 하나 봐요.

의주 아... 공부 노트가 아니라... 그냥 메모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동주 (웃어주고)

의주, 3-3 교실 앞에 도착했다. 뒷문에 서서 걸음 멈추면.

동주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여의주 학생.

의주 네? 저, 저두요.

동주, 싱그럽게 웃어주고 수업 있는 교실로 걸어간다.

의주 (넋 나간) 천사다, 천사. 저런 천사가 왜 그런 악마랑 엮여서….

#6. 부부약국(낮)

여신, 모니터 앞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히히덕거린다.

(가운처럼 보이는 품이 큰 하얀 재킷을 입고 있다.)

문이 열리고, 허리 굽은 80대 여자 손님이 힘겨운 걸음으로 느리게 들어온다.

손님 (말없이 여신에게 처방전 들이מים)

여신 할머니, 지금 약사님이 잠깐 은행에 가셨는데 금방 오실 거거든요.

혹시 많이 급하신 거면 저기 길 하나 건너 다른 약국이 있는데,

손님 빨리 줘.

여신 (난처한) 제가 약사가 아니고 조제 보조원이라서요. (처방전을 훑어보고) 이게 제가 무슨 약인지는 아는데요, 제가 아는 걸 제가 처방 드리면 안 되는 거라서요….

손님 (짜증 팍) 뭐라는겨. 약국에서 허연 까운 입은 선생이 약을 안 주면 어디서 준다는겨! (손이 덜덜 떨리고) 빨리 줘. 빨리.

여신, ‘조제실’을 쳐다본다.

침 꿀꺽하고.

CUT TO

여신, 재킷 벗은 차림으로 앉아 있고. 윤주가 들어온다.

윤주 손님 없었어?

여신 으응.

윤주 (약사 가운 입으며) 세미네 약국 있잖아. 보조원이 조제했다고 경쟁약국에서 신고해서 보건소에서 사전 통지도 없이 들이닥쳤대.

여신 그래? (놀라고. 책상에 놓인 영수증을 밀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아니, 왜 그랬대? 많이 바빴나? 우리는 손님이 많이 없어서 그럴 일은 없겠네, 하하.

윤주 자랑이다. 하여간 물색없이. (자리로 가는)

여신 (어색하게 웃다가 쓰레기통 속 영수증을 보고 울상이 되는)

#7. 무림여고/복도(낮)

의주, 고양이랑 검은색 대형쓰레기 봉투를 같이 들고 노닥거리며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분자가 온다.

분자 그걸 뭐 들이 들고 가니. 고양이 너는 교실 청소해.

고야 치...

의주 갔다 올게. (쓰레기 버리러 가는)

#8. 무림여고/쓰레기장(낮)

의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쳐다보면, 으스스한 곳에 단둘이 서 있는 동주와 기전이다!

의주, 괜히 몸을 숨기고 지켜본다.

의주 여기서 둘이 뭐 하는 거야?

동주, 벽에 기대서 휴대폰 문자 하고 있는데
기전, 동주의 팔뚝을 조물락조물락거린다.

동주 (휴대폰 보면서. 귀찮다는 듯) 왜 자꾸 만져.
기전 (약간 발그레. 투박한) ...니가 말랑말랑하다.
의주 험!!

동주와 기전이 소리 나는 곳을 획 돌아본다.
의주, 숨어서 안 보인다.
의주,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입 틀어막고 내적 절규한다.

의주(E) 미친... 난 왜 저런 대사를 못 썼지? 말랑...말랑... 니가 말랑말랑해...

의주, 다시 눈만 빼꼼 내밀고 기전과 동주를 쳐다보는데.

기전 수업에선 별일 없었나.
동주 별일 있으면. 내가 가만있겠냐?
기전 (장난스레 동주의 목에 초크 걸며) 가만 안 있을 거 같아 그러ندا. 와.
동주 아, 이거 뇌아~
기전 내 미리 가가 아들한테 국어쌤한테 까불지 마라
딱 한마디하고 올라 했다.
동주 미쳤나.
기전 니가 어리버리하니깐 걱정이 되잖아.
동주 됐어. 너나 잘해. (그러면서 웃고)

기전이 동주의 허리를 확 감아 안고 동주가 버둥거린다.
기전과 동주가 그렇게 딱 붙어서 건물로 들어가고
의주, 쓰레기봉투 옆에서 넋 놓고 둘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의주 찌... 찌이다...

멍 때리던 의주의 한쪽 코에서 코피가 주룩 내려온다. 의주, 뜨끈한 느낌에 손등으로 코를 쓱 만지는데

의주 코... 코피...?? (고개 뒤로 젖히며. 미치겠는) 드래곤볼 무천도사도 아니고... 변태같이 이게 뭐냐, 여의주...

#9. 의주 방(밤)

벨테안경 쓴 의주, 눈 빨개져서 모니터 앞에 있다. 코피 났던 코에는 휴지 꽃았다. 키보드 치는 손이 빠르게 움직인다. 벽에 걸린 시곗바늘이 오후 8시에서 11시, 새벽 3시로 돌아가고....

의주(E) 나중에 크면 선생님이 되기로 약속한 소꿉친구들.
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짝사랑했지. 나쁜 남자의 매력에 끌렸던 거야. 체육은 그런 국어를 보며 가슴앓이를 했고.

INSERT

의주 상상. 고등학교 교실에서 책상에 엮어져 자는 우수. 옆자리에 앉아서 그런 우수를 지켜보는 동주. 교실 뒷문에 운동복 입고 서서 동주를 보는 슬픈 표정의 기전.

의주(E) 국어의 소중함을 몰랐던 수학은 국어에게 모질게 대하다 뒤늦게 본인의 마음을 깨달았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국어를 피하는데... 체육이 강력한 섭남으로 등장하면서... 국어를 붙잡으려고 하는 후회남 수학의 애정 공세...!!

의주, 마우스로 업로드 버튼을 달칱! 누르는데

모니터 보면 신작 소설 1화를 올렸다. 소설 제목은 <우리 친구였어>

의주, 침대로 기어 들어가 안경 쓰고 그대로 기절해 잠든다.

#10. 의주네 주택 전경(다음 날 아침)

#11. 의주 방(아침)

의주, 침 흘리고 자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자꾸 시끄럽게 알림음 울린다.

(E)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땡땡.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의주, 얼굴 찡그리며 깬다.

의주 아우... 뭐야...

의주, 더듬거리려 휴대폰을 집는다. 한쪽 눈만 겨우 뜨고 액정을 보는데

의주 응...?

의주, 벌떡 일어나서 양반다리 하고 앉아 받은 메일을 읽는다.

의주 안녕하십니까, 까뚝 스튜디오입니다. 작가님의 신작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이바입니다. 신작이 아직 계약 전이시라면 저희와 꼭 함께하셨으면... (눈을 비빈다) 뭐야, 스팸이야?

의주, 컴퓨터로 후다닥 가서 자기가 어제 올린 신작을 확인하는데.

의주 잠깐. 조회 수가... 15,320??

1화에 무려 댓글이 350개 달렸다.

댓글1(E) 미래에서 왔습니다. 이 소설은 곧 대작이 됩니다.

댓글2(E) 국어랑 수학 이어주세요. 작가님, 제발.

댓글3(E) 체육 대사 미쳤네요. 이들의 과거 서사 기대됩니다.

의주 (놀란) 이게 다 뭐야...
윤주(E) 여의주!! 밥 먹으라고!!

의주, 엄마 소리에 급하게 몸 일으키다 의자에서 굴러 바닥에 넘어지고 아픈 것도 못 느낀 채,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어서 멍한 얼굴의 의주에서.

#12. 원점 버스정류장 근처(아침)

의주, 책가방 끈을 붙잡고 행복한 얼굴로 걷는다.

의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 있지? 꿈은 아닌데... (배시시)
드디어 나도 갓작가가 될 수 있는 건가?

버스정류장에 다 왔는데 우수가 이리저리 뱅뱅 돌면서 뭔가를 찾고 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의주, 우수에게마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다.

의주 쌤~~ 뭐 잃어버리셨어요?

우수,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여기저기 두리번거린다. 찡그리며 집중하면 교복 입은 형체가 흐릿하게 보인다.

우수 안경.

의주 집에 놓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수 (발끈) 무슨 소리!

의주 깜짝이야.

우수 내가 그런 걸 헛갈릴 리 없잖아.

의주 (잘난 척은...)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없어졌나.

우수 ...휴대폰을 꺼내 버스 도착시각을 확인했던 때가 7시 20분.

#13. 회상. 원점 버스정류장 근처(아침)

우수, 서서 휴대폰으로 시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우수(E) 그때였어.

비둘기 똥이 후두둑 안경테로 떨어지고.

우수, 잠시 그대로 굳는다. 안경다리를 붙잡아 똥이 흐르지 않게 조심스레 얼굴에서 떼어낸다. 인상 잔뜩 찡그리면서 정류장 의자 위에 안경을 올려놓고 가방을 뒤적여 티슈를 찾는데 고개 돌려보면 의자 위 안경이 사라졌다!

우수, 의자를 만져보지만 아무것도 없다. 우수,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다.

우수 저기요, 혹시 여기 있던 안경 못 보셨어요?

사람들, 고개 흔들면서 버스 오면 우르르 몰려가서 타고.

우수, 당황해서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고 더듬더듬 버스 광고판을 짚으며 근처를 헤맨다.

#14. 다시 현재. 원점 버스정류장 근처(아침)

우수 근처에 있던 사람은 세 명, 모두 버스가 오자마자 타느라 정신이 없었지. 안경을 훔쳐 갈 만한 사람은 없었던 말이야. 설사 누가 의자에 있는 안경을 쳐서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안경의 무게와 운동 반경을 계산하면 이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

의주 그냥 하나 다시 맞추세요.

우수 내 안경은 그런 안경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혹시 여의주?

의주 지금 제 얼굴도 못 알아보신 거예요?

우수 역시. 이곳에서 항상 안 좋은 일로 엮이는군.

의주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같이 찾아드릴게요.

우수, 걸음 옮기다 돌부리 못 보고 걸려 넘어진다.

우수 악!!

의주 괜찮으세요? (놀라서 부축하려는데)

우수 (팔 휘두르며) 됐어. 저리 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의주, 우수의 냉정함에 민망해져서 입 삐죽거린다.

우수 빨리 가라고.

의주 예예.

의주, 가려고 돌아서는데 나무 아래에 고양이가 안경을 깔고
식빵 굽는 자세로 앉아 있다.

의주 어?

의주, 슬금슬금 고양이 앞으로 다가간다.

고양이 앞발 밑에 안경다리가 삐죽 보인다.

의주, 주머니를 뒤적여 과자를 꺼낸다.

의주 (내밀며) 양이야~ 착하지~~ 여기~ 이거 먹어~~

고양이, 냄새 쿵쿵 맡더니 몸을 일으킨다.

고양이, 의주가 주는 과자를 정신없이 먹고

의주, 얼른 가서 안경을 줍는다. 흠이랑 새똥이 묻어 지저분하다.

의주 으, 디러... 이걸 확 그냥? (우수를 보며) 두 동강 내버려?

우수, 의주 쪽에 대고 소리친다.

우수 찾았어?

의주 (안경을 뒤로 숨기며) 아뇨. 찾은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였어요.

우수, 다시 바닥을 살피고, 의주, 안경을 확인한다.

한쪽 다리가 덜렁거린다. 의주, 대충 흠을 털어서 닦고 안경을 싹 가방에
넣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의주 쌤 근데 이러다 학교 늦을 거 같은데 그냥 가죠.

우수 지금 몇 시지?

의주 7시 50분이요.

우수 하아.

어쩔 수 없다.

우수, 더듬거리며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의자를 만지는데, 가방이 없다!

우수 (의자에 털썩 앉아버리고) 미치겠군.

(주머니에서 휴대폰 꺼내 전화 건다) 어, 난데.

의주, 우수 옆에 앉아서 휴대폰에 슬쩍 귀를 대본다.

우수 내 방에 가보면 첫 번째 서랍에 여분 안경 있거든. 그것 좀 가져다줘.
그리고... (자존심에 머리 짚고) 내가 지갑도 잃어버려서. 그래. 버스
정류장. 어.

우수가 전화를 끊고 의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는다.

의주 혹시 국어 쌤이세요? 목소리가 딱 국어 쌤인데.

우수 근데?

의주 같이 사세요? 하긴 어제 같은 집에서 나왔으니까...

언제부터 같이 사셨어요?

우수 무슨 상관이지?

의주 그런데 도대체 시력이 얼마나 안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실 정도면...
우수 형태는 보여. 도대체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지?
의주 까칠하시긴. 이게 다 캐릭터 분석에 필요하거든요.
우수 (무슨 소린가 하는데)

마침 그때 버스정류장 앞으로 깜찍한 하늘색 경차가 와서 선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다주가 알뜰게 웃는다.

다주 어이, 안경 잃어버렸다면? 천재 가우수 님께서 어찌?
우수 (짜증 나서 부르르 떨고)
의주 (차 안에 있는 F4를 확인하곤) 대박사건...

#15. 달리는 차 안(아침)

기전이 운전하고 조수석에 의주가 앉았다.
의주, 벨트를 꼭 붙잡고 살짝 긴장한 모습.
뒷자리에 낀 우수와 다주는 짜증 가득한 얼굴이다. (우수, 다른 안경을 썼다.)
가운데 있는 동주는 양쪽에서 밀어대는 우수와 다주 때문에 죽을 맛이고.

동주 너 그거 스위스 병원에서 맞춘 거잖아. 못 찾으면 어떡해? 다시 보내
달라고 해도 시간 꽤 걸릴 텐데.
다주 이 자식 그거 없음 완전 눈뜬장님 아니냐?
우수 닥쳐.
동주 같이 차 타고 가자니깐 꼭 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다 사고 치지. 뭐
하러 버스를 타고 간다고 그러서는...
의주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듣고 있고)
동주 지금은 어때, 좀 보여?
우수 얼굴은 구별이 된다.
기전 (앞을 보며. 의주에게) 여의주랬나.
의주 (긴장 팍) 넵.

기전 이름 좋네. 한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겠다.
의주 하하, 네. 대신 얼굴이 평범해서요.
우수 (표정)

#16. 교차. 무림여고 주차장+차 안(아침)

기전이 차를 세우는데 기다리던 여학생들, 달려와서 차를 둘러싼다.
선팅된 안쪽을 보려고 손 모으고 얼굴을 바짝 대고 쿵쿵 창문을 두드리고 난리다.

학생들 깡! 얼렁 나와요, 쌤! 나와라! 나와라!

의주, 그 기세에 흠칫하고. 뒤를 보면 동주가 머리를 우수 어깨에 기대고 잠들어 있다. 그 모습이 순정만화의 한 장면처럼 샤랄라 빛나는데...

의주 !!

기전 (시동 끄며) 아침마다 이게 뭐 난리고.

다주 아씨, 어떻게 나가지. (세상 모르게 잠든 동주를 보고) 이 자식은 고양이 새끼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을 처자는 거야. 지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우수 말조심해.

기전 그래라. 가는 원래 잠이 많잖아.

다주 (졸아서) 나한테만 그래...

우수 (기전의 운전석을 발로 차며) 니가 어제 안 재워서 그렇잖아.

기전 크흠흠. (부끄러워하는) 내도 그럴라 칸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우수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애 잠은 재워라, 엉?

의주, 혼자 얼굴 벌게진다.

의주(E) 미쳤다... 밤새 뭘... 뭘 했길래...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이거 쓰고

지옥 가겠습니다...!!
기전 (의주 보며) 야는 와카노. 얼굴 시뻘개져갔고.
우수 (짜증) 아, 빨리 내려, 그냥.

#17. 무림여고/주차장(아침)

우수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학생들이 우수에게 달려든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기전이 호기롭게 문을 열고 나오면 학생들의
함성 한층 커진다. 달려붙는 여학생들을 제지하며 기전이 호루라기를 분다.

(E) 빼익—!!

여학생들 일동 얼음 되고.

기전 학생들! 지금부터 반경 1미터 내 접근은 삼가주길 바란다. 알았나.
여학생들 ...까아아!!

씨알도 안 먹힌다. 여학생들, 다시 달려들어 팔짱 끼고 등짝 만지고.
다주가 비몽사몽 하는 동주를 깨워서 같이 내리면 학생들이
다 F4에게 우르르 몰려간다.

CUT TO

조용해진 주차장. 의주가 찻사게 차에서 빠져나온다.
의주, 급한 걸음으로 걷는다.

의주(E) 빨리... 지금 이 생생한 대사랑 에피소드를 글로 써야 해...!!

#18. 무림여고/컴퓨터실(아침)

의주, 텅 빈 컴퓨터실에 혼자 앉아 있다. 손깍지 끼고 기지개 켜다.

의주 으아...!! 30분 만에 다 썼어. 평소엔 다섯 시간도 더 걸리는데.
 그나저나 학교에서 쓰려니까 스릴 있네. 흐흥.

의주, 가방에서 우수의 안경을 꺼내본다.

의주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참나, 뭐 얼마나 대단한 안경이길래. 명품인가?
 꿀탕 좀 먹어보라지. (가방에 넣고)

의주, 한껏 가벼워진 마음으로 가방을 들고 나간다.

모니터 보면 포털 웹 소셜 메인화면, 의주 아이디로 로그인된 채 켜져 있다.

#19. 무림여고/3학년 3반 교실(아침)

의주와 고야, 사물함 앞에 서서 얘기하고 있다.

고야 대박. 너 그럼 이제 갖작가 되는 거야? 미친. 핵소름.

의주 (쑥스런) 아니야. 일단 완결을 내야지. 연재 전에 계약해버리면 쓰기
 싫어질까 봐 완결하면 계약하려고.

고야 멋있다. (진심으로 부러운 눈빛이고) 역시 너 내 롤모델이야.

의주 내가? (부끄럽고)

#20. 교차. 무림여고/컴퓨터실+3학년 3반 교실(아침)

컴퓨터 수업인 7반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의주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여학생1,
이것저것 클릭을 해보더니 친구들을 부른다.

여학생1 대박. 이거 봐봐.
여학생2 왜, 뭔데?
여학생1 이거 여의주 아이디 맞지?
여학생2 어. 맞네.
여학생1 애 웹 소설 쓰나 본데?

여학생들, “레알?”, “봐봐!!” 웅성웅성하며 물러온다.

여학생1 여기 봐. ‘내가 쓴 작품’이면 빼박 여의주가 쓴 거 아님?
여학생2 맞네, 맞네. 와, 뭐야. 조회 수 쪼는데?
여학생3 BL이야. 대박.
여학생1 그게 문제가 아니야. 19금이잖아.
 그리고 내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거...

INSERT

컴퓨터 화면. <우리 친구였어 - 2화 뜨거운 밤은 지나고>

여학생1 쌤들 얘기 아니냐? 주인공들이 딱 국어, 수학, 체육쌤인데?

교실에서 한껏 만족스런 표정으로 수업 듣는 의주에서

2회 끝.

작가 후기

〈로맨스의 절대값〉은 캐릭터에 중점을 두고 작업했던 글입니다. 주인공 의주를 영똥하면서도 사랑스럽고 공감 가는 인물로, F4셀들은 각자 다른 개성과 매력이 있는 인물들로 그리려고 고민했습니다. 의주와 우수의 서사뿐 아니라 F4의 관계에서도 케미를 살리고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후기를 쓰려고 보니 감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 판에 겁도 없이 뛰어들다는 딸에게 그래라 해놓고 어느 순간 아차 하셨을 부모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소중한 조언을 해주시는 센터장님, 따뜻한 드라마가 주는 긍정의 에너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신 이태곤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불편한 게 없는지 항상 물심양면 챙겨주시는 팀장님, 만날 때마다 안부와 함께 현재 작업의 진행 상황을 물어주시는 과장님, 큰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운 집필 과정에서 힘이 되어주는 5기 동기분들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쉽고 재밌는 드라마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퀵타임 스토리 — 이보영

또 하나의 작은 사회, 학교에 관한 이야기

대한민국은 점점 더 견잡을 수 없을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혹독한 곳은 다름 아닌 학교, 그중에서도 고등학교일 것이다.

과거에 논란이 일었던 우열반은 이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부모나 선생님이 학생들의 점수나 집안 배경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하던 것이 이제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당연시되어가고 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뭉친 단위 안에서도 서열을 나눴고, 진짜 진심을 털어놓는 친구 하나 사귀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구’는 사라지고 ‘경쟁자’만 남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 병든 사회다.

건강한 사회는 각각의 개인이, 가족은 물론 이웃들과 많은 교류와 교감을 나누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식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아이들은 다시 오지 않을 학창시절을 같이 놓고 떠들며 추억을 쌓을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며, 어른들은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

〈킬링타임 스토리〉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주인공 이유가 피차 친구들을 만나면서 변화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 같은 학교의 다른 ‘친구’들도 구하는 이야기이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판타지와 크리처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1980년대 주말의 명화에서 〈네버엔딩 스토리〉, 〈그렘린〉, 〈오즈의 마법사〉, 〈고스트버스터즈〉 등을 보면서 무한하고 무해한 상상력을 펼치며 커왔고, 2000년대엔 해리포터와 같이 성장했으며, 2020년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에 강렬한 향수를 느끼며 열광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과 기술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뒤에는 스크린에 〈신과 함께〉가 나와 천만 관객을 연달아 넘었고, TV와 모바일로는 〈스위트홈〉과 〈보건교사 안은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킬링타임 스토리〉는 이런 한국형 SF 판타지의 계보를 잇는 동시에 1980년대 어드벤처 판타지장르에 좀 더 가까운 아기자기한 동화 같으면서도 키치한 드라마가 될 것이다.

일찍이 모험과 판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십대들의 전유물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귀엽고도 잔혹한 크리처들과 개성 강한 캐릭터들은 새로움을 갈구하는 시청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시즌제 드라마로서의 무궁무진한 기대감을 갖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

등장인물

• 영화반 아이들

유이유(18세, 여) 파란 눈동자를 타고난 아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기어코 머리털까지 뜯어냈다. 건들면 왜 그랬을까 질겁하게끔 발악했다. 재혼가정의 자녀에, 미국 학교에선 유일한 아시아인이란 주눅들 법하지만 이렇게 ‘이 구역의 미친X은 나야’를 몸소 보여준 덕에 아무도 그녀를 건들지 못했다. 대신 같이 밥 먹을 친구 하나 없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이게 타고난 팔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유는 사실 상처가 많은 소녀다. 갑작스런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연이은 낯선 미국으로의 이주. 그 모든 것은 어린 이유에겐 감당하기 힘든 상처가 됐다. 하지만 타고난 파란 눈동자를 오랫동안 블랙 렌즈로 가려온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브이로그 등을 올리며 씩씩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간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한국행이 결정 나며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

미국과는 또 너무 다른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에 적응해갈 즈음 다시금 큰 변화가 찾아온다. 자신만큼이나 아싸 기질에 푹기 충만한 영화반 5인방을 만나 난생처음 ‘친구’를 사귀게 되고, 정체 모를 생명체(일명 ‘숨뭉치’)를 만나 ‘교감’을 하면서 신기한 능력(일종의 슈퍼파워)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졸지에 학교와 학생들을 둘러싼 음모에 맞서 싸울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차구원(18세, 남) 날 때부터 크리쳐 덕후인 아이

시작은 공룡이었다. 뽀뽀 울어대는 아기를 두고 뭐가 문제인지 몰라 찢찢대는 초보 엄마 대신 호기롭게 나서지만, 어떻게 해도 멈추지 않는 울음에 울컥한 초보 아빠는 공룡모형을 보이며 “크르릉~” 겁을 줬다. 그러자 바로 뚝! 어라? 엄마는 그걸 보고 애 겁 먹인다고 아빠를 혼냈지만 그게 아니었다. 아기 구원은 공룡에 마음을 뺏긴 것이었다.

그 이후로 구원은 오로지 한 길만 봤다. 세상 가장 잔혹하고 흉측한 크리쳐들이 나오는 거라면 뭐든 찾아봤고, 연구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아직 우리 눈에 띄지 않았을 뿐, 이 세상엔 진짜 크리쳐가 있다고.

이렇게 크리쳐에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서인가? 구원은 (사람을 포함한) 그 외의 것들에 비슷하게 시큰둥하고 똑같이 불친절했다. 이것이 반반한 외모에 전교 상위권에 드는 우등생임에도 교내 밥맛 서열 3위에 오른 이유다.

그런 구원의 눈앞에 크리쳐가 나타난다. 이유 없이 신경 쓰이던 이유와 교감하는 솜뭉치를! 하지만 자신은 이유처럼 교감하지 못하는 것에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좌절감을 맛보고 극심한 부러움과 질투심에 몸부림치지만 크리쳐 덕후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는 법!! 이후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끊임없이 솜뭉치와 교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박소이(18세, 여) 작지만 강한 아이

그런 애들이 꼭 있다.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데 어디에나 있고 그 무엇도 다 꿰고 있는 아이가. 소이는 그런 아이였다. 귀여운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 상대방을 순식간에 무장해제 시키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물론 그 이전에 오랜 시간 상대방을 지켜보며 파악이 끝난 상태다. 이러한 소이의 방식은 어릴 적 왕따를 경험하며 나름 터득한 그녀만의 생존방식이었다. 그렇기에 영화반 아이들 중 가장 강하고 위기 상황 때마다 친구들이 휩쓸리지 않게 잡아준다.

구성술(18세, 여)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아이

저 멀리서도 “구성술!” 누구나 알아보는 큰 키의 소유자. 깡마른 데다 과묵해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를 뽐뽐하지만 그녀의 한마디는 강력하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톡 던지는 한마디 말에 상대방은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 하지만 대놓고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 또 극도로 피하는데, 과거 옆자리 짝꿍이

가난하단 이유로 도둑으로 몰렸을 때 앤 아니라고 한마디 편들어줬다가 반 전체 애들에게 “거지신부”라고 심하게 놀림 받은 이후로는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반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선을 긋고 거리를 두지만, 문제를 풀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영화반에 오며 가며 유용한 정보나 단서들을 톡 던져주고 도움을 주는 알고 보면 의리 있는 친구다.

하우택(18세, 남)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짜 ‘친구’

유치원 진달래반에서 가장 예쁜 아름이를 보고도 유일하게 관심 없어 하던 구원이를 보고는 이놈과는 여자 때문에 싸울 일은 없겠다 싶어서 평생 친구하기로 맘먹었다. 그러고는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는 구원이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득하게 옆을 지키다 보니 진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이의 거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으며 인간미 없는 구원에게 늘 온기를 불어넣어준다. 이유의 브이로그를 보고 톡톡 튀는 성격과 외모에 반하지만 의도치 않게 자꾸만 소이와 엮이게 되면서 단순한 우택은 혼자 복잡해진다.

김형수(18세, 남) 타고난 가난과 타고난 머리를 동시에 지닌 아이

아빠가 공사장 일을 나갔다가 사 들고 들어오는 통닭 먹는 날이 가장 행복했던 형수는 착하고 바른 아이였다. 하지만 반 아이들이 없이 산단 이유로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을 때 처음으로 도둑질보다 가난이 더 큰 죄악임을 그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이후로 형수는 변한다. 웃음을 지우고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따뜻함을 버리고 독한 마음으로 공부에만 매진했다. 그 결과 전교 2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 되었지만, 형수는 안다. 전교 1등을 하지 않으면 S대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기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전교 1등 해나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더 죽어라 공부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교 1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가난을 이유로 들며 그의 성적을 의심하고 시비를 걸어온다. 학생들은 물론 선생들마저도. 결국 형수는 시험지 유출사건의 조작된 증거로 범인으로 낙인찍히면서 참아왔던 설움과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

• 학교의 다른 아이들

양해나(18세, 여) 철저한 계급사회를 꿈꾸는 자타공인 넘버원

학교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일등을 놓치지 않은 우등생. 싸가지 없기로도 단연 1등인 해나는 뭐든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렸다. 그렇게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뒤에는 국회의원인 아빠와 교육감인 엄마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머리가 똑똑해 아이들을 이용할 줄도 알고, 적당한 때에 치고 빠지기도 잘해, 아이들 뒷담화에 빠지지 않는 주인공이자 교내 밥맛 서열 2위긴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실상부한 리더이기도 하다. 중간고사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1등을 뺏기자 형수를 성적 조작한 아이로 프레임 씌워 아이들을 선동하고는 자신은 뒤로 빠진 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모습은 모두를 오싹하게 한다.

허본웅(18세, 남)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해나를 제치고 교내 밥맛 서열 1위에 빛나는 모그룹 사장의 아들로 양해나와 쌍벽을 이루는 싸가지. 고상한 척하는 해나와는 달리 질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며 적당히 놀 줄도 알고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며 수족처럼 부릴 줄도 안다. 그러나 역시 해나처럼 뭇도 없는 애들이 잘난 척을 하거나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떻게 해서든 응징을 가한다.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보는 양해나를 싫어해 언젠간 손을 봐주겠다고 버르기도 하지만, 0.1프로 특권층에 속하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언제 그랬냐는 듯 손을 잡기도 한다. 그리고 절대 해선 안 될 짓을 감행한다.

그 외

유미, 지혜, 경은, 원찬, 종인, 여진, 미나, 박종우

• 학교의 어른들

임보라(32세, 여) 기간제 교사&영화반 담당

한국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며 영화반을 이끄는 기간제 교사.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교감과 학주의 감시의 눈을 피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과 불법적인 일들을 조용히 파헤친다. 또한 낯선 생명체의 흔적을 조사하면서 숨뭉치들의 생물학적인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이유에게 큰 도움을 준다.

교감(50대, 여) 고등학교 교감선생님

교육자로서의 프라이드가 강하고 학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작은 체구이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교장을 대신해 학교 안과 밖의 일을 모두 총괄하며 지휘한다. 시험지 유출사건 이후 학교를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한다.

학주(40대, 남) 고등학교 학생주임&국어교사

교감의 강력한 행동대장. 큰 덩치와 끈대스런 모습으로 학교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을 꼭 잡고 있다.

교장(60대, 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그저 자신은 명예로운 퇴진만 하면 된다는 심약한 캐릭터.

• 이유의 가족들

유재환(47세, 남)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아빠

이혼이나 재혼 모두 자신이 원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해, 특히 이유를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원망은 자신이 감내하면 될 문제였고 다른 건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유는 자신을 원망하고 새엄마 지숙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어찌 해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한 재환이 선택한 방법은 돈과 엄격함이었다. 그게 이유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유를 사랑하는 재환은 이유가 괴생명체를 다루는 것을 보고 정체를 알기 위해 홀로 어딘가로 떠난다.

윤지숙(40세, 여) 모두를 품을 수 있다 생각한 엄마

이유의 새엄마. 병원을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큰 전형적인 양갓집 규수 스타일. 재환과 사랑에 빠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 그 일로 부모와 멀어졌지만 그래서 더욱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 가족에 헌신하고 이유에게도 살갑게 대하려 노력한다. 아무 문제 없듯 만면에 웃음을 짓고 있지만

이유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남편 재환과도 벽이 느껴진다. 그러던 중, 이진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본성을 드러낸다.

유이건(9세, 남) 알뜰지만 미워할 수 없는 혈육

이유의 남동생. 누나인 이유를 꿀탕 먹이고 약 올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짓곳은 개구쟁이다. 하지만 실상은 누나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자꾸 거리를 두기에 골이 나서이기도 하고 누나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다. 이유가 솜뭉치를 몰래 키우는 걸 알고는 비밀로 해주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기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솜뭉치가 뺀 진액을 맛봤다가 그 이후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 괴생명체와 교감자들

솜뭉치(????) 존재 자체가 파괴를 위한 괴생명체

엄청나게 큰 모체가 뺀어낸 흰 솜뭉치들은 평소엔 뭉글뭉글 작고 귀엽지만, 변이하게 되면 흉측한 괴물의 모습을 드러내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교감한 인간에게도 그 능력을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본디 파괴를 위한 존재이나 이유와 교감하면서 솜뭉치 또한 변화를 맞는다.

침입자(18세, 남) 허수아비 능력자

괴생명체 솜뭉치를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교감자. 하지만 그 또한 이용당하는 신분으로 그를 조종하는 X를 증오한다. 결국 증오심에 사로잡힌 침입자는 폭주하고 만다.

X(????) 베일에 싸여 있는 최종보스

솜뭉치의 모체와 교감하며 침입자를 조종해 학교와 아이들을 파괴하려 한다. 나아가 전 세계를 파멸시키려 하는데, 그것이 모체에게 잠식당해서인지, 그런 성향이 모체를 만나 교감하면서 발현이 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즐거리

갑작스런 부모의 이혼과 재혼, 그리고 바로 이어진 미국행으로 상처를 지닌 채 홀로 이방인처럼 커온 이유는 십 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학교에 적응 중이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친구 하나 없던 이유는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리며 온라인에서는 누구와도 잘 대화하고 소통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도 친구 하나 없다. 아니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꾸만 친한 척 말을 거는 소이의 추천으로,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이유는 영화반에 가입한다. 그리고 거기서 성술, 구원, 우택, 형수와 만난다.

그러던 중, 중간고사 순위가 발표되면서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진다. 전교 30등까지의 순위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해나가 2등으로 내려가고 가난한 집안의 우등생인 형수가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이다. 그러자 해나의 주도로 형수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로 학교에서는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다.

한편 이유는 등굣길이나 아파트 단지 등 곳곳에서 흰 솜뭉치처럼 생긴 괴생명체를 자꾸만 목격하게 되는데,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순간에 솜뭉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그 일로 이유는 몰래 솜뭉치를 키우게 되고 솜뭉치와 ‘교감’을 하게 되면서 순간이동이나 가벼운 염력 등의 능력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얼마 안 돼 바로 구원이에게 들통이 나고 크리쳐 덕후인 구원의 지도 아래 ‘교감훈련’을 진행하면서 능력이 점점 강력해진다.

그러는 사이, 형수는 시험지를 빼돌린 주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자백과 퇴학을 종용받는다. 형수의 결백을 믿는 영화반 애들은 영화반 지도교사인 보라샘의 도움으로 형수가 모함을 당한 것임을 알아내지만 이미 선생과 학생들은 형수가 범인이라고 낙인을 찍고는 내쫓기 위해 갖은 모욕을 준다.

형수의 누명을 벗기고자 진범을 찾는 영화반. 결국 범인을 찾아내지만, 그 범인도 누군가(X)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된 일임을 알고 범인을 도와 진실을 밝히려 한다. 하지만 시험지 유출로 이익을 본 아이들은 진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이유로, 자신들이 가진 부모님의 권력을 이용해 교감을 사주해 진실을 덮으려 한다.

결국 범인은 그간 쌓였던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며 폭주하게 되고 학교와 학교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이유가 나서는데….

1회

시험 전날, 어둠에 싸인 고등학교 안에 정체를 숨긴 침입자가 들어와 신비한 힘으로 시험지를 훔쳐낸다. 이유는 브이로그를 찍다가 흰 솜뭉치 같은 괴생명체를 발견하지만, 소이가 아는 척을 하는 바람에 놓치고 만다. 그렇게 시험기간은 끝나고, 실시간방송을 하던 이유는 온라인으로 악플 다는 애들을 말발로 보기 좋게 눌러버리고 그 방송을 보고 있던 구원은 이유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2회

중간고사의 전교 순위가 크게 바뀌면서 전교 1등이었던 해나의 주도로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난무한다. 특히 가난한 형수가 전교 1등이 되자 형수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다. 한편 모니터에서 튀어나온 솜뭉치를 본 이유는 자신이 미쳐가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소이의 제안으로 영화동아리반에 가입한다. 그곳에서 지도교사 보라샘과 소이, 성술, 우택, 구원과 형수와 만난다.

3회

교감의 주도로 시험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모아 부정행위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인 형수와 구원을 뺀 나머지 애들과 환영회를 갖는 이유는 왜 형수 편을 들어주지 않냐고 묻지만, 성술은 자기들은 친구도 아니고, 도와줘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냉정하게 얘기한다. 돌아오는 길,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이 넘어가며 이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핸드폰에서 튀어나온 솜뭉치가 변이하며 이유와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그 상황을 길 건너편에서 구원이 본다.

4회

구원이 사고현장에서 이유를 미친 듯 찾는 그 시각, 방에 걸린 가족사진에서

이유가 튀어나온다. 이유는 가족들 몰래 솜뭉치를 데리고 있기로 하고 솜뭉치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시험해보는데... 솜뭉치와 교감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만 힘조절을 못 해 하마터면 아파트를 무너뜨릴 뻔한다. 그 기운을 감지하는 X. 교감자가 더 있다고 무언가를 향해 말한다. 희미하게 발광하며 꿀렁이는 무언가는 구멍(입)에서 무언가를 규칙적으로 뱉어낸다.

5회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솜뭉치와 교감을 시도하는 이유는 몰래 이유를 감시하던 구원에게 딱 걸리고 만다. 결국 이유는 구원의 도움을 받아 솜뭉치와의 교감훈련을 진행하기로 한다. 한편 형수를 향한 아이들의 오해와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지고 급기야 전교생 앞에서 본웅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하지만 그동안 모른 척해왔던 영화반 애들이 앞장서 형수를 지킨다. 그 시간, 이건이 솜뭉치가 뱉어낸 진액을 맛보자 우락부락 몸에서 변화가 일더니 그대로 굳은 채 쓰러진다.

6회

억지로 일관된 본웅의 말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사이다 발언하는 영화반. 본웅은 체면을 구기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영화반은 공공의 적이 된다. 한편 이유는 이건의 증세가 솜뭉치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원인을 알기 위해 교감훈련을 진행하던 중 침입자의 은신처로 공간이동을 하게 된다. 죽이려 달려드는 침입자와 싸우다 그만 침입자를 죽일 뻔하자, 이유는 그곳을 빠져나온 후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솜뭉치를 산에 버리고 온다. 그리고 교감은 삭제됐던 시험 전날 CCTV를 보여주는데... 침입자의 얼굴이 형수다!

7회

교감은 형수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라며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간다. 영상의 진위를 의심하는 영화반. 형수의 누명을 밝히려면 솜뭉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구원의 말에 결국 이유는 영화반에 솜뭉치의 존재를 오픈하고 같이 솜뭉치를 찾으러 다닌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찾은 솜뭉치의 능력으로 원본 화면을 복원하니 침입자의 정체는 바로 다락방에서 이미 본, 같은 반 중우였다. 그사이 보라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대학선배의 도움으로 동영상의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됐음을 알아낸다.

8회

이유를 제거하기 위해 금기사항인 여러 솜뭉치와 교감하라는 X의 명령에 다중교감을 시도하며 괴로워하는 종우. 한편 영화반이 형수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사이 이유는 병원을 찾아가 교감능력으로 이진이 삼킨 진액을 토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정숙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엄마에 그 딸이라면서 이진을 데리고 친절으로 가버린다. 영화반에게 사실을 들은 형수는 본웅을 찾아가간다. 그리고 진짜 진실이 드러나는데... 한편 보라와 영화반은 교감선생을 찾아가 조작된 영상임을 알리지만 무시당하고 해나 모를 포함한 극성부모들에 의해 영상이 공개된다.

9회

결국 문제의 해결은 잠적해버린 진짜 침입자, 종우를 찾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영화반. 하지만 종우는 제 발로 이유 앞에 찾아와 어차피 다 죽게 될 거라며 그 전에 자기랑 같이 쓰레기 같은 학교와 애들에게 복수하자고 한다. 이유는 거절하고 종우는 도망간다. 그날 밤, 이유는 **솜뭉치의 존재 자체가 파괴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너도 그러니?” 응답하지 않는 솜뭉치.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감사가 나오는 날, 전교생이 모인 실내체육관에서 종우의 비웃음이 울려 퍼진다.

10회

강당에 모습을 드러낸 종우는 시험지 유출사건의 모든 전말을 밝힌다. 범인은 자신이며, 동영상은 조작됐고 그 사실을 교감도, 학생들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모두가 위선자고 가증스럽다며 모두 살 가치가 없다는 종우는 천장에 매달린 기절한 해나를 가리키더니 폭주한다. 어쩔 수 없이 학교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이유는 종우에 맞서 싸우고 제압하는 데 성공한다. 결국 종우가 정신병원에 감금되며 모든 게 끝나는 듯 보였지만... 곧바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유는 솜뭉치와의 교감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내다본다.

킬링타임 스토리

이보영

1회

#1. 학교 정문(밤)

어둠이 깔린 으스스한 학교의 풍경.

담벼락 위에 앉은 올빼미의 눈만 반짝이는데, 올빼미처럼 동그란 눈을 부라린 수위아저씨가 정문 앞 철문을 철렁— 닫고는 쇠사슬로 문을 잠근다. 그 뒤로 학교 본관에서 불빛이 어른거리면 획 뒤돌아보는 수위. 의심의 눈초리. 불빛은 사라지고 어둠에 둘러싸인 학교.

#2. 학교 복도(밤)

어두컴컴한 복도 안. 고요한 가운데 똑— 똑—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린다. 카메라 바닥을 비추면 살짝 거품이 인 액체가 떨어져 있다. 액체를 따라가다 보면 벽에 딱 붙어 있는 침입자의 발이 보인다. 병거지를 꺾 눌러쓴 침입자. 액체는 그가 들고 있는 가방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창밖으로 아무 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침입자는 조심스럽게 어둠 속을 걸어간다. 복도를 걸어가던 침입자가 멈춰 선다. 교무실 앞이다. 주변을 한 번 더 두리번거리더니 열쇠를 꺼내 교무실의 자물쇠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다.

#3. 교무실 (밤)

교무실 안을 둘러보는 침입자. 교감 자리 뒤쪽에 놓인 철제금고를 보고 다가간다.

금고에 채워진 굵은 자물쇠. 침입자, 자물쇠를 쥐고 가볍게 잡아당겨본다. 꼭 물린 자물쇠. 이내 차분하게 숨을 고르는 침입자. 그대로 자물쇠를 손아귀에 움켜잡고 다른 한 손은 가방 안에 쑤셔 넣는다. 자물쇠를 꽉 쥐자 가방 안에서 새어 흐르던 액체가 빨려들듯 순식간에 말라버리면서 빛이 새어 나온다. 그 빛은 침입자의 손에서 몸을 타고 자물쇠를 왼 손으로 빠르게 이동하더니 자물쇠를 달구는 듯 보인다. 이어 자물쇠를 왼 손에 힘을 주고 딱! 잡아당기는 침입자. 그러자 자물쇠는 고무처럼 쭉 늘어난다. 금고의 뚜껑을 살짝 들어보면 실 가닥처럼 늘어난 자물쇠 뒤로 보이는 건 과목별로 분류된 시험지들이다. 씩— 올라가는 침입자의 입꼬리. 하지만 바로 광— 열리는 문소리. 놀라 돌아보면 교무실 입구에 수위아저씨가 서 있다.

수위아저씨 어디서 짹짹거린다 했더니... 큰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 있었네?

플래시를 비추면, 고개를 팍 숙이는 침입자.
자물쇠를 잡은 손을 놓고 가방 안으로 집어넣더니 뭔가를 움켜잡는다.

수위아저씨 어쭈? 쑤실라고? 잘 생각해라. (정색하며) 난 학생이라고 안 봐준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호신용 막대기를 착 펼치는 수위. 커다란 눈을 굴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면 가방 안으로 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침입자. 모자 사이로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저벅저벅 걸어오는 수위, 그대로 침입자를 향해 막대기를 내리치려는 순간!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들이치는 침입자. 눈을 질끈 감는다.

“으악, 이거 뭐...” 뭔가를 보고 놀란 수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번쩍! 섬광이 인다.

CUT TO

고요한 교무실. 침입자가 감은 눈을 조심스레 떠보면, 수위아저씨가 밀랍인형처럼 마지막 모습 그대로 굳어 있다. 경악하는 듯 잔뜩 찡그린 얼굴, 곧 튀어나올 듯 부릅뜬 눈. 침입자, 수위 주위를 돌며 그 모습을 훑어보더니

이내 크— 웃음을 터뜨린다.

침입자 크 크크크 크크크크 크호호호호호 크하하하하하—

침입자, 다시 자물쇠를 엇가락처럼 늘리고 그대로 시험지를 과목별로 꺼내
챙기더니 금고문을 달는다. 자물쇠에서 손을 떼자 거짓말처럼 단단해지는
자물쇠. 나가기 전에 수위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싹— 쪼개는 침입자.

#4. 학교 정문(아침)

몇 대의 차가 세워져 있는 학교 정문.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새로 들어오는 차가 서고 그 차 안에서 깐깐한 노부인(교감 선생)이 내린다.
무슨 일이냐는 듯 짜려보자 선생들이 어깨를 으쓱이며 자물쇠로 감긴 철문을
가리킨다. 가방을 뒤적이는 교감, 커다란 열쇠꾸러미를 꺼낸다.

#5. 학교 복도(아침)

씩씩거리는 교감을 선두로 선생들이 뒤를 쫓아가고 있다.

#6. 교무실(아침)

문을 광 여는 교감.

그녀의 눈에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수위아저씨가 눈에 띈다.

교감 (어처구니없다는 듯) 김 씨!! 문 안 열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씩씩대며 걸어가 수위아저씨 앞에 선 교감, 깹— 소리를 지른다. 뛰어오는
선생들.

보면, 수위아저씨의 얼굴에 괴상한 문양이 가득하다. 콧— 놀라 쓰러지는 교감.
 뒤따르던 선생들도 수위의 얼굴을 보고는
 저마다 으악— 소리를 지르며 난리다.
 그런 선생들 뒤로 안경을 쓴 산발머리의 보라가 고무실로 들어온다.
 “왜들 이래?” 보더니 다가가 수위의 얼굴을 확인하는 보라.
 다른 선생들과는 달리 흥미로운 얼굴로 유심히 보더니 수위아저씨의 주변을
 살펴보는데...
 수위아저씨 발 옆으로 희미하게 말라붙은 점방울들이 금고 쪽으로 쪽 이어져
 있는 걸 본다. 금고로 다가가 살펴보는 보라. 금고의 바닥 밑으로 진득하게
 말라붙은 액체를 주시한다.

타이틀. <킬링타임 스토리 1화>

#7. 이유의 방(아침)

(E) 빠리리리 빠리리리— 알람 소리 들리고 탁— 끄는 소리와 함께 화면
 켜지면,
 핸드폰 녹화화면이다. 구겨진 침대보가 보이다가 쓱— 얼굴을 비추는 이유.

이유 (눈도 뜨지 못하고) 아— 잤어. 오늘부터 시험인데... 망했어!!
 세상이 망해야 되는데, 내가 망하게 생겼네... 힉.

징징대는 이유의 생생한 모습. 그때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얼른 자는 척
 핸드폰을 내려놓는 이유. 문이 열리더니 지속이 고개를 내민다.

지속 이유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한발 들여놓으며) 이유야,
 이유 (못 들어오게 하려는 듯 뒤척이며) 아아~ 알았어여...
 지속 (들어오려다 말고) 그래, 다시 자지 말고 나와 챙겨. 밥 먹고 가야지.

문을 닫고 나가는 지속. 그러자 다시 쓱 핸드폰을 꺼내 드는 이유.

이유 피할 수 없다면, 찍어라.

 탁상시계로 화면을 비추는 이유. 7시 02분.

이유 오케이. 넘버 투... 낫 배드.

 그러더니 내내 감았던 눈을 반짝 뜨는 이유, 눈동자가 스카이블루 색이다.

#8. 이유의 집 주방(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식구들. 재환, 지숙, 동생 이건.

 이건의 수저 위에 반찬을 얹어주는 지숙과 야무지게 받아먹는 이건을 재환도
 흐뭇하게 바라본다. 방에서 가방을 메고 나오는 이유. 식구들을 한번 쓱 보더니
 그냥 나가려는데,

지숙 (갈세라) 밥 먹고 가!! 시험이라며 속이 든든해야지...

이유 (새침) 생각 없어요.

지숙 (붙잡으며)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서 먹어.

 (한쪽에 놓인 빵을 집어 든다)

이건 (다급하게) No! I'm gonna eat that!

 (안 돼, 내가 먹을 거란 말야!)

지숙 (당황하며 달래듯) 지금 밥 먹고 있잖아. 이건 누나 줘.

이건 She won't eat anyway because won't be fat. right, 누나?

 (보나마나 살찐다고 안 먹을걸? 안 그래, 누나?)

 이유를 올려다보는 이건. 약 올리듯 기괴한 표정을 짓는다.

이유 (뻘히 보더니) yeah! I don't wanna be a pig unlike you, Jerk!

 (그래, 누구처럼 돼지 되고 싶진 않거든? 이 바보야!)

재환 (단호) 유이유! 동생한테 누가 그렇게 말하래? 누나가 돼서. 사과해.

이유 what? He teased me first!
 (왜! 재가 먼저 시작했어!)

재환 어리잖아. 그리고 한국말 써. 한국어야.

이유 You always do that to me!
 (아빠 항상 나한테만 그래!)

재환 한국어.

이유 으— 영어도 재가 먼저 썼어!

재환 서투니까 당연하지.

이유 헐. 이걸 뭐 답정너네. (이건 보고 건성으로) 소리. 뻘? 덕분에 오늘 시험 잘 치겠다! (돌아서는데)

재환 이유!

이유 (버럭) 또 왜!!

재환 엄마가 챙겨주는데 가져가야지.

‘엄마’라는 말에 아빠를 때려보는 이유.
 하지만 재환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밥을 먹는다.
 그때 달력의 날짜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이유.

이유 (재환 들으라는 듯) 아하! 오늘이 15일이었네? (강조) 15일!
 (지숙의 빵 봉지 받으며 공손히)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지속 (같이 웃으며) 그래. 시험 잘 보고!

“네” 대답하며 돌아서는 이유.
 아빠를 보며 ‘뻘?’라는 듯 인상을 쓰고는 나간다.

#9. 엘리베이터 안(아침)

저기압이라고 써 붙여놓은 표정의 이유. 그때, “띠링” 알림음이 울린다.
 열린 핸드폰을 확인해보면, ‘유재환’ 이름으로 50만 원이 입금됐다.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피어오르는데 바로 오는 카톡.

‘재환 :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돈 타갈 거야?’

또 열 받는 이유. 바로 답문을 보낸다.

‘아빠가 먼저 거래한 거야. 내 탓할 생각 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10. 아파트 단지 앞(아침)

밝은 햇살이 빛나는 아침. 파란 하늘을 보고 다시 핸드폰을 꺼내는 이유.

이유 (자신을 찍으며) 이제 학교에 갑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험은 망한 거 같음~ 근데 날씨 진짜 죽여. 여기 봐봐. 이게 서울의 봄 하늘임.

핸드폰으로 하늘을 비추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이유의 모습 위로,

이유(NAR) 이미 짐작했겠지만 보시다시피 난 유튜브버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거창한데 솔직히 쫘 잘나가긴 한다. 그냥 브이로그 찍어 올리는 건데 팔로워가 벌써 8만 3천 명쯤 된다. (그때 화면에 세 명이 팔로우했다는 알림이 뜬다) 아마 오늘 못해도 30명은 더 늘 것 같다.

#11. 교차. 몽타주. 버스정류장+동영상+이유의 미국 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이유.

이유(NAR) 내 채널의 인기 비결? 그건 케이팝,

INSERT

이유의 유튜브브 영상. 방과 빈 교실, 놀이터 등등에서 이유가 케이팝 춤을 추는 모습에 달린 태그들. ‘#KPOP, #STREET DANCE #COMMON KOREAN

LIFE STYLE'

그 밑에 달린 수많은 영어 댓글들. 대부분 너무 좋고 부럽다는 내용이다.

이유(NAR) 앤~ 잉글리쉬,

INSERT

유튜브 영상의 댓글. 유창한 영어로 브이로그를 하는 이유의 영상 아래로 달린 한국어 댓글들. 대부분 이쁘데 영어도 잘하고 발음도 너무 좋아 부럽다는 내용이다.

이유(NAR) 앤~ 마이 페이스! 에이시안 뷰티.

FLASH BACK

미국 학교. 복도를 걸어가는 이유를 보며 남학생들이 대놓고 추파를 던지며 소리친다. “hey, asian beauty. make me hot!” 휘슬을 부는 남학생들에 화답해주듯 한 바퀴 빙그르르 돌더니 양손으로 뺨뺨을 날리며 싱긋 웃는 이유.

이유(NAR) Most teen boys are stupid, but a little bit cute.

Korean boys are more.

(대부분의 십대 남자애들은 바보 같지만 좀 귀엽긴 해.

한국 남자애들이 쯤 더 그렇고.)

현재.

멀리서 오는 버스를 보며 탈 준비를 하는 이유 뒤로 남자애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더니 한 명을 이유에게 확 밀어버린다. “아!” 이유가 돌아보면 얼굴이 빨개지며 미안하단 듯 고개를 숙이는 남학생. 귀엽다. 화면에 얼굴을 비추고 눈을 최대한 귀엽게 찡긋하는 이유.

이유(NAR) did you see that? (봤지?)

#12. 학교 앞 등굣길(아침)

다시 핸드폰 화면 속 이유의 모습. 실시간방송 중이다.

이유 This is common street view in front of high school in Korea.
Isn't that amazing?
(한국 고등학교의 흔한 거리 풍경이야. 놀랍지 않아?)

화면을 주변으로 돌리면,
하나같이 책이나 메모장에 고개를 박고 걸어가는 학생들의 모습.

이유 This is why Korean students are top. What's more amazing is
that no one gets hurt. But look a little pitiful in another way.
(이게 바로 한국 학생들이 탑을 먹는 이유야. 더 놀라운 건 아무도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좀 불쌍하기도 해.)

그때 이유의 눈에 저 앞의 화단 사이로 흰 솜뭉치 같은 게 움직이는 게
포착된다. 좀 해서 보면, 주먹보다 약간 큰 솜뭉치가 화단 사이에 그냥 떨어져
있는 듯 보이는데... 갑자기 흰 솜뭉치 사이로 눈이 반짝 빛나는 듯 보인다.
뭐야?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이유. 얼른 뛰어가 보는데 솜뭉치는 살아 있는 듯
나무에 붙어서 빠른 속도로 쪽 타고 올라가버린다. 나무 밑으로 가서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비춰보지만 보이지 않는 솜뭉치.
한참을 그러다 문득 옆을 보고 흠칫 놀라는 이유. 작은 체구의 귀엽게 생긴
소이가 옆에서 이유를 따라 나무 위를 보고 있다.

소이 (천연덕) 왜?

이유 어?

소이 뭐?

이유 뭐?

소이 (답답) 아 뭐냐고.

이유 아... 너도 봤어?

소이 뭐?
 이유 그... 하얀 솜뭉치 같은 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
 소이 (생각하더니) 송충이?
 이유 아니 송충이 아니고 (손으로 크기를 그리며) 이만 한 건데...
 소이 고슴도치?
 이유 음... 아닌 거 같은데... 솜 같은 털이었는데.

혼잣말하는 이유를 두고 쓸랑 가버리는 소이. 들고 있던 책에 고개를 파묻고
 가는데 책이 교과서 같지는 않다. 얼마 안 가 갑자기 돌아서는 소이.

소이 어이 잉글리시!!
 이유 어?
 소이 정문 앞에선 꺼. 라방하다 학주한테 걸리면 핸드폰 압수당할걸?
 이유 아... 땡큐.

“유어웰컴” 그러더니 이유 핸드폰의 카메라를 보며 정체 모를
 제스처를 취하는 소이.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책에 얼굴을 파묻고 걸어간다.
 “왜 저래...” 그때 옆으로 “빠요빠요~” 소리가 들리더니 119 구급차가
 지나간다.

이유 someone jumped off the roof already? (누가 벌써 뛰어내렸나?)
 (핸폰 보며) 나도 같이 뛰어내리지 않길 바라며 방송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팟— 꺼지는 화면.

#13. 교장실(아침)

딱 봐도 심약해 보이는 교장(남, 62)을 중심으로 교감과 학생주임 선생이

회의하고 있다.

- 교장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 교감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구급대원들도 생명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답니다.
- 교장 얼굴도 얼굴이지만 정신이 안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CCTV
 교체하느라 떼어낸 참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거 참...
- 교감 (말을 고르듯) 평소에 김 씨가 심장약을 복용했다고 하니까 그쪽
 문제일 거구요, 특별히 시험지가 든 금고에 손댄 흔적도 없고 다른
 것도 다 그대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교장 (동의를 구하듯) 정말 경찰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 교감 (자신 있게) 그럼요. 괜히 신고해서 외부로 알려지기가라도 하면,
 쓸데없는 오해만 사고 학교 이미지 실추만 초래할 겁니다.
 (도우라는 듯 학주를 보면)
- 학주 그럼요! 교감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금고도 잠긴 채 그대로니까
 이번 일은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 교장 (잠시 고민하더니) 두 분 선생님 의견이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가셔서
 다른 선생님들 동요 안 하시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4. 교무실(아침)

선생님들을 불러놓고 주의를 주는 학주와 교감.

- 학주 아시겠죠? 절대 새어 나가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이 애들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쓸데없는 분란으로
 시끄러운 일 없게 합시다.

동의를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선생님들. 뒤에서 듣고 있다가 손을 번쩍 드는
보라. 귀찮다는 듯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학주.

보라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주변으로 이상한 액체가 있는데 그게...

학주 (버럭) 임 선생!! (보라, 말을 멈추면) 이상한 건 임 선생 머리예요! 아니 선생이 돼서 머리모양이 그게 뭐니까? 체면 떨어지게! 그리고 무슨 액체요?

보라 그게 아주 진득하니 냄새도 고약하고...

학주 음료수 같은 게 흘러서 들러붙은 거겠죠.

보라 아니요! 음료수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채취해서 조사해봤거든요. 보니까 구성원소가 아예 달라요. 전혀 못 보던 거고 그리고...

학주 (말을 자르며) 그래서, 기어코 신고를 해서 우리 학교의 위신을 무참히 떨어뜨리시겠다?

보라 아... 아뇨.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넘어가긴 찝찝하니까...

학주 원 참. 아무리 기간제라고 해도 너무 애교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계약 기간도 다 됐잖아, 막 나가자는 거죠?

보라 네? (험악한 표정의 학주와 주변 선생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알겠습니다.

교감 (보라를 눈으로 힐난하더니) 자 그럼 다들 돌아가서 시험 준비해야죠? 우리, 선생님들만 믿겠습니다.

“네.” 대답하고 모두 자리로 돌아가는 선생님들.
석연치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보라.

#15. 이유의 교실(아침)

몇몇 애들 빼고는 모두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교실 풍경.

이유(NAR) 한국 애들은 시험에 목숨을 걸었다. 아 숨막혀.

펼쳐놓았던 책을 덮는 이유. 무료해 보인다. 달달달 다리를 떨자 앞에 앉은 해나가 과민하게 짹- 돌아본다.

해나 유이유. (다리를 보며) 거슬리거든?
이유 아, 미안. (멈추면)
해나 (돌아서며 들으란 듯) 재수 없게 시험날 다릴 떨고 지랄이야.
이유(NAR) (뒤통수를 째려보며) 양해나. 전교 1등. 싸가지도 전교 1등이다.

INSERT

이유의 상상. 일어나 해나의 머리 위로 토를 하는 이유의 모습.
으아아악 소리 지르는 해나.

씩— 웃는 이유. 동시에 다그닥 다그닥. 책상을 두드리는 이유의 손가락.
“야!!” 버럭 소리를 지르며 돌아보는 해나.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유가 돌아보면, 주변의 모든 애들이 이유를 일제히
째려본다.
민망한 미소를 띠며 멈추는 이유. 고개를 휙 돌리는 해나.

이유(NAR) 다들 하나씩 밀려 적어라!

두 손으로 왕 큰 뽕큐를 날리는데 걸어오는 구원과 눈이 맞는다. 그러자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손가락 운동을 하는 듯 행동하는 이유. 구원도 별 반응
없이 자리로 가서 앉는다. 슬쩍 눈으로 좇던 이유가 나지막이 내뱉는 말.
“fuck!”

#16. 몽타주. 중간고사 보는 학교 풍경

시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하아— 아이들이 내뱉는 한숨 소리가 이어지고.
복도에서는 선생들이 각각 맡은 반으로 한 명씩 들어간다.
문이 탁! 닫히는 소리와 함께.

(소리) 시험 시작!!

시험지를 뒤로 돌리는 학생들의 모습.
 일제히 시험지에 코를 박고 열심히 문제를 푸는 학생들.
 개중엔 머리를 쥐어뜯는 우택도 있고,
 색칠 공부하듯 오엠알 카드를 정성 들여 칠하는 소리와,
 코를 박고 잠을 자는 성솔도 있고,
 자신 있게 답을 체크하는 해나도 있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원과 형수의 모습도 보인다.
 그 사이에 머리를 쥐어짜며 괴로워하는 이유.
 답을 뭇로 할까 고민하다 2번에 체크한다. 다음 문제도 2번이다.

이유(NAR) God bless me. Bless them? or not.
 (신의 가호가 나에게 있길. 재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 시험지의 문제를 보고 바로 답을 체크해나간다. 가소로운 듯 “푹” 웃는
 소리가 새어 나오자 그런 학생의 책상을 툭— 치는 선생님. 보라다.
 주의를 주고는 그대로 지나쳐 가는 보라의 얼굴엔 탄생각이 가득해 보인다.

보라 (책상 사이를 걸어 다니며 혼잣말) 수상해… 뭔가 있어, 분명히.

그렇게 시험 보는 여러 모습들이 쭈욱 교차되다가 “딩동댕~” 소리가 들리면,

#17. 학교 본관 앞(낮)

이유(NAR) (크게) 시험 끝을!!!

본관의 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와아아아” 자유를 만끽하듯
 소리를 지르며 환호한다. 그 사이에서 방방 뛰며 시험이 끝난 것을 기뻐하는
 이유.

이유(NAR) 드디어 끝났다. 더 이상 찍기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다. 그리고,

기쁨을 만끽하다 주변을 둘러보는 이유.
그 많던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다.

이유(NAR) 친구도 없다. (이내 싹 웃더니) 상관없다.
내겐 더 편리한 친구가 있으니까.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 버튼을 누르는 이유.
라이브방송을 한다.

이유 Hi there, the test is finally over.
Now, I'm going to the very hot place. 레고 레고!
(안녕, 드디어 시험이 끝났어. 이제 난 가장 핫한 곳으로 갈 거야. 고!)

#18. 홍대 거리(오후)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며 돌아다니는 이유의 모습.
예쁜 건물이나 카페를 찍거나,
길거리 댄스나 음악을 하는 이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19. 길거리 떡볶이 포차(오후)

빨간 떡볶이가 화면 가득하다.

이유 You know 떡볶이? It's very very spicy. but it's so so good.
(떡볶이 알아? 진짜 진짜 매운데 진짜 맛있어.)

빠르게 올라가는 영어 댕글창. 떡볶이를 먹기 시작하는 이유. 다소 과장된 표정으로 실감나게 먹방을 보여주며 먹는데 화면에 올라오는 한글 댕글.
 ‘분식은 친구들이랑 먹어야지. 친구 없어?’
 그러자 꼬리를 무는 댕글들.
 ‘친구 없는 것 같음. 항상 지 얼굴만 보여줌.’
 ‘한국 온 지도 꽤 됐는데 아직 없음?’
 ‘인성이 예반가?’
 ‘한국 와서 영어나 지껄이니 친구가 생기겠냐?’
 ‘하긴 잘난 척 오짐.’
 신경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이유.

이유(NAR) 어딜 가든 시비 거는 애들은 널려 있다. 약해 보이는 애들한테 더더욱.

#20. 과거. 몽타주. 이유의 미국 학교 내 괴롭힘

— 미국 초등학교의 식당. 9살 꼬마 이유가 한구석에서 급식을 먹으려고 하면 와서 놀리는 백인 남자애들.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애들도 킁킁대며 비웃는다. 겁먹은 듯 보이는 이유.

이유(NAR) 친구를 사귀어서 니 편을 만들면 좋겠지만 못 사귄 확률이 높아.

— 미국 중학교의 복도. 14살의 이유가 사물함의 문을 열면 온갖 쓰레기가 쏟아진다. 주변 애들이 좋다고 킁킁대며 비웃는다. 굳어지는 이유의 얼굴.

이유(NAR) 학교를 안 갈 수도 없고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어. 그럼 어쩔래? 싸울래, 당할래?

— 미국 고등학교의 체육관. 17살 고등학생 이유가 팀별로 농구를 하고 있다. 토스 받은 공을 튀기며 뛰어가서 이유를 던치 좋은 여자애가 일부러 거칠게 밀어버린다. 쿵— 넘어지는 이유.

이유(NAR)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질문이다. 그래서 난, 싸웠다.

— 미국 초등학교의 식당. 자리에서 일어나는 9살 이유. 놀리는 남자애에게 다가가더니 발로 거기를 힘껏 찬다.

— 미국 중학교의 복도. 사물함 앞의 14살 이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급기야 사물함에 머리를 박는다. 기겁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돌아보는 이유의 이마에서 피가 주룩 흐른다.

— 미국 고등학교의 체육관. 17살 이유. 일어나더니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뛰어가 넘어뜨린 여자애의 등에 올라탄다. 그리고는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고 흔들어댄다.

이유(NAR) 그건 현재에도,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21. 길거리 떡볶이 포차(오후)

이유 Hey guys, 이거 알아? 내가 죽었으면 하는 애들은 진짜 죽는 거? 처음엔 미국 간 지 얼마 안 되서 날 괴롭히던 애한테 벼락이나 맞으라고 말했는데 며칠 후에 진짜 죽었어. 감전사로~ 그땐 우연인 줄 알았지. 근데 그다음에 괴롭히던 애한테 물에 빠져 뒤지라고 했는데 진짜로 호수에 빠져 죽었어. 와 진짜 뭔가 싶었는데 (나지막이) 그다음에도 또 그다음에도 계속 내가 말한 대로 애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더라고...

그러자 ‘주작 떨고 있네’를 비롯해 갖가지 조롱하거나 욕을 하는 댓글이 올라오는 창. 그 와중에 ‘어떻게 죽이는데?’ 묻는 글이 여러 개 올라오자.

이유 간단해. 개 이름 말하면서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야. (빠르게 올라가는 욕설들) 아이디도 가능해. 그것도 개의

아이덴티티니까.

그러자 급속히 조용해지는 채팅창. 누군가 ‘진짜 니 말이 사실이라면 살인자네’라는 글이 올라오자, 다시 ‘살인자’란 댓글이 쪽 올라간다.

이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도 살인이야.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거든. 악플도 마찬가지로. 그건 더 비겁하고 저열해.

이렇게 말하는데도 네다섯 개의 아이디가 계속해서 욕을 하며 댓글을 올린다.

이유 헬창의삶, 보이조지, 존나게맛을래, 와사비김치, 조까라마이싱!
(웃음기 싹 가신 눈빛으로) 니들도 보내줄까? right now?

한순간에 얼어붙는 이유의 눈빛, 새빨간 떡볶이를 베어 무는데 소스가 입가로 주룩 새어 나온다. 시간이 멈춘 듯 순간 멈춤 되는 댓글들. (사이) 피식— 웃는 이유.

이유 쫓았어? 그걸 믿냐? (푸하하 비웃더니) 실은 날 괴롭히던 애들 몇 명이 사고로 죽었어. 그랬더니 저런 소문이 퍼진 거야. 난~ 좋았지 뭐. 그 후로 괴롭힘은 없어졌으니까. 물론 친구도 없었고.
(화면 보며) 이제 됐나, 쫓보들?

그러자 댓글 창에는 이유의 퍼펙트 승이라며 찬양하는 글들이 쪽 올라간다. 다시 발랄하게 라이브를 진행하는 이유. 그 모습이 누군가의 폰 화면으로 바뀌면,

누군가(V.O.) 재밌네, 얘.

#22. 분식점(오후)

분식들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는 남학생의 뒷모습. 뒷문으로 우택이(다소 통통하다) 배를 문지르며 들어와 남학생의 앞에 앉는다. 남학생은 구원이다.

- 우택 그놈의 다이어트약이 사람 잡는다야. 먹음 바로 싹다니까?
 효관 직빵이야.
- 구원 (무표정) 그렇게까지 해서 살을 꼭 빼야 돼?
- 우택 당근! 구원이 넌 구원받은 몸뚱이라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라도 살 뺄
 거야. 암튼 봤어?
- 구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
- 우택 (초롱초롱) 어때? 이쁘지? 귀엽지? 매력 있지?
- 구원 (우택을 보더니) 드세. 성깔 있어.
- 우택 (박수 짹) 맞아!! 얼굴은 귀여운데 하는 행동은 성깔 있어서
 완전 반전매력 아니냐?
- 구원 ... 내 취향 아냐.
- 우택 (발끈) 야! 누가 니 취향하래? 내 취향 봐달라 했지? 같은 반인데 잘
 모른대서 보여줬더니 식겁한 소릴 하고 있어. 내놔!

핸드폰을 채가는 우택.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그런 우택을 보더니 웃는 구원.

#23. 아파트 단지(저녁)

저녁놀이 지는 하늘. 집으로 걸어가는 이유가 보이는데 갑자기 우뚝 선다.
보면 아파트 화단 사이로 지난번 보았던 하얀 솜뭉치 같은 게 다시 보인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는 이유. 역시 전에 본 솜뭉치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녹화 버튼을 누르더니 다가가는 이유.
솜뭉치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천천히 굴러다니더니 순간 이유를 향해 눈을
끔벅한다. 천천히 다가가 잡으려고 하는 순간, “누나!!” 부르는 소리. 이건이다.

소리에 놀란 듯 스투룩 무성하게 자란 풀썩 사이로 쓱- 사라지는 솜뭉치.
속상한 이유, “뭐 봐? 뭔데 뭐야?” 하면서 동생이 다가오자 머리를 탁-
때린다.

이유 너 때문에 놓쳤잖아!

이건 이씨. 내가 뭘!! (으앙- 울면서) 엄마아아아!

엄마라는 말에 이유가 돌아보면 지속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다.
쫓르르 달려가 지속에게 안겨 이르는 이건.

이건 엄마, 누나가 나 때렸어! 엄마가 가서 혼내줘어-

그 말에 이유를 쳐다보는 지속.
찔리지만 혼내면 혼내보라는 듯 보는 이유. 그러자,

지속 (이건에게) 너 또 누나 귀찮게 했지? 그러지 말라니까.

이건 No, I didn't bother her! (아냐, 나 귀찮게 안 했어!)
그냥 불렀는데 때렸다니까.

떼쓰는 이건을 어루만지는 지속. 이건의 손을 잡고 이유에게 다가온다.

지속 (웃으며) 밥 안 먹었지? 가서 밥 먹자.

이건 엄만, 왜 누나 편만 들어! she hit me! (힘주어) hit me!!

지속 (얼굴에 뽀뽀해주며) 알았어. 엄마가 대신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이건을 달래며 가는 지속을 차갑게 보던 이유.

이유 (나지막이) 이중인격자.

지속이 잠시 걸음을 멈추지만 이내 다시 걸어간다.

#24. 이유의 집 주방(밤)

밥을 먹는 식구들. 반찬으로 나온 돈가스를 신나게 흡입하는 이견. 옆에 앉은 이유는 핸드폰으로 SNS를 보느라 먹는 등 마는 등. 그러자 이유의 밥그릇에 큼직한 돈가스 한 조각을 올려주는 지숙. 이유가 쳐다보자,

이견 내가 짬한 건데!!

이유 (그래, 너 다 먹어라... 건네주려 하면)

지숙 (말리더니) 건이 넌 많이 먹었잖아. 많이 있고.

이견 씨... (안 되겠는지) 아빠! 오늘 누나가 나 때렸어.

이유 (또 열 받는) 그래, 니가 언제 고자질하나 했다 내가!

지숙 (이견 달래며) 누나가 언제 때렸다고 그래. 밥이나 먹어.

이견 엄마 또 누나 편들어? 아빠 진짜 때렸어. (영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나가 나 보자마자 (때리는 시늉) 팍 때렸어.

재환, 이유랑 이견을 번갈아 보더니 가볍게 이유의 머리를 콩 쥐어박는다.

이유 아! (짜려보면)

재환 (웃으며) 아빠가 혼내줬어. 됐지?

이견 (편들어주니 신나선 다시 또) 그리고 엄마한테 “이중인격자”라고 했어. 그치, 그치 엄마?

그 말에 움찔하는 이유와 지숙. 재환의 표정이 급속히 굳어진다.

지숙 아냐, 아냐, 건이가 잘못 들은 거야.

이견 Yes, she did! It must be 욱. Right, dad?

(욕하면 나쁜 사람이지? 아빠, 누나 아주 혼내줘.)

알뜰하게 고자질하는 이견을 찌려보는 이유의 모습 위로,

재환(V.O.) 핸드폰 내놔.

이유 (깜놀하며) 왜!!
 재환 (단호) 내가 그랬지? 이유 너, 엄마 (멈추더니)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면 벌준다고.
 이유 ...그럼 판걸로 해! 폰은 안 돼!!
 재환 (손 내밀며 더욱 단호하게) 줘.

재환을 때려보던 이유, 폰을 던지듯 주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는다.

이건 She's completely crazy. (누나, 진짜 이상해.)
 재환 이건! 너도 누나한테 말조심해. 알았어?
 이건 (뽀로통해선) ...어.

#25. 이유의 방(밤)

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 이유. 침대에 그대로 퍽 엎어진다. 그리고 분이 안
 풀리는지 팔과 다리로 침대를 마구 두드린다.

이유(NAR) 아빤 나보고 항상 멋대로라고 하지만 진짜 자기 멋대로인 사람은
 아빠다. 이혼도, 재혼도, 미국으로 간 것도, 다시 한국으로 온 것도 다!
 다 아빠 맘대로였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들. 재환과 지숙의 결혼식 사진에 화동을 들고 있는 어린
 이유의 시무룩한 표정. 초등학교 졸업식의 골난 이유, 외국 애들 맨 뒤에 선
 이유 등,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데 항상 이유만 빼떡하다.

이유(NAR) 내게서 '엄마'라는 단어를 혐오하게 만든 사람도, 아빠다.
 아줌만... 엄마가 아냐.

돌아눕는 이유.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뭔가를 꺼내 든다. 엄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꼬마 이유의 사진.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이유.
가슴에 품더니 몸을 둥글게 말아 눕는다.

#26. 이유의 집 안방(밤)

깊이 잠든 재환과 지숙. 험탁 위에 놓인 이유의 핸드폰에서 반짝 빛이 난다.
화면이 핸드폰을 비추면, 원격조정을 하듯 앱이 서치되더니 사진갤러리에서
아까 저녁에 발견한 하얀 솜뭉치를 찍은 영상이 플레이된다.

흔들리는 화면에 이어 제대로 찍혀서 보이는 솜뭉치. 거기서 플레이가
정지된다. 그렇게 멈춤 된 화면이 5초 후 자동으로 꺼지는데... 잠시 후 꺼진
화면이 번쩍 밝아지면서 진짜 솜뭉치가 쓱 올라온다. 이어 두리번거리듯
좌우로 돌아가는 솜뭉치. 솜뭉치 사이로 까만 눈이 어둠 속에 반짝 빛난다.

그때 뒤척이는 재환. 그러자 급히 화면 속으로 사라지는 솜뭉치.
핸드폰 액정에 액체가 얇게 고이는 듯하다 순식간에 휘발된다.

1회 끝.

2회

#1. 누군가의 방(밤)

투명한 유리로 된 케이지. 그걸 들여다보는 침입자의 뒷모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를 세다 멈추더니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나 : 하나 없어졌어. 어떡케?(어떡해?)’

잠시 후 띠링— 오는 답.

‘메롱 : 하아. 잘 보관하라니까! 아 병신!’

‘나 : 미안해. 잘못했어...’

‘메롱 : 됐어. 어차피 교감 안 되면 죽을 거니까.’

‘나 : 교감되면?’

‘메롱 : 그럼 뭐... 재밌어지는 거지. 너부터 죽고.’

그러자 정적이 흐르는 채팅창. 이내,

‘메롱 : 풀었냐? ㅋㅋㅋ’

‘메롱 : 걱정 마. 교감자 찾기가 죽기보다 더 어려우니까.’

‘메롱 : 그래서 내가 너 받아준 거잖아. 교감자라.’

‘나 : 응... ㄱㅅㄱㅅ (이모티콘 보낸다)’

‘메롱 : 참, 수위는 잘 처리했어. 재밌던데?’

‘나 : (감사하다는 다른 이모티콘)’

‘메롱 : 내일 표정 관리나 잘해.’

‘나 : 알았어. (충성한다는 이모티콘)’

“×같은 새끼...” 나지막이 혼잣말하는 침입자. 의자에서 일어나 불을 끄고 나간다.

어둠 속에서 잠시 후 환하게 빛나는 흰 뭉치들.

타이틀. <킬링타임 스토리 2화>

#2. 학교 앞 등갯길(아침)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며 장난치며 가는 아이들 사이로, 반대로 홀로 고개를 쳐박고 손에 든 뭉치에 열중하며 가는 이유. 보면 핸드폰으로 솜뭉치를 찍었던 영상을 돌려보고 있다. 하지만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보이지 않는 솜뭉치.

이유 없어... 없어! 아 진짜 찍었는데...

소이(V.O.) 뭐가 없는데?

이유 엄마야!!

느닷없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면

소이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쳐다보고 있다.

이유 너 뭐냐?

소이 나 뭐?

이유 왜 자꾸... (뭐라 할까 고민하다) 아는 척해?

소이 (음... 대답을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그럼 안 돼?

이유 어?

이유(NAR) 안 될 건 없지.

이유 (멍하니 있다가) 돼.

소이 (그러자 아무렇지 않게) 뭐가 없다는 거야?

이유 그게... 솜뭉치.

소이 솜뭉치?

이유 왜 저번에 내가 너한테 물어봤잖아. (둘러보더니) 저 나무 위로 흰 솜뭉치 올라가는 거 못 봤냐고.

소이 (생각하는 듯하다가) 아니. 못 봤는데.

이유 (그럼 그렇지...) 그래, 됐다... (획 돌아서 걸어가면)
 소이 (쫓르륵 쫓아오며) 그래서 그게 뭔데?
 이유 나도 몰라.
 소이 그럼 왜 찾는데?
 이유 (귀찮은) 그냥. 처음 보니까.
 소이 솜뭉치라며? 그게 어떻게 움직여? 산 거야? 솜뭉치라며?

꼬치꼬치 묻는 소이를 쓱 보더니 재빨리 걸어가는 이유. 쫓아가는 소이.

#3. 학교 복도(아침)

포기한 듯 같이 걸어오는 이유와 소이.

소이 잘못 본 거 아냐?
 이유 아냐. 아파트에서 또 봤어. 그때도 찍었고.
 소이 그 영상에서도 없다면?
 이유 그니까...
 소이 (너도 참...이란 듯 보다가) 근데, 아직도 집에서 폰을 압수해?
 이유 어? 어... 그게 왜?
 소이 아니, 난 미국이 더 프리한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아님, 니가 보기보다 순진한가? (먼저 걸어가버리면)
 이유 (뭔가 당한 느낌) 재 뭐야...

#4. 학교 본관 게시판 앞(아침)

코너를 돌면 복도 저 멀리 게시판 앞에 아이들이 몰려 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웅성거리는 애들.
 이유, 호기심에 애들을 뚫고 게시판 앞으로 간다.
 전교 30위까지의 순위가 나붙은 게시판.

아래서부터 쪽 올라오면, 전교 1등이 바뀌었다!!

이유 어!

전교 1등이 김형수고 전교 2등이 양해나다.

전교 3등 본웅, 전교 4등은 구원이다.

피식 웃는 이유.

이유(NAR)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네. (주변 애들 반응을 보며)
근데 고작 전교 1등이 2등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난리 날 일인가?

그때 또 불쑥 끼어드는 소이.

소이 양해나가 2등으로 떨어진 것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냐. 10등까지의
등수가 역대급 반전이거든. (본웅을 포함한 몇 명의 아이들 이름을
짚어준다)

이유(NAR) 깜짝이야... 애 도대체 뭐지?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유에게 저번처럼 정체 모를 제스처를 취하고는
아무 일도 없단 듯 가버리는 소이.

#5. 이유의 교실(오전)

이유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고개를 처박고 있는 해나 주변으로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보인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는 이유, 그들의 말을 듣는다.

유미 그래도 2등이잖아. 다시 또 1등하면 되지.

지혜 그래, 2등이 어디냐? 난 10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좋겠는데.

경은 난 반에서 10등.

그 말에 자기들끼리 웃는 친구들. 그때 딱— 고개를 드는 해나.

해나 열 받아! 다른 애도 아니고 김형수가 일등이라니! 그 그지 새끼가…
유미 야… 애들 들어.

해나 들으라 그래. 봐봐. 나 한 달에 들어가는 학원비, 과외비만 해도 수백이야. 학원에서 스카이반 들어가려고 쓴 돈만 해도 장난 아니거든? 니들은 안 그래?

친구들 (서로 보며 고개 끄덕이면)

해나 근데 김형수 꼴랑 동네 보습학원 다니면서 전교에서 노는 것도 이상했는데 이번엔 1등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지혜 마자. 쫘 그렇긴 해.

해나 쫘이 아냐. 성적은 돈에 비례해. 니들 내가 추천한 학원으로 바뀌어서 성적 올랐어, 안 올랐어?

유미 (격하게) 올랐지!

지혜·경은 (마지못해) 오, 올랐지.

해나 거봐. 고만고만한 학원 다녀봤자, 중위권이야. 차라리 돈 더 주고 이름 있는 학원에 가야지 성적 오른다고. 근데, 급식도 공짜로 먹는 김형수가 일등? 웃기지 말라 그래.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야.

해나 일행의 대화 내용이 짜증나는 이유.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말은 안 하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듯 보인다. 그 모습에 더 어이가 없는 이유.

이유(NAR) 미국 애들도 정상은 아녘지만 한국 애들도 정상은 아닌 듯하다. 미국은 약에, 여긴 성적 때문에. 하지만 대놓고 차별하는 건 여기가 최악.

자리에서 일어나는 해나.

유미 어디 가게?

해나 교무실. 바로잡아야지.

교실을 나가는 해나와 얼른 그녀를 따라 나가는 친구들.
웅성거리는 애들 사이로,

이유 (고개 흔들며) 다들 미쳤구나... Fucking crazy. (미쳤어.)

고개를 돌리는 이유. 뒷자리에 앉은 구원이 그런 이유를 흥미롭게 쳐다본다.

#6. 학교 복도(오전)

해나가 뒷문에서 교실 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유미 뭐해 안 가고?

해나 어떤 거 같아? 먹힌 거 같지?

유미 뭐가?

해나 (답답) 내 얘기가 애들한테 먹힌 거 같냐고.

유미 어? (친구들과 눈길을 주고받더니) 어... 근데 그게 왜?

해나 여론 조성해야지. 아무리 전교 1등이었지만 나 혼자 떠든다고
그게 먹히겠어? 이렇게 떠들어줘야, 다른 애들도 움직이지.
(그러고는 획 돌아서더니) (혼잣말처럼) 내 면도 덜 떨어지고.

해나, 앞장서 가버리면 혀를 내두르는 친구들.

이유(NAR) 정말 해나의 말처럼 파장은 컸다. 애들은 동요했고 움직였다.

#7. 몽타주. 시험부정에 대한 소문 퍼지는 경위

교무실. 담임에게 따지는 해나와 친구들 모습에서.

교실. 해나의 행동을 전하며 의심을 퍼뜨리는 학생들.

학생1 시험지 유출됐다!
학생2 수위아저씨가 바뀐 게 아파서가 아니라 공범이라 짚린 거래.
학생3 이번에 성적 올린 애들 중에 범인이 있대.
이유(NAR) 아이들의 동요는 어른들의 동요로 이어졌고,

교무실. 빗발치는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으며 진땀 흘리는 선생님들 모습.

선생1 아닙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선생2 애들이 하는 말을 그냥 다 믿음 안 되지요...
선생3 저희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이유(NAR)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식당. 줄 서 있는 학생들. 무리 지어 있는 애들끼리 서로서로를 의심하며 쳐다본다.

학생4 그날 밤에 학교 근처에서 김형수 본 애가 있었는데 놀라 의심스러웠대.

학생5 김형수가 허본웅 돈 받고 시험지 훔쳤다던데?

학생6 와 대박!

그때, 본웅이 애들을 거느리고 식당에 들어선다. 귀공자 티가 뚝뚝 묻어나는 본웅. 그 옆엔 여친인 여진과 원찬, 종인, 그리고 미나가 무리를 이룬다. 그들이 등장하자 입을 다무는 아이들. 그들이 지나간 후 들어서는 형수. 아이들의 시선은 형수에게로 쫓힌다.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아무렇지 않게 배식을 받아 구석에 앉아 식사하는 형수.

학생7 김형수가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보습학원으로 전교 1등은 말이 안 되지.

학생8 저 그지 새끼.

이유(NAR) 애들의 증오는 결국 돈 없는 김형수에게로 쏟아졌다.

중요 가득한 눈빛으로 형수를 보는 아이들. 그런 시선을 견뎌내며 홀로 앉아 밥을 먹는 형수. 그런 형수와 애들을 번갈아 보는 이유.

FLASH BACK

미국 초등학교의 급식실. 9살의 이유가 미국 아이들의 놀림과 경멸하는 시선을 받으며 구석에서 밥을 먹는 모습.

식판을 들고 가던 이유, 형수가 있는 쪽으로 가서 앉으려는 듯 방향을 트는데. 갑자기 일어서는 누군가와 부딪혀 음식을 옷과 바닥에 다 쏟고 만다. 황당한 듯 보면 당사자는 바로 구원이다.

구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안.
이유 그거, 미안한 태도 맞아?
구원 ...세탁비 청구해.
이유 왓 더...
구원 (O.L.) (그냥 가버린다)

이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경멸하듯 보면
우택이 다가와 더 어쩔 줄 몰라 한다.

우택 아 저 새끼 저거... (이유에게) 괜찮아? 내 꺼 체육복이라도 빌려줄까?
이유 (여전히 구원의 뒷모습을 짚어보며) 됐어.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가는 이유.

#8. 학교 화장실(낮)

화장실 안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이유. 세면대 앞으로 가 엉망이 된 교복을 물로 씻는다.

FLASH CUT #7

이유가 형수 쪽으로 가려고 하자 급히 일어서 이유와 부딪치는 구원의 모습.

이유 분명히 일부러 그랬어. 아 씨... what a fucking psycho!

그때 다른 화장실 문이 팡 열리면서 성술이 나온다. 키가 크고 깡마른 성술.
획 쳐다보더니 조용히 옷을 닦아내는 이유. 옆에서 손을 씻던 성술.

성술 (시크한 태도로) 그거 알아?

이유 (뭐야? 라는 듯 쳐다보면)

성술 그 싸이코가 너 도와준 거.

이유 뭐?

성술 너 형수랑 같이 앉으려고 했지? 어쭙잖은 동정심으로.

이유 (어떻게 알았지? 내심 놀라면)

성술 그랬음 넌 전교생한테 찍혔어. 안 그래도 너 재수 없다고 찍혔는데.

이유 (이건 또 무슨 상황이나?)

성술 (물 잠그며) 개가 너 좋아하나 보다.

이유 왓??

피식 웃더니 그대로 자리를 뜨는 성술.

이유 (어이없어 쳐다보며) 쟤 또 뭐야?

그러다 진짜 그런가? 싶다가 고개를 세차게 젖는 이유.

#9. 교실 앞(오후)

화장실에서 나와 교복을 들고 교실로 걸어가는 이유.

마침 교실에서 나오던 여학생 한 명이 이유를 보더니 부른다.

#10. 교무실(오후)

홈페이지에 익명게시판을 들여다보는 담임.

스크롤을 내리면 게시판의 제목이 죄다 중간고사의 시험지 유출에 대해 의심하는 내용들이다. 심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면, 이유가 다가온다.

이유 선생님. 저 부르셨다고...

담임 (페이지 닫으며) 그래, 이유야. 너, 동아리 정해야지.

이유 아... 네.

담임 뭐 할래? 결정했어?

이유 ...그거 꼭 해야 돼요?

담임 왜? 하기 싫어?

이유 아니 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담임 (보더니) 이유 너...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유튜브만 하고 통 애들이랑은 말도 안 한다며? 혹시... 애들이 괴롭혀?

이유 아뇨.....

담임 그럼 왜?

이유 그계... 편해요.

담임 음... 오랫동안 미국에 있다가 와서 낯설고 다가가기 힘든 거, 선생님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노력해야지. 너 나중에 졸업하고 어른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남는 건, 지금 사귀 친구들밖에 없다?

이유 ...

담임 암튼, 동아리 활동은 다 해야 하니까 이번 주 내로 정해서 알려줘. 알았지?

이유 네...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담임 참, 이유야.

이유 네?

담임 (망설이다가) 요즘 애들 분위긴 어때?

이유 아... (우물쭈물하면)
담임 아니다. 그만 가봐.
이유 ...네.

인사하고는 교무실을 빠져나가는 이유.

#11. 이유의 교실(오후)

이유(NAR) 친구...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주변의 아이들을 눈으로 좇는다.

앞에 앉은 해나와 친구들을 보면 해나의 문제 제기로 이번 등수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며 비위를 맞추는 친구들.

#12. 과거. 백화점(오후)

백화점 한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경은과 엄마.

경은 양해나 개가 얼마나 짜증나는 지 알아? 잘난 척 오지고 사람 얼마나 개무시하는데.

경은모 아 내가 왜 몰라? 개 엄마 보면 딱 답 나오지.

경은 근데 뭘 더 친해지라고 난리야? 지금보다 더 어떻게 잘해?

경은모 그냥 눈 딱 감고 해. 해나 엄마가 그러더라, 해나가 니가 자기랑 좀 안 맞는 거 같다고, 과외 계속 같이해야 되냐고 그러더라.

경은 (감놀하며) 뭐? 진짜? 와 양해나, 진짜 소름이다. 나보곤 내가 지랑 젤 잘 맞는다고 그러더니? 땀 애들은 뭐라고 안 해? 개들도 맨날 뒤에서 같이 욕하는데?

경은모 개들은 티 안 나게 잘 하나 보지! 그니까 너도 드러워도 참아. sky만 가면 바로 손절하면 되니까.

경은 (짜증나는 듯 있다가) 근데 엄마, 손절도 알아?
경은모 야, 니들 쓰는 말 다 알아, 엄마들. 암튼 유미랑 지혜 앞에서도 속 다 내보이지 마. 그중에 누가 니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둘러보다 매장을 나가는 경은과 엄마. 잠시 후, 탈의실에서 나오는 이유.

#13. 이유의 교실(오후)

해나와 친구들을 냉소적으로 보던 이유. 고개를 돌려 다른 무리의 아이들을 본다. 안전하고 착하게 생긴 여학생들.

#14. 과거. 도로 위 버스 안(오후)

버스 안에서 에어팟을 끼고 버스 뒤쪽 자리에 앉아서 가는 이유.
앞에 나온 여학생이 바로 앞에 앉아 있다. 열심히 카톡을 하는 여학생1.
몰래 여학생1의 카톡을 등 너머로 보는 이유.

‘나 : 나 오늘 김지선 때문에 뺏 돌았잖아.’

‘친구 : 왜? 오늘 또 뭘 병신짓 했는데?’

‘나 : 내 최애는 찐단데, 지 최애만 귀엽뽀짝한 거 보여주면서 우태 넘 잘 나왔다고.’

‘친구 : ㅋㅋㅋㅋ 개 그렇게 속 뒤집어놓는 거 하루 이틀이냐?’

‘나 : 개가 트위터에서 젤 잘나가는 우태 홈마랑 트친만 아녜어도 진작에 손절했는데.’

카톡 내용을 보던 이유가 여학생의 뒷모습을 경멸하듯 보면,

#15. 현재. 이유의 교실(오후)

현재 여학생1을 보는 이유의 표정으로 바뀐다.

‘김지선’이란 명찰을 단 여학생과 웃으며 떠드는 여학생1.

그때, 교실 뒤에서 “아 씨발 졸라 웃겨!!” 하는 소리에 돌아보는 이유.

남학생들 몇 명이 뒤엉켜 놓고 있다.

#16. 과거. 학교 건물 뒤(오후)

이유가 모퉁이를 도는데 퍽— 소리가 난다. 얼른 모퉁이에 숨어 몰래 보면,

앞선 남학생들 무리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뺨을 때리고 있다.

원찬

내가 두 장이라고 그랬잖아. 장난해?

종우

미안... 근데 엄마가 이번 달 용돈 너무 많이 타갔다고 안 된다고...

원찬

이 새끼가!! 그럼 아빠한테 달라고 했어야지!

종우

그게... 아빤... 출장 가서...

그 말에 획 손을 드는 원찬. 순간 찌는 종우.

그러자 원찬이 종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원찬

내가 뺨은 거 아니잖아. 빌리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종우

그, 그렇지...

원찬

이번엔 니 사정이 그렇다니까 내가 이해해줄게. 담번엔 한 번에 착착!

잘 좀 부탁한다, 친구야~

종우

으... 응.

무서워 고개도 못 드는 종우의 모습.

#17. 이유의 교실(오후)

남학생 무리 사이에서 원찬의 눈치를 보며 하하하— 웃고 있는 중우.
그때 이유 옆자리의 남학생에게 여학생이 다가온다.

여학생3 김수찬. 너 배그 잘 하지? 수업 끝나고 나 좀 갈쳐줘.
남학생 (웃으며) 그래, 알았어~

여학생이 자리를 뜨자, 앞자리 친구와 풍만한 가슴을 그리며 히죽거린다.

이유(NAR) 친구? (푹— 비웃더니) 이곳에 더 이상의 친구는 없다.

#18. 이유의 방(밤)

편집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편집하는 이유. 파란색의 눈동자가 빛난다.
시험 날 찍은 동영상을 편집하는데, 분명히 전에 보이지 않던 솜뭉치가 보인다.

이유 어?

하지만 또다시 안 보이는 솜뭉치. 잘못 봤나 싶은 이유, 편집을 계속하는데,
이번엔 흥대를 돌아다니며 찍은 영상 중에 자신의 머리 위에서 슬쩍 모습을
드러내는 솜뭉치가 보인다. 급하게 리플레이를 해보지만 또 안 보이고.
아파트 단지에서 찍은 걸 재생하는데 또다시 보이는 솜뭉치.

이유 뭐야 진짜...

솜뭉치가 나오는 부분에서 멈추는 이유. 그 부분만 확대를 해본다.
분명히 솜뭉치다. 그때, 갑자기 모니터에서 쓱— 고개를 내미는 솜뭉치.

이유 으악!!

놀라서 의자에서 튕겨 일어나는 이유. 숨뭉치 속에서 눈이 반짝 빛난다.
방문 밖에서 다급히 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봤다가 다시 모니터를
보는데, 어느새 사라진 흰 뭉치. 화면에서도 사라졌다.

지속(O.S.) 이유야, 무슨 일이야? 이유야!! 괜찮아?

이유 (얼떨떨) 아... 네. 괜찮아요...

지속(O.S.) 문 좀 열어봐, 이유야. (쿵쿵) 문 열어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면 지속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살핀다.

지속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

이유 아 그게... (뭐라고 할까 하다가) 벌레. 바퀴벌레가 나와서.

지속 뭐? 아니 이사 올 때 업체 불러서 다 소독했는데 그새 바퀴가 나왔어?
내가 잡아줄까? (들어가려 하면)

이유 (손으로 문기둥을 잡으며) 노! it's ok. I can handle it.
(아뇨,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지속 ...그래. 그럼 뭐 필요한 건 없어? 마실 거라도...

이유 없어요.

그대로 문을 닫더니 잠가버리는 이유. 컴퓨터 앞으로 달려간다.

이유 분명히 봤어. 분명히!...

#19. 이유의 집 거실(밤)

이유의 방 앞에서 뻗뻗히 서 있는 지속.

돌아서는데 안방에서 재환이 핸드폰을 들고나온다.

재환 (핸드폰 건네며) 장모님.

지속 (한껏 미안해지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아들다) 엄마... 네? 또요?...
 그럼 그냥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역정내는 소리 들리면)
 알았어요. 그럼 오늘은 늦었으니까 널 아침 일찍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끊으면)

재환 아프시대 또? (가벼운 한숨 쉬더니) 이번엔 어디래?

지속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눈치 보며) 내일 아침 애들 상만 좀
 차려줘요. 다 해놓고 갈 테니까.

재환 응... (그대로 돌아서려는데)

지속 미안해요. 매번...

재환 아냐. 장모님이 오랫동안 못 봤잖아, 당신 하난데... 연세도 있으시고.
 (어깨를 다독이며) 잘 모시고 와.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재환의 눈치를 살피는 지속.

#20. 이유의 방(밤)

컴퓨터 앞에서 복잡한 듯 머리를 감싸 쥐는 이유.

이유 아 진짜 봤는데... (눈을 비비며) 내 눈에 이상이 있나?...
 아님, 나 미쳐가나?

FLASH BACK

방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친모의 뒷모습.
 시어머니인 미숙이 표독스럽게 소리친다.

미숙 야 이 미친년아, 누굴 망치려고 들어, 어? 아유 이 망할 년... 아니
 어디서 이런 게 굴러들어와선... (두 손을 깎지 끼며) 오 주여... 부디
 우리 아들, 재환이를 이 사악한 사탄에게서 구해주옵시고 우리 가문과
 집안에...

문 뒤에서 그 모습을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어린 이유의 모습에서.

현재.

급속하게 표정이 굳는 이유. 이내 컴퓨터 화면을 끄더니 침대에 풀썩 눕는다.

#22. 이유의 방(밤)

침대에 누워서 포털 앱에서 ‘흰색 솜뭉치’를 검색해보는 이유. 별게 없다.

다시 ‘괴생명체’를 검색하자, 쪽 뜨는 외계인 관련 블로그. 이번엔 ‘실제 크리처’를 검색하자, 쪽 뜨는 여러 블로그 중 ‘크리처 덕후의 괴물이야기’가 이유의 시선을 끈다.

눌러보면, 역겹게 생긴 크리처 그림이 바로 뜨는 블로그.

블로그엔 크리처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쓰여 있고 그 밑으로 세계 각국의 신화나 영화들에 나온 크리처들이 연달아 쪽— 나온다. 하나씩 눌러서 보는 이유. 그러다 솜뭉치랑 비슷하게 생긴 그림을 본다. 하지만 자신이 본 것과는 다르게 생긴 괴물. 이유는 그 밑에 코멘트를 단다.

‘혹시 실존하는 괴물도 있나요? 실제로 본 적도 있는지 궁금해요.’

다시 블로그 글들을 훑어보는 이유.

CUT TO

핸드폰이 이유의 얼굴 옆으로 떨어진다. 까무룩 잠이 든 이유.

잠시 후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뜬다.

‘네스호의 괴물을 찍은 사진은 조작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크리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 본 적은 없지만.’

#22. 학원 자습실(밤)

독서실처럼 조성된 자습실 안.

조용한 가운데 누군가 이어폰을 끼고 아이폰으로 인강을 듣고 있다.

그때 화면 아래쪽으로 알림이 뜬다.

‘noreason: 혹시 실존하는 괴물도 있나요? 실제로 본 적도 있는지 궁금해요.’

인강을 멈추고는 블로그에 접속하는 누군가. 보면, 이유가 보고 있던 블로그다.

머리를 긁적이더니 답글을 달아준다.

‘...실제로 존재하는 크리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입가에 씩— 미소가 떠오르는데, 어깨에 척 걸쳐지는 손.

보면, 우택이다.

우택 그만 집에 가자, 구원아.

그제야 보이는 구원. 우택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23. 이유의 방(아침)

정신없이 자는 이유의 모습 위로 “유, wake up!” 소리가 들린다.

부스스 눈을 뜨면 이건의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 보인다.

이유 (벌떡 일어나며) 야 뭐야!! 나가!!

큭... 푸하하하 자지리지게 웃는 이건.

보면 이유의 얼굴에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냈다.

이유 너 뭐했어! 이걸, 너 진짜 죽을래!!

#24. 이유의 집 화장실(아침)

씩씩거리며 힘겹게 매직을 지우는 이유의 모습.
눈썹 사이를 연결한 선이 죽어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유 아 진짜... 유이건!!!!

#25. 이유의 집 거실(아침)

이건이 앉아서 먹고 있으면 반찬들을 식탁으로 옮기는 재환.
이유, 식탁에 앉는데 눈썹 사이의 선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다.
그걸 보고 킁킁 웃는 이걸. 식탁 밑으로 다리를 짝- 치는 이유.
이건도 같이 다리를 치는데 이유가 썩 피하자 다리가 짧아서 닿지 않는다.
바웃는 이유, 어떻게든 다리를 치려 안간힘 쓰는 이걸.
재환이 식탁에 앉아서도 계속되던 둘만의 전쟁은 재환의 한마디에 끝이 난다.

재환 오늘은 이유가 건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

이유 (발질을 멈추더니) 내가 왜!! 아빠가 가!

재환 아빠 바로 회사 가야 돼. 지금도 늦었어.

이유 아니 아줌... (이건 보더니) 아니 거기 할머니는 왜 그렇게 맨날 아프대?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자기가 무슨 종합병원인 줄 알아.

재환 (쓰읍) 유이유!! (무섭게 보면)

이유 ...마지막이야! 나도 들렀다 가면 지각이거든?!

이유, 화풀이로 다시 이건의 발을 치는데 속셈을 눈치챈 건이가 다리를 숨기는 바람에 그만 식탁 다리를 치는 이유. “아!” 재환이 보면 앙- 다문 입술로 억지로 웃으며 다리를 주무른다. 웃음을 참는 이걸.

#26. 초등학교 앞(아침)

서로서로 몸을 밀치며 가는 이유와 이건 남매.

한 번을 지지 않는 이진이 알미워 이유가 동생의 뒤통수를 후려친다.

열 받은 이건 머리로 들이받으려는데 이유가 이건의 어깨를 팔로 밀고 버티니 머리가 닿지 않는다.

이유 (약 올리며) You're no match for me. So go get some more milk.
(넌 내 상대가 안 된다고. 가서 젖어나 더 먹고 와.)

약이 바짝 오른 이건. 갑자기 이유의 뒤쪽을 보더니 “엄마!” 소리친다.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는 이유. 이때다 싶은 이건, 힘껏 이유의 배를 머리로 들이받는다. 그 바람에 흘러당 넘어지는 이유. 냅다 도망치는 이건.

이건 (도망치며) what a stupid!!! 메~~~롱.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유. 일어나서 옷을 탁탁 털더니,

이유 유이건! 넌 잡히면 죽었어!!

뭘 자세를 잡더니 그대로 내달리는 이유. 속도가 장난 아니다.
그걸 보는 이건, 자신의 속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고는 급하게 손을 뺀다.

이건 Stop!!! If you come any closer from there, I'll tell mom and dad all your secrets!

(멈춰! 거기서 더 오면 엄마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누나 비밀!)

이유 (멈추며) 비밀? 무슨 비밀?

이건 Don't pretend you don't know. I saw everything in your room.
(모르는 척하긴. 누나 방에 있는 거 다 봤어.)

이유 뭐?

뭐냐고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주지롱~” 하면서
학교로 획 뛰어 들어가버리는 이견.

이유 (통 모르겠는) 내 방에 있는 거?...

#27. 이유의 방(아침)

텅 빈 방에서 컴퓨터의 전원이 들어온다. 밝아지는 모니터. 그리고 잠시 후
솜뭉치가 모니터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화면 안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던
솜뭉치가 급기야 모니터에서 빠져나온다. 그러곤 방 안을 바닥, 천장, 벽 할 거
없이 다 돌아다닌다.

그러다 방 안에 걸린 가족사진 위로 올라가는 솜뭉치.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살피는 듯 보이더니 이유의 사진 앞에서 뱅뱅 돌기 시작한다. 점점 빠르게
올라가는 속도. 도는 솜뭉치는 마치 바람을 일으키는 듯 보이고 이윽고, 사진
속 이유의 눈이 스카이블루로 영롱하게 빛난다.

#28. 교장실 앞(아침)

웅성웅성 모여 있는 아이들. 애들에 막혀 이유도 그냥 뭘 일인가 지켜보는데...
문이 열리더니 부티 나는 중년의 여자가 나온다. 해나 모다.
교장과 교감, 학주가 해나 모에게 연신 허리를 숙인다.

교장 걱정 마세요. 학교의 명예가 걸린 일 아닙니까?
해나 모 그럼, 선생님들만 믿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교감 들어가세요, 어머니님.

고개를 까딱 숙이고 학교 복도를 걸어 나가는 해나 모.
학생들이 양쪽으로 갈라진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유 옆으로 또 등장하는 소이.

소이 양해나 엄마야. 언제 오나 했더니 역시나 왔네.
이유 (이젠 놀라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다가) 근데 왜 저렇게 절절매?
소이 그거야, 양해나 아빠가 국회의원이니까.

아...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
흠여지는 아이들 따라 교실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

소이 동아리는 정했어?
이유 (깜놀하며) 아니 아직... 근데 그걸 어땡...
소이 옆에서 들었지. 너 담임이랑 얘기할 때 나 영어랑 면담 중이었거든.
이유 아...
소이 할 거 없으면, 우리 동아리 들어와.
이유 (귀찮은) 뭔데?
소이 영화동아리.
이유 나 영화 안 좋아해.
소이 너 유투버잖아?
이유 그거랑 무슨 상관?
소이 유투브하면 뭐해? 방송할 거 구성 짜고, 촬영하고, 편집하지?
그게, 영화의 기본이거든.

어이없이 소이를 바라보는 이유. 그냥 무시하고 먼저 가려는데,

소이 결정적으로, 애들이 제일 멀쩡해. 그나마 우리 학교에선.
이유 (멈춰서 돌아보면)
소이 아님, 재들이랑 같이 놀든가.

고갯짓으로 교실을 가리키는 소이. 해나와 친구들을 포함 앞서 나온 같은 반 아이들이 과장되게 왓자지껄 시끄럽다. 소이, 씩- 웃더니 또 요상한 제스처를 취하더니 교실로 들어가버린다. 그런 애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29. 동아리실 앞(오후)

복도를 걸어가는 이유. 복도 끝에 있는 교실 앞에 선다.

‘영화동아리’ 명패가 달랑거린다.

잠시 서 있던 이유, 결심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서 떠들던 소리가

이유로 등장으로 조용해진다. 교실 안에는 소이를 필두로 성술,

우택과 구원, 그리고 형수가 있다.

서서 애들을 보는 이유를 똑같이 바라보고만 있는 아이들.

보라(V.O.) 여기서 뭐해? 왔음 앉아야지.

보면 보라다. 여전히 엉클어진 머리.

보라 신입회원을 환영해주자. 여긴... (파일 보며) 2학년 3반. 유이유.
(이유 보며) Everything has a reason.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지.)
자 모두, 박수.

일어서 격하게 박수치는 우택과 만족해하는 소이. 여전히 시크한 성술.

그에 못지않은 구원과 무표정한 형수. 서로서로 바라보는 아이들.

2회 끝.

작가 후기

처음으로 쓴 솜뽕 대본으로 당선되고,
오펜에 들어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은 우쭐했었다.
'나 쫘 쓰는구나?'

허나 당선작 수정 후기 하나 일필휘지로 멋들어지게 쓰지 못하고
수십 번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고는 우쭐했던 마음을 다잡아본다.
'아직 멀었어, 너.'

겸손해져야지.
그래도 내 이야기와 글에 자부심은 가져야 돼.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말아야지.

늘 제 기획안을 재미없게(^^;;) 봐주신 김지일 센터장님과 늘 제 기획안을 재밌게 봐주신
김성미 님께 무한한 애정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센터장님의 뼈아픈 지적 때문에 쉽게 나태해지는 제가 늘 긴장하며 재미를 찾으려
노력했구요, 성미 님의 재밌다는 말은 정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5기 동기들을 포함하여 모든 오펜 직원분들의 고마움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펜의 타이트한 일정 하에 새 드라마를 기획하는 과정이라,
대본 수정은 거의 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기획안을 꽤 많이 손봤습니다. (이유와 친구들이 맘에 들어 해야 할 텐데요...)
그게 저 정도니 이 글을 읽으시는 지망생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저도 계속 도전할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될 그날까지, 데헛.

진짜 마지막으로.
엄마, 그리고 가족들. 사랑해요~

남편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 임수림

임신 가능성 1퍼센트의 남자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분파 임신부의 무사 출산을 위한 전대미문 안전 임신 프로젝트!

두 명의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 앞에 선다.

서로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는 그녀들에게 왕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주라고 명한다.

한 여인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며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울부짖고,

다른 여인도 애한테 손끝 하나 대면 피바다를 만들 거라며 눈을 뒤집는다.

회심의 비책이 통하지 않자 당황한 왕은 긴급 DNA 검사를 돌리는데,

희한하게 두 여인 모두 아이의 부모로 나오는 희대의 미스터리가 발생한다면.

아이의 엄마는 누가 되어야 할까.

유전자만 물려주면 부모인가? 부모의 자격이란 뭘까?

이 드라마는 걸췌른 종횡무진 코미디와 다이내믹한 서스펜스로 극을 꾸며가지만
알맹이는 두 남녀가 뱃속 아이를 지키며 부모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진짜 부모라고 할 수 있는지 심판의 순간이 온다.

부모 자격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 공분이 커지는 요즘,

아무나 좋은 부모가 될 순 없지만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코미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10개월만.

제 잘난 맛에 살던 남자가 생면부지 여자의 출산을 장렬히 응원한다.

아니 응원석을 박차고 나와 비 오면 젖을까 불면 날아갈까 철통 경호한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임신 호르몬으로 인한 롤러코스터 뺨치는 감정기복에

예측 불가한 돌발 행동이 주특기, 심지어 임신이 후회된다며 우울감을 호소한다.

위태로운 그녀를 위해 엮어지면 코 닿을 데로 부랴부랴 이사 온 남자.

그녀의 '안전 임신 무사 출산'을 기원하며 남편도 하지 않는 각종 입덧 완화

용품들을 조달하고, 태교도 럭셔리 코스로 전격 지원, 또한 약을 못 먹는 그날 위해

민간요법까지 주경야독한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해본 그가 체면 구기고 비굴해져도 본다.

시원하게 직진만 하던 탄탄대로 인생이 처음으로 재밌게 꼬여간다.

[스릴러] 죽은 척보다 ‘살아 있는 척’이 더 피뎌 싸다.

누군가 죽은 척 위장하거나 죽음을 은폐, 사망의 진실을 파헤치는 스토리가 아니다.

죽은 사람이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야기로, 임신 초기의 여자가 적어도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남편의 행방을 의심해선 안 된다.

삭제 전문 기업을 운영하는 남자는 이제껏 고객의 온라인 속 흔적을 삭제만 해왔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 능력으로 망자의 발자취와 생명을 복원하려 한다.

그가 고군분투 끝에 한숨을 돌릴 때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와 사건들에 휘말리며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식은땀을 적실 것이다.

[휴먼] 좋은 것만 보았다. 좋은 것만 들었다. 좋은 사람이 되었다.

남자는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와 양육권 분쟁을 하려고 증거를 수집한다.

운동선수 출신인 여자는 선수시절만 해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며 멘탈을 부여잡곤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노산에 임신성 고혈압까지 생긴 지금, 지쳐가는 육체에 정신마저 위태로워졌다.

그런 두 사람이 뱃속 생명과 교감하며 울고 웃는다.

서로에게 기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처음 느껴본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남자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보다 아이를 위하고 여자는 전에 없던

초인적 능력이 생겨난다. 개성 강한 남녀가 회를 거듭할수록 어울리지 않게(?)

성장하는 모습이 어딘지 흐뭇하고 자꾸 보고 싶게 만든다.

윤재영(34세, 남) S대 정자왕 출신, ‘디지털 클리너’ 대표

“김 비서! 당장 실내온도 낮춰! 복명복창한다. 열은 정자의 가장 큰 적이다!”
그렇게 열일곱 번째 비서마저 사표를 냈다. 꼭 고자가 되라는 저주와 함께...

대학 시절부터 이름 대신 ‘정자왕’으로 통했던 재영.

건강한 정자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자 건강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해서다.

그 귀하다는 4대 독자로 태어나 세 살 무렵 차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조부모의 품에서 금이야 옥이야 양껏 사랑받으며 자랐다.

성인이 된 직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치 사명을 다한 듯 차례로 돌아가셨는데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다산하라’를 유언으로 남기셨다.

부모 형제 없이 자란 공허함과 은연중 세뇌된 ‘다산’의 책임,

그리고 4대 독자로서 대를 잇고자 하는 동물적 본능이 전부 뒤섞여

마침내 후세에 집착하는 정자왕이란 신종 캐릭터가 탄생했다.

올해 들어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고 맞선을 다니다만
초면에 무람없이 유전자 호구조사부터 하다가 백발백중 퇴짜 맞는다.

오냐오냐 키운 조부모 탓인지, 스스로 잘난 걸 알아선지 재수 밥맛인 정자왕.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S대 의대에 입학했고 재미로 출전한 해킹대회에서

대학부 우승을 하며 컴퓨터의 속을 들여다보는 데도 흥미를 가졌다. 졸업 후
인턴 생활 중 아무래도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온라인 속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좀 더 마음이 쓰여 의사긴 의산데 디지털 장‘의사’가 됐다.

알고 보면 재수 없는 놈이라기보단 썩 괜찮은 놈.

그저 눈치와 공감능력의 결여로 빈번히 필터링 없이 언어가 출력돼 싸가지란
오해를 받는다. 현재 대중화된 삭제 전문 업체 ‘디지털 클리너’의 대표로 젊은
기업인 상과 올해의 브랜드 상 등을 휩쓸며 폼 나는 라이프를 즐기는 중이다.
맞선에서 광속으로 까이는 것만 빼고...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가 요즘은 미리미리 정자를 냉동보관 하는 것이

대세라며 권유를 하자 냅다 얼리러 간다. 친구의 음흉한 속셈도 모른 채. 그제
인생의 마지막 정자가 될 줄도 모른 채.

유영주(38세, 여) 질풍노도의 12주 차 임신부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최고의 태교라면
이 몸은 바이크를 타며 기분을 내겠다.’

청순한 외모에 탄탄한 반전 몸매 플러스 거칠고 화끈한 성격까지. 미국 하이틴 드라마에서 볼 법한 프로필로 어디서나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젊은 시절 좀 화려해봤다. 한여름에 빛보다 빠른 모기를 배드민턴 라켓으로 스매싱해서 잡는 그녀는 배드민턴 선수 출신. 20대 중반에 2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동호인 클럽에서 코치를 하며 시원찮은 벌이를 하다 서른 무렵 지독한 권태감에 빠졌다. 그때 운명처럼 신규 회원으로 나타난 지금의 남편. 능력까지 겸비한 그와 눈이 맞아 초고속 혼인을 하고 현모양처로 전직했는데, 천천히 갖기로 했던 아이는 끝끝내 생기지 않았다. 반복되는 시험관 실패로 계룡산 보살님께 부적도 써보고 다산한 여자의 팬티도 시가 열 배로 사봤지만 결국 몸과 마음만 축났다. 남편과 둘이서 잘 살아보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잘 사는 건가? 처녀 때 죽고 못 살던 친구들은 요즘 또래 애 엄마들과 어울리며 날 잊었다. 외롭다.

남편은 가정에 마음이 뜬 것 같다. 아이가 없어서일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로 결심한 영주, 3년 만에 지겨운 시험관 시술을 재시도한다. 그런데 진정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인지 그토록 소식이 없던 아이가 기적같이 한 번에 찾아왔다. 엄마 뱃속에 찰떡같이 붙어 있으라고 태명도 찰떡이로 작명. 남편과도 찰떡처럼 말랑말랑 끈적해질 줄 알았는데… 그는 아니었나 보다. 임신만 하면 활짝 피어날 것 같던 인생이 달라진 게 없다. 몸만 2인분이 됐을 뿐.

임신 12주 차가 된 지금은 이상하게 몸속 아이보다 스스로를 감당하기 버거워졌다. 잊고 있던 그 시절의 터프 본능이 시동이 걸렸는지 얼마 전엔 운전하다 시비 거는 남자에게 분노가 치밀어 충동적으로 서울에서 문경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이 모든 건 임신 호르몬 탓. 그러니 합법적인 질풍노도를 말리지 마라.
그렇다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내 경고를 귓등으로 들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옆집에 이사 온 이 남자, 자꾸만 나의 호르몬 방출을 방해한다.

또 우리 찰떡이에 대한 관심은 가히 부담스러울 정도. 지 새끼도 아니면서 왜 이래? 그런데... 친정엄마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혹시... 날 좋아하나?

변기웅(34세, 남) 비뇨기과 의사

재영과 의대 동기로 공기보다 존재감 없던 친구. 알고 보면 아버지에게 대형 비뇨의학과 의원을 물려받은 의료계 금수저. 통통한 체형에 안경 너머로 보이는 작은 눈과 웅졸한 입이 음흉한 느낌을 준다. 관상은 과학이 맞는지 병원에서 암암리에 불법 사업을 하는 중인데. 그의 병원은 정자 냉동보관으로 인지도가 있어 다른 곳에 비해 확률적으로 A급 조건을 가진 남성들의 샘플이 많다. 그리고 이 파렴치한은 그것들을 동의도 없이 정자 기증이 필요한 부부에게 고가에 빼돌리고 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공받는 정자가 우월한 스펙을 가진 남성의 것으로 검증이 된 데다 상세 조건들을 확인하며 선택할 수 있기 때문. 물론 이름과 얼굴처럼 개인을 식별할 정보는 주지 않는다.

윤찬범(42세, 남) 정자도 나쁜 남자. 입시학원 원탑스터디 대표

영주의 남편이다. 회사의 소속 강사가 스타강사로 급부상하며 근 2년 사이에 그의 사업체도 대형 학원 반열에 오르는 초고속 성장을 했다. 결혼 초, 불임 판정을 받고선 와이프에게 숨겼다. 이후 나 홀로 조용히 2세에 대한 미련을 비웠으나 지인이 들려주는 비뇨기과의 정보에 솔깃해졌다. 마침 영주도 아이를 원하는 눈치. 거금 2천만 원을 주고 아내 몰래 자신과 모든 유전 조건이 비슷한 남자의 정자를 샀다. 심지어 파평 윤씨로 본관도 맞췄다. 따지고 보면 남의 자식인데 정이 안 같까 봐 내심 두려웠지만 막상 임신 소식을 들으니 내 자식처럼 잘 키워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내연관계의 여자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이 여자가 회사의 개국공신 스타강사라 함부로 헤어질 수가 없다. 당분간 골치 좀 아프겠다.

서도연(36세, 여) 원탑스터디 소속 영어 1타 강사

6년 전 출산과 동시에 남편과 사별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악착같이 살았다. 피 땀 눈물로 스타강사란 타이틀을 얻었고 그 와중에 부지런히 사랑도 했다. 세상의 눈엔 불륜이겠지만 우린 분명 로맨스. 찬범이 이혼하고 오겠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와이프가 임신한 걸 알았다. 그것도 계획 임신이라니. 그렇게 이성을 잃고 폭주하다 의도치 않게 찬범을 죽인다. 힘들게 올라온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기필코 살인을 들켜지 않으리라.

고대수(45세, 남) 흥신소 사장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옷을 벗었다. 아들이 아파서 깨끗한 돈 더러운 돈 가릴 처지가 아니다. 찬범의 의뢰로 재영을 조사하던 중 재영에게서 한몫 챙길 건덕지를 발견한다.

이민정(34세, 여) 정신과 의사, 영주의 주치의

재영의 의대 동기이자 그와 2년 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진 사이. 무정자증이 되었다는 재영의 고백에 연민이 들면서 한편으론 반갑다.

줄거리

젊고 '잘난' 정자를 냉동보관한 직후 비운의 사고로 임신이 어려워진 재영.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늦은 나이에 시험관 시술을 재시도한 영주.

영주의 남편과 재영은 같은 비뇨기과를 이용하였고

그곳에서 모종의 이유로 둘의 정자가 뒤바뀐다.

그 황당한 운명을 재영은 알게 되지만 영주는 모른다.

격동의 임신 초기를 보내는 영주가 제발 출산만 무사히 하길 바라는 그는

팔자에도 없던 VIP급 경호와 간호를 시작하는데, 그녀의 남편이 살해된다.

그녀가 안다면 자신의 마지막 핏줄일지도 모를 뱃속 아이가 위험해지는 상황.

고로, 남편의 죽음을 알려선 안 된다!

1화: 비뇨기과의 비밀을 알리지 마라

정자와 재영은 사고로 임신 확률 1퍼센트란 충격적인 진단을 받는다.

설상가상으로 미리 동결 보관한 정자는 의사의 불법 사업에 연계돼

어떤 여자가 수증했다는데...

재영, 자신의 마지막 핏줄을 임신한 그 여자(영주)를 찾기로 한다.

2회: 내 이름을 알리지 마라

재영은 영주를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 아예 그녀의 앞집으로 이사한다. 서서히 정체를 밝히고 양육권 분쟁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영주가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유산의 위기를 겪자 작전상 후퇴, 그저 출산만 무사히 하길 바라며 물심양면으로 안전 임신을 서포트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찬범은 외간남자의 과한 태교 공세에 의문을 갖던 중 재영이 자신이 구매한 정자의 주인임을 알게 된다.

3회: 내연녀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영주는 재영 덕분에 태교 일기를 쓰며 마음의 안정도 찾고 뱃속 아이와 교감하는 방법도 알아간다. 이렇듯 재영의 안전 임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그가 찬범의 외도를 목격하며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는다. 영주가 외도를 눈치챘다간 뱃속 아이가 위험해질까 봐 직접 그들의 불륜을 매듭지으려 했던 재영. 하지만 내연녀 도연은 재영이 보낸 익명의 메시지로 찬범에게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고 배신감에 화를 퍼붓다 그만 의도치 않게 찬범을 죽인다!

4회: 등산로의 스산함을 알리지 마라

찬범을 산에 암매장한 도연. 재영은 그 모습을 훑쳐보고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의사의 조언대로 영주가 20주 안정기에 들기까지 두 달만 죽음을 은폐하기로 한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그를 찾아온 손님은 다름 아닌 도연인데...! 그녀는 누군가의 온라인 속 흔적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한지 묻는다.

5회: 남편의 행방을 알리지 마라

재영은 가진 기술을 동원해 실제 찬범과 똑같은 영상과 보이스를 구현한다. 그리고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는 영주에게 찬범을 가장해 영상통화를 걸고 한시름을 놓는다. 하지만 2차 기형아 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왔다는 그녀의 말에 모든 게 무너진다. 당장 양수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향하는 두 사람. 그런데 영주가 병원 앞에서 발걸음을 돌린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도 똑같이 키우기로 작정했으니 검사 결과가 어떻든 이제 상관없다며... 조수석에서 잠든 영주를 보는 재영은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6회: 질투하는 마음을 알리지 마라

찬범의 죽음을 아는 이가 한 명 더 있었다. 찬범이 재영에게 붙인 흥신소 직원 대수다. 대수는 재영을 찾아가 거액을 요구하고... 그를 피해 태교여행이란 명목으로 민정(옛 연인이자 영주의 주치의)과 영주를 데리고 바닷가로 떠난 재영. 그곳에서 재영은 자신을 짓누르고 압박하는 이 모든 상황에 지쳐 민정의 품에 안겨 운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게 된 영주는 복잡한 질투심이 솟아 혼란스럽다. 그래서 재영에게 그만 보자는 통보를 한다.

7회: 태동의 기쁨을 알리지 마라

배몽침이 심해 입원한 영주는 한달음에 달려온 재영을 보며 깨닫는다. 그를 남자가 아닌 친정엄마처럼 의지했던 것을. 서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의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영주의 배에서 툭툭 치는 태동이 느껴진다. 첫 태동에 감개무량한 영주와 재영. 재영은 눈물까지 흘리는데, 영주는 자신도 안 흘리는 눈물을 보이는 재영이 좀 의아하다.

8회: 사체의 신원을 알리지 마라

영주는 남편의 행방에 불길함을 감지한다. 한편 찬범이 암매장된 산에선 비염을 가진 부부가 시체가 묻힌 바위를 끌어안고 있다. 한약재 냄새가 난다나? 안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며 바위에서 무슨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한다. 그렇게 등산로에서 발견된 신원불상의 시신. 수사망이 좁혀올까 불안한 도연은 자신을 찾아와 협박하는 대수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원탑스터디 강서점 공사현장으로 데려간다. 그를 묻으려고 바닥의 시멘트를 깨부수는 중 깨어난 대수. 나 말고도 당신의 살인을 아는 사람이 있다며 재영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9회: 부모의 초능력을 말리지 마라

강서점 공사현장에서 도연과 대치하는 영주와 재영. 영주는 결국 남편의 불륜과 죽음을 알게 된다. 그동안 남편이 살아 있는 척 자신을 속인 재영에게도 배신감이 사무쳐 그대로 실신하는 영주... 하지만 결전의 상황에서 아이에게 아빠를 죽인 범인은 잡아주겠다며, 재영도 뛰어들지 못한 위험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 증거를 지키고, 도연도 살려내 짓값을 치르게 만든다.

10회: 유전자의 진실을 알리지 마라

아이의 양육자는 영주가 마땅하다 느낀 재영은 양육권 소송 준비를 그만둔다.

또 비뇨기과 의사 기웅의 불법 사업이 덜미 잡힐 위기가 오자 서버를 해킹해 찬범의 기록만 삭제한다. 그리고 조용히 영주의 곁을 떠나는데... 얼마 뒤 영주는 아이를 데리고 그를 찾아온다. 뱃속에 있을 때 같이 키웠는데 가끔씩은 봐야 하지 않겠냐며...

남편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임수림

1회

#1. 원탑스튜디오 강서점 공사현장 일각(밤)

(4회 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서서히 피어난다.
철제 구조물과 건축 자재, 포클레인과 굴삭기를 지나 소리의 진원지를 따라가면
재영(34, 남)이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서 있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머리칼과 잔뜩 겁에 질려 혼비백산이 된 얼굴.
혈떡이는 신음을 애써 고르며 불안한 눈으로 내려다보는 트렁크 안에
한 남자(찬범이다)의 시신이 구겨 놓여져 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숨이 끊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뒤통수에서 목덜미를 따라 검붉은 피가 흐르는
그때.
왕— 왕— 시체에서 유독 크게 울려 퍼지는 핸드폰 진동음.
황망히 시체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핸드폰을 찾는 재영.
이내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패닉이 되어버린 모습에서...

#2. 호텔 커피숍(오전)

자막 '4개월 전'

차분한 분위기의 커피숍.
창가 테이블에 남녀가 마주 앉았다.
부자집 자제 룩의 맞선 녀(30대 초), 어울리지 않게 우아한 느낌을 어필하며
커피 한 모금 훌쩍 마시고 맞은편 상대를 향해 수줍은 미소 머금는다.
보면 맹물 한잔 두고 앉은 재영이다.

맞선 녀 커피는 주문 안 하세요?

재영 (부드러운 투) 예. 커피 안 마십니다.

맞선 녀 드셔보세요. 여기 바리스타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 챔피언하신 분이래요.

재영 (친절하게 조곤조곤 설명) 괜찮습니다. 카페인이 정자 수를 줄이고 DNA도 손상시켜서요. 그래서 모닝커피 대신 비서가 타주는 모닝 흑마늘 엑기스 마십니다.

맞선 녀 (웃고) 재밌으시네요. 이렇게 유머러스한 분이실 줄은 몰랐어요. (살짝 아쉬운 눈치로) 저희 부모님은 재영 씨가 조실부모한 것 때문에 아주 성에 차진 않으신 것 같지만... 개의치 마세요. 제 고집은 못 이기시니까.

재영 아직도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신가 봅니다.

맞선 녀 (뒤지 싶지만 헤हे 웃으며) 네... 옛날 분들이니까요.

재영 (가르치듯) 결혼은 유전자와 유전자의 만남이죠. 비슷한 유전자의 결합이 불협화음도 줄이고 태어날 자녀의 외모, 지능, 성격 삼박자 스펙도 DNA 조합만큼 과학적인 결과가 없으니까요.

맞선 녀 (조금 이상하다. 일그러진 웃음으로) 뭐...그죠...

재영 참, 제가 조실부모하고도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케이스라 그동안 선본 다른 남성분들처럼 돈이나 시간 평평 못 쓰는 타입입니다. 백 원 단위까지 가성비 따져요. 그래서 말인데 긴지 아닌지 쓸데없이 말 돌리지 말고 까놓고 호구조사 하죠. 가성비 있게.

맞선 녀 (당혹스럽지만 얼결에) 그래요... 온라인 기록 지워주는 회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수입이...

재영 (손목시계 보고는 O.L.) 저부터 여쭙보죠.

맞선 녀 그러세요...

재영 혹시 지능 발달 정도를 검사해보신 적 있나요?

맞선 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예? 아이큐 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영 네.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추셨는지 정확한 지표가 필요해서요. 프로필 보니까 매사추 퍼시픽 유니버시티 나오셨던데, 발음 굴린다고 명문대 아니잖아요. (비꼬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맞추고 싶은) 돈 주면

졸업장 주는 곳 맞죠?

맞선 녀 (확 불쾌하다) 입학만 돈 주고 했거든요!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나온 거 맞아요?

재영 (해맑게) 아뇨! 몰라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가족들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세요? 뉴스 보니 아버님 가발 쓰신 것 같은데 탈모 내력 있나요? 그럼 좀 곤란한데... 다른 유전 병력은요? 아, 치열은 교정한 건가요? (더 하려는데)

맞선 녀 (폭발) 야! (가방 챙겨 일어나며) 네 기사마다 악플 달 거야. 그것도 어디 잘 지워봐! (팽 가면)

재영 (어리둥절해서 혼잣말) 어디서 화난 거야?

#3. ‘디지털 클리너’ 사옥 외경(오전)

15층 높이의 감각적 디자인의 빌딩.

#4. 재영의 회사/대표실 앞 복도(오전)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재영이 내리면
대기하던 비서(20대 후, 남)가 따라붙어 업무보고 한다.

비서 로일 식품에서 평판 관리 2년 연장 요청하셨고요, <그것을 알아야겠다>에서 딥페이크 영상 관련해서 다음 주 중에 자문 인터뷰 가능하시냐고... (하는데)

재영 (갑자기 멈춰서) 잠깐. 누가 히터 틀었지?

비서 (바짝 긴장) 환절기라 아침에 쌀쌀하실까 봐 미리 온도 높여놨습니다.

재영 김 비서 나한테 양심 있어? 내 2세 망치려고 단계적으로 계획 중이지?

비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재영 정자는 열에 치명적이라고 첫날 얘기했을 텐데?

비서 ... (그랬나?) 죄송합니다!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벌써 열세 번째 경고야.

유유히 대표실로 들어가는 재영.

#5. 재영의 회사/대표 집무실(오전)

결재 파일 꼼꼼히 읽고 사인하는 재영.

똑똑 노크 소리에 “예” 하면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머그컵과 잡지 한 권 들고 온다.

재영의 옆으로 흑마늘 엑기스가 담긴 컵과 잡지를 반듯하게 올려두며.

비서 오늘 출판됐습니다. (좀 전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입 발린 말)
이렇게 잘 나오시면 모델 생태계 교란 아납니까?

INSERT

잡지 표지.

세련된 슈트 빼입고 한껏 품 잡고 있는 재영이다.

그 밑으로 ‘올해의 젊은 기업인 상 수상’

‘디지털 클리너 대표 윤재영, 그를 해킹하다!’ 같은 헤드라인.

흡족한 얼굴로 잡지 펼쳐보는 재영.

재영 (옆에 놓인 흑마늘 엑기스도 여유롭게 한 모금 드는데, 화들짝 놀라)
왜 이렇게 달아! 설탕 넣었어?

비서 (사색) 예... 박 상무님이 쿠바에서 사온 고급 슈가라고... 마늘 98프로
농축액인데 쓰실까 봐... (컵 치우며) 다시 타오겠습니다!

재영 아직 입사 3주 차라 자꾸 망각하나 본데 매뉴얼 3조 2항이 뭐지?

비서 (진땀) 1항은 아는데...

재영 복명복창한다. 지방은!

비서 지방은!

재영 정자의 가장 큰 적이다!
비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으면서) 정자의 가장 큰 적이다!

그때 노크 소리 들리고 미모의 여직원 들어와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재영 (잠깐 기다리란 손짓하고 비서에게) 다시!
비서 (여비서 힐끔 보고, 굴욕적이다) 지방은...! 정자의 가장 큰 적이다!
재영 오케이. (일어나 옷걸이에 걸린 정장 재킷 걸치며) 늦겠다, 차 대기시켜.
비서 예! (나가면)
재영 (여직원에게) 들이라 해.

이내 인부 두 명이 포장 부직포에 싸인 기다란 무언가를 힘겹게 들고 온다.
인부들, 짐무실 한쪽에 길고 높은 조각품을 세워두고 포장 부직포를 뜯으면,
반짝반짝한 금으로 도색된 이중나선구조의 DNA 모형이 드러난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쪽 뽀은 모형을 마치 자신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듯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재영.

#6. 도로+차 안(낮)

도로 위를 달리는 재영의 차.
운전하는 비서와 뒷자리의 재영.

재영 (웬일로 나긋하게)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출근한다고 힘들지?
비서 괜찮습니다. 이쪽 일이 그런 거 알고 왔습니다.
재영 그래. 인터넷이 주말이라고 쉬는 게 아니니까. 내일은 점심쯤 출근해.
비서 (화색, 룸미러로 재영 힐끔 보고) 정말요? 안 그래도 여자친구 생일이라...
재영 아니 통영 좀 다녀오라고. 새벽에 통영 가서 굴 경매해 와. 굴이 남자한테 참 좋은 거 알지? 새벽 일찍 다녀오면 아마 점심쯤엔 회사

도착할 거야.

그 순간... 비서, 핸들 확 틀어 갓길로 차를 거칠게 세운다.

재영 (휘청하며 본능적으로 양손으로 국부 부위를 보호하고)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흥분해서) 네 뒤에 나만 탄 줄 알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탔어!

비서 야이 미친놈아!

재영 (역력히 당황) 뭐... 무슨 놈...?

비서 (울컥) 나도 비서하면서 킹메이커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게 정자 관리사지 비서나!

재영 (놀라서 말도 안 나오다가 타이르는) 토, 통영 갔다 오라는 것 때문에 그래? 추가 수당 주려고 했어! 김 비서 서운한 거 알겠으니까 (손목시계 보고) 일단 결혼식 다녀와서 얘기하자고. (손짓하며) 넌 비서고 난 사장이야. '선' 인지 감수성 들어봤지?

비서 사장님이야말로 선 넘고 물 건넸죠! 전 여기서 사퇴합니다.
(내려서 문 황 달는다)

재영, 따라 내리며 "야! 김 비서!" 하는데

비서, 마침 지나가는 택시 잡고.

비서 아, 그동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2000년대 BC카드 부자 되세요 CF처럼) 사장님! 고~자 되세요! 꼭이요! (하고 황급히 택시에 탄다)

재영 (충격) 고... 고자?! (쫓아가며) 그거 모욕죄에 성희롱이야! 알아? (출발한 택시 뒤공무니에 대고) 기다려! 명예훼손도 추가할 거야! 법무팀이 가만히 있지 않아!

어이가 없는 재영. 분노로 씩씩거린다.

#7. 서울대학교 웨딩홀 외경(낮)

#8. 예식장/주차장(낮)

막 시동이 꺼진 차에서 재영이 기가 찬 얼굴로 내린다.

재영 (분노로 궁시령) 어디 윤씨 집안 4대 독자 대를 끊으려고! 누가 고자가 돼 누가! 누가!

민정 (그 말에 대답하듯) 윤재영.

재영 (? 돌아보며) 나...?

옆자리 주차된 차 옆에서 민정(34세, 여)이 다가온다.
얼굴이 굳어버린 재영인데.

민정 2년 만이지?

재영 (당황스러우면서 불편) 어... 너도 왔구나.

두 사람 사이 어색한 기류 흐른다.

시간 경과.

예식장 건물로 나란히 걸어가며.

민정 장의사 한다고 인턴 그만둘 땐 무슨 생각인가 싶었는데,

재영 (말 끊고) 장의사 아니고 디지털 장의사.

민정 그래. 젊은 기업인 상에 올해 브랜드 상에... 잘나가더라.
의사를 왜 때려치우냐고 뜯어말린 게 민망할 정도로.

재영 고맙다. 너도 병원 개업했다던데 축하해.

민정 응. 한번 와.

재영 (인사치레로) 근처 갈 일 있음 들리게.

민정 그런 거 말고. 상담 받으러 오라구.

재영 (의아) 정신과 상담을? (멈춰서) 내가 왜?
민정 민용 선배가 그러는데 너 요즘은 맞선 가서도 정자 타령한다며. 그거 병이야. 나만큼 너에 대해 잘 아는 의사 없으니까, 이 정도면 명의니까 치료받아보라구. (건조한 미소 짓고 앞질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그 뒷모습을 보는 재영, 씩씩함이 스친다.

#9. 예식장/본식 식당 앞(낮)

재영, 축의금 내고 돌아서는데,
저만치 모여 있던 네다섯 명의 남자들, 재영에게 손들어 보이며 “어이! 정자왕!” 부른다. 재영, 정자왕 소리에 놀라 주변 의식하며 다가가고.

재영 (소리 낮춰, 친근한 투) 미쳤나? 나 포털에 검색하면 프로필 뜨는 몸이야. (나름 무섭게 경고)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정자왕 소리 또 해봐.

동기1 (심각한 척 장난) 맞다, 이제 정자왕 아니지? 정자 대왕이라며!

재영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동기2 (동기1 가리키는) 애 사촌동생이 너네 회사 다닌대. 너 정자에 극성떠는 거 직원들한테 소문 다 났단다.

재영 (어이가 없다) 사촌 이름 대봐. 확 비서 시키게.

동기3 왜, 비서는 또 도망갔냐? 그러다 기사 나, 짹짹해라.

재영 나중에 다들 자식 낳고 보자. 니들이 짹짹한 거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러다 친구들 사이의 누군가를 보고) 근데 이분은 누구?

일동, 그들 사이에 끼어 있는 기웅(34세, 남)에게 시선 집중되고.
전부 누구지? 하는 표정.

동기1 그러게, 누구세요?

동기3 (바로 옆 기웅에게서 흠칫 떨어지며)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기웅 (머쓱한 웃음으로) 나 기웅인데... 변기웅.
 재영 (모르겠다) 기웅?
 기웅 너희랑 동긴데...
 재영 (생각하다가) 아 금변기! 입학식 날 루이비통 배낭 메고 왔던!
 동기1 (알아보고) 아! 맞네 금변기!
 기웅 금변기...?
 동기1 (재영에게 속닥) 암마 그걸 말하면 어떡해...
 재영 왜 금수저 변기웅, 금변기라고 네가 지었잖아. 정자왕보단 무난하고 뜻도 좋은데. (기웅에게) 근데 너 진짜 금수저냐?

#10. 예식장/뷔페(낮)

10인석에 남녀 동기를 섞여 앉아 식사한다. 재영과 멀찍이 민정도 꺼 있고.

동기1 (놀란, 기웅에게) 강남에 5층짜리 비뇨기과를 물려받았다고? 진짜?
 기웅 (쑥스런 미소) 응. 너희 얼마 전에 개그맨 성리박 고환암 걸렸던 거 알지?
 동기2 알지! 예능 나와서 냉동한 정자 덕분에 임신 성공했다고 했잖아.
 기웅 그때 티비 나온 병원이 우리 병원이야. (소심한 말투) 너희도 와볼래? 요즘은 미리미리 얼려두는 게 대세거든. 남자도 노산은 위험하니까.
 동기2 (재영에게) 정자왕. 넌 진작 얼렸지?
 재영 아니? 냉동보단 상온보관을 선호하는 타입이라. 생각해봐. 산 낫지 바로 먹는 거랑 해동해서 먹는 거랑 운동성이 같냐?
 동기1 누가 주방 냉동고에 보관한대? 마이너스 196도 액화질소 몰라? 어디 가서 의사 면허 있다고 하지 마. 우리까지 돌팔이 줄 안다.
 기웅 (웃다가 재영에게)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고 와.
 재영 (민정 의식하며) 됐어. 한창 젊은데 무슨...

#11. 엘리트 비뇨기과 외경(다른 날 낮)

번화가 속, 5층짜리 병원.

#12. 엘리트 비뇨기과/정액 채취실(낮)

세면대와 컴퓨터, 의자 놓인 아담한 방.

재영, 민망한 듯 컴퓨터 의자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데.

기웅 (의사 가운 입고 들어와서) 나홀 동안 금욕했지?

재영 (멋쩍게) 아니... 혹시 몰라서 일주일 했어.

기웅 (피식, 종이컵 사이즈의 플라스틱 통 주며) 여기. 두 번은 더 해야 샘플로 쓸 용량 나오는데, 다음 주랑 그다음 주도 예약해둘까?

재영 그래 고맙다.

재영의 편안해진 미소에서.

#13. 빵집 앞 골목(오전)

자막 '4개월 뒤'

축구 유니폼 입은 재영, 운동가방 걸치고 걷는데 전화벨 울린다.

재영 (받고 느긋하게) 어, 방금 주차하고 가는 길. 5분 안에 도착해.

동호회 멤버(F) (30대, 남) 스물두 명이 한 시간 넘게 너만 기다리는 중인데, 최소한 말투라도 조금만 척은 하지? 한 시간이면 전반전 하고도 남은 시간이거든?

전방의 코너에 위치한 빵집 앞으로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한다.

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영주(38세, 여)

밭목까지 내려오는 펄퍼짐한 희색 원피스를 입었고.
생기 없이 피골이 상접한 얼굴은 다소 좀비를 연상시킨다.

재영 나도 지금 내 한 시간이 무지 아까워. (빵집 앞을 지나가며) 그래도
 나심보호캡을 두고 왔는데 어떡해? 집까지 다녀와야지.

 앞만 보고 걷는 재영과 맞은편에서 우울하게 바닥만 보며 걸어오는 영주가
 한 뼘 간격을 두고 스쳐지나간다.

동호회 멤버(F) 국대도 그런 거 안 해! 빨랑 터와!

 영주의 어깨 너머 통화하며 가던 길 가는 재영의 뒷모습 보이고.
 영주, 힘없이 빵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

#14. 빵집(오전)

 갓 구운 빵을 홀에 진열하던 사장(50대, 여),
 문이 열리고 들어온 좀비 영주에 흘깃했다가.

사장 (표정관리하고 미소) 어서 오세요.

영주 (기운 없이 까딱) 안녕하셔어요.

사장 (목소리로 그제야 알아보고 반갑게) 어머!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다!
 무슨 일 있어요? 한 달 만에 살이 쪽 빠지셨어.

영주 (그런가? 손으로 얼굴 만져보며) 요즘 입맛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러네요...

사장 (걱정) 임신한 사람이 잘 먹어야지 그럼 어째! 이제 몇 주 차지?

영주 (바구니와 집게 집어 들며) 12주 차요. 웬일로 새벽부터 여기 빵이
 너무 땡겨서 눈 뜨자마자 왔어요. 제일 단 게 뭐예요?

사장 (동그란 빵 가리키며) 요게 초코 커스터드 듬뿍 들어서 달달해요.

영주 (스무 개는 족히 넘는 빵을 죄다 쓸어 담는다)

사장 (놀라서) 그걸 전부 사려고요?
영주 (덤덤히) 네. 과소비가 기본 전환에 직방이더라고요.

시간 경과.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영주.

사장 (카드와 영수증 건네며 사과 주스 하나를 같이 주는) 이걸 애기 먹으라고 내가 주는 거.

영주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사장 태명이 뭐예요?

영주 찰떡이요. 뱃속에 찰떡같이 붙어 있으라고.

사장 잘 지었네. 그렇게 된소리가 들어가야 애한테 잘 들린대요.

영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열은 미소 지어 보이는 그때!)

밖에서 들리는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

영주, 유리문 너머 밖을 보면, 어떤 흰 차가 영주의 검은 차를 박았다.

놀란 영주, 달려나가고.

#15. 빵집 앞(오전)

흰 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청년(28세, 남, 이하 싸가지).

부딪힌 오른쪽 헤드라이트 주변을 살피는데, 움푹 찌그러져 있다.

싸가지 아놔! 조조영화 놓쳤더니 조조사고야 뭐야!

영주 (달려와 자신의 차 살피는데)

싸가지 (깁죽대는 말투) 불량 주차 차주세요?

영주 (그저 놀란 채) 불량 주차는 모르겠고 불법 주차는 확실히 아닌데요?
(속상) 왜 가만히 주차된 차를 박으셨어요.

싸가지 그니까 왜 가만히 세워두셨어요 길가에! (자기 차 사고부위 가리키며)
아줌마 때문에 신차 뽑은 지 이틀 만에 박살난 거 안 보여요?

영주 (보고 눈물 후두둑 떨어진다) 흑 흑.

싸가지 움마? 이건 무슨 신종 수법이야?

영주 내가 1분만 일찍 나와서 차에 탔으면... 흑... 우리 찰떡이... 태어나기도 전에 교통사고부터 당할 뻔했잖아요! 얼른 사과해요!

싸가지 (기가 차고) 참나, 그게 내 잘못이야? 당장 수리비 내놔요. 새 차니까 보증으로 받아야겠네!

영주 무슨 소리에요, 수리비는 제가 받아야 하는데! (폰 꺼내며) 경찰 부르죠.

싸가지 (짜증 만땅으로) 아 됐어요! 경찰은 무슨. 그래, 쌍방 과실도 있고, 뭐 주말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각자 처리합시다.

영주 젊은 분이라 지갑 사정 생각해서 수리비는 안 받아도 되는데요, 사고 낸 건 사과하세요. 제가 탔었을 수도 있잖아요.

싸가지 미안해요... 사과 못 하겠어서. (재수 없게 씩 웃고 홀랑 차 타고 가면)

약이 오른 영주, 얼른 차에 올라타 뒤따른다.

#16. 도로+차 안(오전)

한적한 도로.

빠르게 달리던 싸가지의 흰 차가 빨간 신호에 멈춰 선다.

그 옆으로 영주의 차가 멈추고.

영주 (창문 내려서) 이봐요! 뭐하자는 거예요?

싸가지 (조수석 창문 내리고) 새 차 뽑고 이를 만에 긁혀봤냐고! 사과 못 해!!

영주 (떨리는 목소리) 제발 깔끔하게 사과하고 끝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요즘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그래요. 저 발동 안 걸리게 여기서 멈춰줘요.

싸가지 (이상한 사람 보듯) 뭐라는 거야. (신호가 바뀌자 썩까고 출발)

영주 (눈빛 싸악 매섭게 돌변한다) 너 이 새끼. 뒤졌어.

싸가지 차 뒤를 바짝 쫓아가는 영주.
 그런데 이 싸가지, 영주의 앞에서 멈춰 섰다,
 코너로 몰았다 하며 위협운전을 한다.
 간신히 피해 가는 영주... 점점 분노 게이지가 상승한다.
 영주, 뒷좌석으로 손 뺀어 배드민턴 라켓을 가져와
 한 손으로 커버 케이스를 벗기는데.

#17. 고속도로+차 안(낮)

‘여주’ 적힌 표지판 아래로 싸가지와 영주의 차가 차례로 지나간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싸가지를 따라가던 영주,
 주변의 차들이 갈림길에서 빠지자 속도 올려 싸가지 차 옆으로 붙는다.

영주 (창문 내리고) 야!
 싸가지 (조수석 창문 내리고, 놀란) 뭐야, 아줌마 집에 안 가?
 영주 줄 게 있어서!
 싸가지 (?)

영주, 핸들을 고정시켜놓고는 조수석에서 크림빵 하나와
 배드민턴 라켓을 집어 든다.
 오른손으로 라켓의 가운데 부분을 쥐고, 왼손엔 빵을 쥐고
 싸가지를 보며 잠시 목적 거리를 가능하더니 한순간에 라켓으로 빵을 쳐낸다.
 라켓 스트링에 탕— 부딪혀 탄력적으로 튕겨 나가는 빵.
 기술적으로, 일직선으로 빠르게 날아가 싸가지 얼굴을 정확히 타격하면,
 속의 초코 커스터드가 장렬히 터진다.

싸가지 악! (기겁, 손으로 닦아내고) 이거 뭐야! 똥이야?
 영주 (핸들 잡고) 장유유서다 이 싸가지야! (다시 찹싸게 하나 더 날리면)
 싸가지 (이번에도 얼굴에 명중, 터진 초코 크림에 정신 혼미) 당신 미친 거
 아냐?

영주 그래서 정중히 부탁했지! 발동 걸지 말라고! 여기 빵 스무 개는 족히 남았거든? 적당히 사과하지?

싸가지 (휴지로 얼굴의 초코 크림 닦으며, 제대로 열 받은) 절대 못 해!

영주 (라켓을 다시 쥐려면)

싸가지 (흠칫, 창문 올리고 앞질러 간다)

영주 (창문 밖으로 고개 내밀어 소리치는) 그래! 오늘 관 한번 짜보자!

#18. 문경 휴게소 인근 고속도로(낮)

백미러 보는 싸가지.
뒤따라오는 영주 차 보인다.

싸가지 이씨! 쉬 마려 죽겠는데!

그때 문경 휴게소 입간판 보이고.
핸들 틀어 휴게소 안으로 들어간다.

#19. 휴게소 주차장 일각(낮)

싸가지의 차가 급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싸가지, 화장실로 달려간다.
그리고 뒤따라온 영주의 차, 싸가지의 차 옆에 정차한다.
영주, 내려서 싸가지 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데,
비어 있는 걸 보고 두리번거리다 “오기만 해봐!” 하며 이를 간다.

시간 경과.
화장실에서 나온 싸가지,
자신의 차 옆에 주차된 영주 차를 보고 식겁.
주변 경계하며 슬그머니 차로 가는데,

영주가 나오지 않자 이때다 하고 빠르게 운전석에 올라타 횡 간다.

남겨진 영주의 차를 보면,

언제 잠들었는지 운전석에서 다소 추한 모습으로 굶아떨어진 영주다.

이내 카메라가 앞 유리창에 붙은 ‘임산부 주차 스티커’를 비춘다.

#20. 초등학교 축구장 스탠드(낮)

‘동호인 대항 한마음 축구대회’ 적힌 현수막 아래로

땀에 젖은 축구 동호인들이 한데 모여 물 마시고 핸드폰 만지고 재정비 중이다.

그들 사이 재영, 수건으로 이마와 목의 땀을 훔치고는

옆에 놓인 남성보호경을 집어 바지 속에 넣고 위치 잡는다.

그때 들리는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

일동, 하나 둘 일어나 경기장으로 뛰어가고.

재영도 슬슬 일어나는데 동호회 멤버(#13 전화상대)가 다가와

동호회 멤버 어이 골키퍼. 연장전 너 때문에 하는 건 아냐?

재영 (바지춤 만지며 당당) 보호대가 자꾸 빠지려는 걸 어떡해?

동호회 멤버 (말이 안 통해서 절레, 회유책으로 작전 바꿔서) 오늘 장어 내긴 거 알지? 어? 장어! 스태미나!

재영 (동요하는 눈빛) 맞다 장어... 가자! (장어처럼 힘차게 경기장으로 뛰어간다)

빨리 모이라는 듯 재촉하는 호루라기 소리 들리고.

#21. 축구장 일각(낮)

연장전이 진행 중인 경기장.

양 팀의 공격수가 공을 뺏고 뺏으며 점점 재영의 골대 앞으로 돌진한다.

재영, 거미손처럼 양팔 벌려 왔다 갔다 하며 볼을 주시하는데,
 그때 상대팀 선수가 공을 차지, 골대를 향해 힘껏 슈팅을 날리는 결전의 순간,
 재영, 몸을 던져 공을 막아낸다.
 다행히 골대를 비껴간 축구공.
 재영, 빠르게 자리 털고 일어나 자세 잡는데,
 그가 었어진 자리, 낭심보호컵이 떨어져 있다.
 눈치 못 채고 또다시 다가오는 공을 주시하는 재영.
 아까 그 선수, 이번엔 기필코 골을 넣겠다는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공을 몰고 온다.
 그리고 좀 전과 같은 방향으로 다시 파워 슈트를 날리면, 동시에 날아오르는
 재영.
 그런데! 재영의 시야에 무언가 들어온다.
 (이하 슬로 모션으로)
 설마? 하며 그 무언갈 다시 확인하는데... 떨어진 낭심보호컵이다!
 바로 날아오는 공을 보면, 어어? 축구공이 재영의 그곳을 향해 정통으로
 날아온다!
 두 눈을 의심하며 “아아아아안 돼에에에에!!!!!!!!!!” 하고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그 위로 앰بول런스 사이렌 소리가 었힌다.

#22. 대학병원/수술실 외경(오후)

#23. 대학병원/진료실(다른 날 낮)

의사(50대, 남)와 마주 앉은 재영.

의사 이런 소식 알려드릴 때가 의사로서 가장 힘든데...
 재영 (불안한, 흔들리는 눈으로) 아니죠?
 의사 ... (힘겹게 입 여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입니다.

재영 (충격... 너무 놀라 아무런 반응 못 한다)

의사 (위로하는 투) 부정자궁이라고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폐쇄성보단 확률은 월등히 낮지만...

재영 (자르고) 확률... 몇 퍼센트니까?

의사 ...이론상으론 1퍼센트인데 개인에 따라 상이하니까 너무 상심하진 마시고요. (허망한 눈으로 미동 없이 앉아 있는 재영 위로 응응 들리는, E) 임신은 시술로 가능한데 고환조직에서 정모세포를 추출해서 체외 배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재영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번쩍 뚜렷해진 눈, 그대로 벌떡 일어나더니 나간다)

의사(E) 어디 가세요 환자분!

#24. 엘리트 비뇨기과/진료실(낮)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고 재영이 들어온다.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충혈된 눈... 진료받던 환자와 기웅 놀라고.

재영 (다짜고짜) 내 보험 잘 있지?

기웅 (영문을 모르겠는) 재영아...! 갑자기 왜...

재영 (버럭) 잘 있냐고!

기웅 잠깐만. (환자에게) 약 드시고 사흘 뒤에 오세요. (환자 가면)

재영 당장 눈앞에 보여줘. 확인해야겠어.

기웅 (곤란해 죽겠는) 저 그게 말이야... 일단 앉아봐.

재영 (그대로 서서, 불길하다) 왜? 뭔데.

기웅 이거 어떡하지... 너한테 연락했어야 했는데 완전히 깜빡 잊었네. 사실 그때 네 정자... 운동성 안 좋아서 전부 폐기했어.

재영 (얼굴의 핏기가 가신다) 운동성이 안 좋아? (떨리는 목소리) 나 정자왕 윤재영이야! (다가가 기웅의 옷깃 움켜잡고) 장난할 기분 아냐. 가져와.

기웅 (당혹스럽고) 왜 이래...! 정자야 또 보관하면 되잖아! 지금 해줄게!

무... 무료료!

재영 (눈물이 터질 것만 같은 눈으로) 거짓말이지? (역살 흔들며) 대답해!

#25. 엘리트 비뇨기과/보관실(낮)

정수기 생수통만 한 질소탱크들이 바닥에 줄지어 있는 공간.

‘제한구역’, ‘관계자와 출입금지’ 적힌 문이 열리고

기웅을 밀치고 무서울 만큼 화난 얼굴의 재영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다.

곧장 발치의 질소탱크들을 마구잡이로 열면 보관된 샘플들이 줄줄이 떨어
나온다.

기웅, 필사적으로 재영에 엉겨 붙어 제지하는데.

기웅 (애원하는) 일단 진정해봐! 설명했잖아!

재영 (뿌리치며) 말이 안 되잖아! (기웅을 보고) 세 번이나 채취했는데 세
번 모두 깜빡하고 연락을 못 해? 그걸 믿으라는 거냐? (다시 헤집으며)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다 키만 한 선반 위의 질소탱크 세 개가 눈에
들어온다. 곧장 양손을 뻗어 하나를 내리려는데 그 무게에 휘청, 그
순간)

기웅 (본능적으로 사납게 소리친다) 거긴 안 돼! 그게 얼마짜린데!!

재영 (선반에서 떨어질 듯 기울어진 질소탱크를 겨우 받친 채, 뭔가
이상함을 직감해서) 얼마짜리? 여긴 뭐가 달라?

기웅 (흠칫, 본래의 소심한 낯으로 돌아와) 그게... 다 안 되지 다.

재영 (의심스럽다. 손에 받친 질소탱크를 꺼내보려다 무게에 그만 손에서
미끄러진다)

바닥에 쿵 떨어진 질소탱크.

기웅 악!! (비명과 함께 달려와 열어서 보관된 샘플들을 확인한다. 눈
돌아서) 죽고 싶어! 수억짜리를!

재영 수억?

기웅 ...!

재영 뒀데. 뭐가 이렇게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확!
(두 번째 질소통도 바닥으로 떨어뜨리려 하자)

기웅 안 돼!! (다급히) 알겠어, 얘기할게, 한다고! 당장 올려놔.

재영 (격한 감정을 누르며 바로 두고) 말해.

기웅 (올기 직전) 그게... (말하려다 삼키고 냅다) 네 정자가 운동성이 안 좋았다고!

재영 (반사적으로 기웅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거짓말!

기웅 (억! 하고 나가떨어진다)

재영 (거친 호흡으로) 나 지금 보이는 거 없어. (참던 눈물이 이제야 왈칵 터진다) 어딴어! 그게 내 마지막... (차마 말이 안 나온다) 마지막...
(하다 남은 두 개의 질소탱크가 올려진 유리장을 쓰러뜨리려고 뒤에서 힘껏 밀자)

기웅 그만!! (털썩 무릎 꿇고 싹싹 빌며) 다 말할게! 말할게!

재영 (붉어진 눈으로 보면)

기웅 (눈물 고이는) 미안하다. 네 정자... 팔았어...

재영 (심장이 쿵) 뭐? 팔아? 그게 무슨 말이야? 팔다니... 왜? 누구한테?

기웅 ... 너처럼 외모, 신장, 나이, 학력 전부 상위급인 고객 샘플은 따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았다구...

재영 (귀를 의심하며) 거짓말... 금변기 니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기웅 몇 년 전부터 하우스 기웃대다가... 이 건물도 경매 넘어갔다. (눈물 주룩) 네 건 정말 안 팔려고 했거든?

재영 (믿을 수 없는) 그런데?

기웅 3개월쯤 전에 어떤 남자가 꼭 파평 윤씨에 AB형, 우리 학교 출신이어야 한다잖아. 해당 샘플이 너밖에 없었다구...

재영 (허망한 눈으로) 그게 누군데.

기웅 (울고불고 빌며) 신고할 거 아니지? 그럼 다 얘기할게! 제발... 입만 다물어주라... 응?

#26. 거리(오후)

병원을 빠져나온 재영, 혼이 나간 듯 터덜터덜 걸어간다.

기용(E) (호느끼는) 와이프한테 불임인 거 숨기고 몰래 네 정자로 시험관 시술했대... 시술은 성공했다더라.

#27. 재영의 회사/대표 집무실(밤)

모니터 불빛만 새어나오는 캄캄한 사무실.

굳은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보는 재영.

INSERT

모니터 화면.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 ‘원탑스터디 윤찬범 대표, 네덜란드-한국 교육연구센터 소장 임명’ 그 밑으로 찬범(42세, 남)이 웃고 있는 정면 사진.

재영,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격분한 표정이고.

시간 경과.

INSERT

모니터 화면.

영주의 인스타그램 사진 목록이 떠 있다. 주로 음식이나 풍경 사진.

자주 관리하진 않는 듯 스크롤 내리면 사진 많이 없다.

최근 게시물 중 눈에 띄는 초음파 사진을 클릭하면,

‘12주 초음파 사진♥눈코입 또렷한 건 누구 닮은 거?’ 적힌 게시물.

그 사진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재영, 복잡한 눈빛인데.

다른 사진 넘기다 보면, 찬범과 영주가 골프장에서 다정하게 함께 찍은

셀카 나온다.

INSERT

사진 옆으로 해시태그 보인다.

#용인솔트CC #운동스타그램 #부부골프모임 #바쁜남편과데이트

그 사진 속 찬범의 얼굴이 화면 가득 들어오면서.

#28. 산 일각(깊은 밤)

(4회 신) 누군가의 시선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산을 오른다.
간간이 멀리서 들려오는 음산한 고라니 울음소리.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숨죽여 산을 오르던 시선,
어느 순간 길을 잃은 듯 험험 주변을 둘러보는데.
순간 찢어지게 소름 끼치는 새 소리에 놀라 돌아보면,
오싹하게 낡은 진입금지 팻말이 나무에 걸려 있다.
팻말의 초점 조금씩 흐려지며
저 멀리 진입금지 구역에서 빛을 내는 무언가에 포커스가 잡힌다.
그곳, #1의 겁에 질린 그 재영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황망히 흠으로 무언가를 덮는다.
재영의 공포에 질린 눈엔 눈물이 그렇하고 파랗게 질린 입술도 벌벌 떠다.
분주한 재영의 손길 따라가면
차갑게 식은 찬범의 얼굴이다.
흠 속에 덩그러니 얼굴만 나와 있던 찬범, 이내 그마저 흠에 묻힌다.

1회 끝.

2회

#1. 영주의 집/현관(아침)

현관 거울을 보며 넥타이 고쳐 매는 찬범.

영주, 그 앞에서 찬범의 서류가방 들고 서 있다.

영주 (서운하지만 애교스럽게) 어제 탄산수는 왜 안 사왔어요? 내가 퇴근할 때 꼭 사오라구 했는데...

찬범 (아차) 야근하다 깜빡했다. 어제 진짜 바빴거든.

영주 어떤 남편들은 와이프 따라서 같이 입덧하기도 한대요. 난 그런 것까진 안 바라구 입덧 때문에 물도 못 마시겠으니까 탄산수만 떨어질 때마다 채워달라구요.

찬범 (진심 미안하다) 미안. 이따 최 실장 시켜서 한 박스 가져다줄게.

영주 됐어요. 점심에 바람 쐬 겸 나가서 사오지 뭐. (기대하는 미소로)
오늘은 일찍 퇴근한됐죠? 오랜만에 외식할까?

찬범 (곤란한) 어찌지, 오늘도 야근할 것 같은데...

영주 (실망) 또...?

찬범 요즘 바쁜 거 알잖아. 강동점에서 자꾸 매출 떨어져서 완전 비상이야.
(지갑에서 카드 꺼내주며) 미정 씨 만나서 비싼 거 사먹어.

영주 미정이 아들만 셋이라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출근하세요. (가방 건네는)

찬범 맞다 그랬지... 조금만 기다려. 강동점 일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잘할게!

영주 (열은 미소) 네. 다녀와요.

찬범 응. (영주 배 한번 만지며) 찰떡이랑 쉬어. (가면)

영주 (서운한 얼굴로 덩그러니 남아 달힌 문 본다)

#2. 영주의 집/부엌(아침)

넓은 주방. 고급스런 인테리어와 식기들.
영주,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꺼내는 위로.

영주(E) 저처럼 냉면이랑 아이스크림만 드시는 분 계신가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으로 푹푹 퍼먹으며 아침을 때운다.

영주(E) 안 그래도 입덧 때문에 예민한데, 남편마저 남의 편처럼 서운한
짓만 하네요. 사실 그이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 나게
서운할까요. 요즘 들어 감정 기복이 아주 롤러코스터예요.

#3. 재영의 회사/대표 집무실(아침)

컴퓨터 보는 중인 재영.
모니터 보면 임신·출산 카페의 영주가 쓴 게시글이다.

영주(E) 지난주엔 운전하다 시비 붙은 남자 따라서 경북 문경까지
따라갔답니다. 하하. 자꾸만 우울하고 충동적이고... 이런 것도
우울증인가요? 상담받아야 할까요?
경험 있으신 출산 선배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재영, 댓글 단다.
닉네임 '쭈니맘'으로 입력하고. 타이핑하는 위로

재영(E) (친절 발랄한 투) 임신부 네 명 중 한 명은 겪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구여. 저도 임신 초기에 비슷한 시기를
겪었는데용.

재영, 잠시 고민하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뀌어 다시 타자 치는.

재영(E) 상담을 받으며 안정을 찾았답니다! 엄마의 감정과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 아시죠? 다행히 전 너~무 좋은 의사쌤을 만나서 건강한 아이를 낳았답니다. 필요하시면 병원 정보 드릴게용. 꼭지 주세요!

모니터 화면. ^^까지 붙여 댓글을 올린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재영, 인터넷 창 최소화시키고 “들어와” 하면 김 비서(1회 그 비서)가 들어온다.

살랑살랑 웃으며 들어와 재영의 옆으로 흑마늘 엑기스와

접시에 예쁘게 담은 굴과 초장을 올린다.

비서 제가 자발적으로 통영 가서 직접 공수해 온 굴이에요. (꾸벅) 다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재영 (맥없이) 그래. 근데 김 비서. 이제 이런 거 안 줘도 돼.

비서 예?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재영 (얼굴 뻘히 보다가 시선 바지춤으로 내려가며) 김 비서는 좋겠다...

비서 (어딜 보는 거야?) 왜요?

재영 (시선 거두며) 아냐. 관리 잘 해.

비서 예?

재영 나가봐.

비서, 가우똥하며 가면.

재영, 인터넷 창 다시 연다. 이내 쪽지창 하나가 뜨는데.

‘쭈니맘 님! 감사하게도 매번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병원 정보 부탁드립니다^^*’

결심한 듯 메시지를 바라보는 재영의 얼굴에서.

#4. 카페(다른 날 낮)

재영, 테이블에 앉아 민정을 기다린다.

잠시 후 카페에 들어온 민정,

저만치 앉아 있는 재영을 보고 얼른 핸드폰 화면에 얼굴 비춰보며

용모 정돈한다.

그리고 종종 달려가 밝은 미소로 “기다렸어?” 하며 재영 앞에 앉는다.

재영 (여전히 민정과의 만남이 편하지 않다) 방금 왔어. 고맙다 바쁘는데 시간 내주고.

민정 대체 무슨 일이길래 연락을 다 했는지 궁금해서 나왔어. 참, 어제 말한 그분 내일 점심에 오신대.

재영 (반색) 그래? 그럼 나 내일 하루만 너희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자.

민정 뭐? 뭔데 갑자기?

재영 나중에 설명할게.

민정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무작정 하는 부탁 들어줄 이유 없는 사이잖아. 내가 필요하면 납득 가게 설명해.

재영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착잡하다. 차로 목을 축이고)

시간 경과.

민정 (심각해져서) 정말이야? 그래서 변기웅 그 자식 신고했어?

재영 (막막하다) 이제 와서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야. 뱃속 아이랑 당장 친자확인도 불가능하고. 변호사가 피해자 좀 더 찾아서 양육권 소송도 같이 진행하재. 그런데 그 전에, 내 아이 임신한 그 여자... 만나보고 싶어. (간절히 눈을 보고) 나 좀 도와줘.

민정 ... 알겠어. 전 여자친구가 네 아이 임신한 여잘 진료하는 그림이 영 아이러니하지만. (하다가) 설마 내일 ‘뱃속 아이의 반은 제 겁니다’ 하고 폭탄 투척하려는 거야?

재영 그건 아직. 그냥... 어떤 사람인지 봐야 살겠어서.

민정 (아까부터 덤덤한 얼굴의 재영을 보고) 너...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

큰일을 겪고 덩덤한 증상이 제일 불안한데.

재영 (농담처럼) 여기서 세상 떠나가라 울기라도 할까? (자조적으로)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으니까... (결연해진 눈으로) 이제 소송해서 내
아이 데려오는 데만 집중할 거야.

#5. 민정의 병원(다른 날 낮)

규모가 작은 병원이다.

‘마음 정신과’ 적힌 데스크에 앉아 있는 재영.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로 시계만 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영주가 들어온다.

재영, 순간 만감이 오가는 얼굴로 영주를 흘린 듯 지그시 본다.

영주 (병원 둘러보며 혼잣말) 생각보다 작네? (데스크로 가서) 열한 시 반
예약했는데요.

재영 (정신 다잡고) 유영주 씨세요?

영주 네.

재영 처음 방문하셨죠? (초진 설문지 주며) 작성해주세요.

영주 (간단한 신상 쓰고 항목별 체크 표시하는)

재영(E) (보며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다행히 키는 크네. 외모도 사진보단
준수하고 모발 술 많고...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

영주 (작성 완료해서 건네는) 여기요.

재영 (받아서 훑다가 본인이 궁금한 말) 혹시 유전 질환 같은 거 있으세요?

영주 아니요.

재영 학력은요?

영주 대졸이요.

재영 (자연스럽게) 어느 대학이요?

영주 (의아한) 그런 것도 입력하나요?

재영 (둘러대는) 환자의 배경을 다방면으로 수집할수록 정확한 진찰이
가능하거든요.

영주 (그런가?) 용희대 체대 나왔어요.

재영 (쓱 나쁘진 않은 듯 끄덕이고) 치열은 교정한 거예요?

영주 (이건 왜 묻지? 이상하게 보며) 아뇨?

재영 (설문지 보고 알게 된 척) 임신 중이시네요.

영주 네. (배에 손 올리고) 우리 찰떡이 임신하고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져서 왔어요.

재영 (관심) 태명이 찰떡이에요?

영주 (열은 미소) 네. 엄마 뱃속에 찰떡같이 붙어 있으라고 찰떡이.

재영 (울컥 흥분해서) 찰떡 정도로 붙어 있겠어요? 떡이 접착성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다고! 뿐드나 청테이프 그런 거로 해야죠!

영주 (기가 찬) 어머머, 누가 태명을 그렇게 무식하게 지어요? 여기 잘하는 병원 맞아요?

재영 (정신 차리고 방긋) 아, 네 맞습니다. 방금 애긴 흘려들으세요. (일어나며) 진료실로 모실게요.

#6. 민정의 병원/진료실(낮)

민정과 상담 중인 영주.

영주 인터넷 카페에서 보니까 이런 게 우울증 증상이라고 해서요. 정신과는 왠지 꺼려졌는데 방치하다가 애한테 안 좋을까 봐 용기 내서 왔어요.

민정 잘 오셨어요. 잠은 잘 주무세요?

영주 네.

민정 이전에 우울증 치료 받으신 적은요?

영주 없어요.

민정 임신부의 70프로 정도가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감을 느끼거든요. 특히 임신 초기가 신체적으로나 호르몬으로나 변하는 게 많아서 감정적인 변화도 동반돼요. 당연한 과정이니까 걱정 놓으세요. 혹시 배우자분과는 관계가 어떠세요?

영주 (어렵게 꺼내는)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든지도 몰라요. 저희가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포기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거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애만 가지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 그렇다고 남편이 저한테 무심한 건 아니거든요. 다정한 사람인데... 느껴져요. 마음이 집에 없단 게.

#7. 민정의 병원/진료실 문 밖(낮)

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재영.

민정(E) 환자분, 그렇다고 지금처럼 잘 안 드시면 태아 발육이 지연되거나 심하면 조산할 수도 있어요.

영주(E) (놀란) 조산이요?

재영 (심각해지는 표정)

민정(E) 네. 입덧 때문이라면 시중에 입덧 완화 제품을 구매해보는 건 어떠세요?

재영, 걱정스런 얼굴로 데스크로 간다.

#8. 민정의 병원/데스크(낮)

재영, 의자에 앉아 영주의 초진 설문지 본다.

주소 란에 영주가 자필로 쓴 주소지에 시선이 가고.

INSERT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스카이프리스 A동 1401호’

망설이다 핸드폰 카메라로 주소를 찍는 재영.

#9. 고급 브랜드 아파트 ‘스카이폴리스’ A동 외경(다른 날 낮)

50층 높이의 아파트.

#10. 아파트 공실(낮)

부동산 업자(50대, 여)와 빈 실내를 둘러보는 재영.

- 업자 스카이폴리스가 원체 공실 안 나기로 소문난 건 아니죠? 특히나 이 로얄층은 다들 몇 달 기다렸다 입주하는데 정말 운 좋으신 거예요.
- 재영 전 로얄층 같은 건 관심 없어요, 딱 A동 14층 2호에 살고 싶은데. 거긴 매물 안 나왔어요?
- 업자 14층 2호... (생각하다) 아, 두 달 전에 입주한 가구라 안 나가요. 저희 손님인데 애들 다 클 때까지 사신다고 했으니까 최소 10년은 사실 거예요.
- 재영 (거침없이) 그럼 그분들한테 말 좀 전달해주세요. 그 집이랑 이 로얄층이랑 바꾸자고요. 물론 이사비, 시세 차액 전부 제가 부담하겠다고. 10년 살 거 기왕이면 다홍치마로 사시라고요.
- 업자 (놀란) 사장님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뭐 꼭 14층에 사셔야 하는 이유라도?
- 재영 ... (쓴웃음) 풍수지리적으로 저한테 좋대요.

#11. 스카이폴리스 A동 외경(아침)

#12. 14층 현관(아침)

인부들이 단출한 이삿짐을 나르고,
재영은 문에 달린 도어록 재설정 중.

설정 끝내고 드디어 내가 왔다 하는 얼굴로 저만치 영주네 현관문을 보는데.
마침 문이 열리고 골프 가방 멘 찬범이 나온다.

- 재영 (그놈이다. 차갑고 원망스런 눈빛 스키키고. 이내 표정관리하고 방긋)
안녕하세요! 앞집 이사 온 사람입니다.
- 찬범 (미소로 다가와) 반갑습니다. (열린 문으로 재영 집 내부를 보고)
살림살이가 소박하네요?
- 재영 남자 혼자 살다 보니까 최소한만 갖춰 살게 되네요. (골프 가방 보고)
골프 가세요?
- 찬범 아 예. 골프 치세요?
- 재영 예. 저도 원래 같으면 주말이라 라운딩 갔을 텐데.

FLASH BACK 1회 #27 재영의 회사/대표 집무실
영주의 인스타, 찬범과 영주가 함께 찍은 사진 아래 해시태그 #용인솔트CC

- 재영 용인 솔트CC 자주 가거든요.
- 찬범 (반가운) 어? 저도요! 지금도 용인 가려던 참인데.
- 재영 오며 가며 한번 봤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 손
내밀면)
- 찬범 (악수하며) 괜찮으면 다음에 라운딩 한번 같이 가시죠? 젊은
분들하고도 쳐보고 싶네요.
- 재영 좋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집들이 겸 가볍게 인사차
식사 초대하고 싶은데요.
- 찬범 좋죠. 그럼시다.
- 재영 (서글서글한 미소로) 가족이랑 같이 오세요.
- 찬범 예. 그럼. (가볍게 인사하고 가는)
- 재영 (매섭게 돌변한 눈으로 뒷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13. 재영의 집/거실(밤)

임시 거처처럼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갖추어진 집 안.
소파도 없는 거실에 티브이 한 대가 바닥에 덜렁 놓여 있고.
통유리 앞에서 밖을 보며 커피 마시는 재영.
그때 ‘박성훈 변호사’에게 전화가 온다.

재영 (받고) 네 박 변호사님. (듣고) 아뇨. 그 부부한테는 이번 주말쯤 전부 얘기할 생각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에서)

#14. 스카이폴리스 외경(아침)

#15. 14층 현관(오전)

2호 현관문이 열리고 출근룩의 재영이 나온다.
비슷한 간격으로 1호 현관문도 열리고 등산복 차림의 영주가 나온다.
서로 마주치고.

영주 안녕하세요.

재영 (살짝 긴장해서) 예 안녕하세요.

영주 어? 마음 정신과 직원분 아니세요?

재영 (어색한 연기) 아! 그때 그 환자분이시구나.

영주 앞집에 이사 오셨단 분이 그쪽이셨어요? 신기하다! (갑자기 카운터 직원이 무슨 돈으로 여길 왔지? 순수하게 궁금해지는) 그런데 여기 집값 엄청 비쌀 텐데...? (아차 싶어 수습) 아 오해하진 마시고요. 에이 말실수했네요.

재영 (그저 사람 좋게 웃으며) 그날은 친구 도와서 일일 알바요. 원래 직업은 따로 있고요.

영주 미안해요. 괜히 실례했네요. 주말에 식사 초대해주신 거 고마워요.

재영 아닙니다.

영주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병원 간 거 몰랐음 좋겠어요. 아무래도
정신과니까 걱정할 것 같아서...

재영 당연한 말씀어요. (영주의 옷차림 보고) 운동 가세요?

영주 네, 등산 가요.

재영 (화들짝) 예? 아니 임신 초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주 (천진하게) 조심히 등산하면 되잖아요.

재영 (또다시 울컥 흥분해서) 실족사, 추락사, 조난사 당한 사람들도 전부
조심히 산 타다 죽은 거예요!

영주 (황당) 악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지난번에도 애 태명을 뒤편
뽀드로 지으라 하시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재영 (수습하는 웃음으로) 하하 제가 그랬나요. 혹시 산은 어디로?

#16. 재영의 집(오전)

재영, 김 비서와 긴박하게 통화하며 기민하게 배낭에 물건 챙겨 담는다.
성인 한 명은 족히 들어갈 만한 커다란 배낭에
2L 생수병, 구급상자, 각종 간편식, 로프, 간이의자 등 빠르게 챙겨 담는 중.

재영 어 김 비서! 미팅 네 시간만 미뤄. (어이상실) 당장 어떻게 미루냐고?
지금 능력 부족으로 일 못 한다는 거지? 미뤄! 봐잇나우!

#17. 산 초입(낮)

영주, 산 오르는데
“같이 가요!” 소리에 돌아보면
제 몸만 한 배낭 메고 달려오는 재영이다.

영주 (기겁) 설마 저 따라오신 거예요?

재영 안 돼요? 같이 오르죠.

영주 어머, 왜요? (안절부절 호들갑)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요! 애 가진 여자가 옆집 남자랑 단둘이 등산 다니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재영 누가 물어보면... 남편이라고 할까요?

영주 (경악) 예?! 그걸 말이라고... 대체 따라온 의도가 뭐예요!

재영 임신부가 혼자 등산을 간다는데, 병원에서 만난 입장으로 걱정되잖아요.

영주 (그런가? 싶고) 죄송해요. 요즘 신경이 날카로워서. 사실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따라 더 예민했나 봐요. 미안해요. 등산도 기분 전환하려고 온 거고요.

재영 남편분이 많이 바쁘세요?

영주 (아차, 별 애길 다 했다 싶어) 방금 애긴 잊어주세요.

재영 (흥분해서) 남편분이 얼마나 바쁜데요? 아니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그 육아휴직 못 쓰답니까?!

영주 (황당) 저기요! 남의 남편이 바쁘든 말든!

재영 (아차) 감정 이입이 돼서 그만...

영주 (웃기는 사람이야 증말. 획 앞서가면)

재영 (따라붙으며) 저기요. 기분 전환으로 등산 같은 고위험 익스트림 스포츠 말고 맛집 탐방 그런 데 취미를 뒤봐요. (진심 걱정돼서) 명색이 임신부가 그렇게 말라서 되겠어요?

영주 (건성) 안 그래도 그때 의사쌤 말씀 듣고 잘 챙겨먹어요.

그때 높은 지형이 나오고,
영주가 끄덕차 올라가는데,
재영, 본능적으로 손등으로 영주의 등을 받친다.

영주 (놀라서) 뭐하시는 거예요!

재영 (본인도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위험하실까 봐! (손등 보이며) 이것 봐요. 손등으로 댄 겁니다?

영주 (뒤편 하지도 못하겠고) 알겠으니까 제가 알아서 가계 내버려두세요.

#18. 산 중턱(낮)

주먹만 한 돌멩이들이 탐처럼 쌓여 있는 곳.
사람들, 그 위에 돌멩이 하나씩 엮고 눈 감고 소원 빈다.
슬렁슬렁 올라오던 재영과 영주, 그 앞에서 멈춰 서고.

영주 (나지막이) 어휴, 다리야.
재영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속히 가방에서 간이의자 꺼내 펼친다)
영주 (기이하고) 어머머, 의자가 왜 거기서 나와?
재영 여기 앉으세요.
영주 (상당히 부담스런, 소리 낮춰) 왜 이러세요, 저한테!
재영 (칼같이) 오해 마세요. 찰떡이 앉으라고요.
영주 (망설이다 새침하게) 찰떡이만 아니었어도 거절했을 텐데,
그럼 신세 좀 질게요. (앉는다)

영주, 한숨 돌리는데 배에서 웅장히 울리는 뱃고동 소리.

재영 (즉각 가방에서 2L 물과 도시락, 에너지바 꺼내 건네는) 이거 드세요!
영주 (흠칫 놀라) 웬일이야... (먹고 싶지만) 괜찮아요.
재영 애가 먹고 싶다잖아요.
영주 (괜히 배 내려다보며) 찰떡아, 먹고 싶어?
재영 (애기 목소리로) 네! 먹고 싶어요!
영주 (! 미친놈 보듯 보는. 경계하는 눈으로 에너지바만 뺏듯이 가져와 먹고)

재영, 소원 탐 앞으로 가서 돌멩이 하나 올리고 눈 감고 소원 빈다.

재영(E) 제가 근본을 모르는 신한테 기도 안 드리는데요.
저 여자 배속의 제 아이만 무사히 돌려주시면 독실히 믿어보겠습니다.
승소로 응답해주세요.

재영, 눈 뜨면 눈앞에 영주 있다. 놀라서 한걸음 물러나고.

영주 무슨 소원인데 표정이 그렇게 심각해요?
재영 (흠칫) 비밀인데요.
영주 무슨 소원인지 다 알아요.
재영 예? 뭐, 뭐요!
영주 뻔하잖아요. (씨익)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재영 아. 하하. 그죠.
영주 전 이만 내려갈게요. 갑자기 배가 좀 아프네.
재영 왜요? 배가 어떻게 아파요?
영주 모르겠어요. 머리도 아프고. 집 가서 쉬어야겠어요. (가면)

재영, “같이 가요!” 하며 얼른 짐 챙겨 영주 뒤따른다.

#19. 등산로 입구 주차장(낮)

영주, 식은땀 뻘뻘 흘리며 배를 부여잡고 걷는다.

재영 (걱정스레 따라붙어) 원래 배가 자주 아파요? 윗배가 아픈 거예요?
아랫배가 아픈 거예요?
영주 (괴로운 얼굴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재영 (놀라고) 구급차 부를게요!
영주 됐어요. 차 타고 갈 만해요.
재영 (주머니에서 차키 꺼내 뺧- 누르고) 타세요.
영주 (신음하며 철벽) 제 차 탈게요.
재영 (자신의 차 조수석 문 활짝 열고 오더니 영주를 번쩍 든다)
영주 (순간 정신 번쩍) 미쳤나 봐, 내려줘요!
재영 (경황없이) 니 차 내 차가 중요해요? 우리 찰떡이부터 생각하세요!!
영주 (경악) 예?? 왜 ‘우리’ 찰떡이에요! (하다가 다시 통증에 앓는)

재영, 영주를 조수석에 태우고 문 닫는다.

#20. 차 안(낮)

달리는 재영의 차.

영주 (공공 앓고)

재영 (통화하며) 지금 응급환자 데리고 가니까 스트레쳐카 대기시키고 ER에 침상 하나 준비해줘. 그리고 진료는 산부인과 최 교수님한테 부탁하고. (끊는다, 영주를 보고) 근처 친구 병원으로 금방 갈게요. 조금만 참아요.

영주 (그 모습에 마음이 조금 놓이고)

질박한 얼굴로 속도 올려 달리는 재영.

#21. 대학병원/병실(오후)

침상에서 수액을 꽂은 채 잠든 영주.

재영, 편히 쉬도록 커튼을 쳐주는데 마침 찬범이 달려 들어온다.

찬범 (영주의 상태 확인하고 재영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사하대요?

재영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곧 의사선생님 오실 겁니다.

찬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등산은 같이 가신 거예요?

재영 아뇨. 산에서 마주쳤어요. 우연히.

찬범 그러셨구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주말에 스페인에서 직접 공수해 온 와인 한 병 들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의사(40대, 여) 들어온다.

재영 (의사에게 다급히) 애는요? 괜찮은 거죠?
 찬범 (그 재영이 의아하고)
 의사 예. 그런데 환자분 고혈압이 중증까지 진행된 상태라 지속되면 임신성 고혈압 위험이 있거든요.
 재영 (!) 그럼 조산이나 사산 위험성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찬범 (왜 지가 오바지? 하면서도) 정말이에요? 치료 가능한 거죠?
 의사 네. 임신 초기고 치료 가능한 상황이니깐 통원하면서 예후를 지켜보죠. 유영주 환자분 같은 경우 체중 증가나 가족력, 당뇨병에 특이사항이 없는 거로 봐선 원인이 노산과 스트레스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안 받게 주변에서 함께 격려해주셔야 해요.
 재영(E) 정신적 충격...? (그 말에 생각이 많아지고, 혼잣말처럼) 그래. 무사히 출산부터 하고 보자...

#22. 마트(다른 날 오후)

대형마트. 카트를 끌고 식품 코너에서 장 보는 재영.

재영 (통화 중이다) 박 변호사님. 소송 전부 스탑할게요. 7개월만요.

시간 경과.

치약 코너 앞에서 무언가를 찾던 재영, 지나가는 직원에게

재영 (핸드폰 보여주며) 입덧 완화 치약이란 게 있다던데, 여긴 없나요?

직원 (사무적 친절) 네. 없습니다.

재영 (아쉬운)

#23. 재영의 집/부엌(저녁)

태블릿으로 요리 영상을 보며 따라 하는 재영.

INSERT

영상 하단, 제목 보면 <임산부 건강 레시피 - 소고기 토마토 스투>

재영, 조출한 주방 도구들로 정성껏 요리한다.

아이가 먹을 생각에 저도 모르는 흐뭇한 미소가 번지는데.

시간 경과.

완성된 요리들이 차려진 식탁.

마지막으로 가운데 꽃병까지 올리면, 현관 초인종 소리 들린다.

#24. 재영의 집/현관(저녁)

영주와 찬범이 들어온다.

영주 맛있는 냄새~ 직접 요리하신 거예요?

재영 네. 국내산 유기농 식재료로 첨가물 없이 만들어서 건강에 좋을
 겁니다.

영주 아 네...

찬범 (와인 건네며) 성탄절에 마시려고 아껴둔 화이트와인인데 신세
 보답입니다.

재영 이런 귀한 걸. (부엌으로 들어가며) 들어오세요.

#25. 재영의 집/부엌(저녁)

재영과 맞은편의 영주 찬범. 화기애애하게 식사 중이다.

재영과 찬범은 앞에 와인 한 잔씩 따라져 있고.

- 찬범 그리고 보니 통성명을 안 했네요. (뒷주머니 지갑 꺼내 명함 건네는)
운찬범입니다.
- 재영 (보고, 처음 안 듯) 원탑스터디 대표님이시네요? 작년부터 여기 주식
살까 고민했는데. 입시학원 중 탑 쓰리잖아요.
- 영주 (기분 좋은) 아직 그 정돈 아니구요. 최근 일이 년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소속 영어 강사 덕분에. (찬범에게) 한번 집으로
초대하라니까요.
- 찬범 됐어. 그분은 나보다 바빠. (재영에게) 성함이...
- 재영 아! (고민하다) 정우성입니다. (쓱쓱한 미소) 저도 명함을 드리고
싶지만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접고 쉬고 있네요.
- 찬범 (안타까운) 그러시구나. 저도 젊을 때 사업 많이 말아먹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실패를 다 해보니까 성공하더라고요. 우성 씨도 몇 번 더
깨져보세요. 저보다 한참 젊으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 재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영주 (먹다가 갑자기 육 올라오는)
- 재영 관찮아요?
- 영주 죄송해요. 고기 냄새만 맡으면 올라와서...
- 재영 맛다, (의자 옆에 준비해둔 쇼핑백 건네며) 집에 있던 건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 챙겨왔어요.
- 영주 뭔데요? (받고 하나씩 꺼내면서 읽는) 입덧 완화 밴드, 입덧 캔디, 입덧
완화 치약... 이게 집에 있던 거라고요?
- 재영 (얼떨결에) 예.
- 영주 이건 뭐예요? (하며 음료 꺼내들면)
- 재영 푸룬주스요. 임산부들이 변비로 고생할 때 먹는대요. (뿌듯) 일부러
당도도 낮은 거로 샀어요.
- 찬범 (그런 재영이 상당히 신경 쓰인다)
- 영주 예?? 제가 변비 있는 건 어떻게... 직접 사신 거라고요?
- 재영 (아차) 아 네 그것만. 고기 냄새 불편하면 수박이라도 꺼내드릴까요?
- 영주 혹시 멜론은 없어요? 오늘따라 시원한 멜론이 땡기네.

재영 (벌떡) 사올게요!

영주 아뇨 아뇨 됐어요. 수박 주세요.

찬범 (일어나며) 식사 중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재영 예 다녀오세요.

찬범 (가면)

재영 (영주 앞에 떨어진 수박을 내어주고)

영주 (목소리 낮춰) 그날 산에서 까칠하게 군 거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쇼핑백을 보며) 임신하고 누가 이렇게까지 챙겨준 적 없었거든요. 남이 만들어준 밥도 처음이고.

재영 (그런 영주가 은근 짱하고) 괜찮아요. 인류애죠 인류애.

영주 (이제야 재영에게 경계 풀고 따뜻하게 웃는다)

#26. 재영의 집/복도(저녁)

찬범, 복도를 따라 걸다가 문 열린 서재를 본다.
지나치려다 싸한 느낌에 슬쩍 들어가 보는데.

#27. 재영의 집/서재(저녁)

짜구러 테이블에 노트북 하나 덜렁 있는 서재가 왠지 위화감이 든다.

찬범 아무리 혼자 살아도 그렇지 있을 것도 없네. 이럴 거면 50평짜리 집엔 왜 살아? 사업도 망했던 사람이.

찬범, 의문스런 얼굴로 둘러보다 테이블 의자를 툭 치면,
의자에 대충 걸쳐둔 정장 바지에서 지갑이 떨어진다.
찬범, 지갑을 줍고 별생각 없이 펼쳐보면,

INSERT

지갑에 꽂힌 재영의 주민등록증. 재영의 얼굴 옆으로 이름 ‘윤재영’

찬범 윤재영?

FLASH BACK #25 재영의 집/부엌

찬범 (재영에게) 성함이...

재영 정우성입니다.

지갑 한쪽엔 명함 몇 장이 꽂혀 있다.

명함 한 장 꺼내 보면

INSERT

‘디지털 클리너’ 대표 윤재영

찬범 (들어본 회사다) 디지털 클리너 대표?

생각이 복잡해지는 찬범.

명함 한 장 챙겨 주머니에 넣는다.

#28. 영주의 집/찬범의 서재(밤)

책장 가득 책이 꽂혀 있고.

크고 넓은 책상에 각종 문서와 책들이 제멋대로 쌓여 있다.

찬범, 들어오자마자 책상 위 문서 더미를 뒤져 그 속에서 잡지(1회 #5의 잡지)

하나를 꺼내면.

표지 사진 재영이다.

찬범, 재영의 거짓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시간 경과.
찬범, 컴퓨터로 포털사이트에 재영을 서치한다.
그러다 동영상 하나를 클릭하면.

INSERT
인터뷰 영상.

에디터 어쩔 말씀을 그렇게 시적으로 하세요?
재영 (하하 너스레) 제가 운동주 시인이랑 같은 파평 윤씨거든요.
에디터 운동주 시인이 미남이셨다는데, 어쩐지 외모도 수려하시다
했어요 호호. 그리고 반전 학력을 보유하셨던데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다고요?

영상을 보던 찬범, 불현듯 기억이 떠오르고.

#29. 찬범의 회상. 어두운 지하실

대강 사무실 구색만 갖춰놓은 곳.
기웅과 찬범이 책상에 마주 앉아 대화한다.

찬범 서울대 출신으로 가능하죠? 돈을 이렇게나 주는데.
기웅 물론입니다.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 동문도 많아요.
찬범 선생님처럼 의대 출신이면 더 좋겠네요. 나이도 이삼십 대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만약 아들로 태어나면 부계혈통검사에서
성씨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파평 윤씨로 구해주세요.
기웅 (난감한 기색) 흔한 성씨가 아니라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더니) 말씀하신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샘플은
아쉽게도 없네요.
찬범 없으면 찾아주셔야죠. 돈 더 드리면 되잖아요.
기웅 (비릿하게)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나이도 제 또래고요.

#30. 영주의 집/찬범의 서재(밤)

불길한 예감에 직면한 찬범이다.
그때, 밖에서 들리는 현관벨 소리.

영주(E) 누구세요?
재영(E) 앞집입니다!
영주(E) 네. 잠시만요!

찬범, 얼른 나가보는데.

#31. 영주의 집/현관(밤)

현관문을 여는 영주와 그 뒤의 찬범.
문이 열리고 헉헉 숨을 고르는 재영이 무언가 담긴 비닐봉투를 건넨다.

재영 여기. 멜론이요.
영주 예? (봉투 안을 보면 멜론 다섯 개 담겼다) 이 시간에 멜론을 어디서...?

불길함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진 찬범과 놀란 영주, 그리고 재영
세 사람의 오가는 복잡한 시선에서...

2회 끝.

작가 후기

수정하지 못한 대본을 신게 되어 아쉽습니다.

대본을 쓸 당시엔 재영과 영주의 전쟁 같은 육아를 시즌2로 하겠다며,
애를 낳아봤다면 리얼할 디테일을 살렸을 거라며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공모전 제출 후 아주 내 손을 떠나보냈더니 간만의 재회가 낫설군요.

작품은 자식이라고들 하잖아요.

저 또한 남부럽잖은 자식을 언젠가 무사히 출산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지님도 코시국에 모쪼록 안전 집필 무사 출산 하시기를~!

썸카인다 — 최보은

기획의도

방식도 정체성도 모두 다른, 조금 핫한 연애.

그들의 숨김없는 출퇴근 로맨스를 보여드립니다!

2021년. 도시의 사랑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7명의 각자 다른 사랑 방식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공유오피스 ‘플라이’에 모였다.

마음만 먹으면 전쟁통에서도 눈이 맞는다는데, 하물며 회사와 프리랜서가

1층에서 8층까지 모여 있는 공유오피스라면? 하긴, 이곳의 연애가 전쟁이라면

전쟁이다.

여기 6년 연애를 마치고 혼자가 된 다인이 있다. 바람피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반항심일까, 아니면 새로운 사랑에 대한 투지일까. 다인은 현우와 가벼운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나를 쿨했다’라고 생각하려 애쓰는 찰나, 프리랜서로

계약한 회사에서 현우를 다시 만나게 된다.

다인을 둘러싼 전쟁 같은 씬이 공유오피스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한 번에

하나씩만 오는 게 아닌가 봐. 다인 앞에 세 명의 남자들이 다가온다.

다인과 다인의 친구들은 과연 어떤 오피스 라이프를 누리게 될까!

등장인물

위다인(29세, 여)

얼마 전 사내연애를 마치고 퇴사한 백수 디자이너.

23세에서 29세까지 평생의 연애 상대라고는 전석현 한 명뿐이었으나, 한 달 전

6년 연애를 마치고 혼자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한 놈만 만나는 사이, 친구는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던가.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래!

박현우(31세, 남)

브랜딩 회사 에이클 기획팀 팀장.

일에 있어 진심이고 열정적이지만,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게다가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탓에

주변에서 종종 재수 없는 놈이라고 욕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들은 모르겠지만, 그 고집스러운 성격은 사랑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번 누군가를 좋아하면 좀처럼 포기를 모른다.

이진명(31세, 남)

공유오피스 1층에 입점한 술집 '그린 바' 사장.

다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고등학교 때 다인과 같은 미술학원에 다녔다.
자신의 전 여자친구 효진이 현우와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고 믿고 있다.

전석현(30세, 남)

개발자.

얼마 전, 다인을 두고 바람을 피운 탓에 다인과 헤어졌다.

다인과 헤어질 땐 자신에게 새 사랑이 온 줄 알았는데, 곱씹어보니 다인만 한
사람이 없다. 뒤늦게 다인과의 이별을 후회하는 중이다.

박성희(29세, 여)

성인의 사랑과 생활에 대한 매거진 <체조>의 1인 기업 대표.

섹스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지. 자고로 오래 가는 연애의 비법이라면 첫째도
섹스, 둘째도 섹스 아니겠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만나는 바이섹슈얼이다.

채승범(31세, 남)

에이클 직원. 마케터.

현우의 동료이자 오랜 친구.

운동을 좋아하고 승부욕이 강하다. 스트레스받는 걸 싫어해서 그때그때 풀어야
직성이 풀리고, 단순한 성격이다.

멀쩡하게 생겨서는 잘 못 선다는(?) 소문이 있다.

김연진(27세, 여)

에이클 직원. 마케터.

다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다인을 공유오피스로 불러들인 장본인.

이 시대에 하나 남은 로맨티스트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연진이라.

오로지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중에서도 첫눈에 반하는 운명적인 사랑만 추구한다.

신지호(25세, 남)

공유오피스 5층의 입주 회사 직원.

현우와 승범의 친한 동생.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

나이에 비해 자신감 넘치고 뭐든 잘 해낼 것같이 말하지만 그런 거침없는 성격 탓에 종종 버릇없다는 오해를 사곤 한다.

김효진(27세, 여)

기획자.

진명의 전 여자친구. 진명을 만나면서 현우도 동시에 사랑했다.

지호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공유오피스에서 현우, 진명을 마주치게 된다.

그 외

회사 동료들, 에이클 대표, 플라이 매니저 등

즐거리

사랑. 한 번에 하나만 하고 싶어!

다인은 석현과의 오랜 연애를 마치고 술에 취해 현우와 하룻밤을 보낸다.

하룻밤 사건인가 했더니 둘은 공유오피스 플라이에서 다시 마주친다. 둘은 사사건건 일로 부딪치고 싸운다.

1층 바 사장 진명은 다인을 좋아한다. 오래전 미술학원에서 다인을 혼자 짝사랑했던 진명은, 이번에는 다인에게 고백하고 싶다. 그런데 진명의 전 여자친구 효진과 바람났던 그 새끼, 현우가 자꾸만 눈에 거슬린다.

석현은 뒤늦게 다인에게 매달린다. 개발자로 오피스에 합류하지만 다인의 마음을 돌리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다인은 진명을 두고 현우와 효진이 바람을 피웠다고 믿지만, 사실 효진은 진명,

현우와의 다자연애를 원했던 사람이었다. 그 과정에서 진명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지만. 호진에 대해 뒤늦게 안 진명은 오해를 풀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다인이 가득하다.

아무래도 다인의 회사생활이 점점 꼬이는 듯하다. 현우, 진명, 석현 세 남자가 자신을 어지럽게 한다! 전쟁 같은 이 줄타기를 어떻게 해결하지?

플라토닉 러브? 내 사전엔 없는 단어인데...

성인 생활 매거진 대표 성희는 요즘 오피스 생활이 곤란하다. 딱 자기 스타일이라고 관심이 생긴 승범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얼떨결에 키스를 하긴 했는데, 나는 섹스 없는 연애는 못 한다 단 말이야. 성희는 승범을 피하지만, 승범은 영문을 모르고 성희를 따라다닌다. 성희가 승범과 섹스 없는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때, 성희의 전 애인인 여자 진경을 마주친다. 성희가 바이섹슈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승범은 혼란해하고, 성희 또한 그런 승범에게 실망한다. 둘은 이 오해와 시련을 딛고 만날 수 있을까? 그나저나 승범은 정말로 ‘못’ 서는 거야?

운명적 사랑을 기다리시나요?

연진은 언제나 로맨스를 기다린다. 사랑의 필수조건은 ‘운명적 만남’이다. 연진은 넘어질 뻔한 자신을 구해준 바 사장 진명에게 그렇게 또다시 반한다. 자꾸 지호가 들러붙는데, 미안하지만 넌 내 운명이 아니란다.

지호를 밀어내는 연진이지만, 어떻게든 자신과 운명적으로 엮여보려는 지호의 노력이 조금 귀여워지려 한다. 이제 운명보다는... 노력이 더 가상해 보인달까?

1회

한 달 전, 다인은 6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혼자가 되었다. 긴 연애가 무색하게 남자친구 석현의 바람으로 헤어지는 두 사람.

석현과 사내연애였던 탓에 이별과 동시에 퇴사까지 하게 된 백수 다인. 마침 후배 연진의 제안으로 연진이 다니는 회사에서 프리랜서 일을 맡아 디자이너로 일하게 된다.

한편, 친구 성희의 이끌림에 못 이겨 맥주 모임에 참여하는 다인. 그곳에서 만난 현우의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다음날, 다인은 잠든 현우 곁을 몰래

빠져나와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공유오피스 ‘플라이’에 출근한다.
플라이 공유오피스. 다양한 회사와 프리랜서들이 모여 일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다. 훌륭한 시설은 기본이고, 각종 강의나 체험이 가능한 세션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마치 천국 같은 오피스다.
그러나 다인은 그곳에서 하필 우연히, 현우를 마주치게 된다. 현우는 연진과 같은
프로젝트를 맡은 기획팀 팀장이다. 둘은 앞으로 두 달간 함께 일하게 된다.

2회

다인은 자꾸만 석현과의 과거가 떠오른다. 6년의 연애를 정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오피스에서는 현우를 피해 다니느라 고생이다.
한편, 연진은 넘어질 뻔한 자신을 잡아준 ‘그린 바’ 사장 진명에게 한눈에
반해버린다.
요가 수업에서 성희가 승범에게 관심을 보이자, 연진은 승범의 그곳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소문을 전해준다. 섹스 없는 사랑이 무의미하다고 믿는
성희는 아쉬워한다.
다인과 현우는 미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하지만 부딪친다.
퇴근 후 다인과 성희, 연진은 진명이 있는 그린 바로 간다. 그곳에서 승범, 지호,
현우를 만나 결국 술자리를 함께하게 된다. 성희는 자기도 모르게 승범에게
키스를 한다. 그러나 곧이어 승범의 그곳이 제구실을 못 한다는 소문이 떠오른
성희는 도망친다.
다인은 현우에게 둘의 하룻밤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현우는 짓궂게 군다. 그
순간, 진명이 술병을 현우 앞에 황 내려놓으며 말한다.
“내가 어디서 봤다 했는데. 너 그 새끼지? 효진이랑 바람났던 그 개자식.”

3회

오피스에서는 자꾸만 일로 현우와 부딪힌다. 게다가 진명이 했던 “효진이랑
바람났던 개자식”이라는 말이 자꾸만 생각나는 다인. 다인은 현우에게
공격적으로 대한다.
연진은 커피 브루잉 세션에 참가한다. 어느새 지호도 따라와서 세션을 같이
듣는다. 지호는 연진을 따라다니지만 연진은 자신을 구해준 운명의 남자, 진명을
떠올린다.

성희는 승범을 피하지만, 승범은 끈덕지게 성희를 찾아낸다. 둘은 결국 퇴근 후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한다. 승범은 아는 밴드의 라이브 공연 촬영장에 성희를 데려가 관객이 없는 공연을 보여준다. 성희는 승범과의 데이트가 생각보다 좋다. 현우는 퇴근하는 다인을 기다린다. 청소하다가 찾았다며 다인의 귀걸이 한 짝을 건네는 현우. 다인은 그 귀걸이가 내 건지, 다른 여자 건지 어떻게 아느냐 쏘아붙인다. 그러나 현우는 말없이 다인 손에 귀걸이를 쥐여준다. 다인의 마음이 현우에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앞에 진명의 전 여자친구 ‘효진’이 나타난다.

4회

진명과 다인은 함께 점심을 먹게 된다. 진명은 다인에게 자신도 미술을 했었다며, 사고로 색약을 얻은 이후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점심을 함께하는 둘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는 현우. 다인과 현우, 새 프로젝트 회의에서 치열하게 토론한다. 다인은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브랜드 컨셉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현우는 그런 다인에게 프로답지 않다며 지적한다. 효진은 지호의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게 된다.

대표가 다인과 현우에게 그만 싸우라며 함께 보고 올 전시 티켓을 준다. 전시는 생각보다 너무 별로다. 그곳에서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다인과 현우는 화해한다.

성희는 어느새 승범을 좋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쓰고 있는 성생활 매거진의 내용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낀다. 섹스 없는 연애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왔던 자신이 플라토닉한 사랑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두렵다.

성희는 승범과 함께 간 서점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주친다. 성희가 바이섹슈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승범은 혼란에 휩싸인다. 성희는 그런 승범의 모습에 실망하게 된다.

다인이 그린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효진이 들어온다. 진명과 효진의 살벌한 기운. 다인은 현우와 효진이 호텔에서 나오다가 진명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둘의 기류를 피해 루프탑에 앉아 있던 다인은, 때마침 현우가 등장하자, 손에 쥐고 있던 귀걸이를 다시 현우에게 돌려준다. 이게 자기 귀걸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다인.

5회

진명은 고등학교 시절 미술학원 스케치북을 들여다본다. 스케치북에는 2008년도에 그렸던 다인의 초상화가 있다. 진명의 과거가 드러난다. 다인과 같은 미술학원에 다녔고, 다인을 좋아했었다. 진명이 입시시험을 치고 돌아와 다인에게 고백하려던 날, 차가 인도로 질주해 진명을 치고 만다. 진명이 다인에게 주려던 초상화는 그대로 다시 스케치북에 잠들었다.

다인은 프로젝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욱 일에 매진한다. 현우와 다인은 계속해서 업무로 싸운다.

어느 날, 연진이 예전에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를 마트 잼 코너에서 또다시 만난다. 저번에 자신을 위해 잼을 양보했던 남자를 위해 이번에는 자신의 잼을 양보하는 연진. 이 기회에 남자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남자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게다가 그 남자가 아들에게 살 잼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상이 모두 깨져버린다.

그런 바에서 술에 취한 연진, 진명에게 자신이 어떡냐 묻고, 진명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거절한다. 연진은 괜히 진명에게 화풀이하듯 설움을 쏟아낸다. “그럼 그날 왜 넘어지는 나를 잡아준 거예요! 마트에서 그 남자, 잼은 왜 나한테 양보한 건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진은 지호를 만난다. 지호는 연진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며 걱정해주고, 연진은 자신이 얼마나 운명만을 기다렸는지, 그게 다 얼마나 허상이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다음 날, 연진 자리에는 지호가 사다놓은 숙취해소제와 함께 연진이 사지 못했다는 잼도 놓여 있다. 연진은 설렌다. 승범이 성희를 찾아간다. 성희에게 자신의 혼란을 털어놓고, 성희가 바이섹슈얼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며 만나보자고 고백한다. 그러나 성희는 정작 자신이야말로 승범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승범의 마음을 거절한다.

회사에 다인의 전 남자친구 석현이 등장한다. 남은 한 달간 다인과 같은 회사에서 개발자로 외주 업무를 맡게 된 석현. 다인은 자신이 일하는 곳이니 일을 맡지 말라고 하지만, 석현은 다인을 아직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6회

진명에게 효진이 또다시 찾아와 매달린다. 진명은 화를 내고, 우연히 그 모습을

본 현우가 효진을 돕기 위해 거들지만 오히려 진명의 화를 돋운다. 진명이 현우의 목살을 잡는다. 살벌할 분위기 끝에 현우는 효진을 차로 데려간다. 한편, 다인이 그 모습을 보게 된다. 효진을 데려가는 현우의 모습을 보면서 다인은 현우가 자신을 좋아하긴 하는 걸까 혼란스러워한다. 그 와중에 석현까지 등장한다. 다인의 혼란은 더욱 커진다.

현우와 효진의 대화에서 둘의 과거가 밝혀진다. 당시 진명과 사귀던 효진은 현우에게 마음이 생겨 둘을 동시에 사랑하게 됐다. 그러나 진명의 존재를 몰랐던 현우는 나중에 이를 알고서 바로 효진을 떠났고, 진명은 효진과 현우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하게 된다.

지호는 연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연진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계획한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운명적인 타이밍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는데도 번번이 실패한다. 드디어 지호는 승범에게 부탁해서 우연히 영화관에서 연진을 만난 척할 수 있게 된다. 지호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운명인가 봐요'라며 발연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연진은 이미 지호의 계획을 우연히 들어서 알고 있다.

계획을 들킨 지호는 시무룩해지고, 연진은 그런 지호의 노력이 귀엽다고 생각한다.

한편,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브랜딩의 방향을 찾아내고,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표현해낼 패키지 디자인으로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다인. 현우는 치열하게 싸워서 자신의 가치관과 브랜드의 가치관의 접점을 찾아낸 다인의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야근하던 중, 다인의 노트북에 오류가 난다. 다인이 당황한 사이, 석현이 자리로 다가와 다인 컴퓨터의 오류를 익숙하게 고쳐준다. 과거에도 종종 있던 일이라 그런지 익숙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다루는 석현을 보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다인. 석현의 모습이 너무 밍다. 울컥해서 석현을 두고 뛰어나가는 다인. 엘리베이터로 뛰어나가는 다인을 본 현우가 따라가지만, 다인은 자기를 좀 내버려두라며 화를 내고 떠나버린다.

로비에서 뛰어나가는 다인을 발견한 진명은 다인을 따라 나간다. 다인은 울고 있다.

"다 엉망이에요. 이제 와서 누굴 또 가볍게 만나겠다고. 이미 늦었는데, 이미 6년이나 만나버렸는데! 새로운 사랑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7회

성희는 그달의 매거진을 마감하고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 며칠 밤을 새운 성희는 깊은 잠에 빠지고 싶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 성희는 승범의 무용 장면을 떠올리며 승범이 뭘 하는지 궁금해한다.

승범이 청송의 어느 고택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희는 그 길로 승범을 찾아간다. 네 시간의 운전 끝에 승범 앞에 나타나는 성희.

성희는 승범의 무용이 자신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승범에게 고백한다. 둘은 고택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지만, 성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승범이 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승범을 달래며 애써 긴 밤을 참는다. 다음 날, 할 일을 해내지 못한(?) 승범과 성희, 쾅한 눈으로 서울에 돌아온다.

다인과 현우의 프로젝트도 끝이 났다. 둘은 마지막으로 패키지 감리를 위해 함께 남양주에 있는 공장으로 외근을 가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 작지만 팔당댐이 쪽 보이는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는 두 사람. 밥을 먹고 호수 근처에서 노을이 지는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자리에서 현우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다인을 만났던 첫날로 돌아가더라도 자신은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임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점점 더 다인을 좋아하게 되었노라고.

오피스에서 파티가 열린다.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한 승범과 성희, 그리고 지호와 썸타는 연진, 묘한 기류의 다인, 현우, 석현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연진은 술김에 승범과 성희에게 둘의 정신적 사랑을 응원한다고 하고, 승범은 영문을 몰라 가우뚱한다. 그러다가 성희와 연진의 둘의 비밀 대화에서 자신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승범은 둘에게 흥분해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 자기 자리에 있던 그 약은 다른 과장님의 약이라며,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 남성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성희는 깜짝 놀란다. 못하는 남자인 줄만 알았는데...! 승범을 데리고 계단에서 키스를 나누는 성희. 승범은 성희가 자신의 성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둘은 그 일로 더욱 돈독하고 격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석현이 다인에게 제주도행 티켓을 건넨다. 프로젝트 마감을 끝냈으니 연애 때 첫 여행으로 갔던 제주도에 함께 가자는 것.

게다가 진명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그랬던 다인의 초상화를 선물한다. 진명의 과거 일을 알게 되는 다인.

다인은 집에서 석현이 준 티켓, 진명이 준 초상화를 번갈아 보다가, 현우가 건넸던 귀걸이의 다른 쪽 귀걸이를 꺼내 손에 든다.

같은 시간, 현우도 한쪽 귀걸이를 들고 집에서 혼자 다인을 떠올리고 있다.

현우, 석현, 진명의 세 가지 물건이 다인 손에 있고, 다인은 고민에 빠진다.

8회

연진이 로비를 걷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자와 부딪혀 책을 떨어뜨린다. 둘이 동시에 떨어진 책을 잡고, 손이 닿는다. 평소라면 연진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다. 연진이 떨리는 눈으로 상대를 바라... 보다가 그대로 다시 일어나 뒤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지호에게 걸어간다. 지호의 손을 잡는다. 지호 감동한다. 효진이 진명을 찾아온다. 진명은 효진이 폴리아모리(다자연애자)임을 알게 되고, 효진은 자신이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에서 진명과 현우를 힘들게 했다면 사과한다. 진명은 효진에게 효진이 폴리아모리여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며, 자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새로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다인이 자려고 눕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결국 새벽길을 걷다가 어느새 현우와 왔던 즉석우동 집 앞에 도착한다. 머뭇거리다 문을 열고 들어가 우동을 한 그릇 시킨다. 현우는 없지만, 다인은 그곳에서 혼자 우동을 먹으며 현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우동집을 나서는데, 역시나 잠이 안 와서 산책하던 현우를 마주친다. 얼마 전 다인에게 고백했던 현우는 다인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둘은 별다른 말 없이 서로 갈 길을 간다. 다인은 뒤늦게 현우를 찾아 다시 돌아와보지만, 현우는 그 자리에 없다. 아쉬워하는 다인.

다음 날, 다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문이 열리니 현우가 보인다.

현우가 피하려 하자, 다인이 그런 현우를 끌어당겨 엘리베이터에 태우며 키스한다.

오피스 세션에 다인과 성희, 연진이 모여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

“Aimez-toi. 사랑하다. Travailler. 일하다.”

맞은편 세션이 있는 룸에서는 현우, 승범, 지호가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我爱你 wo ai ni. 사랑하다. 工作 gong zuo. 일하다.”

썸카인다 최보운

1회

#1. 다인 집 침실(아침)

아침, 자신의 침대에서 저절로 눈이 떠지는 다인.

아침 햇살이 밝다. 시계를 보니 8시.

다인 (어이없다는 듯) 회사 다닐 땐 죽어도 이 시간에 안 일어나지더니.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거실로 걸어 나가는 다인.

#2. 다인 집 거실(아침)

다인이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든 채 비장하게 서 있다.

BGM으로 롤러코스터의 <습관> 도입부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다인 그래 다인아. 벌써 한 달이야.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다인은 빨랫감을 모두 세탁기에 밀어 넣으며 흥얼거린다.

다인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너를 내게서~ 깨끗이~ 지우는~날~

CUT TO

어느새 베란다 청소를 하고 있는 다인. 노래에 지나치게 심취한 듯하다.

다인 (베란다에 물을 뿌리며)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CUT TO

이번엔 화장실 청소.

다인 (변기를 닦으며 점점 격해지는 노래)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CUT TO

이번엔 청소기.

다인 (청소기를 미친 듯이 돌리며 자동으로 목소리가 커지는) 안녕~ 이~제 그만안~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우 어려운!! 얘기가익!!!!

다인이 청소기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노래를 마친다.

청소를 끝낸 자의 광기 어린 모습. 숨차 보인다.

때마침, 다인의 휴대폰 울린다.

제정신으로 돌아와 휴대폰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다인.

다인 여보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 어 연진아. 오랜만이다.

#3. 다인 집(밤)

TV 화면에서 한 커플이 입을 맞추고 있다. 서로를 애뜻하게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보내는 두 사람.

화면은 곧 커플이 싸우는 장면으로 바뀐다.

커플은 이전의 행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치열하게 싸운다.

여자 그 사람 누구냐니까?

남자 그렇게 나를 못 믿니?

여자 믿을 만해야 믿지.

화면 또 전환되면, 커플이 카페에 앉아 멀찍이 등을 붙이고 마주 보고 있다.

여자 우리 사이에 남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남자 (체념한 듯) 그러네.

여자 헤어지자.

남자 ...그래 헤어지자.

별안간 화면 밖에서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화면 멀어지면, 다름 아닌 다인의 거실 TV 화면이다. 다인은 TV 앞에 바짝 앉아, 옆에는 이미 젖은 휴지들을 쌓아놓고 울고 있다.

다인 (엉엉 울며) 왜 헤어져. 왜 또 헤어지냐고!

다인 뒤에서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곧 문이 열리고 달히는 소리가 이어진다. 그러든가 말든가 연신 화면만 보며 울고 있는 다인. 다시 화면. 길에서 서로 멀어지고 있는 두 사람.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걷는 커플의 모습 쓸쓸해 보인다.

어느새 다인 뒤에 서 있는 다인 친구 성희. 맥주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든 채, 울고 있는 다인을 바라본다.

다인 (성희 쪽을 돌아보며) 말이 돼? (만신창이 된 얼굴로 소리 지르는) 말이 되냐고!!

성희는 말없이 다인 옆에 앉아 비닐봉지 안에 있는 맥주를 하나 칩 따서 다인에게 건넨다.

올다가 성희가 주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또다시 우는 다인.

성희 (그런 다인 보며) 사람 하나를 엉망으로 만들었네. 만들었어.

성희가 종얼거리든 말든, 화면 앞에서 애처럼 엉엉 우는 다인.

CUT TO

다인과 성희 앞에 어느새 맥주 캔과 안주들이 널브러져 있다.

눈이 툭툭 부은 다인.

성희 그러게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어. 그것도 로맨스를.

다인 다섯 번도 더 봤어 저 장면을.

성희 보면 생각밖에 더 나?

다인 보면 막 눈물은 나는데, 그게 또 내 연애를 막 떠올리고,
생각나서 울고 그런 건 또 아니거든.

성희 뭘 소리야.

다인 드라마를 보잖아? 그럼 막 거기서 커플들이 행복해, 그러다가 싸워,
그러다가 또 헤어져. 이게 내 얘기 같냐고? 아냐. 그냥 그 장면만 봐도
막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냥 막, 저 두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거야. 그-냥! 자동으로 가슴이 아파오는 거야.

성희가 이해 안 간다는 표정으로 맥주를 마시며 다인을 바라본다.

다인 난 재들이 행복할 때부터 벌써 불쌍했거든.

어차피 금방 헤어질 거잖아!

성희 아주 그냥 이별 한 번에 통달하셨어.

다인 (자포자기한 듯) 이별만 했나. 퇴사도 했지.

성희 (혼내듯) 그러게 언니가 사내연애 하지 말라고 했지!

다인 이렇게 더럽게 헤어질 줄 누가 알았나.

성희 웃겨. 바람은 그 새끼가 피웠는데, 퇴사는 왜 네가 해?

다인 그 자식은 수치도 염치도 몰라. 더 나은 내가 쿨하고 멋있게 나가야지.

#4. 회상. 다인 전 회사(낮)

회사 회의실, 마주 보고 있던 다인과 석현. 석현이 일어나려 하자,
다인이 다급하게 석현 소매자락을 붙잡는다.
석현이 일어나다 말고 엉거주춤하게 선다.

석현 다인아...
다인 (울먹거리며) 그 사람 사랑해?
석현 ...
다인 나는? 그럼 6년을 만난 나는?

석현이 조심스레 다인이 잡은 소매를 떼어내지만, 다인의 손이 큰 소리를 내며 쿵, 테이블로 떨어져버린다.
그러나 다인이 다시 재빨리 떠나려는 석현의 옷을 또다시 붙잡는다.

다인 그냥 눈 감아줄게. 응?
석현 다인아.
다인 (제발, 하는 눈으로) 응?
석현 나 이제 너 안 사랑해.
다인 (놓치려던 옷자락 다시 붙잡으며) 너, 너! 회사에선?
석현 왜, 소문이라도 내게?
다인 ...못할 것 같아?
석현 (단호하게) 응.
다인 같이 입사해서 6년을 회사에서 연애했는데. 어떻게 다니라고! 여기
네가 바람피운 그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다니라고!
석현 그만둬야지.
다인 누가?
석현 ... (말없이 다인을 바라보는)
다인 ...나보고 그만두라는 거야 설마?

이번에는 다인이 석현의 옷을 놓는다.

석현은 회의실을 떠나버린다.

#5. 다인 집(밤)

아무렇지 않은 척 맥주를 마시고 있는 다인.

성희 아~ 쿨하고 멋있게?
다인 그럼. 내가 먼저 드~러워서 그만둔다 하고 나왔지.
성희 ... (웬지 내막을 아는 듯한 표정) 아무튼. 6년 연애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는구나~
다인 (홀기며) 어째 좀 즐거워 보인다?
성희 내년이면 서른인데. 태어나서 남자 한 명이랑만 자면 억울하지도 않냐.
다인 그게 뭐 어때서!
성희 친구야. 너 손가락이 왜 열 개인지 아니? 다 접어보라고 있는 거란다.
다인 (웃으며) 뭐 소리야. 접어서 대회 나갈 일 있냐.
성희 6년은 너무 긴 시간이야. 네가 전석현 한 명만 만나는 사이에 나는 열 손가락을 두 번을 접어야 하게 됐거든 이제...
다인 뭐? (성희 손가락을 바라보다 깨달은 듯) 20명? 20명이라고?
성희 만나보니 그렇다? (훈계하듯) 착한 사람도 좋지만, 연애는 역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최고야. 돈 많아도? 못하면 파이야.
다인 누가 성인잡지 대표 아니랄까 봐.
성희 (발끈하며) 성인잡지가 아니고, 성인 생활 매거진!
다인 (놀리듯) 그게 그거지.
성희 나 같은 사람이 세상을 한층 아름답고 다채롭게 만드는 거야.
(훈계하듯) 너도 세상을 좀 다채롭게 살아봐라.
다인 (자신 없다는 듯) 야 그래도 어떻게 잘 모르는 사람이랑 막 자...
성희 모르는 사람이랑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다인 위험하지 않나?
성희 그럼 뭐. 전석현은 안전해서 바람을 피웠대?
다인 ...이씨. (발끈하는)

성희 연애도 많이 해봐야 상처를 덜 받지. 헤어진 지 한 달이면 다시 시작하기 충분해.

다인 ...친구야. 나 아직 아프다.

성희 (어림없다는 듯) 아프니까 청춘이다.

#6. 오피스 플라이 1층 카페(낮)

어느 공유오피스 1층,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다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연진. 무척이나 반가운 듯 한걸음에 달려온다.

연진 언니! 오랜만이에요.

다인 (웃으며) 잘 지냈어? 나 여기 처음 와봐. 공유오피스 다니는구나.

연진 좋죠. 저희 회사도 입주한 지 한 두 달 됐어요.

다인 내 친구도 여기 다니는데, 오다가다 마주쳤겠다.

CUT TO

둘 앞에 커피가 한 잔씩 놓여 있다.

연진 우리 지금 외주 디자이너 구하는데. 언니 생각이 나서.

다인 정확히 무슨 일인데?

연진 TY뷰티 알죠? 거기에서 세컨드 브랜드 내는데,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하기로 했거든요. 브랜드 디자인도 해야 하는데 언니 마침 신다길래.

다인 정말? 나야 좋지. 언제부터인데?

연진 조금 급해서, 포트폴리오 받아보고 내부 평가 괜찮으면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되는데... 언니 관심 있어요? 제안서 드릴게요.

다인의 얼굴이 설렘으로 반짝거린다.

#7. 길가(밤)

다인이 길을 걸으며 어떤 건물을 찾고 있다. 성희에게 전화 거는 다인.

다인 어 나 여기 근처 왔는데, 어디야? 무슨 술집?

#8. 맥줏집(밤)

각종 맥주 탭이 즐비한 맥줏집. 문을 열고 다인과 성희 들어간다.

다인 (어이없다는 듯) 뭐? 모임이라고?

성희 응. (아무렇지 않은 척) 맥주 테이스팅 모임이야.

성희가 저 멀리 일행에게 손짓한다. 일행이 성희 알아보고 인사한다. 일행들 사이에 현우도 앉아 있다.

다인 (복화술 하듯) 아니... 미리 말이라도 해주든가... 술 마시자며...

성희 (뻔뻔하게) 1인 사업의 핵심이 뭐냐. 네트워크거든. 맥주도 먹고. 인맥도 넓히고. 사람도 만나고.

CUT TO

일곱 명이 모여 있고, 각각 앞에 1인용 트레이가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맥주잔들이 열 잔씩 놓여 있다.

사회자 자~ 저희 간단하게 모인 분들의 맥주 취향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 테이스팅 카드에, 드리는 샘플 맥주들을 한 모금씩 마셔보고 취향에 맞는 맥주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사회자가 작은 카드들을 준다. 다인은 성희를 보고 이게 뭐냐는 듯 눈빛을 보낸다.

성희 그냥 뭐. 어떤 맥주가 맛있는지 표시해봐. 종류가 엄청 많아서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거든.

다인 (자신 앞에 놓인 술잔들을 보며) 열 잔을 다 마셔?

성희 작은 잔이라 얼마 안 돼. 그냥 맛만 보면 돼.

다인이 조심스레 잔 하나를 들어 맛을 본다. 생각보다 맛있는 듯, 의원데? 하는
표정을 짓고는 카드를 들여다보며 표시한다.

성희 그래서 내일부터 플라이로 출근이라고?

다인 응. 후배네 회사랑 두 달 동안 일하기로 함.

성희 잘됐네. 너 오면 내일 저녁이나 같이 먹자.

CUT TO

다인 앞의 맥주가 조금씩 줄어 있다. 성희에게 카드를 보여주는 다인.

다인 넌 뭐가 맛있는데?

성희 (흑맥주 하나를 가리키며) 난 이거.

다인 진짜? (가장 밝은색의 맥주 가리키며) 난 이거.

사회자(E) 자. 다 쓰셨나요?

사람들이 고개 끄덕인다.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같이 다른 사람들의 카드 본다.

사회자 (다인의 카드 집어 들며) 자 오늘 새로 오신 다인 님 취향 한번 볼까요.
(읽으며) 오. 향긋한 맥주들 위주로 고르셨어요. 다인 님이 고른 맥주는
IPA 중에도 시트러스한 향이 나는 미국 IPA들이에요.

다인 (성희에게 몰래) IPA? IPA가 뭐야.

성희 (간단하게) 쓰고 썬 거.

순간 성희 휴대폰 울린다. 성희가 일어나 멀찍이에서 전화 받는다.

한편, 사회자의 설명을 들은 맞은편에 앉은 현우가 다인 바라본다. 둘이 눈

마주치고, 다인은 어색해서 맥주를 한 모금 마신다.

사회자의 다른 설명 듣는 다인.

그때, 성희가 급하게 돌아와 다인에게 속삭인다.

성희 야 나 가야 할 것 같아.

다인 엉? 왜?

성희 인쇄소에서 연락 왔는데, 미니북 제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인 지금?

성희 내일 OT 10시라고? 아무튼 내일 봐.

다인 (당황하며 성희를 잡아보는) 너 진짜 가게?

성희 (모두에게) 죄송해요. 저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인 야 나는...

성희 미안. 먼저 갈게. 너는 더 마시다가 가. 내일 보자. 미안 미안!

정신없이 자리를 떠나는 성희.

다인 (당황하며) 나... 혼자 있으라고?

CUT TO

맥주잔들이 좀 더 비어 있다. 아까보다 더 발그레해진 사람들.

사회자 (맥주잔 하나를 들어 보이며) 자, 이 맥주는, 열대과일 향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부드러운 피니시의 에일이에요. 한 모금씩 마셔보시고, 어울릴 것 같은 음식 편하게 알려주세요.

모여 앉은 사람들 저마다 스테이크, 해산물 등등 말한다.

다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다인 우동... 먹고 싶은데...

순간 또 한 번 현우와 눈이 마주치는 다인. 현우 약간 웃을락 말락 한 얼굴로

다인 보고 있다. 눈을 피하는 다인.

#9. 술집 앞(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 조금씩 얼굴이 상기되어서 떠나기 전 모여 있다.

다인은 어색하게 서서 사람들 주변에 서 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현우가 다인에게 말한다.

현우 즉석우동 먹으러 갈래요?

다인 네?

#10. 24시 즉석우동 집(밤)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이 꽤 많은 넓은 우동집. 다인과 현우 자리 잡고 앉아

있다. 큰 우동그릇과 맥주가 둘 사이에 놓인다.

다인 잔에 맥주 따라주는 현우.

현우 아까 테이스팅에서 제가 고른 맥주랑 똑같은 맥주를 골랐더라고요.

다인 아 그래요? 현우 씨는 맥주 좋아하시나 봐요.

현우 (웃으며) 제가 이번에 일하는 프로젝트 클라이언트가 맥주회사거든요.

다인 아 일 때문에.

현우 음... 그런 셈이죠. 아까까지는.

다인 (무슨 뜻인지 물어려다가 그만 두고 괜히 두리번거리며) 이 시간에도
사람이 많네요.

현우 24시이기도 하고, 술도 팔고. 밤에 종종 오는 곳이에요.

다인 재밌다. 우동에 맥주.

둘은 맥주잔을 들고 짠 한다. 마주 보며 어색하게 웃는 둘.

CUT TO

꽤 시간이 흐른 듯, 다인 취한 것 같다.

다인 ...과거를 돌아보자니. 지금까지는 참 흘러가는 대로 선택해온 삶인 것 같아요.

현우 주로 어떤 선택을 하세요?

다인 지금까지는... (말을 멈춘다).

다인이 문득 잔을 쥐고 있는 현우의 손을 바라본다.

다인이 현우 바라본다. 둘 눈이 마주친다.

다인 (주절주절)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결심이 선 듯)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현우 계기가 있나 봐요.

다인 글썄요. 시간을 들여 쌓아온 게 너무 간단하고 산뜻하게. (손으로 뭔가 폭발한 듯, 먼지가 퍼지는 모양 만드는) ...이제는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다인이 테이블 위 잔에 올려둔 현우의 손 바라본다.

현우 다인이 말이 없자 고개 들어 다인 바라본다.

다인 저 아까 진짜 우동 먹고 싶었는데.

다인이 현우의 손 응시하다가 현우 손 위에 자기 손가락 얹는다.

둘 사이의 텐션 느껴진다.

현우 (어느새 자신의 손등에 올라와 있는 다인의 손가락 바라보며)

왜 마음이 바뀐 건데요?

다인 안온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야 아까워진 거죠.

#11. 현우 집(밤)

현우가 주방에서 위스키 잔에 얼음을 담고 있다.

그런 현우를 힐끔힐끔 훑쳐보며 어색하게 방 안을 서성이는 다인.

다인 (안쪽 방을 들여다보며) 부... 분리형 원룸인가 봐요?

괜히 어색하게 집 구경하는 다인.

현우 (위스키를 따르며) 맞아요. 그 안쪽은 침실.

다인 아...침...실...

왠지 더 어색해지는 다인. 현우 한번 본다. 반면 현우는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현우 집 괜히 구경하는 시늉 하지만 생각은 영 다른 데 가 있는 듯하다.

#12. 회상. 골목(밤)

6년 전, 석현과 다인이 골목길에서 멈춰 얼굴을 가까이 한다.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 다인의 얼굴 발그레하다.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성희의 목소리가 들린다.

성희(E) 친구야. 너 손가락이 왜 열 개인지 아니?

키스하던 다인이 눈을 번쩍 뜬다.

#13. 현우 집(밤)

정신을 차리고 새삼 다시 현우를 보는 다인.

다인이 혼자 손가락을 접어본다. 하나. 하나에서 멈춘다.

뭔가 결심이 선 얼굴이 된다. 뻘히 현우 바라본다. 현우가 잔을 들고 다인에게 걸어온다.

CUT TO

현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인과 현우. 둘은 위스키를 한 잔씩 들고 침대 벽에 기댄 채 나란히 방바닥에 앉아 있다.

각자 자신의 잔을 바라보고 있지만 둘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현우 (잔을 만지작거리며) 저도 그래요.

다인 뭐가요?

현우 같은 환경 안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웃으며) 일태기가 이런 건가?

다인 아— 권태기, 삶태기, 일태기... (공감한다는 듯) 저는 환경을 바꿔보려고 해요.

현우 어떻게요?

다인 의도한 건 아닌데,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현우 안온하게 살아온 날들을 바꿀 기회네요.

다인 그쵸. 안 해본 것들도 해보고요.

현우 안 해본 것?

다인이 현우 바라본다.

이내 현우의 잔을 천천히 뺏어 바닥에 내려둔다. 둘의 얼굴 가까워진다.

다인 (현우 코 앞에서 천천히) 예를 들면...

현우 예를 들면...

둘은 천천히 키스한다. 다인이 손을 뺏어 현우의 어깨를 감싼다.

#14. 현우 집(아침)

다인이 자다가 뭔가에 놀란 것처럼 눈을 번쩍 뜬다.
주변을 보니 현우 집이다. 옆에선 현우가 자고 있다.
자신의 허리에 손을 감고 있는 현우. 다인이 가만히 그런 현우 바라본다.
다인이 아주 천천히 현우의 손을 들어서 자신의 허리에서 떼어내며
현우가 깨는지 살핀다.
곧히 잠든 현우. 다인은 이내 바닥의 옷을 주워서 입는다.

#15. 오피스 플라이 1층 로비(아침)

다인이 어젯밤 옷차림 그대로 로비를 걸어 들어온다. 괜히 옷매무새를 만지는.

연진(E) 언니.

연진의 목소리에 괜히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보는 다인. 연진이다.

다인 어, 연진아 나 늦진 않았지?

연진 네. (시계 보고) 한, 십 분 후에 OT 들고 우리 오피스 층으로 오면 돼요.
6층. 이따 봐요!

#16. 엘리베이터(낮)

엘리베이터 안. 다인은 긴장이 풀린 건지 엘리베이터 벽에 풀썩 기댄다.

#17. 회상. 현우 집(밤)

침대에서 키스하며 다인의 윗옷 벗기는 현우의 손.

CUT TO

다인의 ще골께에 키스하는 현우. 다인이 현우의 머리카락에 손을 넣어 쓸어 넘긴다. 자신 얼굴 아래에 있는 현우의 속눈썹과 코와 귀가 보인다.

#18. 엘리베이터(낮)

정신 돌아온 듯,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보는 다인.

다인 위다인 사전에 원나잇도 넣어보고. 알차다 알차.

다인의 휴대폰 울린다. 도착한 메시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는 다인.

곧 이어 휴대폰을 들어 사진첩을 눌러보는 다인.

최근 사진에 석현과 다인이 함께 찍은 셀카들이 있다.

위로 한참을 올려도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하다.

다인은 사진첩에서 삭제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한다.

다인 이걸 언제 다 지워. 한참 걸리겠네.

결국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 다인.

다인 그래. 인생에 6년 연애도 있고, 바람도 있고 원나잇도 있고, 그런 거지 뭐.

#19. 오피스 플라이 2층/낮

다인, 다른 입주자들 약 열 명과 함께 오피스 매니저의 설명 듣고 있다.

매니저 ...저희 플라이 오피스는 한국의 다른 공유오피스들보다 한층 나은 서비스,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내부 보여주며)

입주자분들 모두 앉아서 일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유좌석, 회의실을 갖추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오피스 인테리어는 대부분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테이블에는 저마다 다른 회사의 대표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일하고 있다. 창가에는 빈백과 소파도 있어서 쉬거나 미팅하는 직원들이 보인다. 복도 방향에는 회의실이 저마다 다른 크기, 다른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다.

매니저 (탕비실을 가리키며) 탕비실은 전 층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층부터 6층까지의 오피스 공간에는 모두 이렇게 다양한 커피, 음료, 간식들이 비치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해주세요.

탕비실은 거의 카페 같다. 머신은 물론, 각종 커피 도구들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커피 외에도 과일주스, 탄산음료, 간식들이 비치되어 있다.

#20. 오피스 7층(낮)

7층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탁구대, 보드게임 테이블, 오락기 등, 각종 놀이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 놀이터 같다. 사람들은 오락을 하거나, 가운데의 넓은 쿠션자리에서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매니저 (사람들을 바라보며) 7층은 이렇게 오락존과 헬스, 방음 처리된 휴게룸, 수면룸이 있어요. 그리고 끝 방에는 A0 사이즈까지 인쇄 가능한 인쇄실과 3D 프린터룸이 있어서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실이라는 말에 다인 눈이 반짝거린다.

다인 (혼잣말로) 인쇄실이 따로 있어? 끝내주네 여기...

매니저 자... 8층으로 가볼까요?

#21. 오피스 8층(낮)

매니저가 조금 더 상기된 얼굴로 공간을 소개한다.
공간은 크고 작은 방, 바 공간 등이 있어 파티를 같은 느낌을 준다

매니저 많은 분들이 저희 플라이 오피스에 입주하는 이유, 세션 존입니다.
(공간을 안내하며) 입주자분들은 세션의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세션을
여실 수도, 다른 세션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인이 들여다보니, 어떤 방에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립 커피를
내리며 배우고 있다.

매니저 이번 주에 열려 있는 세션은... (태블릿 PC를 들여다보며) 중국어
세션, 요가 세션, 코딩 세션 등 약 일곱 개의 세션이 있네요. 개발하신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험하고 홍보하기에도 좋고, 매주 모여서 친목을
다지기에도 좋습니다. 저희 공유오피스 규모가 큰 만큼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다양한 세션이 열리고 있습니다.

OT를 듣는 사람들 모두 약간 들떠 보이는 얼굴이다.

매니저 아, 그리고 9층에는 루프탑이 있고, 지하에는 무료로 아침식사가
가능한 식당이 있습니다. 루프탑에서는 종종 파티도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인이 매니저의 설명 들으며 다른 방도 구경하는데, 어느 방에서 여러 개의
맥주들을 늘어놓고 시음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얼핏 뒷모습이 현우 같아 보이는 남자가 보인다.

다인 그 남자인 줄 알았네. 이제 헛것도 본다 위다인.

#22. 오피스 6층(낮)

연진과 다른 직원들이 서서 다인과 인사 나누고 있다.

연진 (직원들 소개시켜주며) 여기는 우리 동료들. (다인 소개해주며)
앞으로 두 달간, 우리 새 프로젝트에 브랜딩 디자인 맡아주실 위다인
디자이너님이예요. 제 고등학교 선배.

다인 반갑습니다. 위다인이라고 합니다.

연진 언니, 이따가 오후에는 기획팀이랑도 킥오프 미팅 한번 가져요.

다인 (미팅이라는 말에 왠지 긴장되는) 네. 그래요.

#23. 오피스 식당(낮)

구내식당치고는 카페테리아처럼 세련된 인테리어의 식당. 다인과 연진이
창가에 식판을 들고 자리 잡는다.

다인 (두리번거리며) 여기는 무슨 구내식당도 좋다.

연진 여기 장난 아니죠.

다인 영. 공유오피스 진짜 좋은 거구나.

연진 여기가 그중에 제일 좋아요. 특히 플라잉 세션이 진짜 좋거든요.
저 금요일마다 요가수업 듣는데. 언니도 같이 들을래요?

다인 아 세션, 아까 설명 들었는데 좋아 보이더라. 요가도 있어?

연진 별별 게 다 있단니까. 아 언니 친구분도 여기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인 응. 이따 저녁에 보기로 했어.

연진 그렇구나.

다인 다음에 소개해줄게. 오며 가며.

그때, 저 멀리 한 무리의 직원들이 지나가는데, 옆모습이 얼핏 현우와 닮은 남자가 또다시 지나간다.
그걸 본 다인이 또 움찔한다.

다인 아주 그냥 새가슴이야.
연진 네?
다인 어? 아냐. 닮은 사람을 봐서.

#24. 오피스 6층(오후)

오피스 회의실에서 다인과 연진이 나란히 앉아 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 다름 아닌 현우다.
다인이 놀라 벌떡 일어나 현우를 바라본다. 현우 목에 한 사원증.
다인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다인이 저도 모르게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겨버린다.

연진 (아무것도 모르는) 팀장님 오셨어요? 디자이너님, 여기는 우리 기획팀 박현우 팀장님. (현우에게) 팀장님 여기는 새로 우리 TV뷰티 프로젝트 브랜딩하실 워다인 디자이너님.

연진이 고개를 돌려 다인을 보는데, 다인이 없다? 테이블 밑으로 숨은 다인 발견하고 뭐지? 하는 표정을 짓는 연진.

연진 언...니?

그제서야 겨우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는 다인.
현우는 다인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듯하다.
다인이 엉거주춤 일어난다.

다인 아... (당황하며) 폐...펜을 떨어뜨려서...

현우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하세요. 박현우 팀장입니다.

다인은 건네는 약수가 무색하게 현우의 얼굴만 바라본다. 말도 안 돼...

연진 (쿡 찌르며) 언니?

다인 아. 아... 워다인입니다.

약수 건넨 현우의 손을 머뭇거리며 맞잡는 다인.

현우 (약간 짓궂은 얼굴로)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의 손을 빼내려 하는 다인과, 그런 다인의 손 놓치지 않고 꼭 쥐는 현우.
다인이 땀을 빼질 흘리며 억지로 웃어보지만,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클로즈업 되는 다인의 얼굴.

다인(NAR) (빼 처리되는 격한 욕) 시바... X됐다...

1회 끝.

2회

#1. 오피스 로비(아침)

다인이 1층 엘리베이터 옆 벽에 혼자 머리를 부딪치고 있다.

다인 (염불 외듯) 위다인. 왜 사냐. 왜 살아.

진명이 식재료를 한아름 들고 가다가, 그런 다인의 모습 발견한다.

멈춰서 다인 관찰하는 진명.

다인은 계속해서 머리를 벽에 박으며 중얼거린다.

다인 (쿵) 강 살던 대로 살 것이지. (쿵) 네가 새 삶을 살아봤자 위다인이지. 앞으로 어찌려고 그래. 이 사고를 어쩔 것이야... (쿵) 출근 이틀 만에 퇴사하고 싶어?

진명이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다는 눈으로 다인을 구경하다가 이내 갈 길을 간다.

#2. 오피스 6층(아침)

다인은 구석 회의실에 혼자 앉아서 일하고 있다.

어쩐지 한껏 움츠러든 자세로 숨어서 일하는 모습.

다인은 제안서를 열어보며 한숨을 쉰다. 제안서 화면이 갑자기 바뀐다.

(CG) 화면 속 다인과 현우. 침대 앞에 걸터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웃고 있다.

다인은 화들짝 놀라며 노트북을 덮어버린다.

다인 (중얼거리며) 내가 상상한 원나잇 시나리오에 이런 건 없었는데.

조심스레 다시 노트북을 열어보는 다인. 여전히 아까 그 장면이다.
(CG) 이번엔 다인과 현우가 키스한다.

다인 (멍하니 화면 바라보며) 가볍게 만났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때, 회의실 옆으로 직원들 지나간다. 그중, 현우가 눈에 띈다.
다인이 놀라 모니터 뒤로 몸을 숨겨본다.
빼꼼 고개를 다시 내밀어 걸어가는 현우 뒷모습 보는 다인.
얼핏 회의실 쪽을 본 것 같기도 한데,
무심히 지나가는 걸 보니 다인을 못 본 것 같다. 다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다인 말이 되냐고. 여기에 저 사람이 왜 있냐고.

#3. 그린 바(저녁)

플라이 오피스 로비에 있는 '그린 바'에 다인과 성희가 앉아 있다.
밖으로는 퇴근 중인 사람들과 플라이 오피스 로비가 보인다.

성희 포토북?

다인 응. 헤어지기 전에 주문 제작해놨거든.

성희 (안타까운 듯) 타이밍 참.

다인 그사이에 개량 헤어질 줄은 몰랐지 진짜.

성희 (낄낄 웃으며) 한 달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 포토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 아냐?

다인 (어깨를 으쓱하며) 별 수 있어?

성희 (다인 옷차림 바라보며 인상 쓰며) 야 잠깐.

다인 영?

성희 너 옷이 왜 그대로야?

다인 (얼굴 붉히며) 뭐가?

성희 (수상하다는 듯) 뭐지?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연락도 안 됐는데.

들킨 표정의 다인. 체념한 듯 한숨을 쉰다.

CUT TO

성희가 놀란 얼굴로 다인 바라보고 있다. 죄지은 얼굴의 다인.

성희 그래서. 어제 모임에서 만난 남자랑 잤고, 오늘 마주쳤다고?
다인 미쳤지 내가.
성희 (감탄하며) 와 진짜 재밌다.
다인 너나 재밌지.
성희 (안 들리는 듯) 역시 인생의 이벤트는 뭐니 뭐니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법이지.
다인 너나 그렇다니까.
성희 사람이 섹스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해. 섹스 없는 연애는 연애도 아냐.
 그거 가짜 사랑이야.
다인 어우 저속해.
성희 진짜야. 사랑에 무슨 힘이 있어. 육체적 호기심이 없으면 사랑은 금방
 힘을 잃는다니까.
다인 사랑의 힘이 육체에만 있다니. 너무 슬픈 거 아냐?
성희 물론, 섹스가 사랑의 전부는 아닐 수 있지.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차지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아니라고 못 할걸? 적어도 나한테는
 중요하던데.
다인 너도 참 한결같다.
성희 이거 이거. (웬지 뿌듯해 보이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오른다더니~
다인 그 고양이 부뚜막에서 내려갈란다.
 괜히 어울리지도 않는 짓 해서 후회나 하고.
성희 앞으로 두 달간 꼼짝없이 그 남자랑 일해야 하는 거네?
다인 영. 기획팀 팀장이래.
성희 어우 지저분하고 짹짹해.
다인 (머리를 쥐어뜯으며) 살던 대로 살걸!

그때 다인과 성희 자리에 안주를 내려놓는 진명.

진명 (성희에게) 단골 서비스예요.
성희 (놀라며) 와! 감사합니다.
진명 (다인 보며) 친구분이예요?
성희 여기 어제 입주했어요. 디자이너.

진명이 다인 뻘히 바라본다. 아침에 본 그 여자.

진명 아... 디자이너.
다인 (웃으며) 안녕하세요.
진명 (다인 바라보며) 자주 오세요. 맛있는 안주 드릴게요.

#4. 오피스 로비(낮)

1층 로비. 멀리서 연진이 걸어오고 있다.
연진 흥얼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순간 바닥의
전단지를 밟고 뒤로 휘청한다.

연진 (넘어지며) 으악!

근데 연진이 넘어지려는 찰나, 누군가 연진의 등 받쳐 연진을 잡아준다.
연진이 얼떨떨한 얼굴로 뒤를 보니, 진명이 연진을 붙잡고 있다.
마치 드라마처럼 이 모든 게 연진 앞에 슬로 모션으로 펼쳐진다.

진명 엇. 괜찮으세요?
연진 ...! 네.

별안간 연진의 얼굴이 빨개진다. 수줍은 얼굴로 자세를 고쳐 서는 연진.

연진 네. 감사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그런 사장님?
진명 (미소와 함께) 조심하세요, 그럼. (고개 꾸벅)

떠나는 진명의 뒷모습 얼떨떨하게 바라보는 연진.
진명은 그대로 로비에 입점한 술집, 그런 바로 들어간다.
시선을 못 떼는 연진. 발그레한 미소는 어쩐지 첫눈에 반한 사람의 그
얼굴이다.

연진 (뒤늦게) 안녕히...가세요...

진명은 한편, 걸어가며 중얼거린다.

진명 이 로비 터가 안 좋나...

#5. 오피스 8층 요가 세션룸(낮)

다인, 연진, 성희가 수업 전에 매트를 깔고 있다.

연진 (매트 위에 앉으며 성희에게) 저 그 매거진 읽어본 적 있는데.

대표님이 다인 언니 친구분이셨구나. 대단하시네요!

성희 (쑥스러워하며) 직원도 없는 작은 매거진 회사예요.

연진 저 엄청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저번 달에... 뭐더라, ‘육체적 사랑,
정신적 사랑’이라는 기사. 그거 읽고 엄청 공감했는데.

다인 다 애 경험담일걸.

성희 (웃으며) 사실입니다.

그때, 승범이 요가매트를 들고 들어온다.

연진 (아는 체하며) 채 대리님! 요가 세션 들으세요?

승범 엇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보려고요.

승범의 건장한 체격과 까무잡잡한 피부를 관찰하는 성희의 호기심 어린 눈.

연진 (다인 가리키며) 인사하신 적 있죠? 저희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기로 한 워다인 디자이너님.
승범 아~ 안녕하세요.
다인 안녕하세요.
연진 그리고 여기는 다인 디자이너님 친구분. 이분도 플라이 입주자시래요.
성희 (눈을 반짝거리며) 안녕하세요. 박성희라고 합니다. (악수 건네는)
승범 (악수하며) 안녕하세요 채승범이라고 합니다.

성희가 승범을 뜨거운 눈으로 관찰한다. 다인이 눈치채고 성희를 톡 친다.
승범은 무리와 조금 떨어진 앞쪽에 매트를 펴고 앉는다.

성희 (속삭이며) 여자친구 있대요?
연진 (고개 저으며) 소용없어요.
성희 네? 왜요?
연진 (속삭이며) 제 기능을 못 한대요.
성희 앵????
다인 진짜?
연진 네. 누가 채 대리님 자리에 있는 약봉지 봤대요.

연진이 손가락을 하나 들고는 이내 벼가 고개를 숙이듯, 손가락을 굽힌다.
성희가 그걸 보다가 안타깝다는 얼굴로 승범 바라본다.
앞아서 몸 푸는 승범의 팔 근육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

성희 (망연자실)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이...

CUT TO

요가 수업 중, 셋은 뒤에서 속삭이며 대화하고 있다.
선생님이 앉아서 다리를 곧 '비둘기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선생님을 따라서 다리를 꼬며 팔을 들어 뒤로 보내는 세 사람.

성희 (팔을 허공에 겨우 저으며) ...하긴 그 바 사장 잘생기긴 했지.
연진 (봉 뜯 얼굴로) 운명이라니까.
다인 너는 고등학교 때도 그러더니. 운명의 상대가 도대체 몇 명이야.
연진 (선생님을 따라 다시 다리를 펴며) 언니. 언니가 길 가다 넘어질 뻔하면, 그걸 잡아줄 남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확률이 바로 운명인 거죠.

순간, 다인이 회의실에서 현우와 마주치던 모습을 회상하고 인상을 딱 쓴다.

다인 그게 무슨 운명이야. 우연이지.
연진 아직은 그럴 수도.
성희 (여전히 혼잣말하듯) 잘생기긴 했어.
연진 그러니까, 오늘 퇴근하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인 어딜?
연진 그린 바.

성희와 다인이 놀라 연진을 보다가 마음대로 하라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6. 오피스 6층(오후)

다인이 노트북을 들고 유리문 뒤에 서서 회의실 안을 살핀다.
현우를 포함한 직원들 모여 있다.

다인 말이 되냐고 진짜.

다인 한숨 푹 쉰다.

다인 가벼운 만남은 무슨.

#7. 오피스 6층 회의실(오후)

다인과 현우를 포함한 다섯 명의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하고 있다.

현우 (회의실 모니터에 제안서 화면 띄우며) 알다시피 TY뷰티는 그동안 중저가의 로드샵 위주 브랜드를 내왔던 브랜드고, 이번에 저희가 맡은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입니다.

다인은 어색함을 숨기지 못하고 현우를 흘끔흘끔 바라본다. 그러나 눈이 마주쳐도 현우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다.

현우 그리고 TY뷰티에서 이번에 제안한 컨셉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곧 외면의 아름다움이다’ 즉 이너뷰티와 화장품의 접목입니다.

동료1 그, 이너뷰티라는 게 건강이랑은 또 다른 개념인가요?

현우 좀 더 내면을 가꾸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동료2 나의 정신이 아름다워야 외모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요?

다인 조금 어폐가 있네요. 결국 지향점이 외모라는 점에서.

가만히 들던 다인의 말에 모두의 시선 쏠린다.

다인 (당황하며) 아... 저는 이너뷰티라는 단어를 들으면 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면을 꾸밈으로써 외면의 아름다움을 탐한다는 지점이 모순이라는...

동료들 일부 끄덕인다. 현우는 다인 뺨히 바라본다.

왠지 창피해져서 고개를 숙이는 다인.

#8. 오피스 5층 회의실(오후)

회의실에서 모니터 속 여성과 이야기하는 성희. 화상 통화중이다.

성희 작가님 이번 기사 읽어보셨죠?

작가(E) 네. 제목이... ‘탐험과 개척’ 맞죠?

성희 맞아요. 늘 그렇듯 너무 노골적이진 않지만 유틸리티 있는 일러스트로 해주셨으면 해요. 작가님이 저번 기사에 그려주신 일러스트도 저는 좋았거든요.

작가(E) 내용 보니까 커플 간에 아직 찾아내지 못한 성감대를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쓰셨더라고요. 보내드린 스케치 보시면 이렇게 손, 발, 귀처럼 신체의 작은 부분들을 두드러지게 그려볼까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 어떨까요?

성희 그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성감대를 찾는다’보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한 요구들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을 더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작가님이 주신 스케치 중에, 커플이 손 맞잡고 누워서 이야기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와 가까워서.

작가(E) 그럼 대표님이 말하신 그 시안으로 그려서 디벨롭 해볼게요.

성희 네 좋습니다.

#9. 오피스 7층(오후)

성희가 휴게 공간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을 열고 승범이 들어온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떠들며 오락기 앞에 앉는 승범.
 승범은 승부욕이 넘치는 듯, 동료들과 왈자지껄하게 떠들며 철권을 한다.
 성희는 그런 승범 모습 뒤에서 지켜본다.

승범 내가 오늘은 너 이긴다.

동료1 대리님. 저번에도 그 말 하고 저한테 지셨잖아요.

승범 (안 들리는 듯) 빨리 와서 앉아봐.

게임 시작하는 승범.

CUT TO

승범, 엄청난 기세로 게임을 하다가 잠시 후, 신나게 웃는다.

승범 (웃으며) 봤냐? 내가 이긴다고 했지?
동료1 뭐야. 연습했죠 몰래?
승범 야 빨리. 내놔, 식권 내놔.
동료1 아씨...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는)
동료2 채 대리님 승부욕 진짜 알아줘야 한다니까.

식권을 뺏어 들고 일어나던 승범, 성희를 발견한다.

승범 어, 안녕하세요.
성희 이기셨나 봐요.
승범 (장난스럽게) 저 잘 안 저요.
성희 아... (약간 동정하는 눈빛) 잘 안 지는...
(자동으로 눈이 승범의 고간으로 간다)

승범이 동료들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간다.

성희 딱 내 스타일인데. 안타까워라.

#10. 오피스 6층 탕비실(오후)

탕비실에서 드립 도구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직원. 그 옆 동료는 캡슐 커피를 내리고 있다. 저마다 원하는 커피를 내려 마시는 모습이 자유로워 보인다.
현우는 그 옆에 기대서서 이미 커피를 마시고 있다.

동료1 (주전자로 드립 커피를 내리며) 똑똑하신 것 같아요.
현우 누가?
동료1 이번 디자이너분이에요.

현우 (신경 쓰이는) 그래?
동료2 맞아요. 아까 할 말 하는 거 좀 멋있던데.
동료1 사실 첫 미팅에서 소신 있게 나서서 말하기 눈치 보일 수도 있는데.
웬지 디자인도 잘할 것 같던데?
현우 (살짝 웃으려다가 말고) 해봐야 아는 거지.

그때, 승범이 탕비실로 걸어온다.

동료1 채 대리님 커피 한잔 드려요?
승범 (냉장고로 걸어가며) 저는 콜라. (현우에게) 이따가 지호랑 같이 한잔할래?
현우 오늘?
승범 영 지호네 회사 드디어 프로젝트 마감했잖나, 이번 달엔 어쨌 같은 오피스에 있어도 얼굴 보기 힘들더만.
현우 그래. 가지 뭐.

#11. 그린 바(저녁)

다인과 성희, 연진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
곧이어 진명이 메뉴판을 들고 온다. 연진의 눈 반짝거린다.

연진 (발그레) 사장님. 아까 낮에 감사했어요.
진명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본 건데요 뭐.
연진 그래도요. 사장님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는데.
진명 (웃으며 넘긴다) 다인 씨, 성희 씨. 어제는 집에 잘 갔어요?
꽤 늦게까지 마셨잖아요.
성희 어휴. 그럼요.
진명 (달래듯) 과음하지 마세요.

진명이 다시 돌아간다. 연진이 아쉽다는 듯 진명을 바라본다.

성희 (그런 연진 바라보며 다인만 들리게) 사장님은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데.

그때, 바 문이 딸랑 하며 열린다. 세 명의 무리 들어오는데...
승범과 지호, 그리고 뒤에 따라 들어오는 현우.

다인 헐.

다인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획 숙이며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

연진 (반가운 듯) 어, 채 대리님! 박 팀장님!

다인의 얼굴이 점점 당황으로 가득 찬다. 동공지진.
승범이 연진과 다인, 성희가 있는 테이블로 걸어온다.
뒤따라 걸어오는 현우와 지호.

승범 여기 계시네요?

다인이 포기한 듯, 손을 내리고 꾸벅 인사한다.
현우가 그런 다인 바라본다. 약간 놀란 것 같은 얼굴.

승범 (지호 가리키며) 여기는 제 후배. 신지호. 지호 회사도 이 오피스에 입주해 있어요.

지호 (꾸벅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투비원 직원 신지호라고 합니다.

연진 안녕하세요.

다인 안녕하세요...

성희 (현우 알아보는) 어?

현우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성희 맞죠? 맥주 모임에서...

연진 두 분 아는 사이예요?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현우 네. 모임에서 우연히. (다인 바라보는)

성희가 다인의 당황한 얼굴과 현우 얼굴 번갈아 보다가
상황을 대략 눈치챈 듯하다.
더 말은 안 하지만, 무척이나 즐거운 얼굴을 숨기지 못하는 성희.

연진 (의자를 빼주며) 같이 술 드실래요?

다인 (놀라며) 아, 아니….

현우 (털썩 앉으며) 그럴까요?

다인이 저도 모르게 현우에게 눈을 부라린다.
현우가 짓궂은 얼굴로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CUT TO

어느새 여섯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주문을 받으러 걸어오는 진명.

진명 어떤 걸로… (잠깐 현우 바라보는) 드릴까요?

진명이 현우 얼굴 유심히 바라본다.
뭔가 떠오를 듯 말 듯한 얼굴이 되어 고개를 살짝 가웃하는 진명.

연진 저희 맥주 세 잔이랑, 여기 이 칵테일 하나, 글렌리벳 두 잔이요.

진명 (다인 바라보며) 글렌리벳은 온더락으로?

다인 어… (어떻게 내 건지 알았지?) 네.

현우 (끼어드는) 하나는 물이랑 주세요.

진명은 여전히 긴가민가하는 얼굴로 현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돌아간다.

지호 (연진에게) 누나는 무슨 일 하세요?

연진 누나? (웃는) 누나 마케터예요.

지호 (뒤늦게) 아. 누나라고 해도 되죠?

연진 네 그러세요.

연진은 지호가 말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 보인다.

연진의 시선은 자꾸만 진명에게 가 있다.

성희 (현우 바라보며) 현우 씨 이렇게 또 보네요. 사람 인연이 참~ 그치?
(다인을 톡 친다)

다인 ...

다인은 아까부터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자꾸만 눈길을 피하는 다인.

반면 현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12. 건물 앞 흡연 부스(밤)

승범이 라이터를 꺼내는데, 성희가 다가온다.

승범 (담뱃갑 꺼내며) 하나 드릴까요?

성희 그럴까요. 술 마시면 종종 생각이 나네.

승범 (담배 열어보더니) 어, 없다. 사러 가야겠는데.

성희 같이 다녀올까요?

#13. 길가(밤)

성희와 승범 어두운 길 걷는다.

성희 운동 좋아해요?

승범 어... 그런 편이에요.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야 하는 성격이라.

성희 무슨 운동 주로 해요?

승범 안 가리고 다 하는데, 요새는 클라이밍 해요.

성희 (혼잣말 하듯) 아 그래서 팔 근육이...

승범 네?
성희 (고개를 저으며 정신 차리는) 아니에요. 또 어떤 거 해봤는데요?
승범 뭐...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얼마 전까지는 현대무용 했었어요.
성희 현대무용?
승범 네. 재밌어요. 춤이기도 하고, 운동이기도 하니까.
성희 멋지다. 무용이라니...
승범 (걸음 멈추며) 보여드릴까요?

성희가 진짜냐는 듯 승범을 바라본다.
승범이 웃으며 오른 다리를 뒤로 빼서 선다.

승범 (다리에 힘을 살짝 주며 상체를 펴는) 다리는 이렇게,

승범, 상체를 위로 들어 올리며 팔을 각각 옆, 위로 뻗는다.

승범 그다음 팔을 이렇게 안으면서.

승범이 팔을 가슴으로 감싸 안는 듯하다가, 한쪽 팔을 앞으로 내밀며 팔을
한아름 돌린다. 부드럽고 유연해 보이는 몸짓이다.
그리고 몸을 한 바퀴 던하며 고개를 함께 돌리는 승범.
양팔을 부드럽게 위로 숙 올린다.
길에서 무용을 보여주는 승범의 모습이 왠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성희.
승범이 다시 무용을 멈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웃는다.

승범 술 마시면, 괜히 몸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성희는 말없이 승범을 따라 다시 걷는다. 그런데 한 발자국 뒤에서 승범의 등
보다가 다시 걸음을 멈춘다.
승범이 성희 김새 느끼고 돌아본다. 길 가운데에 서 있는 성희.
성희가 승범에게 한 발자국 걸어가고, 얼굴이 가까워진다. 승범이 그런 성희
가만히 본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려 한다.

성희가 승범에게 천천히 키스한다. 승범 잠시 놀란 눈이 되지만,
이내 성희와 키스한다. 방금 전 승범의 무용처럼 부드러운 키스다.
그러다가 순간, 성희가 키스하던 입을 떼다.
무심결에 승범의 다리 사이로 눈을 내리는 성희.
승범은 영문을 모르고 성희를 바라본다.
성희가 흔들리는 눈으로 승범의 그곳을 보다가,
갑자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다.

승범 왜요?
성희 (뒷걸음질 치며 승범의 다리 사이를 보는) 그...
승범 ??
성희 그... 제가... 승범 씨의 아름다운 몸짓에 반해서 그만 실수를...
죄송해요.

성희가 뒤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한다. 멀어지는 성희.

성희 (혼잣말로) 안 돼...

혼자 남겨진 승범이 당황한 얼굴로 빙쩍 채 서 있다.

승범 방금 뭔데?

#14. 그린 바(저녁)

연진이 진명이 서 있는 바 쪽으로 일어나 바 앞자리에 앉는다.
그런 연진을 보고는 쭈르르 연진을 따라서 옆에 앉는 지호.
결국 자리에는 다인과 현우만 남는다. 어색하니 할 말이 없는지 연신 술만
들이켜는 다인.

다인 저. (우물쭈물거리며) 그날 우리 만난 건...

현우 (다인을 똑바로 바라보는) 네.
다인 사람들에게 비밀로 좀 해주세요.
현우 말할 생각 없어요.
다인 저희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알겠죠?
현우 (약간 웃으며) 그건 거짓말인데.

살짝 현우를 찌러보는 다인.
그러나 현우는 웬지 즐거워 보인다.

다인 저 암전히 회사 생활 하고 싶거든요. 어디 가서 말하면... 특히
연진이나 직원들한테 말하면...
현우 말하면?
다인 (안색을 바꾸며) 죽는다.

현우가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그러나 다인 얼굴 심각하다.

현우 (여전히 웃으며) 잘 도망 다니시더라고요.
다인 네?
현우 아침에 봤는데. 회의실에 있는 것도. 왜 피했어요?
다인 (당황하며) 여기서 이렇게 볼 줄 몰랐고, 그날 하루뿐이었으니까.
현우 하루뿐인 건가요?
다인 ...그럼 뭐가 더 있겠어요?
현우 그건 두고 봐야죠.
다인 (당황하며) 저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고.
현우 나랑 왜 잤어요?
다인 왜라니...
현우 (짓궂게) 나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
다인 ...
현우 서운한데?

그때, 성희가 들어온다. 성희는 자리로 돌아와 재빨리 가방을 챙기기 시작한다.

성희 나 먼저 간다.

다인 뭐? 왜?

성희 (고개를 저으며) 아름다운 몸에게서 도망 갈 거야.

다인 뭐? 무슨 소리야.

성희 내일 보자. 안녕히 계세요. 어색한 두 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다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성희가 가방을 챙겨 떠나버린다.

현우 (성희 뒷모습 바라보며) 친구분이 중간에 사라지는 게 특기인가 보네.

다인 (어이없는) 아니 재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현우 그날 그 얘기들 말이에요.

다인 네?

현우 ...나도 그쪽이랑 같은 고민 해요.

다인 (뭔 소리냐는 듯) 갑자기?

현우 나도 늘 내 직업과 내 가치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고, 나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현우의 말에 다인이 현우를 바라본다.

현우 그날 다인 씨가 해준 말들이 나한테 해주는 말 같아서 좋았다고.

다인 ... (진지한 현우 눈 바라보는 다인)

현우 나는 별로 그쪽의 심심풀이 땅콩이 되고 싶지 않은데.

다인과 현우 사이에 긴장감이 흐른다.

다인이 할 말을 찾지만, 속내를 들킨 기분이다.

현우 우리 앞으로도 잘 마주쳐봐요.

다인이 현우의 두서없는 대화들에 정신을 못 차린다.

괜히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마시는 다인.

그런데 그때, 어느새 돌 자리로 온 진명이 갑자기 테이블에 큰 술병을 광
내려놓는다.

놀라서 진명을 바라보는 다인과 현우.

진명의 얼굴이 험악하다.

진명 (현우를 바라보며) 내가 어디서 봤다 했는데.

영문을 몰라 진명을 바라보는 현우.

진명 너 그 새끼지?

튀어나온 진명의 욕에 한층 놀라 바라보는 다인.

뒤에서 연진과 지호도 진명을 바라본다.

진명 효진이랑 바람났던 그 개자식. 맞지?

2회 끝.

작가 후기

당선이라니...

2021년은 아마 제게 가장 드라마틱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천직이라 생각했던 저의 본업과 퇴근 후 드라마 대본을 쓰는 일 사이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때였고, 오픈에서 마치 제 고민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내려주듯 ‘너 당선!’이라는 연락이 왔으니까요.

덕분에 말 그대로 회사를 ‘때려치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픈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앉아 작가로서 제 이름이 적힌 명함과 축하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 집필실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 모두가 마치 꿈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 갈 길이 구만 리겠지만 이 구만 리를 걸으며 종종 저는 2021년의 이 마음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늘 설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길게 오래 해먹고 싶어요!

오픈에서 저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오픈 센터장님, 담당자님들. 특히 솜뿔 김성미 담당자님! 늘 챙겨주시고 작가들을 먼저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은 작가 되겠습니다. 쓰않드없(쓰지 않으면 드라마는 없다)드라마 스테디 팀원들. 늘 서로의 글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읽어주고 애정 어린 피드백 해주는, 나의 당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운 장본인들아. 없어서 안 될 나의 동지들아! 고마워!
그리고 나의 당선 소식을 그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전직 결정(백수 선언)을 열렬히 지지해준 우리 가족들, 감사하고 사랑해요!

XXXY는, XX유전자와 XY유전자가 결합된 성별이다.

동의어) 참남녀한몸 : 인간의 양성이 모두 제 기능을 하는, 남녀한몸의 상태.
유의어) 인터섹스, 간성 : 인간 양성의 신체적 특징을 불완전하게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

선택의 시대, 성별의 선택

트랜스젠더인 캐나다의 한 부모는,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이의 성별은 ‘아직 모름’으로 정해졌다.
반대로, 인터섹스로 태어나는 아기들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아이의
성별을 결정한다. 남과 여로 나뉘는 세상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결정권을 줬 아이

무성애자인 여자와 동성애자인 남자, 그리고 XXXY로 태어난 아이.
부부는 생각했다. 저 아이는 축복받았다고. 성별의 선택권을 줬 특별한 아이라고.
그리고 결심한다. 그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겠다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청소년

남자로 사는 것과 여자로 사는 것. 둘 중 뭐가 더 행복할까?
“나는 그냥 나지, 여태껏 남자로 살아본 적도 여자로 살아본 적도 없는데요?”
열일곱 살이 된 아이는, 고민 끝에 여태껏 다녔던 대안학교 대신, 일반 남녀공학
고등학교로 진학한다. 열일곱의 마지막 날,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XXXY인 게 뭐가 어때서?

“지금부터 열두 개의 힌트를 줄 거야. 힌트가 끝나면….
XXXY의 정체를 폭로하지.”
정체 모를, 1인 라디오 방송 DJ의 저격.

청취자들은 XXXY의 정체를 파헤치고, XXXY는 DJ의 정체를 파헤친다.
그런데, XXXY인 게 뭐가 어때서? 왜 이렇게 가슴 졸여야 하는 거지?
이상하게, 들길까 봐 조마조마하다.
XXXY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을 잃을까 겁난다.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괴물 취급받을까 봐 두렵다.

암묵적인 금기어, 청소년의 SEX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결과,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만 13.6세.
이런 아이들에게 더는 SEX를 정자와 난자의 결합 또는 아기의 탄생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세상은 변했다. 이제 더 이상 SEX는 자손번영만을 위한
행위도, 부끄러운 행위도 아니다.
XXXY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 사춘기, 미래를 위한 고민 등의 소재를,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남녀 성별을 모두 가진) XXXY로 태어나
성별의 선택 결정권을 쥐어준 아이가 청소년 시기를 겪으며
남자와 여자의 차이, 사랑,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해 알아가며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야기이다.

등장인물

정재이(17세, XXXY) 한명고 1학년 3반

초, 중학교는 대안학교를 나왔다. 자유를 보장받는 환경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객관적이고 무덤덤한 면은 엄마 수영을 닮았고, 적당히 눈치 보고,
세심하게 공감하는 면은 아빠 연오를 닮았다. 그런 재이의 최대 고민은, 어떤
성별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
지어본 적 없는데... 결국, 열일곱의 마지막 날에 성별을 결정하기로 부모님과
약속하고, 대안학교 대신 일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1년간 남자와

여자로 나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한수영(56세, 여) 정재이의 모, 수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무성애자다. 애정 없이 사는 부모를 보고 자라서인지, 아니면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일을 지독히 사랑하는 워커홀릭. 스물셋 무렵, 결혼과 출산 욕아 때문에 밀려난, 재능이 특출했던 학교 선배를 보면서,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으면서 결심한다.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그래서 대학 졸업 전에 동성애자인 연오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결국 의사가 되었고, 산부인과에서 집도한 첫 수술에서 어린 미혼모가 낳은 재이를 받았다.

정연오(56세, 남) 정재이의 부, 회사원

동성애자다. 그러나 커밍아웃할 용기는 없다.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동생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공부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래서 더욱, 가족들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취직하고 결혼하고 효도하고.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싶다. 그래서 소꿉친구인 수영과 결혼한다. 그런데, 출산은 예외였다. 불가항력의 것. 혹여나 아이가 자신을 닮는다면... 고통이 대물림될까 두려웠다. 그때, 재이를 만났다. 선택의 기회를 가진 아이. 연오는 재이를 보자마자 느꼈다. 이건 운명이라고.

문태현(48세, 남) 정연오의 애인, 화가

양성애자다. 엄청난 재벌 집의 서자로 자랐다. 어릴 때는 판자촌에 살며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중학생 때부터는 가정부가 있는 호화저택에서 생활했다. 주변에 끼이는 인맥은 전부 가볍고 들뜬 사람들이다. 그래서 원하면 만나고 싫증 나면 헤어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다. 그러다가 마흔이 넘어서 연오를 만났다. 이렇게 나이 든 동성애자가,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한다니... 이제는 마음을 놓고 정착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방우람(17세, 남) 정재이의 친구, 한명고 1학년 3반

기 센 누나만 셋이다. 그래서 여자를 대하는 방식이나 매너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은 누나들. 이상형은 누나들과 정반대인 사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릴 적 놀이터에서 같이 놀았던, 그 이름 모를

여자아이? 그 밝게 웃던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상형이다.

이세라(17세, 여) 정재이의 친구, 한명고 1학년 5반

인플루언서가 꿈이다. 그래서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BJ, DJ,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한다. 그만큼 야망이 크다. 딱 요즘 애들이다. 야한 것도 좋아하고, 욕도 잘한다. 재이와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재이가 XXXY라는 걸 아는 유일한 친구다.

선유경(17세, 여) 한명고 1학년 3반

아빠가 사채업자다. 이 이유로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 그때 이후로 자기방어 기제가 강해졌다. 겉으로는 센 척하는데, 사실 속은 한참 여리다. 따돌림당했던 시절의 상처를 잊을 수 없는데, 주동자였던 연소희는 모범생 코스프레 하면서 잘 사는 것 같아 화가 난다.

연소희(17세, 여) 한명고 1학년 3반

초등학교 때, 선유경을 따돌렸던 무리의 주동자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일진 무리에서 나와 공부하기 시작했다. 성적에만 신경 쓰는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 재이를 협박해 가짜 커플 행세를 한다.

민화진(18세, 남) 전학생, 한명고 1학년 3반

애정결핍이다. 부모님은 별거 중. 초등학교는 대안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는 일반 학교로 진학했는데, 잘 적응하지 못했다. 반항한답시고 중학생 때 온갖 기행을 일삼았는데, 돌아오는 건 경멸 어린 시선뿐. 차라리 같이 죽자며, 엄마에게 끌려 올라갔던 차디찬 옥상에서, 인격이 완벽하게 부서졌다. 그때부터였을까. 그냥 이유 없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고, 짓밟고 싶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놈. 나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경명란(55세, 여) 민화진의 모, 수란병원 의사

한수영과의 대 동기동창이다. 별명은 한수영 그림자. 외모며 능력이며, 모든 것에서 한수영보다 한 발자국 뒤쳐졌다. 어떻게 남편도 자식도, 가족마저도 한수영보다 나은 게 없다. 그게 한이고, 자격지심의 원인이다.

강주현(17세, 여) 정재이의 이웃

동성애자다. 같은 학교 선배와 사귀다가 아우팅 당한다.

그 외

차용범(17세, 남) 한명고 1학년 3반

김명준(17세, 남) 한명고 1학년 3반

등

즐거리

1회: XXXY는 ‘한명고 신입생’이다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1인 라디오 방송 앱 T-스푼에서 익명의 DJ가 XXXY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예고한다. 힌트는 총 열두 개. 폭로는 마지막 힌트 후에. 한편, 재이는 한명고 신입생으로 입학한다. 등교 첫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선 제압이라던데... 그런데 아뿔싸! 이, 피... 초경이 시작됐다.

2회: XXXY는 ‘생리대’를 산다

호르몬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생리를 시작한 재이는 월경으로 인한 들쭉날쭉한 심경변화를 경험한다. 생리도벽이 있는 유경은 끓어오르는 충동으로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는데. 이 호르몬의 광기란... 한편 세라는 재이에게 발칙한 제안을 한다. “너, 그거... 나랑 해볼래?”

3회: XXXY는 ‘야한 동영상’을 본다

세라의 말 때문인지, 2차 성징의 영향인지. 재이는 첫 몽정을 한다. 그리고 점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한편, 우람은 어느 순간부터 쌓인 공부와 누나들에 대한 스트레스로 발기부전을 겪는다. “뭐야?! 나 이리다 섹스도 못 해보고 죽는 거 아니야?!”

4회: XXXY는 ‘롱패딩’을 입는다

재이와 세라는 SEX D-day를 잡고 하나씩 준비해나간다. 그런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서점에도 인터넷에도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성교육은 하나도 쓸모가 없다. 누구는 첫 경험을 룡패딩 깔고 계단에서 했다는데. 제대로 준비하려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걸까?

5회: XXXY는 ‘한명고 여학생과 그렇고 그런 사이’다

“다 알고 있어. 너랑 그 여자애, 둘만의 비밀. 지키고 싶으면, 나랑 사귀자.” 소희는 세라와의 일을 빌미로 재이를 협박한다. 재이는 어쩔 수 없이 소희와 가짜 연애를 시작하고.... 우람과 세라는 친구 관계에 소홀해진 재이에게 섭섭함을 느낀다.

6회: XXXY는 ‘어디 어디에 몇 분 이상 머문’다

소희는 커플캠으로 필수라며 재이의 폰에 젤리캠 앱을 설치한다. 그리고 어플로 재이의 이동 경로와 머문 장소, 시간까지 감시한다. 한편 세라는 젤리캠을 설치해서 서로 친분을 과시하는 여자애들 사이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 그리고 재이가 소희와 가짜 커플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7회: XXXY는 ‘남학생과 데이트’를 한다

재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질투를 느낀 세라는, 재이에게 남자 말고, 여자로서의 삶을 경험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재이가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끔 돕는다. 여자의 모습을 한 재이는 청소년들의 헌팅 스팟에서 화진과 만나 데이트를 한다.

8회: XXXY는 ‘T-스폰’을 듣는다

화진은 자신이 애청한다며, 재이에게 어느 DJ의 라디오방송을 들려준다. 내용은 XXXY에 대한 폭로예고와 힌트. 그 방송을 들은 재이는, 그 내용이 자신을 저격하는 것임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불안해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안녕 XXXY. 내 방송 듣고 있지?” DJ는 XXXY를 위해 먼저 나를 잡으면, 폭로를 멈추겠다는 새로운 룰을 추가한다.

9회: XXXY의 주변에는, ‘동성애자’가 있다

태현과 연오의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겨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한편, 재이의 옆집에 사는 주현은 익명의 DJ에게 아우팅을 당해 고통받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이는 소중한 사람들이 성별로 인해 고통받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한편 학교에서는 명준이 게이 같다고 따돌림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재이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10회: XXXY는 ‘남자 교복’을 입는다

재이는, 힘든 상황 때문에 화진에게 점점 더 의지한다. 그에 질투를 느낀 세라는 재이에게 말한다. “너... 그냥 남자로 살면 안 돼?” 그러던 중 DJ의 게시판에 XXXY라며 사진이 올라오는데,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남자 교복을 입은 학생. 재이다.

11회: XXXY는 ‘일기’를 쓴다.

학교에 재이와 세라가 잤다는 소문이 퍼진다. 재이와 세라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 우람은 둘을 피한다. 한편, DJ의 게시판에는 재이의 비밀 일기장 내용이 올라오고, 그동안 재이가 써온 일기 내용이 전부 공개된다. 재이는 기밀 곳을 찾아 화진을 만나고, 화진은 그런 재이에게 묻는다. “네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은, 무슨 색이야? 초록색 하트?” 아뿔싸! 이건, 재이가 일기장에 쓴 내용이다.

12회: 그 남학생이 나와

우람은, 자신이 찾던 첫사랑의 아이가 재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세라는, 재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그리고 3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 이름이, 민화진이다.

그 후 줄거리

시즌2

화진은 재이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세라는 재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우람은 자신의 첫사랑이 재이라는 것에 혼란스러워하며 재이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재이의 앞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과연 재이는 어느 성별을 선택할까?

시즌3

수술 후 지방으로 전학 간 재이. 새로운 학교생활과 선택한 성에 점차 적응해나간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재회한다. 변한 재이와 친구들(세라, 우람, 화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새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1회

#1. DJ의 방 안(밤)+모니터 화면

청소년 전용 라디오 앱 T-스폰.

일렉기타와 드럼 사운드가 섞인 시끄러운 오프닝 음악 흐르는 가운데,

컴퓨터 화면 위로 사운드 스펙트럼이 움직인다.

그 위로 보이는 '19세 이상 청취 금지!'라는 문구.

INSERT

몽타주. 라디오를 듣는 학생들

— 같은 사운드 스펙트럼이 보이는 폰 화면, 그 옆으로 펼쳐진 책과 필통.

독서등 하나만 켜진 어두운 독서실에서, 무선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듣는 여학생
(연소희, 17)의 뒷모습.

— 버스 창에 기대앉아 라디오를 듣는 남학생(차용범, 17).

— 지하철에 서서 라디오를 듣는 여학생.

— 어두운 골목, 한 학생을 구타하는 학생 무리를 구경하고 선 남학생.

귀에는 이어폰.

— 라디오를 듣고 있는 학생들, 얼굴이 보이지 않아, 정체를 알 수 없다.

DJ의 손이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 위 볼륨을 내리면, BGM 서서히 줄어든다.

그리고 보이는 마이크와 DJ의 하관.

DJ 로~할로 (헬로헬로)~ 급식다치 (급식과 토모다치의 합성어) ~.
오늘의 특식이다.

DJ 옆으로 채팅창 떠오르고, 글 정신없이 올라온다.

‘ㅋㅋㅋㅋ 오늘도 폭로잼’
‘ㅋㅋㅋ 특식은 부쉬 먹어야 제맛이지’
‘배고파. 한국 사람 빨리빨리!’

마우스 커서 옆으로 움직이면, 화면을 넘어 또 다른 모니터로 이동한다.
바탕화면에 보이는 XXXY 폴더.

DJ (채팅창 반응이 만족스러워 웃고)
엑스엑스엑스 와이... 들어본 적 있어?

‘그게 뭐임’
‘이과 꺼져’
‘아, 현기증나’

커서가 XXXY 폴더를 더블클릭하면, 나타나는 작은 이미지 파일들.
동일 인물로 보이는 누군가가 잔뜩 찍혀 있는데, 누군지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DJ 여자도 남자도 아닌 성별. 한 몸에 두 가지 성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주작 L L’
‘나 들어본 적 있는 듯’
‘노잼, 네, 다음요.’
‘진짜면 대박.’

어떤 사진을 고를지, 커서가 이리저리 움직인다.

DJ 오늘부터 그 XXXY의 정체에 대해 폭로할 거야. 힌트는 음... 몇 개나
줄까? 그래, 우리 채널 번호만큼, 총 열두 개를 줄 테니까. 잘 듣고
누군지 알아맞혀봐.

움직이던 커서, 한 사진 위에서 멈추고.

더블클릭하면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우는 사진.
울령대안학교 학생들이다. 그 안에는 재이도, 화진도 있다.

DJ 그럼 첫 번째 힌트.

하관만 보이는 DJ, 웃는다. 재미있다는 듯이. 그리고 마이크 가까이 다가간다.

DJ XXXXY는... 한명고 신입생이다.

마우스 커서가 볼륨 바를 올리고, BGM 다시 커진다.

타이틀 오른다.

타이틀. <XXXXY>

<제1회 XXXXY는 한명고 신입생이다>

#2. 길거리(밤)

귀에 꽂은 무선이어폰, 음악에 맞춰 흔들리는 머리.

숏패딩 주머니에 양손을 찢어넣고, 아래는 수면 바지 차림.

맨발에 나이키 슬리퍼.

멀대 같은 뒷모습이 전방의 포장마차로 들어간다.

#3. 토스트 포장마차(밤)

포장마차에 들어온 우람, 둘러보면,

손님은 아무도 없고,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는 계란, 그 옆에 쌓인 토스트 보인다.

그리고 뚝한 표정으로 우람을 쳐다보는 토스트 주인할머니.

우람, 대충 고개 까딱이며 인사하고,
오른쪽 이어폰 누르면, BGM 음악 뚝 끊긴다.

우람 토스트 다섯 개 포장요.

주인할머니, 대답 없이 심드렁하게 고개 돌리고, 다 익은 계란 뒤집는다.
우람, 멧쩍다. 그때 주머니에서, 지잉 폰 진동 울리고, 계속 들어오는 메시지.
우람의 극성인 누나들이다.

‘어디?’
‘어디임’
‘3초 내로 대답.’
‘3’
‘2’

우람 짜증 나지만, 빠르게 답장한다.

‘도착. 주문 완료.’
‘ㅇㅋ’

누나들을, 확 때릴 수도 없고.... 우람 폰 보며 한숨 쉰다.
화풀이로 폰 뒤로가기 버튼을 마구 누르다가, 음악 하나 골라 재생시킨다.
흐르는 로맨틱한 멜로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래다.
우람, 음악에 심취하다가, 무심결에 옆을 돌아보면,
입구의 천막이 올라가며 재이 들어온다.
해맑게 웃는 얼굴이 슬로 모션처럼 눈에 들어온다.
그 위로 겹쳐 보이는 누군가의 얼굴.

INSERT 과거 회상.

- 놀이터, 예쁜 얼굴로 해맑게 웃는, 양갈래머리를 한 아이.
-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

— 그리고 그 앞에서 같이 웃고 있는, 까까머리의 어린 우람.

우람, 입이 서서히 벌어진다. 첫눈에 반한 표정으로.

찰나에 우람과 재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데,

재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해 안쪽으로 들어간다.

뒷머리는 콩지머리로 묶었다.

토스트 주인할머니, 격하게 재이 반긴다. 아까와는 완전 딴판.

재이와 주인할머니 뭐라 말을 주고받는데,

음악 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

우람이 귀에 꽂은 이어폰을 양쪽 다 빼내면,

음악은 완전히 사라지고, 재이와 주인할머니의 말소리가 들린다.

주인할머니 하나 먹고 갈터?

재이 (애교 있는, 중성적인 목소리) 네! 맛있게 해주세요~

우람, 은근슬쩍 의자 끝에 걸터앉는다.

주인할머니 학생, 다섯 개 포장이었지?

우람 아, 하나는 먹고 갈게요. 네 개만 포장해주세요.

폰 진동벨 소리 울리고, 우람이 폰 아래로 내려 슬쩍 보면, 보이는 메시지들.

‘야’

‘언제 옴’

‘토스트 사러 부산까지 갔냐’

‘어디냐고’

‘뒤진다’

이젠 전화까지 온다. 발신자명 ‘최종빌런’! 큰누나다.

우람, 수신 거절하고 폰 주머니에 넣는다.

주인할머니, 토스트를 종이에 싸며 내려다보면,

재이에게 반한 우람의 모습이 한눈에 보여 귀엽다.

주인할머니 (토스트 주며) 자, 아무리 정신없어도 꼭꼭 씹어 목으라~
재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우람 잘... 먹겠습니다.

우람, 토스트를 먹는 척하며 옆을 슬쩍 보면,
토스트를 볼 한가득 넣고 먹는 재이의 모습이 보인다.
귀여운 정도가 치명적이다.
우람, 재이에게 보이지 않도록 급하게 반대쪽으로 고개 돌려 가슴을
부여잡는다. 그리고 심호흡.
주인할머니, 그 모습을 보며 찡찡 고개 젖는다.
혼자서 생쇼를 하는 우람, 기울여 들고 있던 토스트에서, 소스 흐른다.
그리고 툭— 우람의 바지 위로 떨어진다.

우람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 으익!

우람, 휴지를 찾다가 보면, 재이 가까이 있다.
부끄럽게, 왜 하필이면.... 우람, 고개는 반대로 돌린 채,
휴지 꺾으로 손만 뺏는다.
꾸물꾸물 기어가는 우람의 손가락.
재이, 양— 토스트를 한입 크게 물면, 입가에 케첩 묻는다.
재이, 손을 뺏어 휴지를 잡으면,
바닥을 더듬던 우람의 손이 덩석, 재이의 손 위를 덮는다.
우람, 깜짝 놀라 보면, 두 손이 겹쳐 있다. 우람과 재이의 시선 마주친다.
불에 덴 듯 손을 떼는 우람, 당황했다.

우람 으아니! 이 손이!

재이, 아무렇지 않게 휴지를 뽑아 입을 닦는다.
재는 왜 저러지? 해답을 찾아서 토스트 주인할머니를 보면,

토스트 주인할머니, 고개 저으며 어깨를 으쓱한다. 나도 몰러~

(E) 까뚝— 재이의 폰이다.

재이, 토스트를 입에 구겨 넣고,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보면,

이제 그만 가야겠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돈통에 넣고

볼 뻥뻥한 채로, 토스트 주인할머니에게 손짓한다.

저, 이만 가볼게요~ 라는 식으로.

토스트 주인할머니, 알겠다는 의미로, 손을 휘휘 져는다.

재이, 포장마차에서 나간다.

우람 이, 손이. 제가 원래 손을 막 덤석 잡고 그런 놈이 아닌...
주인할머니 그만혀, 갔어.
우람 예?

우람, 옆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횡— 바람만 분다.

#4. 한명고등학교 교문 앞+주차장(낮)

‘축 입학!’ 플래카드 걸려 있다.

교복 입은 학생들, 여기저기 보이고.

차 한 대, 학교로 들어간다. 재이네 차다.

주차장은 거의 만차다. 빈 곳은 한두 자리뿐이다.

주차된 차 사이로 걸어 나오는 우람. 그 뒤를 줄지어 쫓아 나오는 누나 셋,

큰누나 (우람의 머리 만진다. 거칠게) 아우, 다 컸네! 우리 방울이.

우람 아 쫘!

둘째누나 어쭙 피하냐? 방울 좀 올려줄까?

우람 제발 그렇게 좀 부르지 마.

셋째누나 뭐 뭐. 뭐 어찌라고.

우람, 누나들에게 잡혀 손식간에 둘러싸인다.
머리를 잡아 뜯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이 밀려지고. 먹살이 잡혀 흔들린다.
우람, 눈을 꼭 감은 채 해탈한 표정이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그 앞으로 세라가, 셀카봉에 연결된 폰으로, 브이로그를 찍으며 걸어간다.

세라 드디어 대망의 입학식입니다! 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여기가 제가 다닐 학교입니다. 한명고! 아 쫘, 구린 것 같기도 하고.... 급식은 먹을 만 하다던데. 나중에 급식 후기, 한번 찍어볼게요!

세라 앞으로 지나가는 재이네 차. 차는 비어 있는 주차 자리로 쏙 들어간다.

#5. 재이네 차 안(낮)

운전석에 수영, 조수석에 연오, 뒷좌석에 앉은 재이.
신기한 듯 창밖을 보던 재이, 울음소리가 들려 고개 돌려보면.

연오 (우는 척) 우리 재이가...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언제 이렇게 커서.

시동을 끈 수영, 뒤돌아 재이와 시선을 마주치고, 괴상한 표정을 짓는다.
골값이다. 재이, 그저 웃는다.

연오 (획 고개를 들고) 우리 얘기. 일루 와봐.

연오, 손을 뺀 재이를 당겨 안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뽀뽀 세례.
과하게, 극성이다.

재이 어우, 수염!

연오 수염은 죄가 없다. 네가 귀여운 게 죄야.

수영 (연오를 떼어내며, 등짝 스매싱) 주책 좀 그만 떨어! 애 늦어!

연오, 아픈 등에 몸부림치면서도,
입술을 쪽 내밀어 재이에게 한 번 더 뽀뽀한다.
재이, 뽀뽀를 받으며 웃는다. 엄마, 아빠가 너무 웃기다.

수영 (재이의 양 볼을 잡아 늘린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엄만 걱정 안 해.
재이 네에~
수영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하고.
재이 네에~
수영 맨날 네에네에. 대답은 잘하지.
재이 네에~
수영 으이구. (진하게 뽀뽀, 그리고 꺽 안는다) 딱 1년이야. 1년 후엔,
여자든 남자든 선택하기로 한 약속. 잊지 않았지?
재이 당연하죠.
수영 그래,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 알 거야. 엄만, 네 선택 존중해.

똑똑—
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재이네 가족들 동시에 차 밖을 보면.
차창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양손 흔들며 웃고 있는 세라 보인다.

#6. 재이네 차 밖/주차장(낮)

차에서 내리는 재이네 가족들.

세라 안녕하세요.
수영 세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잘 지냈니?
세라 잘 지냈죠~ 아줌마랑 아저씨는, 언제 봐도 참... 멋지시네요!
연오 세라! 오! 너 많이 예뻐졌다~.

세라와 수영, 연오가 이야기하는 사이, 재이 주변을 둘러본다.

알록달록한 학교 건물,
학생들이 걷는 길을 따라 보이는 산책로와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가족과 함께 있는 학생들,
친구끼리 모여 이야기 나누는 학생들의 모습.

세라(OFF) 그쵸? 저 예뻐졌죠? 아, 근데 어디 손대고 그런 건 아녜요.

살 좀 뺏어요.

연오(OFF) 에이, 한번 봐보자. 어딜 한 거야. 눈을 찌었나? 코인가?

세라(OFF) 아, 아저씨! 애들이 찌므로 오해해요!

수영(OFF) 애 좀 그만 놀려.

인파 속에, 익숙한 얼굴이 보인다. 토스트 할머니다.

그 옆에 선, 남학생(차용범, 17세, 남)의 구부정한 뒷모습.

토스트 주인할머니, 용범의 옷깃을 정리해주고 있다.

재이, 반가워서 손 흔들면, 토스트 주인할머니 재이를 발견하고 반긴다.

주인할머니가 누구에게 인사를 하는 건지, 용범 뒤돌면, 재이와 눈 마주친다.

급히 시선 피하는 용범. 그 자리를 벗어난다. 타인과의 교류가 익숙지 않다.

토스트 주인할머니, 재이에게 다시 손 흔들어주며 급히 용범을 뒤따라간다.

세라 뭐야, 누구랑 인사해?

재이 토스트 할머니.

세라 너 단골집 거기?

재이 응. 아우, 무거워. 너 왜 이렇게 무거워졌어?

세라 야! 나 살 빠졌거든?

재이 아니야. 전보다 더 무거운데?

세라 키가 커서 그래!

재이, 한 발짝 떨어져서 세라를 죽 훑어본다.

은근슬쩍 발꿈치를 드는 세라.

이상함을 감지한 재이, 세라의 발을 보면, 세라 급히 발꿈치를 내린다.

재이가 다시 고개를 들면, 세라도 다시 발꿈치를 든다.

재이 너….

세라 (뻐뻐한 얼굴로) 왜?

재이, 손바닥으로 세라의 정수리 퍽! 잡아 누른다. 거침없이.

세라 야아!

재이 (웃으며) 키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세라가 씩씩대며 고개를 들면, 맑게 웃는 재이의 얼굴이 보인다.

세라 (화내려다가 말고) 너 일부러 그러지?

그렇게 웃으면 못 때릴 거 알고 그러지?

재이 응? 아닌데?

세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생긴 건 토킨데, 은근 여우 같단 말이야.

재이 왜, 알미워? 나 때리고 싶어?

세라 아 됐어! 때리는 나만 나쁜 년이지. 순수악이라는 말 들어봄?
니가 딱 그거야. 맨날 나는 몰라요. 나는 별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하는 얼굴로 사람 정곡을 후벼 판다고.

재이 히히. 그런가?

세라 어우, 저 봐봐.

연오(OFF) 재이야~

재이와 세라가 보면, 수영과 나란히 선 연오, 이리 오라고 손 흔든다.

수영 입학 기념사진 찍어야지. 세라 너도 이리 와.

세라 우쭈쭈 우리 얘기, 사진 찍어야지요~ 어여 가자.

(연오와 수영에게) 저 셀카봉 있어요!

세라, 재이의 등 떠밀며 수영과 연오에게 간다.

한데 모여 붙은 넷.

학교를 배경으로 한 채 셀카봉을 들고 사진 찍는다.

세라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화면으로 보이는 네 사람의 모습. 따다다다다다닥 연사 찍힌다.

#7. 복도(낮)

학생들로 북적거리는 복도, 입학식으로 들뜬 분위기다.

그 사이로 나란히 걸어오는 재이와 세라.

세라 (사진 보정하느라 정신없다) 아 진짜, 사기야. 왜 니 얼굴만 이렇게 작게 나오냐구. 혼자 조명빨 받은 것 같아. 왜케 뽀애.

재이, 주변을 둘러보느라 정신없다.

열린 교실 문 너머로 보이는 교실 안 풍경, 정렬된 책걸상,

교실과 복도에서 떠돌고 있는 학생들.

그때, 학생1 폰에 열중하며 정면에서 걸어온다.

재이가 몸을 살짝 틀어 길을 내주면,

학생1, 그대로 세라와 재이 사이를 뚫고 지나간다.

재이, 그런 학생1의 모습을 눈으로 좇는다. 뭔가, 교복이 다르다.

통이 좁아 다리에 딱 붙는 바지.

재이, 자신의 바지 확인하면, 널찍한 바짓단이 출렁거린다.

유경(OFF) 아, 개웃겨! 돌았나 봐 진짜.

재이, 큰 목소리를 따라 시선을 들면,

누가 봐도 불량해 보이는 유경의 무리가 창가에 등을 대고 나란히 서 있다.

태블릿 PC를 함께 보고 있는데, 태블릿 PC 너머의 누군가와 대화 중이다.

남학생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유경과 무리는 깔깔댄다.

자세히 보면, 캐릭터가 요란하게 붙은 크룩스 실내화, 네일아트로 요란한 손톱,

짧은 치마와 단추가 터져나갈 듯, 허리를 꽉 죄는 재킷, 빨간 티트를 바른 입술,

진한 마스크라, 염색 머리.

재이, 그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본다. 그때, 배가 찌르는 듯 아파오고....

재이, 배를 두어 번 문지르다가 손 내리는데, 의도치 않게 인상을 쓴 채로 유경과 눈이 마주쳤다.

기분이 나빠 보이는 유경, 뭔가 오해한 듯하다.

유경, 눈싸움하듯 재이를 노려보는데,

재이, 눈을 피하지 않는다.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저렇게 쳐다보는데, 먼저 피할 수가 없다.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순수한, 의문이 든다.

세라(OFF) 정재이! 내 말 듣고 있어?

재이 응?

세라 어디에 정신 팔린 거야.

세라가 재이의 시선이 머물던 곳 보면, 유경과 무리, 3반 뒷문으로 들어간다.

재이를 째려보면서....

세라 으익. 재네 니네 반인가 봐.

재이 응. 그런가 봐, 3반으로 들어가네.

세라 너 진짜 조심해. 여긴 네가 다니던 대안학교랑은 완전 딴 세상이야. 일단 입학 첫날 가장 중요한 건...

재이 중요한 건?

세라 상대의 기~선을 제압해. 초반 기선 제압. 이게 완전 중요하다고.

재이 싸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세라 애가 또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첫날부터 기세에 눌리면, 니 학교생활은 그날로 종이라고 쫓. 특히 저런 애들한테 찍히면, 인생 피곤해진다. 알아들었어?

재이, 세라 앞을 가로막고 서면,

세라 (말을 멈추고) 왜?

재이 고마워

세라 뭐... 뭐가?
 재이 방금 나 걱정해준 거 아니야?
 세라 뭐? 내가 언제, 허, 참.
 재이 ...참나무.
 세라 ...너 절대 다른 애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마.
 재이 왜?
 세라 ...아,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재이 해 질 녘.
 세라 ... (가만히 재이 보다가) 정재이... 제발...

#8. 3반 교실(낮)

교실에 멍뚱히 앉아 있는 우람. 핸드폰 계속 올려서 보면, 누나들이다.

‘어이, 고딩’
 ‘방울이, 코찔찔이가’
 ‘벌써 고딩ㅋㅋㅋㅋ’
 ‘끝나자마자 튀어와라’
 ‘책 반납ㄱㄱ’

우람 ... (한숨)

우람, 카톡에 답장 적는다.

‘알았...’

학생1(OFF) 앗싸! 같은 반!

우람, 답장하다 말고 고개 들어보면,
 학생 1과 2, 아는 친구들끼리 만났는지, 난리가 났다.

그리고 창문 너머, 복도에 보이는 웃는 얼굴, 재이다.

FLASH CUT #3 포장마차

— 포장마차로 들어오는, 해맑게 웃는 재이의 얼굴.
— 그리고 마주치는 눈.

또다시 눈이 마주쳤다. 놀란 우람, 타자 치던 손가락이 그대로 멈춘다.
메신저 답장 칸에 오타가 계속 입력된다.

‘,,,’

재이, 느껴지는 우람의 시선에,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하면, 아무도 없다.
누굴 보는 거지? 날 보는 건가?
다시 봐도 여전한 우람의 시선. 재이, 그냥 씩 웃어준다.

우람 (피드덕 떨어, 놀란다) 미친!

그리고, 의도치 않게 눌러지는 메시지 전송 버튼.

‘ㄴ 뭐냐’

‘겁대가리 상실?’

‘제군들, 오늘의 미션이다’

‘방울을 올려라’

우람, 그것도 모르고, 꿈인지 생인지 눈 꼭 감았다가 다시 뜨는데
재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설마, 같은 반인가?
꿀꺽, 침이 넘어간다. 운명의 상대가 다가오는 것처럼, 슬로 모션으로,
두근, 두근.... 떨린다.

지잉— 지잉— 진동 울리는 폰.

화면 위로 보이는 이름 ‘하급빌런’ 셋째누나의 전화다.

우람,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 밀어, 수신 거부한다.

앞문으로 들어오는 재이. 얼굴부터, 어깨.... 다리까지. 보이면, 바지를 입었다.

영? 우람, 눈을 꿈벅이다가 다시 보면, 여전히 남자 교복. 바지다.

그때, 머릿속에 빨리감기 한 것처럼 돌아가는 기억.

FLASH CUT #3 포장마차

— 우람의 옆을 지나가는 재이, 샤프란 향기가 나는 듯...
— 토스트를 먹는 재이의 옆모습, 귀엽게 묶은 꼬지머리.
— 휴지 곱 위에서 닿은, 재이와 우람의 손. 마주친 시선. 케첩 묻은 빨간 입술.
어디에도, 여자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우람 (그대로 책상 위로 엮어지며) ...남자였어...? 이건... 진짜...개오바.

재이, 반을 돌려보면. 엮어진 우람 너머로 용범이 보인다.
용범과 눈 마주치면,
재이,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가려는데.

3반 담임 (앞문으로 등장) 자자, 다들 자리에 앉아라. 거기 뒷문 닫고.

재이, 가장 가까운 빈자리에 앉는다. 우람의 옆자리다.
시무룩하던 우람, 고개 들어 재이 보면

재이 (웃으며) 안녕.

우람, 무언가 말하려 입 들썩이다가, 고개 반대로 돌려 눕는다.
여자도 아닌데, 부질없다.
재이, 손 내리고 괜히 웃는다. 뽀뽀하다.

3반 담임 (프린트물 뒤적인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E) 노크 소리

5반 담임 (앞문으로 고개 내밀며) 저기, 쌤. 잠시만요.

5반 담임의 손짓에, 3반 담임 불려가더니, 서로 속닥거린다.

3반 담임 (학생들에게) 어, 잠깐 교무실에 다녀올 테니까. 이대로 앉아 있어라.

3반 담임, 5반 담임과 나간다.

웅성웅성 학생들이 떠들기 시작한다.

맨 뒷자리에 앉은 유경, 앞에 앉은 용범의 뒷모습 훑어본다.

놀린 머리, 험렁한 현 교복. 타깃으로 적당해 보인다.

유경 어우, 기름 냄새. 어디서 이렇게 기름 냄새가 진동해.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동시에 유경에게 향한다.

재이와 우람 역시 뒤를 돌아보고.

교실 안이 서서히 조용해지면,

맨 앞자리에 앉은 소희 역시 뒤 돌아본다.

소희와 눈이 마주친 유경, 보란 듯 의기양양하게 웃는다.

유경 (용범에게) 어머! 이게 뭐야?

너 교복 좋아 보인다~ 이건 또 어디 브랜드니?

조롱하는 유경, 옆에 있던 유경의 무리, 킁킁 웃는다.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 용범.

유경 (발로 용범의 의자 차며) 어느 브랜드냐구! 사람이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용범 ...없어...

유경 뭐라고? 안 들려!

용범 ...

우람, 보고만 있기 불편하다.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는데, 그게 안 된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옆에서 재이가 먼저 일어난다.

유경 크게 좀 말해봐!
용범 ...브랜드 없어. 중고야!
재이(OFF) 야! 나두!

모든 시선, 재이에게 주목된다.
재이, 용범의 의자에 닿아 있는 유경의 발을 밀치고 용범의 옆으로 다가간다.
유경, 하마터면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넘어갈 뻔했다.

재이 나도 교복 중고로 샀어! 내가 좀 덤벼대는 성격이기도 하구, 옷도 금방
 작아질 것 같아서. 나 이거 4만 8천 원! 너는?
용범 ...6만 원?
재이 오예! 내가 훨씬 싸게 샀네? 설마 너 그게 최저가인 줄 알았어?
용범 (정신 사납다) 어? 어어...
재이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 하는) 에이, 아깝다. 나 어디서 5만 원대도
 본 것 같은데. 아 맞다! 나 니네 토스트 집 단골이야. 나 그 토스트 완전
 좋아.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자. 난 정재이. 니 이름 뭐야?
용범 (홀린 듯) 나는... 차용범.
재이 (손 내민다) 반가워.
용범 (재이의 손, 잡는다) 응. 나두.

유경,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면,
재이와 용범, 보란 듯, 악수한 손 과할 정도로 크게 흔든다.
그리고, 찢찢.... 유경을 한심하게 보는 소희,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 돌린다.
유경, 분하다. 초반 기선 제압에 실패했다.

유경 (재이를 노려보며) 너...!
3반 담임 (앞문으로 들어온다, 재이에게) 너 왜 거기 서 있어? 자리에 앉아.
재이 냥~ (충충 뛰어가 자리에 앉는)

우람이 보기에, 정재이... 어쩐지 좋은 녀석 같다. 여자가 아닌 게 안타깝지만....

#9. 남자화장실 칸막이 안(낮)

변기 뚜껑 위에 앉은 우람. 옆 벽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보고 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 떠오르는 누나들의 얼굴.

INSERT

- 우람의 누나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우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깔깔댄다.

큰누나 이거 바보 아니야? 착각할 게 따로 있지.
둘째누나 우리 방울이, 모쏠탈출이 급했나 부지? 으이구 짤해라.
셋째누나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이 떨떨아!

우람 (머리 쥐어뜯는다) 아...개오바야 진짜. 누구 착각한 거야 대체.

(E) 뽕— 옆 칸에서 들리는 방귀 소리.

우람, 예민한 표정으로 옆 칸 본다.

(E) 뿌우웅— 뿌직—

우람, 한숨이 나온다. 잠시라도 조용히 있을 공간이 없다.

#10. 남자화장실 칸막이 밖(낮)

우람, 문을 열고 나오면, 몰리는 시선. 그중에 손 씻고 있는 재이도 있다.

학생1 아, 뭐야~ 너였어?
우람 뭐가?
학생1 방우람 방구 완전 핵방구!

재이, 웃으며 화장실을 나간다.

우람, 억울하긴 한데, 해명하기도 귀찮다. 다 부질없다.

#11. 복도(낮)

재이,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재이의 팔을 잡는다.
보면, 긴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여학생이 서 있다.

재이 응? 무슨 일이야?

여학생 (고개 숙인 채) ...누가 너한테 이거 전해주래.

여학생, 쪽지를 건네고 도망간다. 딱지 접혀 있는 쪽지, 펼쳐보면.
'끝나고 강당으로'

#12. 3반 교실(오후)

INSERT

— 하교하는 학생들의 모습.

재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우람 (괜히 늑장 부리다가, 따라 일어서며) 야, 정재이 토스트 먹으러 갈래?

재이 응? 완전 좋지! 근데 너 속은 괜찮아?

우람 어? 아 그거? 그거 나 아니고 옆 칸에 있던... (그 방귀가 내 방귀가
아니라고 말하려는데...)

세라 재이야~ (세라, 3반 교실로 들어온다. 우람을 발견하고) 헐, 뭐야.
방구람. 니가 왜 여기 있어? (다가와 재이에게 팔짱 끼는)

우람 (긴 팔짱에 시선이 가는) 왜긴. 3반이니까 여겼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세라 너 청호고 간다며!

우람 어딜 가든, 내 맘이니까 신경 꺼라.

세라 우씨. 재이야, 일로 와. 멍청이랑 어울리지 말구.
(우람에게) 야 넌 저리 가.

세라가 우람 밀치면, 우람, 피한다.
세라의 손에 닿기 싫은지, 기겁하면서. 몸을 털어낸다.
우람을 괴롭히는 게 재밌는 세라, 우람을 터치하려 다시 손 뻗으면,
우람, 세라의 손등 내친다. 돌, 초딩처럼 투닥거린다.

재이 (장난기 있는 얼굴로, 씩 웃고) 우와~ 너희 둘.

세라와 우람이 동시에 재이 보면,

재이 엄청 친하구나?

세라·우람 (동시에) 친하긴!

재이 둘이 찌찌뽕. 말도 똑같이 하네~

세라 와우, 정말 간만에 느껴본다. 이런 모욕감.

우람 내가 할 말이거든. 재이 나랑 토스트 먹으러 갈 거야. 넌 사라져.

세라 응. 헛소리.

재이 그럼, 너희 둘이 먼저 갈래?

세라·우람 뭐?!

재이 나 어디 좀 들렀다 가야 할 것 같아서.

세라 어디 가는데?

재이 강당.

우람 강당?

#13. 강당 가는 길(오후)

재이, 세라, 우람 세 사람 나란히 걷는다. 강당을 향해....

세라와 우람은 여전히 투닥거린다.

우람 나 중학생 때 농구 시합 때문에, 몇 번 가봤어.

여기 강당은 저~ 구석에 있어서 좀 멀어.

재이 너 아니면 한참 헤맬겠다. 고마워.

세라 근데 누가 불렀는데? 설마 고백 각?
 재이 에이,
 세라 아니긴! 오올, 정재이 입학식부터 인기 절정인데! 그게 아니면 널 왜
 강당으로 부르겠냐? 맞짱 뜨자는 것도 아니고. 당근, 완전 고백 각이지.
 첫눈에 반했나?
 우람 반하긴 뭘 반해?!

세라 아 깜짝아! 뭐야. 이 멍청이가, 왜 오바 떨고 그래.
 우람 (찢린 듯) 오바는 무슨! (쌍하니 먼저 앞서나가는)

세라, 재이를 보며 손가락을 한쪽 머리에 대고 빙빙 돌려 보인다.
 재, 좀 제정신 아닌 듯?

#14. 강당(오후)

문 열고 우람, 재이, 세라 들어서는데,
 강당 안, 텅 비었다. 아무도 없다.

세라 앵? 왜 아무도 없지?
 재이 너무 늦게 왔나?
 세라 서프라이즈 준비 중인가? 근데 우리, 괜히 고백 타임인데 눈치 없이
 꺼서 방해하는 거 아니야?
 우람 어차피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뭐….
 (둘러보다가, 발견하고) 어 재이, 너 신발 끈 풀렸다.
 재이 (보면) 응? 그렇네.

재이, 신발 끈 묶으려 허리 숙인다.
 그때, 꺼지는 강당 불. 그리고
 (E) 속— 위협적인 소리와 함께 무언가 날아온다.
 하나도 아닌 여러 개가, 잔뜩. 배구공이다.
 어렴풋이 보이는 누군가가 (여러 명이다) 배구공을 던지고,

공이 어둠 속에서 날아든다.

세라 (어깨 맞았다) 에이씨! 야아! 누구야?!

우람 (이마 맞고, 뒷걸음질 친다) 우왁!

우람이 휘청거리면서 재이와 부딪히고,

재이, 반동에 뒤로 넘어가며 엉덩방아 찢는다. 악!

재이 (엉덩이도 아프고, 찌르르, 배도 아파온다. 양손으로 배 감싸 친다.)

아야야야야...

(E) 도망가는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 드르륵— 문 닫히는 소리.

철컹, 잠기는 소리 들린다.

세라 야! 뭐야?! 문 잠그지 마!

우람 내가 불 켜게! 스위치 문 쪽에 있어! (어정쩡한 자세로 걸어, 손바닥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우람, 문 쪽에 다다라서, 벽을 더듬어 스위치 찾아, 올리면
팟— 불 다시 들어온다.

사방에 배구공 널려 있고, 난장판이다.

세라, 무슨 레인저처럼 양팔을 엑스자로, 가드 올리고 있고.

재이,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배를 잡고 상체를 수그리고 있다.

우람 (문 열어보는데) 이거 안 열려.

세라 우씨! 대체 어떤 자식들이야! 재이 너 첫날부터 누구한테 찍혔...

재이야. 어디 다쳤어? 아파?

재이 아니, 그냥 배가 좀... 괜찮아.

세라 (재이의 손잡고 일으켜주려는데) 재이야, 너...

세라, 갑자기 우람을 향해 손바닥을 펼친다. 오지 말라고. 경고하듯이.

가까이 걸어오던 우람, 멈추어 선다.

세라의 놀란 눈에, 재이 자신의 밑을 보면, 바지가 젖어 있다.

손으로 만져보면, 손바닥에 피가 빨갛게 묻어나온다.

피! 재이의 초경이 시작됐다.

재이, 당황해서 세라 보면,

세라 빠르게 카디건 벗어서 재이의 하반신 위에 덮는다.

세라 (재이와 눈 마주치고, 진정시키며) 괜찮아.

우람(OFF) 그거, 피야...?

재이와 세라, 동시에 우람 보면. 그 자리에 굳어 있는 우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상황을 살피는 우람의 동공이 마구 떨린다.

1회 끝.

2회

#1. DJ의 방 안(밤)

청소년 전용 라디오 앱 T-스폰. 일렉기타와 드럼 사운드가 섞인 시끄러운 오프닝 BGM 음악 깔리고, 소리에 맞춰, 컴퓨터 화면 위로 사운드 스펙트럼이 움직인다. 그 위로 보이는, '19세 이상 청취 금지'라는 문구. 마우스 커서가 볼륨 바를 내리면, BGM 볼륨 서서히 줄어든다. 마이크 앞으로 다가온 정체 모를 DJ의 하관, 씨익— 웃는다. 음침하고, 섬뜩하다.

DJ 로—할로. 급식다치. 오늘도 험생 잘 버티고 있나?

#2. 독서실(밤)

독서등만 켜져 있는, 어두운 독서실 칸막이에 앉아 있는 소희의 뒷모습. 이어폰 꽂고 있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DJ(V.O.) 상상은 해봤어? XXXY.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 과연 누구일까?

정신없이 넘어가는 책장, 얼굴이 보이지 않는 소희의 손길이 신경질적이다. 빨간 펜으로 필기하는데, 펜촉이 종이를 파고들 정도로 필압이 세다. 그러다 펜촉 한 지점에서 멈추면, 그 주변으로 빨간 잉크가 번진다. 손, 탁— 소리 나게 펜을 내려놓는다.

소희 하. 짜증나.

소희, 옆의 가방 뒤지다가, 아예 가방 속 내용물을 책상 위로 쏟아붓는다. 그 위로 보이는 납작한 파우치. 소희, 파우치 집어 들고 일어나 어디론가 가버리고, 빈 독서실 칸막이 보인다. 어둡고, 갑갑해 보인다.

DJ(V.O.) 자, 그럼 두 번째 힌트를 줄게. 두 번째 힌트.

#3. 편의점(밤)

조용하고 손님 없는 편의점, 알바생 카운터에서 즐고 있다.

맨 위쪽 주르륵, 보이는 생활용품 매대.

DJ(V.O.) XXXY는... 화이트(생리대 이름)를 쓴다.

매대 맨 아래쪽에, 생리대 보인다. ‘화이트’ 제품명 보이면, 큰 손이 덩석 잡는다. 쪼그려 앉은 상태로 제품 확인하는 재이.

(E) 째랑. 문 열렸다 닫히는 소리, 작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닫은 것처럼.

재이, 고개 들어 보면, 볼록거울로 온통 검정 옷에, 검정 모자를 쓴 여자(선유경, 17세, 여)가 보인다. 재이, 다시 제품을 확인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매대 너머로 유경이 보인다. 재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듯한데, 얼굴은 모자챙에 가려져 있고, 거동이 수상하다. 자세히 보면, 물건을 훔쳐 가방에 넣는다.

재이 어...

유경, 고개 꺾 들면, 재이와 시선이 마주친다. 놀란 유경, 뒷걸음질 치더니, 도망간다. 물건, 바닥으로 떨어지고.... 큰 소리에 놀란 잠에서 깬 알바생, 재이 쳐다보는데.

재이 아, 죄송해요. 제가 떨어뜨렸어요.

재이, 천천히 걸어 나와 유경이 떨어뜨린 물건 줍는다.

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편의점 출입문 보면,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어둡다.

타이틀. <XXXY>

<제2회 XXXY는 화이트를 쓴다>

#4. 우람의 집(아침)

식탁 앞에 앉아 식사 중인 우람,
깨작깨작, 입은 음식을 씹고 있는데, 정신은 다른 곳에 팔려 있다.

FLASH CUT 1회 #14 강당

— 바닥에 앉아 있는 재이, 재이를 가리고 선 세라.

— 그 사이로 보이는 피가 묻은 재이의 손바닥 CLOSE UP.

우람(E) (젓가락으로 밥알을 퍼서 입에 넣는다. 그리고 씹는다) 뭐지...
뭐였을까. 그, 피... 설마...

큰누나(OFF) 아! 짜증 나게 진짜!

우람, 놀라서 앞에 앉은 큰누나 보면, 큰누나 잔뜩 화가 나 있다.

큰누나 너 왜 그렇게 쳐먹어!

우람 ...뭐가?

큰누나 찹찹찹찹, 왜 이렇게 찹찹대냐고 니가 찹찹이나?!

우람, 말문이 막힌다. 큰누나의 옆을 보면, 밥 먹던 둘째,
셋째누나 입을 합—하고 다문다. 큰누나, 화를 삭이는 듯 한숨 내쉬면,
우람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다시 밥 먹는다. 그리고 다시 생각에 빠진다.

우람(OFF) ...그러니까 ...아, 어디까지 생각했더라. 그러니까 재이가...

확— 우람, 이번에는 물세례를 맞았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눈에 들어간 물을 닦아내고 앞을 보면, 큰누나 잔뜩 전보다 더 화가 나 있다.
둘째, 셋째누나, 눈치 보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난다.

셋째누나 (우람에게 귓속말로) 그날이야.

둘째, 셋째누나, 총총 발뒤꿈치 들고, 소리 없이 걸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우람, 가지 말라고 말도 못 하고, 입만 벅끗거리다가 큰누나 다시 보면

큰누나 아씨!

큰누나 젓가락으로 접시를 내려찍는다. 뿜을 기세로.
접시 안에서 콩자반들이 튀어 오른다.

큰누나 왜 안 잡히냐고. 짜증나게. 아 진짜 짜증나아아아아아.

큰누나, 젓가락 던지고 울기 시작한다. 우람,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기
닦아낸다. 해탈한 표정으로, 익숙한 일이라는 듯이.

#5. 병원 복도(오전)

복도 대기 의자에 앉아 폰 보고 있는 재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간호사 정재이 님~ 정재이 님 들어오세요!

재이 네!~

재이, 폰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흰 가운을 입은 경명란, 재이를
노려보며 지나간다. 왜지? 재이, 영문을 모르겠다.

재이, 경명란을 쫓아 시선을 돌리면, 퍽! 앞에서 오는 민화진과 부딪힌다.

여기서, 화진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재이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화진(OFF) 잘 보고 다니셔야죠.
 재이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간호사 (차트를 보며 대기자들 둘러본다) 정재이 님?!
 재이 (급하게 손 번쩍 들어) 재이 저 여깁어요!

그 사이, 화진, 재이를 지나쳐 걸어간다. 재이, 당황해서 간호사,
 화진의 뒷모습 번갈아 보는데.... 화진은 점점 멀어지고,
 재이, 에이! 어쩔 수 없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는 진료실로 간다.

#6. 진료실(오전)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보고 있는 수영.
 책상 앞에 ‘가정의학과 한수영’이라고 쓰인 팻말 놓여 있다.

재이 (문 열고 들어오는) 엄마.
 수영 (시선을 재이에게) 우리 얘기, 검사 잘 받았어? 배고프지?
 재이 밥 먹구 왔어요

재이, 수영의 앞자리에 앉는다. 수영, 재이를 보며 웃는다. 기특하다는 얼굴로.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로 시선을 돌린다.

수영 재이 너 키가 더 컸네? 몸무게는 좀 줄었고…. 시력이 좀 나빠지긴
 했는데, 아직 성장기니까…. 아무튼, 전부 제쳐두고….

수영, 책상 위로 두 손을 모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재이 보면,
 재이, 긴장한 듯 침 꼴깍 삼킨다.

수영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너도 잘 알지?
 재이 (목소리가 작다) …. 그럼요.

수영 어어? 대답이 왜 그래?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고개 숙인 채 작게 한숨 내쉬는 재이, 무릎 위에 올린 두 손, 꼼지락댄다.

그 모습을 보던 수영, 재이의 손 살포시 잡는다.

재이, 고개 들어 수영 보면, 수영, 따뜻한 시선으로 재이 보고 있다.

재이 그냥... 좀 창피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돼서요.

수영 창피한 거 없어, 누구나 처음은 그래. 누군 뭐, 오늘 초경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세요~ 이런 예고 받고 겪는 줄 아니?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하는 거지.

재이 네에...

수영 그리고, 세라가 도와줬다며. 엄마는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이는 안 그래?

재이 (어제의 기억을 떠올리면...)

FLASH CUT 1회 #14 강당

— 카디건을 벗어, 바닥에 앉은 재이의 하반신 가려주는 세라.

세라 괜찮아. (눈빛으로 재이를 안심시키고 뒤돌아서 외친다) 방우람...

너...넌 가서 문이나 열어!

재이 (시야에 가득 찬 세라의 뒷모습, 듣직하다)

현재.

재이 (끄덕이며) 세라는 진짜... 좋은 애예요.

수영 (재이를 보며 웃는다. 귀엽다는 듯, 그리고 재이의 양 볼을 살짝 꼬집어 잡아당긴다) 그럼 축축 처지는 거 그만해야지?

재이 (볼 잡힌 채 고개 끄덕인다)

수영 이제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지거나, 선이 얇아질 수도 있고, 수영이 나거나, 목젓이 나올 수도 있어.

수영, 대사에 맞춰 손끝으로, 재이의 볼살을 눌러 만지고,
턱선을 따라 움직이고
양쪽 입꼬리를 웃는 모양으로 당겨 올렸다가, 목 가운데를 살짝 톡 친다.

수영 그렇게 점점, 몸의 변화가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남자든 여자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네가 더 행복할지,
 선택은 네 몫이야.

재이 ...네에. 그럴게요.

수영 (손뼉 치며) 아 맞다! 오늘 저녁에 파티할 거니까, 저녁 먹지 말고 있어.
 배고파도 좀 참고.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재이 무슨 파티를 하는데요?

수영 네 초, 경, 파, 티.

재이 네? ... (당황) 진짜요?

수영 응, 축하할 일이잖아. 아빠가 케이크 사 온다니까. 서프라이즈~
 준비하고 있어.

재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요.

수영 니 아빠가 원래 노잼이잖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놀란 척 좀 해주자고.
 그 양반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어. 아마 너 몽정 파티도 해주려고
 할 거야. 아 참, 너 몽정은 했니?

재이 ...

#7. 등나무 벤치(낮)

세라와 세라친구1·2 모여 앉아서 비밀 얘기하듯, 수군대고 있다.

세라친구1 그러니까, 갠 벌써 중2 때 해봤대.

세라친구2 대박. 완전 난놈이네?

세라친구1 그렇지도 않아. 요샌 첫 경험 평균나이가 열세 살이라더라.

세라 구라치네.

세라친구1 진짜야! 뉴스에 나왔어

세라 아, 근데 우리는 뭔데. 너 해봤어?

세라친구2 고개 젓는다. 아니….

세라 너는?!

세라친구1 절대 아니지!

세라 뭘 그렇게까지 부정해, 죄지었어? 하여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평균치야. 말도 안 돼.

세라친구2 아니야… 내 주변에 보면, 은근히 해본 애들 많더라. 여친 남친 있는 애들은 대부분 해봤을걸.

세라친구1 …근데 진짜, 좀 궁금하긴 하다.

세라 뭐가?

세라친구1 야동 보면, 완전 난리를 치던데. 진짜 그렇게 좋을까?

세라 야동 그거 다 뺑일걸? 연기하는 거라던데.

세라친구2 뺑인지 아닌지 니가 어떻게 아냐?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세라친구1 만약에 그게 진짜 그렇게 좋은 거면, 우린 좀 불쌍하다.

세라 뭐가 불쌍해?

세라친구1 100살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린 할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누구는 중2 때부터 시작했는데. 우린 고1인데도 아직 못해봤고. 따져보면 개들은 예습 복습에 선행학습까지 다 했는데, 우린 교과서만 보고 시험 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좀 불공평해.

세라친구2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세라 모쏨들이 무슨. 그건 뭐 혼자 하나? 가정부터가 잘못됐잖아. 100살까지 산다 플러스 누굴 사귀다까지, 가정에 들어가야지.

세라친구2 어우씨, 팍팍. 뼈 때린다.

세라친구1 너는, 근데 왜 안 해봤어?

세라 무슨 소리야?

세라친구1 너 친구 개, 너랑 맨날 붙어 다니는 애.

세라 누구? 재이?

세라친구1 어, 맞다 재이, 정재이. 개 진짜 멋있잖아. 야, 진짜 레알, 니 폰 걸고, 개랑 아무 사이도 아님? 씹씹 같은 거 없었어?

세라 무슨, 재이는 그냥 친구야.

세라친구2 내 생각에도, 개는 친구로만 지내기에 아까운 인재긴 하지. 난 첫경험은, 그런 애랑 하고 싶다. 평생 기억에 남을 테니까.

세라친구1 맞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려면, 그게 좋은 선택이지.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да구.

세라 어우씨, 지랄들은. 나 먼저 간다!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 건물 쪽으로 걷는다.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재이랑 나랑? 어후, 말도 안 돼!

세라, 제 뺨 두드리며 건물로 들어간다.

#8. 복도+3반 교실 안(오전)

유경, 우람의 옆으로 뺨 지나간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파우치.
(2회 #2 독서실에서 나온 소희의 파우치랑 같은 디자인이다)

우람 (주워 들고) 야!
유경 뭐...뭐!
우람 이거.

우람이 파우치를 손에 들고 흔든다.
유경, 급하게 다가와서 뺨어 든다. 그리고 뺨, 뒤돌아 간다.

우람 싸가지 봐라.

우람, 천천히 걸어 반으로 들어간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키링. 우람, 어이없다.

우람 (집어 들고) ... 다들 주머니에 구멍 났니...?
(옆자리 학생에게) 야, 이거 니 꺼야?

옆드려 있던 학생1, 고개 들어 확인하더니 고개 젓고 다시 옆드린다.

우람 (다른 편 학생에게) 야, 이거 니 거야?
학생2 어? 아니, 내 거 아니야.
우람 그럼, 누구 거야. 귀찮게.
여학생1(OFF) 아 뭐야! 내 티트!

우람, 자리에 앉으며, 소리 난 쪽 보면, 여학생 정신없이 가방 뒤지고 있다.

여학생1 여기에 넣어놨었는데! 왜 없지? 아, 그거 한 번도 안 쓴 건데!

우람, 시선 돌리며, 무심결에 뒤를 보는데.
유경, 손톱 깨물고 있다. 뭔가 초조해 보인다.

#9. 달리는 버스 안+버스 밖(오후)

재이,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멍하니 밖을 보고 있다.

수영(V.O.) 2차 성징 영향으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네 안에서 충돌할 거야. 어느 쪽이 우세하든... 적응해야 해.
네가 선택하기로 한 그날까지는.

버스 속도 서서히 줄어들고, 창밖으로 정류장 보인다. 버스에 올라타는 승객들.
넋을 놓고 창밖을 보던 재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정류장을 확인하면,
내려야 할 정거장이다. 버스 뒷문 닫힌다.

재이 (벌떡 일어서며) 오오 기사님! 저 내려요!

버스 뒷문이 다시 열린다.
재이 헐레벌떡 버스에서 내리고, 버스는 떠난다.
재이, 내려야 할 정거장에서 잘 내려서, 안도한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 넣는데, 이란,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재이 (온몸을 뒤지며) 으응? 어딴지? 내 폰...

재이, 급하게 돌아보면 버스는 이미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
눈에 힘을 주며 버스 번호판을 확인하려는데,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

#10. 집 가는 길+현관 앞(오후)

터덜터덜, 기운 없이 걷는 재이, 우울하다. 계속해서 한숨만 나온다.

세라(OFF) 어이~ 정재이~

재이, 고개 들어보면
멀리 보이는 집 현관 앞에, 양손 가득 짐을 든 세라, 재이를 반긴다.

#11. 재이의 방(오후)

문 열고 재이와 세라 들어온다.

세라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니가 카톡도 안읽씹 하길래, 무슨 일 있나 했지.

재이 하아, 내 폰...진짜 우울하다.

세라 헤이헤이, 그만 절망하고. 이것 좀 봐봐. 내가 뭘 들고 왔는지.

한가운데 놓인 좌탁 위로, 세라가 가방 안의 물건들을 쏟아본다.

재이 이게 다 뭐야?

세라 5년 경력자 꿀팁 대방출.

재이 5년?

세라 그래! 난 초4 때부터 생리 시작했으니까, 5년 됐지. 하, 그 귀찮은 걸 어떻게 버텼는지... 생각해보니까 나님, 참 대단하다.

재이, 책상 위 물건들 살펴본다. USB 난로, 초콜릿, 빵, 과자, 젤리, 뽕뽕이, 동물 모양 쿠션, 색연필, 컬러링 북 등, 뭐가 잔뜩 있다.
세라, 다른 가방에서 포장된 음식 용기 꺼낸다.

재이 이걸 또 뭐야?
세라 매운 떡볶이! 니가 맵찔이라 좀 덜 매운 맛으로 사 오긴 했는데, 그래도 너한테 매울걸. 그 기간에는 막 이유 없이 짜증 나고 하니까, 이런 걸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거든.
재이 으응.
세라 으응은 무슨 으응. 자 봐봐, 초콜릿.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맵단 맵단. 끝없는 무한공레야. 그리고 빵. 이 황홀한 탄수화물을 보라. 이걸 널 극락으로 인도할 행복 전도사지. 입 심심하면 젤리 좀 씹다가, 손 심심하면 뽕뽕이 터트리고. 이거 컬러링 북은 집중하다 보면,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어서 좋아. 그러다 진짜 진짜 화가 난다? 그럼 이거. 이 시바 인형 대가리에 불주먹을 날려. 이렇게. (인형에 주먹질한다) 알아들어? 자.

세라, 인형을 재이에게 건넨다. 받아든 재이, 인형이 안쓰러운 듯, 쓰다듬는다.

세라 아, 맞다. 이거 중요해.

세라, USB 난로를 집어 들고, 다짜고짜 재이의 배를 가려다가, 멈칫한다.
재이, 주저하는 세라가 이상해서 쳐다보면,
세라, USB 난로를 재이에게 던진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 숙여 물건들 뒤적거린다. 얼굴이 뜨끈하다.

재이 너 얼굴이 빨개. 더워?

세라 아, 아니! 덥긴! 밖이랑 안이랑 온도 차가 좀 있어서 그래! 그... 그거 USB 충전식인데, 만땅 충전하고 쓰면 돼. 그걸로 배꼽 주변이랑,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 생리통도 좀 줄어. 그렇게 해도 계속 아프면... 약 먹어. 그건 약국에서 니가 사. 그럼 이걸로 설명 끝.

(떡볶이 뚜껑 열며) 야아, 빨리 먹자. 안 그럼 뿔어.

재이, 세라가 가져온 물건들 본다.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감동이다.

세라, 나무젓가락 뜯어서 재이에게 내민다.

재이, 받지는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다.

세라 왜, 뭐 또.

재이 진짜 감동.

세라 ... 너 또 오바하지 마.

재이 (팔 벌리며) 안아줘도 돼?

세라 뭐?!

재이 고마우니까.

세라 어... 어 그래... 까짓거.

재이, 세라를 부드럽게 안는다.

아무런 텐션도 느껴지지 않는, 순수한 포옹이다.

재이 이제 좀 낫다. 아까는 이상하게 막 우울했어. 창피해서, 잠깐 어디 숨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세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는 원래 그래. 뭐든, 호르몬 새끼 맘대로야.

세라, 서서히, 저도 모르게 재이의 품에 기댄다. 따뜻하다.

재이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 소리에 번뜩 정신이 드는 세라,

일부러 재이의 등을 팡팡 두드리고, 품에서 벗어난다.

세라 당연하지! 세상에 나만큼 좋은 친구가 어디 있냐? 착하고, 의리 있고!

재이 응, 맞아.

세라 잘 알았으면 떡볶이나 먹어. 여기 젓가락.

세라, 다시 젓가락 내밀면, 재이 받아든다.

세라 엄마가 뭐라서? 오늘 병원 다녀왔잖아.

재이 응, 나 2차 성징이 늦는다고 걱정하시더니, 막상 시작되니까 그거
나름대로 걱정되나 봐. 1년 안 채우고 바로 결정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기다리실 거래.

세라 ...넌 어떻게 할지, 생각 해봤어?

재이 음... 잘 모르겠어. 난 지금까지 정재이로만 살아왔지, 여자 정재이,
남자 정재이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바지나 치마 입는다고, 그게 남자나 여자로 살았다고 할 순
없는 거잖아. 옷은 언제든 바꿔 입을 수 있는 거고.

세라 아... 그렇네. 나도 이세라로만 살았지, 여자 이세라, 이렇게 의식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성별이 정해져 있어 그런가.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근데 말이야, 어제 우리 강당에 가둔 사람,
누굴까. 너보고 강당으로 오랬다며. 그 애 얼굴은 기억나?

재이 음... 아니, 앞머리가 길어서 얼굴 잘 못 봤어.

세라 또 누구 의심 가는 사람은?

재이 음... 딱히? 다들 어제 처음 봐서... 난 다들 인상 좋았는데.

세라 아우, 누군지 아주 걸리기만 해봐. 똥배기를 확 깨버릴라니까. (떡볶이
먹고) 어 이거, 너한테 좀 매울 것 같은데? 맛 괜찮아?

재이 응, 맛있어.

세라 (장난 그득한 얼굴로) 그렇담 다행~ 복! 받으세요~

재이 폼!

세라 와, 방금 완전 신박했지? 라이브 방송에서 써먹어야겠다. 대박스. 또 나
개발한 리액션 몇 개 있는데, 보여줄까?

재이 응! 보여줘~

세라 궁금해요?

재이 네에~

세라 더 크게! 궁금해요?

재이 네에!

세라 그럼 소리 질러~

재이·세라 (동시에) 와아아아아!

재이, 세라. 장단이 잘 맞는다.

#12. 부엌+거실(오후)

식탁 위, 음식이 잔뜩 있는데. 대부분, 포장 음식이다.

수영 재이야, 이거 네 거 맞지? (폰 재이에게 내민다)

재이 (놀라서 받는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수영 병원에서 떨어뜨렸나 봐. 전화하니까 프린트에서 받더라구. 누가 주워서 맡겼대.

재이 와, 살았다. 버스에 두고 내린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다행이다.

태현 (부엌으로 들어온다) 또 잃어버리면, 삼촌한테 말해. 좋은 거로 하나 사줄 테니까.

재이 삼촌! 언제 왔어요?

태현 지금 막, 잘 지냈어?

재이 네, 저야 잘 지냈죠. 전 또, 삼촌이 아빠랑... 그렇게 된 줄 알고 걱정했어요.

태현 그랬어?

수영 그러니까 말이야. 둘이 애정 싸움 좀 작작하라구. 왜 우리한테까지 불똥 튀게 하는 거야.

태현 미안 미안. 다음부터 조심할게.

수영 맨날 말만,

(E) 현관문 소리, 누군가 들어왔다.

연오(OFF) 재이야야~

수영 저 인간도 참 양반 못 돼. 재이야,

수영, 눈짓하면. 재이 고개 끄덕거리며 거실로 나간다.

재이 아빠!
연오 짤! (꽃다발 내미는)
재이 (과장되게, 놀란 척) 우와, 이게 뭐예요?
연오 우리 재이, 너무 축하해! 우리 애기가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축하는 해야지! (재이를 꼭 안는다)
재이 아우우, (수염이 따갑다) 아빠. 고마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축하할
 일이예요?
연오 당연하지! 축하해 마땅한 일이지!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건데~ 어른이 된다는 뜻이잖아.
수영 그만하고 얼른 들어와. 애 배고프겠어.

연오, 재이를 안은 채 부엌으로 들어간다.

연오, 식탁 앞에 앉아 있는 태현을 보고 굳는다. 멧쩍게 웃는 태현.

재이, 슬쩍 연오의 품에서 나와 빈자리에 앉는다.

연오 내가 왜 여겼어?
수영 내가 불렀어. 가족 모임이잖아.
연오 문태현 너...
태현 우리 애긴 조금 있다가 해. 케이크 촛불 먼저 불고.

CUT TO

불붙은 초 하나, 케이크 위에 꽂혀 있다.

연오 소원 빌어야지.
재이 소원까지 빌어요?
연오 그럼~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재이, 곧 눈 떠서 불 후~ 분다. 그리고 어른들 본다.

재이 다들 고맙습니다.
태현 으이, 이빠.

태현, 생크림 찍어 재이의 볼에 묻힌다. 재이, 웃는다.
연오, 나이프로 케이크 잘라서 접시에 덜어 나눠준다.

연오 재이야, 아빠는 있지... (목소리 떨린다)
수영 (연오를 본다. 무슨 말을 하려고 또 저렇게 무게를 잡는 건지...
 약간 따분하다)

재이, 갑자기 진지해지는 분위기에 등공이 떨리는데.
애써 집중한다. 태현은 아예 고개 숙이고 웃는다.

연오 (거의 울기 직전이다, 감상에 빠져서) 널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 넌 축복받은 아이다. 선택할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난
 우리 재이가 세상 눈치 안 보고 맘껏,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쪽을
 선택했으면 했으면 좋겠어. 아빠처럼 이렇게 숨어서 살지 말고, 진짜
 너로서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돌변해서) 그래서 말인데... 지금
 누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

수영 (마지막 말에 반응한다) 쓰읍, 야 정연오.

연오 왜에?

수영 애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말라고 했지.

연오 그런 거라니. 세상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수영 그건 네 기준이고.

연오 내 기준이 아니라, 보통이 그래.

수영 보통이 어딴...! (한숨) 너! 잠깐 나 좀 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나간다)

연오 뭐!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재이야, 먹어. 음식 다 식겠다. 먹고 있어.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올게.

연오, 수영을 따라 나간다. 둘만 남겨진 태현과 재이.

서로 눈 마주치고 어색하게 웃는다.

태현 먹자.

재이 네.

멀리서 언성이 높아진 수영과 연오의 목소리 들린다.

태현 ...다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재이 ...제가 사 올게요. 그... 삼촌도 아빠랑 할 얘기가 남았잖아요.

태현 아, 맞다. 그렇네. (한숨)

태현과 재이, 조용히 음식 먹는다.

#13. 편의점(저녁)

카운터 비어 있고, 종이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쓰여 있다.

재이, 아이스크림 통 뒤지고 있다.

재이 초코, 초코맛~

(E) 째랑, 편의점 문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우람(OFF) 여기요, 어디 갔지? 어? 정재이.

재이 (고개 들어보면, 사복 입은 우람 서 있다) 어! 우람아!

우람 (자기도 모르게 재이의 바지 봤다가, 아닌 척 시선 올린다) 어어...
아이스크림 사게?

재이 응. 너는?

우람 난 큰누나 심부름. 그거 찾으려고 이 동네 편의점 다 뒤졌는데...

재이 뭐데?

CUT TO

매대에 생리대 ‘화이트’ 보인다.

우람(OFF) 오! 있다!

우람의 손이, ‘화이트’ 집어 든다.

재이와 우람, 둘 다 매대 앞에 쪼그려 앉아 있다.

우람 와, 이거 없어서 편의점 두 군데 돌았어. 큰누나는 이것밖에 안 쓰거든. 예민해서.

재이 너 완전 착한 동생이네. 그렇게까지 하고.

우람 안 그럼 죽어. 지금 초초초 예민 상태라서 잘 못 건드리면 큰일 나.

재이 응... 그럴 수 있지.

우람 (생리대 보다가) ... 근데, 재이야...혹시 너... 치질 있어?

우람, 잠시 말을 멈추고 재이 보면,

재이, 역시 우람 쳐다본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다.

(E) 짤랑~ 문 열리는 소리 작게 들리고 누군가 슬금슬금 들어온다.

재이, 볼록거울 보면, 우람도 따라 보는데, 그때 그 2회 #3에서의 여자(유경)다. 우람, 입을 열려고 하면, 재이 검지를 들어 입 막는다. 씯— 유경, 주변을 살피면, 아무도 없어 보인다. 카운터도 비었다. 안심하고, 가방에 손 집어넣는다. 그리고 뭔가 꺼내려는데....

주인(OFF) 동작 그만!

유경, 깜짝 놀라 뒤돌아보면, 출입문에 날라리처럼 생긴, 젊은 여자 주인 서 있다. 요란한 머리색, 코피. 걸어붙인 소매 아래로는 잔뜩 타투다.

우람(OFF) 야, 너!

유경, 뒤로 고개 돌려보면. 우람 서 있다. 뒤로 재이 쓱 올라온다.

유경이 들고 있던 가방 바닥으로 떨어지고. 안에 있던 물건들 쏟아져 나온다.

#14. 편의점 안쪽 사무실(저녁)

테이블 위, 물건이 잔뜩 들어 있는 가방 놓여 있고

편의점 주인과 유경, 마주 보고 앉아 있다. 고개 푹 숙이고 울고 있는 유경.

주인 그래서, 훔친 걸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했다고?

유경 (울면서) 네... 제가요. 생리 기간만 되면, 이상하게 뭘 갖고 뺏고 싶고
 훔치고 싶은 충동이 들거든요.

주인 하... 생리도벽 있니?

유경 네... 근데 어떻게 아세요? 생리도벽... 보통은 잘 모르는데... 아, 혹시
 사장 언니도...?

주인 닥쳐. 나 이래 봐도 법대 출신이야. 그런 사례 꽤 봤어.

유경 ...집에 연락하실 거예요?

주인 왜? 하길 바래?

유경 네?! 아니요! 전혀요! 아빠가 알면, 경찰서로 끌고 가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빤 이해 못 해요. 그냥, 제가 반항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주인 ...치료는 받고 있니?

유경 네... 상담받아요. 근데 아직...

주인 ...그렇구나

유경 ...근데,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세요?

주인 실수는 누구나 해. 근데 그거 하나하나 끈지르면, 세상 무서워서
 살겠어? 게다가 이렇게 훔쳤던 물건을 다시 되돌려놓으려고 바리바리
 싸서 들고 온 거 보면, 딱 각 나오잖아. 그리고 재들이 보증 서기도
 했고.

INSERT

— 재이, 우람 카운터를 지키고 서 있다.

주인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때 그냥 세상
 하직하는 거야. 알았어?

유경 ...네... 고맙습니다... 그리구 진짜 죄송합니다.

주인 그렇게 말하니깐 썸 이쁘네. 근데 너 꽤 의리 있는 친구들을 뒀네?
 부럽다?

유경 친구...요?

#15. 편의점 밖(밤)

재이, 우람, 유경 편의점에서 나온다.

우람 너지?

유경 뭐... 뭐가?!

우람 왜 그렇게 놀라? 찢리냐?

유경 우씨...그래 내가 그랬다!... 그치만 정재이 너도 너무했어!
 첫날에 가장 중요한 건 기선 제압인데, 니가 내 계획을 다 망쳐놨잖아!

재이 응?

우람 뭘 소리야? 틴트 훔친 거 너냐고 물어본 건데.

유경 ...!!

우람 뭐야, 강당 그거 너였어?!

유경 야! 너는 무슨 질문을 그렇게 개떡같이 하고 지랄이야!
 (재이와 우람 번갈아 보다가, 못 견뎌) 에이씨... 그래!
 그거 내가 한 거야. (눈치 보다, 한숨) 미안...

재이, 그런 유경의 어깨 잡고 눈 마주친다.

유경, 어쩐지 그 눈을 피할 수가 없다.

유경 ...왜... 왜? 미안하다니까.

재이 진짜?

유경 (뭔가 말하려다가, 고개만 끄덕인다)

재이 그럼 됐어... 우람이가 말한 틴트는?... 그것도 너야?

유경 ...응.

재이 그거 어디 있어?

유경 가방에... 충동적으로 훔쳤는데, 훔치자마자 후회했어. 진짜야.

재이 그럼, 그것도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유경 뭐?! 안 돼! 애들한테 들키면... 학교생활 그걸로 끝이야. 나 전학 가야 할지도 몰라! 왕따 당할 거라고. 진짜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어?

우람 그럼, 그거 잃어버린 애는 뭐 죄냐. 돌려줘야지.

유경 ...그렇긴 한데... 나 근데 다시는... (눈을 질끈 감는다)

재이 (유경 얼굴 보다가) 들키지 않고 돌려줄 방법이 있긴 있어.

유경 ...그게 뭔데?

재이 그 가방 이리 줘봐.

유경, 가방 재이에게 건넨다. 가방, 재이의 손에 넘어간다.

#16. 5반 교실(낮)

학생들로 북적북적한 교실. 세라,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으면,
세라 머리 양옆으로, 상상 이미지 세라친구1·2 떠올른다.

세라친구2 첫경험이라면, 난 그런 애랑 하고 싶다. 평생 기억에 남을 테니까.

세라친구1 맞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려면, 그게 좋은 선택이지.

세라친구1·2 (동시에) 이세라. 넌 어떻게 생각해?

세라 음... 나는... (고민에 빠지면...)

FLASH CUT 2회 #11 재이의 방

재이 (팔 벌리며) 안아줘도 돼?

— 재이가 세라를 안으면, 그 품 안에 안기는 세라.

— 서서히 재이에게 기대, 눈을 감는다.

현재.

세라(OFF) 따뜻해... 그래... 재이 정도면...

번쩍! 감았던 눈을 뜨는 세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실을 나간다.

#17. 3반 교실(낮)

학생들, 교실 뒤편의 사물함 앞에서 장난치고 있다.

그러다가 학생1 사물함 위에 놓인 빨간 바구니를 발견한다. 못 보던 거다.

학생1 이게 뭐야?

학생1 빨간 바구니 살펴보면, 그 위에 분실물 함이라고 적힌 글자 보인다.

우람, 뒷문으로 들어와, 그 바구니에 킁킁 던져넣는다.

우람 일일이 주인 찾기도 귀찮다. 나 주운 거 여기 넣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라.

학생1 어? 여기 토틸도 있는데? 야, 너 잃어버렸다는 거 이거 아니야?

여학생1 어디? 봐봐!

학생들, 분실물 통에 모여든다.

우람, 제자리로 걸어가며 유경과 눈 마주친다. 작당 모의하는 사람들처럼...

여학생1 어! 이거 내 꺼 맞아! 이게 왜 여겼지?

학생1 어디 흘렸던 거 아니야?

우람,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옆에 앉은 재이와 시선 교류 없이, 책상 아래로 하이파이브 한다. 앉아서 문제 풀고 있던 소희, 시끄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 쪽으로 걸어간다. 유경, 웃으며 폰 메시지 보내고 있다. '매점 갈래? 내가 쓸게' 소희, 유경의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선다. 유경, 앞에 지는 그림자에 고개 들어 보면

소희 (비웃으며) 쇼를 하네.

소희, 그대로 뒷문으로 나간다. 유경, 나가는 소희, 끝까지 노려본다. 그때, 뒷문으로 들어오는 세라. 빠른 걸음으로 재이에게 간다.

재이 어, 세라야.

세라 좀 나와봐. 할 얘기 있어.

세라, 급하게 재이 끌어내면, 재이 열결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람, 그런 둘을 본다. 무슨 일이지...?
재이, 세라의 손에 붙잡혀, 교실 문을 나간다.

#18. 복도 끝 계단(낮)

세라, 복도 끝 외진 계단에 도착해 재이의 손을 놓아준다.

재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세라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재이, 입을 합— 다문다.

세라 (어떻게 말할지 망설이다가 말을 꺼낸다) 니가 그랬지? 너 한 번도 너를, 남자 정재이, 여자 정재이로 구분 지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재이 응.
세라 내 생각엔, 그게... 니가 누구 사랑하게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
 같거든? 그러니까... 어.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모든 건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
재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세라 그니까 내 말은...
재이 응...
세라 (에라 모르겠다) 그 경험... 나랑 같이해볼래?
재이 ...??
세라 그러니까 그거... 나랑 해보자고. 섹스.
재이 ...!!!

2회 끝.

작가 후기

작품에 대한 피드백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야기가 너무 순하다, 라는 평이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제 친척 동생들을 보면서 재이와 우람이, 세라를 썼는데, 제가 본 애들이 너무 순한 애들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TV에서 나오는 불량 학생들이나 거친 아이들의 모습이 살짝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변에 이렇게 순수하고 아직은 어린아이같이 호기심 넘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항상 TV나 소설, 웹툰에서 나오는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어둡고 거칠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모습인 걸까? 정말 그런 애들이 많은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눈 딱 감고 완전히 센 이야기로 바꿔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사춘기의 성 문제를 겪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재이가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지금의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성교육이 무엇일까, 남녀의 차이가 과연 개개인의 개성 차이보다 큰 걸까, 하는 질문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계속 바꾸다 보면 이야기가 변할 것 같다는 생각에 수정은 이탈자 정도만 교정했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읽어보면, 그때 또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남겨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승라이더 — 환설현

기획의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와 모바일 인터넷 속도 1위를 동시에 자랑하는 대한민국. ‘죽지 못해 사는 사람’과 ‘살지 못해 죽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요즘.

만약 치킨이나 피자처럼 배달앱으로 죽음을 주문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끔찍한 디스토피아처럼 들리지만,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유토피아가 될 ‘죽음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세상’에서 남들보다 간절히 살려고 하다 보니 ‘남들에게 죽음을 전하게 된 배달부’의 이야기.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보자.

누군가 그토록 원하는 죽음을 배달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등장인물

강민석(28세, 남) 음식배달부

남들이 뭐라 하든 아프니깐 청춘이라 굳게 믿고 긍정과 희망을 무기로 살아가는, 이제는 희귀해진 이 시대의 청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엄마와 빛만 남기고 사라진 아빠 대신에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위해 대학 졸업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배달부가 되었다.

사연이 많은 만큼 인정도 많다. 아니, 어찌면 오지랖이 넘치는 걸 수도.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포탄이 빗발치는 민석의 삶 속에 짝사랑하는 주희는 위문공연이고, 존경하는 설구는 전쟁영웅이다.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불행해도 행복하게 살면 내 인생에 종전(終戰)이 올 거라 믿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남의 인생을

종결(終結)하는 저승사자 아니, ‘저승라이더’가 되었다. 아이스크림이나 참치회도 아니고 죽음을 주문하고 배달받는다니, 민석은 혼란스럽다.

배주희(31세, 여) 카페 사장

수제 마카롱과 커피를 파는 카페, ‘주희마카롱’을 운영하는 민석의 짝사랑 상대. 남들은 젊은 나이에 부모님이 차려준 카페를 운영하는 금수저로 오해를 한다. 하지만 스무 살 주희가 보육원을 나올 때, 가지고 있던 밑천이라고는 제과기능사 자격증과 자립지원금 500만 원이 전부였다. 그렇게 유명제과점의 막내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10년 만에 번듯한 가게를 차렸다. 자신의 이름을 딴 카페의 간판이 올라갈 때는 일찍 죽은 부모와 떠나버린 오빠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행복했다. 마음 편히 마카롱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복순과 민석이 있는 열 평짜리 카페는 주희에게 전부였다. 그날 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윤복순(78세, 여) 민석의 할머니

죽은 며느리와 도박꾼 아들 대신에 민석의 엄마, 아빠가 되어준 할머니. 유복자로 태어나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사기꾼에게 땅문서를 뺏긴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떠밀리듯 시집을 갔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베트남전쟁에 파병 갔던 남편이 죽고 자신처럼 유복자가 되어버린 외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장에 좌판을 벌였다. 아들은 곁에 없는 엄마에게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자꾸만 엇나가 노름판까지 손을 댔다. 복순이 금처럼 모아둔 돈을 아들은 물처럼 퍼냈다. 부모복, 남편복, 자식복 모두 없는 박복한 팔자를 원망할 때 민석이 태어났다. 민석은 복순에게 자상한 아버지이자 든든한 남편이고 착한 아들이 되어주었다. 대장암에 치매까지 찾아온 인생의 마지막에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민석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다.

점주(?, 남) ‘사자밥’ 주인

죽음을 배달하는 미스터리 가게 ‘사자밥’ 1호점 가맹점주. 이후에 밝혀지지만 사실 복순의 할아버지이자 민석의 고조할아버지. 외견은 50대 초중반으로 보이지만 실제 나이는 알 수 없다. 이승밥과 저승밥을

오며 가며 먹다 보니 나이를 세는 것을 잊어먹었다. 저승에 있는 본사와의 비밀유지조항까지 어기면서 민석이 ‘저승라이더’를 계속하도록 설득한다. 처음에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민석을 붙잡았지만 갈수록 미운 정 고운 정이 든다. 알고 보니 그게 다 피가 땀겨서 그랬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

전설구(43세, 남) 음식배달부

민석이 가장 존경하는 아는 형님, 일명 ‘배달의 전설’. 형구의 형.
길 잃은 복수를 찾아준 인연을 시작으로 민석에게 배달부의 길을 알려준다.
장발에 가죽옷과 최고급 바이크까지, 아무리 보아도 ‘취미’로 바이크를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 서울 시내에서 ‘생계’로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배달의 전설’이다. 범상치 않은 외모와 말투 때문에 여러 오해도 받지만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언제나 발 벗고 나선다. 하지만 10년 전, 막내여동생이 죽은 후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 특히 동생 형구와 사이가 좋지 않다.

전형구(38세, 남) 형사

민석을 의심하는 형사. 설구의 동생.
사람들이 죽는 사고 현장마다 등장하는 민석을 의심하고 추적하기 시작한다.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간 범인을 찾기 위해 형사가 되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배달부가 되어 방황하는 설구를 이해하지 못한다.

강석용(56세, 남) 민석의 아버지

도박자금을 만들기 위해 아들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다가 민석을 신용불량자로 만든 뒤, 행방불명되었다. 7회에서 등장 예정.

범인(? , 남)

10년째 잡히지 않고 있는 연쇄 강간범. 설구와 형구의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주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원흉이다. 4회에서 등장 예정.

그 외

김민경(35세 사망, 여) 민석의 어머니. 회상 장면에서 등장

전수아(20세 사망, 여) 설구와 형구의 동생. 회상 장면에서 등장

장제원(33세, 남) 형구의 부하 형사

김순애(80세, 여) 치매환자쉼터에서 복순의 단짝이자 양숙

즐거리

배달의 명수가 되고 싶은 초짜 배달부!

아픈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민석.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 일을 한다. 민석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 1위의 배달 앱 이름처럼 ‘배달의 명수’가 되어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돈으로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짝사랑하는 주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 자신을 도와준 설구에게 은혜를 갚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중간에 그만둔 대학 공부를 마치는 것. 이 정도면 모두가 일확천금과 벼락부자를 꿈꾸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꿈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승을 지배하는 것은 열라대왕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렇게 평범한 삶만 되어도 좋겠다는 민석 앞에 특별한 가게, ‘사자밥’이 나타난다. 다른 곳보다 몇 배나 비싼 배달료, 수상한 인테리어와 더 수상한 점주 그리고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붉은 상자. 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배달을 받는 사람마다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다는 점이다.

점주를 협박해 민석이 얻어낸 대답은 저승에 있다는 본사에서 죽음을 배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것. 세상에, 지옥불은 있어도 자본주의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저승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저승사자’를 정규 채용하는 대신, 자신을 ‘저승라이더’로 간접 고용했다. 이처럼 악독한 취업 사기가 있을까?

당장이라도 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뒤돌아서는데 점주가 말한다. 이걸 사람을 죽이는 일인 동시에 살리는 일이라고.

‘사살’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고사’로 바꾸어주면 죄책감과 배신감에 고통받을 유가족을 구원해줄 수 있다고.

사람을 살리는 저승라이더?

어릴 적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엄마의 죽음 앞에 누구보다 힘들었던 민석은

결국 점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곧이곧대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둘 생각은 아니다. ‘상자를 배달하기 전에 죽지 말라고 설득할 수 없다’는 조항은 계약서에 없다. 배달부의 의무는 배달을 가는 것까지! 주문 취소를 하는 건 전적으로 고객님의 자유이지 않을까? 그렇게 민석은 죽음이 들어 있는 상자를 들고 삶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시내를 누빈다. 그건 꽤 보람 있고 뿌듯하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주희를 고객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민석은 혼란스럽다.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또 나를 보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했던 그녀가 왜 이런 끔찍한 것을 원하는 것일까. 그녀를 살려야 한다, 아니, 그녀가 없다면 죽고 싶어질 자신을 살려야 한다. 그렇게 민석은 주희의 삶을 고통으로 만든 범인을 찾기 시작한다. 한편, 형사 강구는 사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마다 등장하는 민석과 붉은 상자를 의심한다. 그런데 민석을 추적하면 할수록 마주치는 것은 자신의 과거이다. 10년 전 여동생이 죽은 후, 자신과 말을 섞지 않던 형 설구를 만나고, 꿈에서라도 잡고 싶었던 범인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

평범한 남자의 특별한 선택!

이제 민석의 일상은 도저히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치매가 심해지는 할머니, 삶의 끝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자, 행방불명되었다 돌아온 아버지, 속을 알 수 없는 점주, 회사 제품을 빼돌렸다고 다투는 본사 직원들, 그리고 사사건건 자신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형구까지. 민석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범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긴다. 저승라이더가 되고부터 지금까지, 살리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왔는데 죽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1회 : 위문공연은 계속될까

초기 치매가 찾아온 복순과 단둘이 살며 배달 일을 하는 민석. 카페를 운영하는 주희를 짝사랑하고 있다. 어느 때처럼 배달콜을 받다가 신규업체 ‘사자밥’이라는 곳에서 붉은 상자를 받아 배달한다. 그런데 잠시 뒤, 배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혼란에 빠진다.

2회 : 난세의 영웅은 나타날까

민석은 자신을 도와줬던 설구에게 사자밥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배달을 받은 세 번째 사람이 죽자, 점주를 협박해 답을 얻는다. 사자밥은 저승에서 운영하는 ‘죽음배달전문점’이었다는 것. 민석은 배달을 계속해달라는 점주의 설득에 고민한다. 한편, 주희는 주말 내내 가게를 닫고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3회 : 오토바이를 탄 의무병

점주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죽음을 주문한 사람들을 살리자고 결심한 민석. 시험에서 떨어진 고시생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을 도와준다. 그러던 중, 사라졌던 주희가 고객으로 등장하자 충격을 받는다. 한편, 형구는 사고 현장마다 등장하는 민석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4회 :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보급

죽고 싶어 하는 주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는 민석. 복순이 차려주는 밥으로 위로받은 주희는 자신이 죽으려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주희를 스토킹해온 연쇄 강간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 민석은 주희를 살리기 위해 범인을 찾기로 한다. 그리고 배달을 다니던 중, 단서와 일치하는 범인을 목격한다.

5회 : 용단폭격에 핵폭탄까지

민석은 경찰에 범인을 신고하지만 오히려 형구에게 취조를 받게 되고 사자밥의 본사 직원들도 민석을 위협한다. 그사이에 범인도 놓쳐버렸다. 설상가상으로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심해지고 주희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연락까지 받은 민석은 크게 낙심한다.

6회 : 협상테이블과 휴전 합의

병원에 입원한 주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민석. 민석의 진심을 알게 된 주희는 조금씩 안정을 찾는다. 계속 민석을 감시하던 형구는 설구와 마주치고, 민석이 찾고 있던 사람이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7회 : 난세의 영웅은 나타난다

형구와 설구는 오해를 풀고 민석과 함께 범인을 추적한다. 점주는 민석 때문에 가맹점 계약을 파기 당한다. 그러던 중, 행방불명되었던 석용의 소재를 찾게 되고 점주가 복순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한편,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범인의 윤곽이 밝혀진다.

8회 : 위문공연은 계속된다

민석은 아버지와 재회하고 어머니의 자살에 대한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극복한다. 주희 또한 민석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삶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가진다. 민석, 주희, 복순, 점주, 형구, 설구는 모두 힘을 합쳐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준다.

저승라이더

황설현

1회

위문공연은 계속될까

#1. 한강 다리(밤)

한적한 도로. 스쿠터를 탄 민석이 달리고 있다.

민석(NAR) 나는 배달부다. 손가락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만물상을 차릴 수 있는 세상이지만 내가 배달하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하다.

민석이 도착한 곳은 한강 다리.

초췌한 모습의 고시생으로 보이는 20대 후반 여자가

난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출렁거리는 한강 아래를 바라보다 아찔했는지 다리를 후들거리며 내려온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크게 숨을 쉬는 고시생.

(E) 스쿠터 오는 소리. 뒤를 돌아보는 고시생.

CUT TO

스쿠터에서 내리고 헬멧을 벗는 민석.

노란색 넥워머에 노란색 방한모자를 입고 있다.

고시생 (굳은 표정) 진짜 오는구나... 그거 배달하러 온 거 맞죠?

민석 (아무 말 없이 배달 박스에서 붉은 상자를 꺼낸다)

고시생 (다급) 그거예요? 물건 확실한 거죠? 빨리, 빨리 줘요.

붉은 상자를 들고 성큼성큼 고시생에게 다가가는 민석.

고시생이 손을 내밀고 상자를 가져가려 하자

손에 힘을 주고 넘기지 않으려는 민석.

고시생 (당황) 뭐예요...? 빨리 내놔요.

민석 (여자와 눈을 마주치며) 받는 순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거 알죠?

단호한 민석의 표정 CLOSE UP.

민석(NAR) 나는 죽음을 배달한다.

타이틀. <저승라이더>

소제목. <1. 위문공연은 계속될까>

#2. 어두운 주택가(밤)

자막. -3일 전-

아무도 없이 적막이 감도는 주택가. 검정색 봉고차 하나가 멈춰 서고 양복을 입은 남자 세 명이 내린다. 두 사람은 트렁크에서 잘 보이지 않는 어떤 물건을 내리고, 한 사람은 붉은색 태블릿 pc를 들고 이것저것 체크한다. 잠시 뒤, 태블릿 pc를 든 남자가 점주에게 다가간다.

남자1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사장님, 물량 확인하시고 사인 부탁드립니다.

점주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받아들고 사인을 한 뒤 다시 돌려준다)

남자1 네, 다 되셨고요. 개업 축하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영업 개시네요.

점주 아직 배달 기사를 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남자1 아, 그건 뭐 쉬울 겁니다. 배달부야 워낙 많으니까. (웃음)

CUT TO

(E) 봉고차가 출발하는 소리.

혼자 남아 쌓여 있는 붉은 상자를 바라보는 점주의 뒷모습.

스산하고 섬뜩한 분위기가 감돈다.

#3. 민석의 아파트/민석의 방(낮)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30년 된 임대 아파트.

낡고 허름하지만 민석과 복순의 소중한 보금자리다.

햇살이 가득 비추고 있는 방 안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민석.

(E) 고급스러운 클래식 음악.

방 안에 있는 플라스틱 5단 서랍장을 열고 시계를 고르듯 훑어보는 민석.

민석의 손가락을 비추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서랍장 안에 있는 것은 가지런히 나열해 있는 다양한 손목 보호대.

그중 하나를 골라 시계를 차듯 멋들어지게 착용하는 민석.

민석(NAR) 남자의 자존심은 손목에서 얻고….

서랍장 옆의 스탠드 옷걸이에 다가가는 민석.

걸려 있는 다양한 색깔의 넥워머 중 하나를 고른 뒤,

거울 앞에서 목에 대어보고 고개를 가웃거리며 내려놓는다.

빨간색으로 다시 골라 착용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민석(NAR) 남자의 용기는 목에서 얻는다.

거울 속에 비친 민석의 모습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보여준다.

빨간 양말, 까만색 나일론 스판 바지, 남색 패딩 점퍼,

양말과 색깔을 맞춘 빨간색 넥워머.

마지막으로 방한모자를 착용하는데 역시 빨간색이다.

민석(NAR)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랍장 위에 올려져 있던 대용량 섬유 탈취제를 뿌리는 민석.

눈을 감고 냄새를 맡는다.

민석(NAR) ...남자의 향기다.

민석 (손에 든 섬유 탈취제를 바라보며) 남자라면 역시 상쾌한 향이지.

#4. 민석의 아파트/현관(낮)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신는 민석.

복순이 건네준 보온병을 배낭 가방 안에 넣는다.

신발장 위에는 스쿠터 헬멧이 올려져 있다.

민석의 패딩 점퍼 지퍼를 목 끝까지 단단히 올려주는 복순.

민석 (걱정되는 눈빛으로) 약 꼭 챙겨 먹고. 오늘 센터에서 미술 수업하는 날이지? 거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순애 할머니랑 자꾸 싸우지 좀 말고! 저번에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 기억하지? 치매 초기에는 ...

복순 (O.L.) (민석을 떠밀며) 됐다, 마! 다 기억난다. 빨리 니 일이나 가그라.

민석 (복순을 꼭 안아주며) 알았어. 나 간다. 오후에 데리러 올게.

복순 (민석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며) 오냐~ 내 새끼.

#5. 고시원 방안(낮)

1.5평짜리 고시원.

착잡한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다 인터넷 창을 확인하는 고시생.

모니터에 '불합격'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

한숨을 쉬고 벽에 붙은 메모지 중 하나를 바라보는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고

'마지막'이라는 글씨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다.

(E) 휴대폰 진동 소리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니 '엄마♡' 라고 떠 있다.

울컥하는 고시생, 전화를 받지 않고 엎드려 흐느낀다.

#6. 아파트 주차장(낮)

한쪽 팔에 헬멧을 끼고 아파트 주차장 한편으로 걸어가는 민석.
도착한 곳에 세워져 있는 방한 장갑이 달려 있는 125cc 스쿠터.
오토바이 키를 꺼내는 민석.

CUT TO

멋스럽게 스쿠터에 올라타는 민석.
휴대폰 화면에 있는 '배달의 명수' 앱을 켜다.

민석(NAR) 배달의 세계는 전쟁터다.
뛰어난 전략을 세워야 적들보다 빨리 깃발을 꽂을 수 있다.

앱에서 '배달콜'이 뜨기 시작한다.
화면에 이동 거리, 음식 종류, 배달료가 표시된다.
목록을 내리며 훑어보는 민석.

민석(NAR) 무조건 비싼 배달료를 기준으로 하는 건 초수다.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동선과 음식 종류,
결제 방법까지 고려한 전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뢰를 피하는 것이다.

목록 중 하나를 클릭하는 민석.
지도에 음식점의 위치와 배달장소의 위치, 요청사항 등이 표시된다.
'배달장소 - 센텀첼리시오 아파트 1106동 2507호'

민석(NAR)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신축 고급 아파트. 여기서 거리는 멀지 않지만
단지 안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없고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시간이 두

배로 걸리기 때문에 모두 피하는 곳이다.

(E) 여자 목소리 “절대 절대 벨을 누르지 마시고 도착 3분 전에 전화 주세요.
배달 시간 1분이라도 늦으면 돌려보냅니다.”

민석 요청사항도 너무 까다롭네. 여기는 패쓰….

앱 화면에 ‘배달음식점 상호 - 주희마카롱’이라고 뜬다.

콜을 받지 않고 넘기려다 ‘주희마카롱’이라는 상호 이름을 보고 멈칫하는 민석.

#7. 주희마카롱/가게 앞(낮)

스쿠터에서 내려서 원룸촌에 위치한 작은 카페 앞에 서는 민석.

‘주희마카롱’이라고 적힌 핑크색 간판이 달린 아기자기한 외관.

가게 창문으로 얼핏얼핏, 일하고 있는 주희의 모습이 보인다.

입구 옆에는 작은 벤치도 놓여 있다.

긴장한 모습으로 머리와 옷매무새를 다듬는 민석.

민석(NAR) 지뢰밭에도 꽃은 핀다. 포탄이 빗발쳐도 로맨스는 계속된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숨을 크게 내쉬고 가게 문을 여는 민석.

(E) 문에 달려 있는 풍경이 울리는 소리.

#8. 주희마카롱/가게 안(낮)

테이블 다섯 개와 작업실이 있는 아기자기한 카페.

작업실에서 핑크색 마카롱 고그 안에 하얀색 펄링 크림을 채우고 있는 주희.

종소리가 들리자 하던 일을 멈추고 카운터로 나가며 인사한다.

주희 안녕하세요. 주희마카롱입... (반갑) 아, 민석 씨!

민석(NAR) 내 삶이 전쟁터라면 주희 씨는 위문공연이다.

민석의 눈에는 환하게 웃는 주희의 뒤에 후광이 비쳐 보인다.

(E) 쿵광대는 심장 소리.

민석 (낮이 나가 주희를 바라보다가 정신 차리고) 안녕하세요. 주희 씨.

배달 가지러 왔습니다.

CUT TO

카운터 앞에 올려진 종이가방을 민석에게 건네는 주희.

커피와 마카롱, 조각 케이크 등이 포장되어 들어 있다.

주희 (의아) 이상하게 여기 아파트에서 배달이 오면 항상

민석 씨만 오시는 거 같아요.

민석 (어색하게 웃으며) 아... 그런가. 신기하네요.

주희 (투명비닐에 포장된 마카롱 하나를 건네며) 이번 신상으로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딸기 크림치즈 맛이예요.

민석 (두 손으로 받으며) 아, 감사합니다. 매번 기사분들 오실 때마다
이렇게 주세요?

주희 아니요. 민석 씨는 특별하니까 드리는 건데요.

민석 (두근두근) 네? 특별이요?

주희 (카운터 한쪽을 가리키며) 저희 가게 VIP 고객님의시잖아요.

주희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고객 카드 보관함.

민석의 이름이 적힌 카드에는 스탬프가 빼곡하게 찍혀 있다.

그 옆의 알림판에는 '이달의 쿠폰 당첨 고객 - 강민석 님'이라고 적혀 있다.

#9. 고급 아파트/엘리베이터 앞(낮)

커다란 은빛 엘리베이터 문에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하고 안내문을 읽어보는 민석,
‘택배 및 음식 배달 기사 이용금지 — 계단 또는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바람’
شم썩한 웃음을 짓고 자리를 뜨는 민석.

#10. 고급 아파트/화물 엘리베이터 안(낮)

배달을 마치고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민석.
상당히 흔들리고 속도가 느리다.
(E) 휴대폰에서 들리는 기계음 “라이더님. 새로운 배달콜이 기다리고
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는 민석.

민석 (목록을 내리며 중얼거린다) 보자... 이제 점심시간이니깐
두 개 한꺼번에 픽업할 수 있는 곳으로...

그때 화면에 혼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콜.
‘이동거리 1.5km/배달료 10,000원’이라는 글자가 크게 보인다.

민석 (놀라며) 이 거리에 만 원? 대박인데?

(E) 휴대폰에서 들리는 기계음 “배달의 명수~ 주문 캐치!”

#11. 주택가 골목(낮)

느린 속도로 스쿠터를 타고 오는 민석.
멈춰 서서 휴대폰으로 지도를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민석 (이리저리 둘러보며) 여기가 맞는데….

점주(E) 배달받으러 오셨나요?

갑자기 스산한 기운이 느껴져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는 민석.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돌아본다.

흰색 삼베 원단으로 만든 개량 한복을 입고 있는 점주.

그 뒤로 초롱 등불이 걸려 있는 솥을대문 모양의 가게 입구가 보인다.

점주 (낮게 깔린 목소리) 들어오시죠.

민석 아… 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점주를 따라 들어가면서

입구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민석.

문 옆에 있는 작은 나무판에 ‘사자밥’이라고 적혀 있다.

민석 (속으로) 사자밥…? 이 동네에 이런 데가 있었나?

#12. 사자밥/가게 안(낮)

가게 안은 대낮인데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며 점주에게 말을 거는 민석.

민석 근데 최근에 오픈하셨나 봐요? 제가 여기 엄청 자주 지나다니는
곳인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점주(E) 네. 오늘이 영업 첫날입니다.

안쪽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빛을 따라 계속 들어가는 민석.

점주가 카운터 앞에 서 있다.

벽에는 여러 색색의 한지 종이가 길게 늘어뜨려져 장식되어 있다.

희미하게 웃으며 민석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점주.

카운터 위에는 밥 세 그릇, 국 세 그릇, 술 세 잔이 올려져 있다.

- 민석 (점주의 눈을 피해 카운터 위를 보며) 이게 다 배달할 건가요?
점주 아니요. (카운터 밑에서 붉은 상자 하나를 꺼내 올려놓으며) 이것만 배달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카운터 위의 물건들을 쭉 훑으며) 원하신다면 라이더님께서 드세요.
- 민석 (점주를 의심스럽게 보며)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나무젓가락이나 영수증은...?
점주 없습니다. 이 상자만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달해주시면 됩니다.

말을 끝내고 붉은색 태블릿 pc를 꺼내 이것저것 체크하는 점주.
점주를 미심쩍게 바라보다 상자를 들어 올리는 민석.
뒤돌아서 나가려는데 마치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것처럼 상자가 가볍다.
이상해서 뒤돌아보는데 점주가 보이지 않는다.

- 민석 (뒤돌며) 저기, 이거 너무 가벼운데, 제대로 포장하신 거 맞으세... (놀라며) 뭐야, 어디 갔어?

어리둥절하며 두리번거리는 민석의 뒷모습.
벽에 붙은 붉은색 종이 하나가 날려 바닥에 떨어진다.

#13. A원룸/건물 앞(낮)

건물 앞에 스쿠터를 세운 뒤,
붉은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민석.

#14. A원룸/610호 앞(낮)

10여 개의 문이 양쪽으로 늘어선 원룸 건물 안 복도.

610호 앞에 서는 민석.

민석 (문을 두드리며) 배달 왔습니다. (조금 기다리다 대답이 없자 다시 한번 두드리며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배달이요~.

여전히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다가 잠시 뒤,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여자 팔 하나가 쑥 나오며 손을 내민다.

민석 안녕하세요. (상자를 건네주며) 여기 음식 받으시...

상자를 받자마자 민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610호 여자.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큰 목소리로 “맛있게 드세요” 하고 떠나는 민석.

#15. 편의점 안(낮)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석.
냉장고 앞에서 물품을 정리하는 사장을 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민석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 (힘없는 목소리로 일어서며) 응... 왔어? 폐기는 저쪽에 챙겨놨어.

민석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오늘 미국에서 효민이 들어오는 날 아니에요?

사장 (한숨을 쉬며) 안 온대.

민석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장 (썩썩한 표정으로) 중학교도 거기서 다니겠대. 뭐, 이제 미국인 새아빠도 생겼으니 거기가 자기 집이지. 민석아, 넌 나중에 니 자식 최대한 품에 오래 끼고 살아. 나처럼 기러기 아빠 같은 짓 하지 말고.

민석 (위로의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문다)

#16. 아파트 주차장(낮)

주차장 화단 쪽에 쫓그려 앉아 있는 복순.

분홍색 털모자와 호피 무늬 선글라스, 꽃무늬 스카프를 하고 있다.

(E) 스쿠터가 오는 소리.

민석의 스쿠터가 복순 앞에 선다.

민석 (복순한테 뒤에 타라는 손짓을 하며) 어이~ 예쁜 아가씨, 타!

#17. 약국 안(낮)

어두운 표정으로 모자를 쓴 채 약국 안으로 들어서는 고시생.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시생을 바라보는 약사.

고시생 (망설이다 결심한 듯) 저기... 수면제 주세요.

약사 (고시생의 행색을 살펴보며) 수면제는 의사처방전이 필요하구요.

약국에서는 수면유도제 종류만 구매 가능해요.

고시생 그럼 그건 많이 먹어도 안 죽어요?

약사 네? 아... 학생,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

고시생 (O.L.) (서둘러 나가며)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약사 (다급하게) 저기요, 저기요!

#18. 길거리(낮)

(E) 휴대폰 진동 소리.

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고시생.

모자를 꼭 눌러쓰고 걸음을 재촉한다.

(E) 수연아! 돌아보니 멀리서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친구.

친구 (남편에게) 잠시만, 자기야. (고시생에게 달려오며) 수연이 맞구나. 이게 얼마 만이야. 들리는 말로는 행정고시...? 그거 준비한다고 하던데.

고시생 (당황하다 자기도 모르게) 어. 자, 작년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어. (어색하게 웃으며) 오늘은 쉬는 날.

친구 와, 그거 엄청 어려운 시험 맞지? 하긴, 김수연인데. 나 연애했 때, 내 친구 중에 전교 일등 있다고 자랑 진짜 많이 했어. (속닥거리며) 그래서 신랑이 나도 공부 잘한 줄 알잖아.

고시생 저기, 내가 조금 바빠서 먼저 가야 할 거 같아.

친구 어 그래. 미안. 나중에 꼭 연락 줘. 나 번호 그대로니깐.

#19. 주희마카롱/가게 안(낮)

창가에 있는 2인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복순과 민석.
 잠시 뒤, 음료 한 잔과 마카롱 하나를 가지고 오는 주희.
 민석과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어 보인다.
 민석은 수줍은 듯 시선을 피한다.
 그런 민석과 주희의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복순.

주희 여기, 민석 씨는 아이스 초코라떼. 우리 멋쟁이 할머니는 오늘의 마카롱! 청포도 요거트 맛이예요.

민석 (수줍) 감사합니다.

복순 우리 사장님은 갈수록 얼굴이 피네. 곱다 고와.

주희 우리 할머니는 갈수록 젊어지시는데요?

복순 신소리 말고. 우리 집에 밥 한 끼 먹으러 오라 카이 와 안 오노. 내 사장님한테 밥 한번 꼭 해 먹이고 싶어서 그칸다.

민석 (복순을 말리며) 아, 그 소리 그만하라니깐. 부담스러워하시잖아.

주희 (웃음) 아니예요. 저도 할머니 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다음번에 꼭 갈게요.

(E) 문이 열리며 손님 들어오는 소리.

주희가 민석과 복순에게 눈짓으로 인사하고 자리를 뜬다.

CUT TO

마카롱을 맛있게 먹는 복순.

빨대로 커피를 저으며 복순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민석.

민석 (일부러 투명한 목소리로) 할매, 근데 밥 사 먹는 거는 그렇게 돈
아까워하면서 마카롱은 괜찮아? 그 쪼그마한 거 엄청 비싸.

복순 (뭘 모른다는 듯) 이게 내 (강조하며) 소! 확! 행! 이다.

민석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소화행?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복순 그기는 중요한 게 아이고. 크든 작든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는 거. 그거를 부지런히 찾는 게 중요한 거다. 그게 요 손바닥만
한 단과자든, (주희가 서 있는 옆 테이블을 슬쩍 보며 큰 소리로)
짜사랑하는 가시나든.

민석 (주희가 복순의 말을 들었을까 봐 화들짝 놀라서 주희의 반응을
살피며) 아, 알았어. 조용히 해. (주희가 카운터 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할매, 이만 가자. 나 이제 저녁 배달해야 해.

#20. A원룸/건물 앞(밤)

원룸 건물 앞에 구급차가 서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

발견하고 스쿠터를 멈춰 세우는 민석.

곧, 구급대원들이 이동식 침대에 사체가방(사체포)을 싣고 나온다.

INSERT

민석의 기억.

구급대원들이 누워 있는 여자의 시신 위로 흰 천을 덮는다.

어린 민석이 울며 달려들자 복순이 뒤에서 끌어안으며 막는다.

떠오른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는 민석.
몸이 얼어붙고 호흡이 빨라진다.
그때 건물에서 원룸 관리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구급대원들 뒤로 따라 나온다.

관리인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고, 어떡해.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관리인 어유, 우리 건물 610호 사는 학생인데, 큰일 났어.
민석 (610호라는 단어에 정신이 돌아온다) (혼잣말로) 610호…?

FLASH CUT #14 A원룸/610호 앞
— 610호 문을 두드리는 민석의 모습.
— 상자를 받자마자 문을 달아버리던 여자의 모습.

다시 현재. 혼란스러운 민석.

민석 (속으로) 그럼 낮에 그 사람?
관리인 밀린 관리비 때문에 올라갔는데 문이 열려 있길래 봤더니 쓰러져
있잖아요, 글썄. 바로 구급차 불렀는데 와서 보더니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태래요. 급성 심장마비 같다고.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줌마2 아니, 나이도 젊은 사람이 어찌다가?
관리인 그건 모르죠. 집 밖에 잘 안 나갔는지 나도 얼굴 본 적 몇 번 안 돼요.
(속닥거리며) 집 안도 완전 쓰레기 더미고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관리인과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던 민석.
정신을 차리고 찡찡한 표정으로 다시 출발한다.

#21. 민석의 아파트/민석의 방(낮)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는 민석의 모습을 빠르게 보여준다.
서랍장을 열고 손목 보호대를 고르고

초록색 넥워머를 쓰고 초록색 양말을 신고 초록색 방한모자를 쓴다.
마지막엔 거울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는다.

#22. 민석의 아파트/문 앞 복도(낮)

민석(E) 할매, 나 간다~.

문을 닫고 나오는 민석.
아파트의 복도를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낸다.

CUT TO

휴대폰 화면에 어제와 같이 혼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콜.
'이동거리 1.8km/배달료 10,000원'.
흠칫하고 멈춰 서는 민석.

FLASH CUT #12 사자밥 안, #20 A원룸 건물 앞
점주가 카운터 위에 붉은 상자를 올려놓는 모습.
구급대원이 610호 여자를 신고 나가는 모습.

다시 현재. 어제의 기억 때문에 찡찡한 표정의 민석.
민석이 계속 망설이자 배달료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바뀐다.
결국 콜을 누르는 민석.
기다란 복도에 혼자 서 있는 민석의 뒷모습.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휴대폰 알림음이 크게 울린다.
(E) "배달의 명수~ 주문 캐치!"

#23. 사자밥/가게 안(낮)

(E) 문 열리는 소리.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민석.

어제와 같이 카운터 앞에 점주가 서 있고 똑같은 물건들이 올려져 있다.

민석, “배달 받으러 왔습니다”라며 다가가자 붉은 상자를 건네는 점주.

붉은색 태블릿 pc를 꺼내는 점주를 잠시 바라보다가 상자를 들고 나오는 민석.

#24. B아파트/엘리베이터 안(낮)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민석.

살짝 열어볼까 하고 상자를 만지작거리다 그만 둔다.

#25. B아파트/407호 앞(낮)

상자를 들고 초인종을 누르는 민석.

잠시 뒤 문이 열리고 편의점 사장이 나온다.

민석 배달 왔습니다.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 사장님?

사장 (당황한 기색) 어, 민석이구나.

민석 (반갑) 여기서 다 뵙네요. (상자를 건네며) 여기 받으세요.

사장 (상자를 받지 않고 쳐다보며) 이거구나... (다시 민석을 보고) 아,
잠시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다)

민석 ??

사장 (잠시 뒤, 초코 우유 한 박스를 가지고 나오며) 이거 너 좋아하는 거지?
가져가.

민석 (의아한 표정으로 박스를 건네받으며) 아, 감사합니다.

사장 효민이 줄려고 사놓은 거였어. 어릴 때 참 좋아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미제더라구. (허탈한 웃음)

민석 그래도...

사장 (O.L.) 어유, 너도 바쁜 앤데 괜한 소리를 해서 시간 뺏었네. (초코 우유
박스를 건네받고 문을 닫으며) 그럼 잘 가라.

CUT TO

초코 우유 박스를 들고 뒤돌아 걸어가는 민석

사장(E) 민석아.
민석 (뒤돌아보며) 네, 사장님.
사장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고맙다. 잘 배달해줘서.
마지막으로 니 얼굴 봐서 좋았어.
민석 (의아) 마지막이요?

민석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문을 닫는 사장.
찡찡한 표정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는 민석.

#26. 주희마카롱/가게 앞(밤)

불이 꺼진 가게의 문을 잠그고 있는 주희.

(E) 스쿠터 소리.

초코 우유 박스를 들고 다급하게 내리는 민석.

민석 (문을 잠그고 있는 주희를 부르며) 주희 씨!
주희 (뒤돌아서 민석을 보고 웃으며) 어? 민석 씨!
민석 다행이다. 안 늦어서. 이거 주려고 왔어요. (박스를 내밀어 보인다)
주희 이게 뭐예요?
민석 초코 우유인데 어떻게 생겨서, 주희 씨 드리려고요. 카페에 초코 라떼나 초코 마카롱 만들 때 쓰시라고...
주희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 카페에서는 판초콜릿을 녹여 쓰거나 초코 시럽을 쓰거든요.
민석 (민망) 아, 그렇구나. (횡설수설) 제가 먹기만 하고 잘 몰랐네요. 초코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럼 다시 가져가야겠다.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꾸벅 인사하고 뒤돌아간다)
주희 (가려는 민석을 붙잡으며) 잠시만요!

민석 ? (뒤돌아서 주희를 본다)
주희 시간 되시면 같이 한잔하실래요?
민석 (두근두근) 네?

CUT TO

가게 앞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초코 우유를 마시고 있는 주희와 민석.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춘다.
조금 어색한 분위기. 주희가 먼저 침묵을 깬다.

주희 라임 모히또 맛 드셨어요.
민석 네?
주희 할머니가 드신 오늘의 마카롱이요. 민석 씨는 일이 많아서 못 온다고
테이크아웃 해가셨어요.
민석 아, 네에. 할머니가 주희 씨 마카롱을 참 좋아하세요. 어릴 때 장에
가면 할아버지가 사주시던 단과자가 생각난다고.
주희 (미소) 감사하네요.
민석 (주희의 웃는 모습에 심장이 떨려와 괜히 초코 우유를 한 입 마신다)
주희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민석 아니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배달이 많아서... (멋쩍게 웃으며)
새벽까지 하고 들어가려고요. 대신 내일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주희 민석 씨는 참 긍정적이신 거 같아요. 바쁘셔도 항상 웃으시고,
할머니께도 정말 잘하시고. (잠시 망설이다가) 민석 씨 보면 저도 괜히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민석 (자기도 모르게) 위문공연처럼요?
주희 네? 위문공연이요?
민석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황설수설) 아니, 그, 그러니깐.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거면. 그 저를 보는 게 소확행 같은, 아니,
그게 아니고.
주희 (웃음) 좋은 말이네요. 위문공연.
전쟁터 같은 요즘 세상에 꼭 필요한 거죠.

CUT TO

스쿠터를 타고 떠나는 민석.

초코 우유 박스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민석의 뒤를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가게 앞으로 향하는 주희. 박스를 넣어두기 위해 가게 문을 다시 열려는데 문 앞에 아까는 없었던 붉은색 장미꽃다발이 놓여 있다.

의아해하며 박스를 내려놓고 꽃을 들어 올리는 주희.

꽃다발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다가온다.

섬뜩함을 느낀 주희가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화면 전환.

#27. 고시원 방 안(밤)

방 안에 있는 의자가 넘어지고 고시생이 바닥에 떨어진다.

손에는 침대보를 뜯어 만든 끈이 들려 있다.

떨어지면서 부딪힌 무릎을 문지르다 울음을 터뜨린다.

고시생 왜, 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왜!

흠뻑이며 휴대폰을 찾아 검색창을 켜는 고시생.

‘확실하게 죽는 방법’을 검색한다.

(E) 문자 알림음. 문자를 확인하는데 ‘사자밥’의 광고다.

‘(광고) 실패 없는 죽음을 원하시나요? 지금 바로 사자밥을 찾으세요.’

#28. 횡단보도 앞 도로(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멈춰 서는 민석.

방금 전, 주희와 나눈 대화가 생각나서 싱글벙글한다.

INSERT

민석을 보고 웃는 주희, “민석 씨 보면 저도 괜히 힘이 나요.”

민석 (실실 웃으며) 주희 씨도 나를 보면 힘이 나는구나.

옷다가 문득 옆을 바라보는데 한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다.
남자와 눈을 마주치는데 편의점 사장이다.

FLASH BACK #25 B아파트 407호 앞

— 민석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장 “마지막으로 니 얼굴 봐서 좋았어.”

CUT TO

다시 현재. 민석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길을 건너는 사장.
종간잠 건넌을 때, 반대편 차도에서 차 하나가 빠른 속도로 달려온다.
민석이 차와 사장을 번갈아 바라보며 당황하는 찰나, 차가 사장을 치고
지나간다. 사장의 몸이 붕 떴다 떨어지고.
앞의 가로등을 박고 멈춰 선 차에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내린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장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저씨1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가며) 이봐요, 괜찮아요?

누가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아저씨2 (사고운전자를 보며) 당신, 음주운전이지!

쓰러진 사장과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보는 민석.
방금 전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고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한다.

FLASH CUT #20, #28, #12

610호 여자의 시신을 옮기는 모습. 편의점 사장이 차에 치이는 모습.
점주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붉은 상자를 건네는 모습. 붉은 상자 CLOSE UP.

다시 현재. 혼란스러운 민석의 얼굴 CLOSE UP.

1회 끝.

2회

난세의 영웅은 나타날까

#1. 민석의 꿈. 민석의 아파트

방 안에 앉아 있는 어린 시절의 민석.

민석 앞에 앉아 시선을 맞추는 민경(민석 모).

민경이 민석의 손에 알약을 쥐여준다.

어린 민석 (알약을 던지고 울먹거리며) 이거 싫어. 먹기 싫어.

민경 (화를 내며) 이거 먹어야 엄마랑 계속 같이 있는 거야.
너 엄마랑 떨어지고 싶어?

어린 민석 (으앙 울음을 터뜨리고 떼를 쓰며) 싫어.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래. 엄마 가지 마.

점주(E) 그럼 이걸 먹을까?

낮선 목소리에 소매로 눈물을 닦고 훌쩍이며 앞을 보는 민석.

민경은 없어지고 점주가 앉아 있다.

어린 민석 (훌쩍이며) 아저씨는 누구세요?

점주 (대답 대신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붉은 상자를 내민다)

타이틀. <저승라이더>

소제목. <2. 난세의 영웅은 나타날까>

#2. 현실. 민석의 아파트/민석의 방(낮)

놀라며 잠에서 깨는 민석.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

꿈인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려는 듯 마른세수를 하는 민석.

#3. 장례식장(낮)

편의점 사장의 장례식에 온 민석.

(E) 노모의 곡소리.

자신의 옷차림을 살펴보고 파란색 넥워머와 파란색 방한모자를 벗는다.

CUT TO

절을 하고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민석.

어젯밤 기억이 떠오른다.

FLASH CUT 1회 #28 횡단보도 앞 도로

길을 건너며 민석과 눈을 마주치고 슬며시 미소 짓는 사장의 모습.

CUT TO

다시 현재.

상주로 서 있는 사장의 동생과 맞절을 하는 민석.

옆에는 쓰러질 듯 울고 있는 사장의 노모가 있다.

#4. 과거. 편의점(낮)

편의점 아르바이트 차림의 민석.

머리가 흐트러지고 뺨에 상처가 나 있다.

경찰이 좀도둑으로 보이는 범인을 연행해 가고

민석과 범인이 서로를 씩씩거리며 쳐다본다.

그때 편의점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사장.

사장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민석을 살펴보며) 민석 학생, 괜찮아?

민석 네네. 전 괜찮아요. 저 자식은 안 괜찮지만.

사장 아니, 칼 들고 설치는 놈한테 덤비면 어떡해?
 남의 돈 지킨다고 자기 목숨을 걸어?

민석 그래도 사장님 돈 뺏으려는데 순순히 내놓을 순 없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사장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그래, 정말 고마워. 저놈이 저쪽 동네 편의점
 짝 털고 우리 동네로 넘어온 거래. 민석 학생이 아주 큰일 한 거야.
 앞으로 우리 가게 알바 그만둬도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내가 폐기
 나오는 거 평생 민석 학생 걸로 챙겨놓을 테니깐. (허허 웃는다)

#5. 현재. 장례식장(낮)

육개장을 앞에 두고 씩씩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민석.
 뒤 테이블에서 조문객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조문객1 그래서 와이프랑 딸은 정말 한국 안 들어온대?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지.

조문객2 와이프 아니고 전부인. 미국에서 바람나서 이혼한 지가 언젠데.
 조문객1 딸 하나 있는 거 그렇게 예뻐하더니. 마지막으로 얼굴 본 게 언제지?
 조문객3 아마 3년 다 되어가지. 참 안됐어. 저번에 술 마실 때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딸한테 돈 보내는 낙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도 즐겁지가 않다. 혼자 살면서 가족 그리워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조문객의 말을 듣고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일어서는 민석.

#6. C아파트/101동 출입구(낮)

배달을 마치고 나와 출입구 앞에 세워둔 스쿠터에 올라타는 민석.
 (E) 오토바이가 멈춰 서는 소리.

옆을 보는데, 은색 빛이 나는 커다란 고급 바이크와 설구가 있다.
발목 위로 올라오는 워커, 가죽 바지에 가죽 재킷, 헬멧까지 올 블랙이다.
헬멧을 벗으니 흘날리는 장발 역시 윤기가 흐르는 블랙.
헬멧 안에 쓰고 있던 고글을 올리고 민석을 보며 미소 짓는 설구.

민석(NAR) 전쟁은 영웅을 만든다. 수많은 뜨내기들이 덤벼들고 사라지는
이곳에서 살아 있는 전설이 된 단 한 명의 영웅.

#7. 과거. 길거리(밤)

사라진 복순을 찾아 정신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택배 기사 차림의 민석.
배달을 마치고 나와 헬멧을 쓰려고 하는 설구를 본다.

민석 할매! 할매! (설구를 보고) 저기, 잠시만요. 저 혹시 할머니 한 분 못
보셨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생기셨는데.

설구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본다)

민석 (혼잣말로) (울먹) 어딜 간 거야 이 시간에... 날도 추운데.

설구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 전화를 건다) 어, 나다. 사람 한 명을
찾는다. 70대 여성분이야. 사진 보낼 테니깐 애들한테 돌려.

CUT TO

설구와 함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민석.

잠시 뒤, 오토바이 하나가 오고 뒷좌석에 복순이 타고 있다.

민석 (복순에게 달려가며) 할매!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복순 가슴이 좀 답답해가 마실 나갔는데 그만 길을 좀 헛갈렸는 갑다.

배달부1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설구에게 깡뚫이 인사한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설구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준다)

민석 (두 사람에게 연신 꾸벅이며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배달부1 아니에요. 뭐 보니까 같은 업계 분이신 거 같은데 돕고 살아야죠.
 민석 같은 업계요?
 배달부1 택배기사분 아니세요? 저희도 배달 일 합니다.
 민석 아...! (배달부의 오토바이를 보는데 ‘배달의 명수’ 로고가 적힌 배달 박스가 보인다) 그럼 이분도...? (설구를 본다)
 배달부1 네. 서울 바닥 철가방 중에 우리 형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8. 현재. C아파트/어린이 놀이터(낮)

(E)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소리.
 놀이터 안 벤치에 앉아 팔을 등받이에 걸치고 다리를 꼬고 있는 설구.
 벤치 옆에는 민석의 스쿠터와 설구의 바이크가 나란히 서 있다.
 자판기 커피 두 잔을 들고 오는 민석.

민석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한 잔을 두 손으로 건네며) 여기 있습니다.
 설구 (한 손으로 받으며) 땡큐.

자신도 벤치에 앉아 내려놓은 커피를 들고 한 모금 마시는 민석.
 뜨거운 커피를 원샷으로 마시는 설구.

민석 (놀라서) 안 뜨거우세요?
 설구 (다 마신 종이컵을 구기며) 스피드가 이제 내 삶 자체가 되어버려서.
 민석 아...!
 설구 그래, 일은 할 만하고?
 민석 아, 네.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스쿠터도 주시고...
 설구 새것도 아닌데 뭐. 그래도 수입은 택배 일할 때가 더 많지?
 민석 그래도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가볼 수 있어서 훨씬 마음이 편해요.

설구 그래. 베테랑이 되면 돈도 더 많이 벌 거다.

민석 네. 아, 참! 혹시 사자밥이라는 가게 아세요? 거기 인어공주스파 뒤편 골목에 있고 얼마 전에 새로 오픈한 곳인데.

설구 글썸, 잘 모르겠는데, 왜?

민석 배달료도 다른 데보다 훨씬 싸고 분위기도 묘하고 뭔가 그냥 일반 음식점 같지 않아서요.

설구 흠, 그런 신규업체라면 내가 모를 일이 없을 텐데.

민석 혹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점으로 위장하고 실은 마약 같은 거 ...

경비(E) (O.L.) 이봐요! 거기 두 사람!

CUT TO

오토바이 옆에 서서 아파트 경비원의 말을 듣고 있는 민석과 설구.

경비원 아니, 배달 끝났으면 빨리 나가야지, 왜 여기서 노가리를 까고 있어요?

민석 (꾸벅) 죄송합니다...

경비원 (설구를 훑어보며) 웬 이상한 사람이 놀이터에서 애들 지켜보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석 지켜본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바로 나갈게요.

설구 (큰 소리로) 이봐요! (경비원에게 성큼성큼 다가간다)

민석 ? (놀라서 쳐다본다)

설구 (경비원의 어깨를 잡으며)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민석 (설구를 말리려고 한다) 형님...!

설구 (공손한 말투로) 108동 3호 엘리베이터 조명이 깜빡거리던데 아시고 계셨어요? 아, 그리고 207동 화단에는 누가 토를 엄청 해놨어요.

경비원 아, 예, 뭐. 한번 확인해볼게요. (수첩과 펜을 꺼내며) 어디? 108동이랑 208동?

설구 207동. 세븐.

#9. 사거리 도로(낮)

사거리 도로에서 나란히 신호대기 중인 민석과 설구.

설구 아까 말한 가게는 한번 확인해볼게. 그럼 이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손을 눈썹 위로 올리며 인사하고 출발한다)

설구가 떠난 뒤,
횡단보도를 바라보며 어제를 떠올리는 민석.

FLASH CUT 1회 #28
차에 치이는 사장의 모습.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장의 모습.

다시 현재. 떠오르는 기억을 잊으려는 듯 고개를 흔드는 민석.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다.

#10. 길거리(낮)

휴대폰을 보며 고심하고 있는 민석.
화면에 붉은색으로 '이동거리 2.8km/배달료 30,000원'이라 표시되어 있다.

민석 아니야, 다시는 안 가.

화면이 '이동거리 2.8km/배달료 40,000원'으로 바뀐다.

민석 (속으로) 뭐야... 왜 아무도 콜을 안 받지?

화면이 '이동거리 2.8km/배달료 50,000원'으로 바뀐다.

민석 (속으로) 5만 원이면 몇 시간은 뛰어야 하는 돈인데….

INSERT

가계부 정리를 하며 한숨을 쉬는 복순의 뒷모습.

식탁에는 영수증 무더기가 있다.

눈을 질끈 감고 결국 꼴을 받는 민석.

민석 그래, 그냥 우연이었을 거야. 우연.

#11. 사자밥/가게 안(낮)

점주가 건네는 붉은 상자를 받는 민석.

망설이다 결심하고 질문을 한다.

민석 사장님, 근데 사자밥이 어떤 음식이에요? 뭐 가게 분위기로 보면 전통음식 같은데, 처음 들어봐서… 아니면 퓨전요리인가, 한식의 재해석?

점주 (말없이 알 수 없는 미소만)

민석 (어색하게 웃으며) 아닌가 보네요. 그럼… 설마 진짜 사자 고기예요? 아프리카 토종음식? 사바나의 아침?

점주 우리 사자밥은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도 후회 없을 만한 식사라고 할 수 있죠.

민석 아… 엄청 맛있나 보네요. (점주의 눈치를 보며) 살짝 제가 한번 열어봐도… (상자를 열려고 한다)

점주 (단호하게 민석의 손을 잡으며) 그건 안 됩니다. 오직 주문하신 고객님만 열어보셔야 하는 거라서요.

민석 아, 네, 그렇죠. 저 근데 혹시…

점주 (O.L.) (정색) 질문이 많으시네요. 늦으면 안 되는데요.

민석 아, 죄송합니다.

CUT TO

상자를 받고 나가려다 뒤돌아보는 민석.

붉은색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점주를 잠시 바라보다 나간다.

#12. 연립주택 2층(낮)

붉은 상자와 현관문을 번갈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민석.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린다.

잠시 뒤, 다리를 절룩거리며 한 젊은 남자가 나온다.

2층 남자 (민석이 상자를 건네주지 않자) 안 쥐요?

민석 아, 네. 여기. (상자를 내밀며) 저기... 오늘 몸조심하세요.

2층 남자 (시비조로) 왜요? 뭐, 다리 병신이라 어디 자빠지기라도 할까 봐?

민석 아뇨. 그런 뜻이 아니라....

2층 남자 (O.L.) 됐고요. 가세요. (문을 쿵 닫는다)

#13. 연립주택 앞(낮)

찡찡한 표정으로 세워둔 스쿠터에 올라타는 민석.

고개를 돌려 2층을 잠시 바라보다가 출발한다.

#14. 골목길(낮)

스쿠터를 타고 달리는 민석.

(E) 큰 폭발 소리.

폭발음 소리에 불길함을 느끼며 왔던 길을 급히 되돌아간다.

#15. 연립주택 앞(낮)

2층에서 연기와 큰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멈춰 서는 민석.
곧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온다.

아줌마3 아이고, 부, 불이야! 불이야!

무언가 결심한 듯 다시 출발하는 민석.

#16. 사자밥/가게 안(낮)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석.
다짜고짜 카운터 뒤에 있는 점주의 먹살을 잡는다.

민석 당신 뭐야! 여기 뭐하는 곳이야!

점주 (민석의 손을 떼놓으며) 이거 놓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민석 당신 뭘 팔고 있는 거야? 그 상자 안에 든 게 뭐냐고!

신고하기 전에 빨리 말해.

점주 (민석이 가소로운 듯 웃다가) 뭐라고 신고할 겁니까? 내가 배달을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 나간다고?

점주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당황하는 민석.

#17. 몽타주. 민석의 과거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것을 찾는 민석.

민석(NAR)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주고받는다. 어떤 질문은 답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석 (계란말이가 담긴 반찬통을 열고) (큰 소리로) 할매! 이거 언제 만든 거야? 먹어도 되지? (답을 듣지 않고 계란말이를 먹는다)

카페에 앉아 질문을 건네는 민석의 여자친구.

민석(NAR) 어떤 질문은 정해놓은 답을 요구한다.

여자 (심각한 표정으로) 알바를 하나 더 하겠다고?
그럼 대체 우리는 언제 만나? 선택해! 나야? 돈이야?

사무실에 앉아 질문을 건네는 민석의 담당 교수.

민석(NAR) 어떤 질문은 거짓으로 답해야 하고.

교수 요즘 세상에 대학 졸업장도 없이 뭘 하겠다고.
자네 정말 이대로 제적 당하고 싶어?

현관문을 나서려는 철민(민석 父)에게 질문을 건네는 민석.

민석(NAR) 어떤 질문은 진실된 답이 두렵다.

민석 차라리 사라져주면 안 돼요?

교실에 앉아 어린 민석에게 질문을 건네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주변에는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이 서 있다.

민석(NAR) 그리고 어떤 질문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대답을 내놓기도 한다.

선생님 민석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 여기 일기에 쓴 거 다 진짜니?

#18. 사자밥/가게 안(낮) (#16 연결)

당황하던 민석 앞에 카운터 위에 올려진 점주의 태블릿 pc가 눈에 띈다.

FLASH BACK 1회 12, 1회 #23, #11

태블릿 pc를 보는 점주의 모습들.

다시 현재.

재빠르게 태블릿 pc를 가져오는 민석.

당황하는 점주.

민석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점주 (당황) 그, 그거 이리 내려놔요. 내려놓고 얘기하자고.

민석 빨리 얘기해요, 그럼. 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점주 뭐 하는 곳이긴, 음식 파는 곳이죠. 나는 음식 만들고.

당신은 배달하고.

민석 (떨리는 목소리) 그럼 왜 사람들이 죽어요?

민석(NAR) 이 질문도 내 인생을 바꿀까.

CUT TO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대립해 있는 민석과 점주.

심각한 표정의 민석.

크게 한숨 쉬고 민석을 바라보는 점주.

점주 (달래듯이) 정말 알고 싶으면 일단 그거부터 내려놔.

그거 뭔지 알면 그렇게 만진 거 후회한다고. 어?

민석 빨리 얘기하라구요!

(두 손으로 태블릿을 높이 들고 던지려는 자세를 취한다)

점주 그거 저승 명부야! 이 멍청아!

민석 (여전히 팔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멈칫) ...저승 명부?

#19. 고시원 방 안(낮)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고시생. 앞에는 연탄과 핸드폰이 놓여 있다.

두 개를 번갈아가며 고민하는 고시생.
 결국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바라본다.
 ‘(광고)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정확한 죽음! 신속한 죽음!
 사자밥이 보증합니다.’

#20. 사자밥/점주의 사무실(낮)

각종 불화(佛畵)와 고서(古書)로 장식되어 있는 점주의 사무실.
 태블릿 pc를 꼭 끌어안고 이리저리 둘러보는 민석.
 차 두 잔을 내오는 점주.

점주 (잔을 내려놓고 앉으며) 차 들어. 그거는 이제 그만 주고.
 민석 (붉은색 차가 담긴 찻잔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태블릿을 끌어안는다)
 점주 오미자차야. 몸에 좋은 거. (민석의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됐지?
 민석 (조금 긴장을 풀고) 빨리 말해요.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점주 (한숨을 내쉬며 고민하다가) 어유, 그래, 모르겠다. 사실 나도 강민석
 씨 보면서 많이 불편했어. 근데 어떡해? 본사에서 절대 말하지
 말라는데. 가맹점주가 힘이 있어? 대기업 대 힘없는 개인인데.
 민석 본사가 어딘데요? 아니 그전에,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요?
 (태블릿을 보고) 서, 설마 여기 내 이름도 있어요?
 점주 아니, 그 배달의 명수인지 준하인지 거기에 뜨던데? 뭐, 민석 씨도
 영원히 살 거 아니면 거기 어딘가 있긴 하겠지. 전체 데이터는 본사가
 안 넘겨줘서 확인은 못 해보지만.
 민석 그 본사가 진짜 있긴 해요? 어디 있는데요?
 점주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키며) 아니다.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킨다)

#21. 연립주택 2층/집 안(낮)

폭발이 있었던 연립주택 2층 내부, 화재가 진압된 뒤, 엉망이 된 모습이다.

멸균 장갑을 착용하며 들어오는 형구.

형구에게 다가가 보고하는 제원.

제원 사망자는 거주 중이던 25세 남성입니다. 3년 전, 군대에서 다친 이후로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같이 살고 있던 부모님은 외출 중이었는데 연락받고 지금 병원에서 사망자 신원 확인 중입니다. 1층에는 집주인 할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데 이를 전부터 아들네 집에 가 있어서 다행히 추가 사상자는 없습니다.

형구 화재 원인은?

제원 아직 감식반 오기 전이긴 한데, 소방 쪽 말로는 가스폭발 사고가 확실하답니다.

형구 (현장을 살펴보며) 사고 맞아?

제원 예. 뭐,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가스 호스가 임의로 손상된 흔적도 없고. 타살이나 자살로 추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형구 그래, 알았어. 그래도 최초 신고자랑 목격자들 진술 자세히 받아봐. 근처 CCTV도 확보해놓고.

제원 예. 알겠습니다.

제원이 자리를 뜬 뒤, 혼자서 현장을 둘러보는 형구.

까맣게 타버린 주방 한편에서 열려 있는 붉은 상자를 발견한다.

주변과 달리 그을음 하나 묻지 않고 깨끗한 상자.

형구 (상자 안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며) 왜 이것만 이렇게 멀쩡해….

#22. 사자밥/점주의 사무실(낮)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 pc를 감싸 안고 있는 민석.

그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점주.

민석 그러니깐 정리하자면, 저세상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사람 목숨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가 그 지점 중 하나다?

점주 그냥 지점 중 하나가 아니라 무려 1호점.

민석 배달 어플로 주문을 하면 죽음을 불러오는 상자를 치킨이나 피자처럼 배달해준다?

점주 24시간 이내에 어떻게든. 방법은 랜덤. (짜증) 아, 대체 몇 번을 설명하는 거야. 그만 그거 내놔.

민석 그니깐 본사 아니, 저승에서 영업을 한다고요? 사람들 쉽게 쉽게 죽으라고?

점주 참... 아,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하나. 너무 많이 알면 다치는데.

민석 이거 돌려받고 싶음 해야죠.

점주 후... 좋아. (진지) 본사 주식이 언제 상한가를 치는지 알아? 이승에서 전쟁이 났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곳에서 사람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2049 시정를 알지? 그걸 왜 따로 조사해? (강조) 돈을 벌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저 위쪽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젊은 목숨이 제일 귀해. 근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지?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평균수명은 계속 길어지지? 쉽게 말해서 2049 사망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 20대, 30대, 40대에서 모두,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사망 원인이 딱 하나 있어.

민석 그게 뭔데요?

점주 자살.

INSERT

민석의 기억.

책가방을 메고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여는 어린 민석.

목을 매단 엄마를 발견한다.

CUT TO

굳은 표정으로 점주를 바라보고 있는 민석.

민석 그러니깐 여긴 자기 자신을 죽일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점주 어유~, 당연하지. 우린 타살, 강도 이런 거 엄청 엄격해. 여기서는 감빵
 가지? 저승에선 지옥 가. 거긴 사람들이 막 불타고 있고 그래. 우린
 단지 이곳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전국 각지에 지점을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인다,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모바일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죽음을 문 앞까지 배달해드린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지.

CUT TO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는 민석.
태블릿 pc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민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손을 조금씩 뺀 점주.

민석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무슨 똥멍청이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배달 가방만 들고
 있으면 자꾸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다 그러는데, 나 인서울 했어요!
 우리 아빠가 그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졸업까지 했을 거라고요.

점주 (똑같이 일어서며 큰 소리로) 왜 갑자기 묻지도 않은 개인사를
 얘기해? 그리고 믿든지 말든지! 계약사항까지 어겨가면서 다
 얘기해줬는데, 안 믿고 말이야. 계약 깨지면 위약금이 얼마지는 알아?

민석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거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왜 반말이에요?

점주 니가 태어났을 때 내가 저승밥에 질려서 신물이 나고 있었는데,
 반말도 못 해? 내 손주의 손주 놈이 너랑 유치원 동기일 수도 있어!

가만히 서서 서로를 씩씩대면서 바라보는 민석과 점주.

민석이 먼저 풀썩 자리에 앉고 오미자차를 원샷한다.

민석 (잔을 내려놓고 울상으로 점주를 바라보며) 그거 다 믿으면 내가 그
 사람들 죽인 거 되잖아요... 그 사람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내
 얼굴이잖아요. 내가 무슨 저승사자도 아니고...

점주 (자리에 앉으며 민석이 딱한 듯 바라보다가) ... 사실 저승사자 맞아.

#23. 사자밥/가게 안(밤)

밥 세 그릇, 국 세 그릇, 술 세 잔을 민석에게 보여주는 점주.

다시 태블릿을 품에 끌어안고 있는 민석.

점주 사자밥이 뭔지 물었지? 이거야, 사자밥.

민석 (무슨 소리인가 하다가 깨달은 듯) 그니깐 사자밥이 뭐 저승사자가 먹는 밥 그런 거예요?

점주 (끄덕)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대문 앞이나 마당 한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한 상 차려놔어. 뭐, 일종의 뇌물 같은 거지. 저승사자한테 죽은 사람 잘 데려가달라고 쫄려주는.

민석 요즘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점주 그래서 요즘 저승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야. 일은 똑같이 힘든데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졌으니 아무도 안 할라 그래. 그러니깐 또 회사 입장에서도 사자 한 명 쓰려면 돈이 점점 많이 들어요. 월급도 많이 줘야 하는데, 4대 보험, 야간 수당, 상여금, 퇴직금까지 다 챙겨줘야 하니깐.

민석 저승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세요?

점주 그러니깐, 여기에서 많이 하는 거 따라 한 거지. 비정규직, 간접고용,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등. 본사 정규직 규모는 줄이면서 필요한 인원은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거야. 가맹사업도 그중 하나고.

민석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승사자로 고용됐다고요?

점주 에이, 우리 관계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봐야지. 민석 씨, 프리랜서잖아. 돈도 건바이건으로 받고. 이름을 붙이자면 ... (잠시 생각하다) 프리랜서 저승라이더! 어때?

민석 (울컥) 도급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니예요? 업무의 본질을 완전히 숨겼잖아요!

점주 이게 저승-이승 간 법률관계가 워낙 복잡해서 여기선 불법인 것이

저기선 또 아니고...

- 민석 (O.L.) 됐고요! 어차피 이제 나랑 상관없어요.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니깐.
- 점주 (당황) 뭐? 이제 배달 안 한다고? 배달비 다른 곳보다 몇 배는 될 텐데?
민석 씨,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냐?
- 민석 돈이랑 상관없이 나는 저승사자인지, 저승라이더인지 그거 하기 싫어요. 저 위쪽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태블릿 pc를 점주에게 던지듯 넘기며) 그럼, 안녕히 계세요. (문 쪽으로 걸어간다)
- 점주 칠만 원! 거리랑 상관없이 한 건당 무조건 칠만 원! 보너스랑 위험 수당까지 포함된 거라 생각해.
- 민석 (문 앞에서 뒤돌아 아무 말 없이 점주를 쳐다본다)
- 점주 아, 좋아! 십만 원, 십만 원 가! 본사 협의 없이 내 재량껏 할 수 있는 최대한이야, 이게.
- 민석 (단호) 사람 목숨 뺏는 일에 값을 매길 순 없죠.

#24. 경찰서(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형구와 제원.

- 제원 집 앞 도로에 있는 CCTV입니다.
2층은 잘 안 보이고 1층 들어가는 현관 앞까지 보입니다.
24시간 동안 들어가는 외부인은
사고 직전에 왔다 간 배달부가 유일합니다.
- 형구 배달부? 돌려봐.
- 제원 예. (화면을 빠르게 돌리며)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배달만 해주고 바로 갑니다.
- 형구 잠깐만. 멈춰봐. 어 거기.
- 화면에는 스쿠터를 세우고 박스 안에서 붉은 상자를 꺼내는 민석이 보인다.

FLASH CUT #21

사고 현장에 놓여 있었던 붉은 상자.

형구 (화면 속 민석을 빤히 바라보며) 이 사람 신원 확인 좀 해봐.

#25. 민석의 아파트/복순의 방(밤)

민석, “할매, 나 왔어” 하며 들어온다.

TV를 보다 잠든 복순을 보고 살금살금 들어와 TV를 끄고 장롱에서 이불을 꺼낸다. 이불을 덮어주다 복순의 구멍 난 양말을 발견한 민석. 복순의 구멍 난 양말이 보이지 않도록 이불을 끌어 내려주는 민석. 조심스레 일어서려는데 복순이 잠에서 깬다.

복순 언제 왔노? 깜빡 잠이 들었는 갑다.

(몸을 일으키며) 지금 몇 시고? 밥 무야제.

민석 아니야, 배 안 고파. 조금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 할매 더 자. 배고프면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

복순 난 또, 여사장이랑 데이트 간 줄 알았네.

민석 응?

복순 아까 순애한테도 단과자 맛 보여줄라고 델꼬 갔더구만 문 닫혀 있길래 우리 손주 오도바이 뒷자리가 따땃하졌구만 쟈제.

민석 이상하네. 휴무일 빼고는 문 닫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잠깐 망설이다) 근데, 할매. (다시 자리에 앉으며) 할매는 아직도 소원이 그거야? 내가 다시 대학 가는 거?

복순 당연하제. 내가 니 학사모 쓰는 거 보든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와? 핵교 다시 가고 싶나? 와 안 그렇겠노... 남들은 과외 받고 학원 다닐 때, 할매 장사 도와준다고 리어카 끌어가며 공부해가 들어간 대학공데. 그라마, 민석아, 내 다시 장에 나가가...

민석 (O.L.)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작년까지 항암치료 받은 사람이 시장 장사를 어떻게 해. 그냥 해본 소리야. 요즘에 대학 졸업장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명문대 나와도 취업 못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CUT TO

방을 나가려는 민석.

민석 (전등을 끄며) 그림, 좀 더 자.
복순(E) 민석아. 니 잘못 아인 거는 알제?
민석 (나가려다 복순의 말을 듣고 멈춘다)
복순(E) 니 애비가 집 나간 것도,
내가 아픈 것도 그리고 ...
니 에미가 그리된 것도 니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그니깐, 니 탓은 절대 하지 말그라.

#26. 민석의 아파트/거실 겸 부엌(밤)

복순의 방문을 닫고 나오는 민석.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싼다.

#27. 회상. 사자밥/가게 안(밤) (#23 연결)

나가려는 민석을 설득하려는 점주.

민석 사람 목숨 뺏는 일에 값을 매길 수 없죠. (뒤로 돌아 문을 열려고 한다)
점주(E) 그럼 사람 목숨 살리는 일은? 그건 얼마데?
민석 (뒤돌아서 무슨 소리냐는 듯 쳐다본다)
점주 자살 유가족의 자살 위험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통 사람들의
여덟 배 이상 높아져. 한 사람이 목숨을 끊으면 주변에 있는 최소 다섯
명의 삶도 함께 망가진다 그래. 이 땅에서 하루에 40명 정도가 자살을
하니깐 적어도 200명이 죄책감, 무기력, 우울감, 분노, 원망 그리고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과 편견... 이런 거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거야.
민석 그만 해요. 그런 거 자세히 설명 안 해줘도 되니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점주 그러니깐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된다고. 자살 대신에
남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죽음,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 극복할 수
있는 죽음. 그걸 전달해주는 거니깐.

#28. 현재. 민석의 아파트/민석의 방(밤)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여는 민석.
두꺼운 수첩을 꺼내 사이에 끼워진 사진을 꺼낸다.
어릴 적 민석과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다.
사진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민석.

#29. 주희마카롱/가게 앞(밤)

다음 날, 스쿠터를 타고 주희마카롱 가게 앞에 서는 민석.
노란색 넥워머와 노란색 방한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내려서 닫혀 있는 문을 흔들어보는데,
문에는 '영업시간 : 화~일 11:00~21:00 월요일 휴무'라고 적혀 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민석. '일요일 8시 30분'이라고 표시된다.
문밖에서 불이 꺼져 있는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다시 스쿠터에 오르는 민석.

민석 (닫힌 문을 보며) 무슨 일 있나...

#30. 사자밥/가게 앞(밤)

가게 앞에 서서 고민하는 민석.

(E) 휴대폰 전화벨 소리.

민석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네. 형님 네, 아무도 모른대요?
콜도 뜬 적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결심한 듯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민석.

#31. 사자밥/가게 안(밤)

(E) 문이 열리는 소리.

카운터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류 작성을 하고 있는 점주.

점주 (고개를 들지 않고) 영업 안 합니다. 배달부가 날랐어요~.

민석(E) 할게요.

점주 (고개를 들고 반색하며) 어, 민석 씨! 왔어? 일한다고?

민석 네. 할게요.

점주 (반색) 좋아, 잘 생각했어. 요즘 같은 취업난에 이런 일자리 없어~.

민석 대신, 하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점주 (짜증) 뭐? 뭘 더 알고 싶은 건데, 대체?

어제 염라대왕 팬티 사이즈 빼고는 다 알려줬어.

민석 (점주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왜 나예요?

점주 (다가오는 민석의 얼굴을 피하며) 뭐, 뭐가?

민석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거죠? 이거 배달하는 거.

점주 (민석의 눈을 피하며) 무, 무슨 소리야. 널리고 널린 게...

민석 (O.L.) (날카롭게 쳐다보며) 그 널리고 널린 배달부 중에 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본 적이 없던데요.

무려 오만 원짜리 배달콜도, 사자밥이라는 가게도.

그리고 사장님이 어제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거나 오늘 영업 못 할 일도 없을 거 같은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면.

점주 참...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색하고) 아무튼 눈치는 참 빨라.

아니면 눈치가 없어서 겁도 없이 이러는 건가?

두 사람 사이에 숨 막히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마침 들려오는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발랄한 알림음 소리.

(E) “배달의 명수 주문이요! 배달의 명수 주문이요!”

점주

(주문을 확인하며) 흠… 장소가 한강 다리 한복판이네.

일단 배달부터 갔다 오는 건 언제?

(섬뜩하게 웃으며) 뛰어내리기 전에 도착해야 할 것 같은데.

2회 끝.

작가 후기

오픈에 오기 전, 제게 글쓰기는 현실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밤이 되면, 노트북을 켜고 민석이를 만났습니다.
방황하고 좌절하느라 청춘을 흘려버리고 있는 저에게
꼭 민석이가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만난 뒤, 정말 모든 것이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불확실하던 미래에 이정표가 세워진 것만으로도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방황과 좌절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픈에서, 제게 글쓰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일은 두려운 것이지만,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이라 믿고 남은 청춘을 바쳐 치열하게 부딪쳐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지 않을지라도
당장은 모든 것을 다해 글쓰기를 미워해보고 사랑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써주시는
센터장님, 김성미 담당자님을 비롯한 모든 오픈 관계자님들, 사랑합니다.
오픈 5기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된 자랑스러운 동료 작가분들,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

2021 오픈 작품집 솟품

초판 발행.

2021년 12월 10일

글. 김다영, 김희진, 오혜원, 이민주
이보영, 임수림, 최보윤, 홍성연, 황설현

제작. 오픈

디자인. 권수진

교정 및 교열. 박은경

인쇄. 책공감

발행처. (주)씨제이엔엠

발행인. 강호성

등록번호. 제 2015-000016호

등록일자. 2015년 1월 13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1층

전화. 02-371-9211

ISBN 979-11-972691-4-1 (03680)

© CJ ENM, 2021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NM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ISBN 979-11-972691-4-1 (03680)